수호전

水滸傳 · 시내암 120회본(충의수호전)

제1권 (제0회 ~ 제12회)

시내암 (施耐庵, 약 1296–1372) 원작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2026-06-03

책 정보

원전

시내암 『수호전(水滸傳)』 120회본(충의수호전, 袁無涯 간행본 계열), 引首 + 120회

원전 출처

zh.wikisource.org/wiki/水滸傳_(120回本)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 MTP drafter (GB10 로컬)

번역 방식

2-pass: 회별 인물·사건 사실 시트 추출 → 본문 번역 (누적 사전으로 표기 일관성 강제)

발행

sosig.shop/book · 2026-06-03

번역 정책

- 인명·지명은 한국 한자음(宋江 → 송강, 林沖 → 임충)

- 별호는 본명으로 통일(及時雨 → 송강, 黑旋風 → 이규, 花和尚 → 노지심)
- 옛 번역투(~하더라/이라) 금지, 초등 고학년 가독성 목표
- "話說/卻說" → "이야기는 이러하다/한편", 詩曰/詞曰 → 시·사 형식 유지

>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술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읽을거리 한 권 더"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연구는 원전 또는 정식 번역본을 권합니다.

목차

引首 — 머리말 6

제1회 — 장 천사가 온역을 물리치기 위해 기우제를 지내고, 홍 태위가 실수로 요마를 풀어놓다 12

제2회 — 왕 교두가 몰래 연안부로 달아나고, 구문룡 사진이 사가촌을 발칵 뒤집다 31

제3회 — 사진이 밤에 화음현으로 달아나고, 노 제할이 주먹으로 진관서를 때려눕히다 86

제4회 — 조 원외가 문수원을 중수하고, 화화상 노지심이 오대산을 발칵 뒤집다 112

제5회 — 소패왕이 취하여 소금장에 들고, 화화상 노지심이 도화촌을 발칵 뒤집다 156

제6회 — 구문룡 사진이 전경길 적송림에서 길을 끊고, 화화상 노지심이 와관사를 불태우다 181

제7회 — 화화상 노지심이 버드나무를 뿌리째 뽑고, 표자두 임충이 잘못하여 백호당에 들다 202

제8회 — 임 교두가 창주도로 유배를 가고, 노 지심이 야저림을 발칵 뒤집다 236

제9회 — 시진이 천하의 손님을 문앞으로 불러들이고, 임충이 몽둥이로 홍 교두를 때리다 258

제10회 — 임 교두가 눈보라 치는 산신묘에서 풍파를 겪고, 육 우후가 초료장을 불태우다 289
제11회 — 주귀가 수정에서 화살을 쏘아 신호를 보내고, 임충이 눈 내리는 밤 양산보로 오르다 310
제12회 — 양산박 임충이 초야로 숨어들고, 변경성 양지가 칼을 팔다 333

引首 — 머리말

서가 깊숙한 곳을 살펴보면, 빼어난 선비와 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그들은 허명과 적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으니 근심할 것도 없네.

얼음을 깎고 눈을 오려내듯, 담소하며 오구(吳鉤, 날카로운 칼)를 바라보네.

옛 왕과 뒤를 이은 황제들을 평하고, 진위를 가려내어 중원을 차지하려 하며, 일곱 영웅이 뒤엉켜 춘추의 세월을 어지럽히네.

흥망은 연약한 버드나무 같고, 인생은 허망한 빈 배와 같구나.

이름을 떨친 자도 수없이 많고, 자취를 남긴 이도 수없이 많으며, 이름을 피해 숨어든 이 또한 수없이 많네.

순식간에 초승달 아래 긴 강물은 흐르고, 강호의 풍경은 상전벽해처럼 변해 옛길은 아득하구나.

물고기를 잡으려 나무에 오르는 것이 헛된 수고인지, 궁지에 몰린 원숭이가 나무를 가려 고르는 것인지, 아니면 활에 상할까 두려워 굽은 나무를 멀리하는 것인지 알 수 없네.

차라리 손바닥 안의 술잔을 뒤집어 놓고, 다시금 새로운 노래와 가락을 들어보세.

어지럽게 흩어졌던 오대의 난리 속에서,
어느 날 구름이 걷히고 다시 하늘이 보이네.
풀과 나무는 백 년 만에 새 이슬을 머금고,
수레와 책은 만 리 너머 옛 강산을 달리네.
평범한 골목길엔 비단 옷차림이 가득하고,
곳곳의 누각에서는 악기 소리 울려 퍼지네.
사람들은 태평성대의 평온함을 즐기며,
꾀꼬리와 꽃 사이에서 낮잠을 달콤하게 자네.

이야기는 이러하다. 앞서 말한 여덟 구절의 시는 송나라 신종 시대의 명유로, 성은 소(邵), 이름(諱)은 요부(堯夫)이며 도호가 강절(康節) 선생인 소요부가 지은 것이다. 오대십국의 혼란스러운 시절, 천하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탄식하며 쓴 시였다. 당시에는 아침에는 양나라에 속했다가 저녁에는 진나라에 속할 만큼 어지러웠으니, 이를 일컬어 “주, 이, 석, 유, 곽 다섯 성씨와 양, 당, 진, 한, 주 다섯 나라, 모두 합쳐 열다섯 제왕이 쉰 해 동안 천하를 어지럽혔도다”라고 하였다.

그러다 하늘의 이치가 순환하는 것에 감응하여, 갑마영에서 태조 무덕황제가 태어났다. 성인이 세상에 나니 붉은 빛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신비로운 향기가 밤새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이는 상계의 벽력대선이 강림한 것이었다. 태조는 영웅적이고 용맹하며 지혜와 도량이 넓었다. 예로부터 그 어떤 제왕도 이 천자만 못하였으니, 몸 높이만 한 몽둥이 하나로 사백 군주(軍州, 군사 행정구역)를 쳐서 모두 조씨(趙氏)의 천하가 되게 하였다. 천자는 천하를 깨끗이 청소하고 중원을 평정하여 국호를 대송이라 정하고 변량에 도읍을 세웠다. 아홉 대 여덟 황제의 으뜸이요, 사백 년 기틀을 연 제국의 시조가 된 것이다. 이에 소요부 선생은 다음과 같이 찬양하였다.

"한순간 구름이 걷히고 다시 하늘이 보이니"

이는 마치 백성들이 다시금 밝은 태양 아래서 평화로운 얼굴을 마주하게 된 것과 같다는 뜻이었다.

이 선생의 찬양은 바로 이러한 뜻이었다. 한편, 당시 서악 화산에는 진단처사라는 이가 있었는데, 도가 매우 높고 덕이 있어 천하의 기운과 풍운의 변화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가 나귀를 타고 산을 내려가 화음(華陰) 가는 길을 지나가던 중에, 길 가던 손님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제 동경의 시세종(柴世宗)께서 조검점(趙檢點)에게 자리를 물려주어 (조검점이) 즉위하신다더군." 진단처사가 이 말을 듣고는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손으로 이마를 짚고 나귀 등 위에서 크게 웃다가 그만 나귀에서 굴러떨어졌다.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묻자, 선생이 말했다. "이제 천하가 평정되겠구나!" 이는 위로는 하

늘의 뜻에 부합하고, 아래로는 땅의 이치에 맞으며, 가운데로는 사람의 화합에 딱 들어맞는 일이었다.

경신년(庚申年)에 선위를 받아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즉위하니, 재위 17년 동안 천하가 태평하였으니 이로써 천하가 안정을 찾은 것이다. 이어 황제는 어제(御弟, 황제의 동생)인 태종에게 자리를 물려주었다. 태종 황제가 22년 동안 재위하다가 태자에게 자리를 물려주어 즉위하게 하였다.

이 왕조의 황제는 바로 상계의 적각대선이 강림한 존재였다. 태자가 태어났을 때 밤낮으로 울음을 그치지 않자, 조정에서는 황방(黃榜, 나라의 방)을 붙여 의원을 부르도록 하였다. 이 소식이 천정에 닿아, 하늘에서 태백금성을 내려보내 노인의 모습으로 변하게 하여 황방을 보고 태자의 울음을 그치게 하였다. 방을 살피던 관원이 노인을 전하 앞으로 인도하니, 진종 천자를 알현하게 되었다. 황제는 성지를 내려 노인에게 내원(內苑)으로 들어가 태자를 살피라 하였다.

노인은 궁궐 안까지 들어가 태자를 품에 안고는, 귀에 대고 낮게 여덟 글자를 속삭였다. 그러자 태자가 곧 울음을 그쳤다. 노인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한 줄기 맑은 바람이 되어 사라졌다. 귀에 속삭였다는 여덟 글자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문에는 문곡이 있고, 무에는 무곡이 있다”였다. 이는 참으로 옥제가 자미궁의 두 별을 내려보내 이 왕조의 천자를 보필하게 한 것이었다. 문곡성은 남아(南衙) 개봉부의 부윤(府主)이자 용도각 대학사인 포증(包拯)이고, 무곡성은 서하를 정벌한 대원수인 적청(狄青)이었다.

이 두 현신이 나타나 황제를 보필하니, 묘호는 인종 천자라 하였다. 인종은 42년 동안 재위하며 아홉 개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천성 원년 계해년에 즉위하여 천성 9년에 이르기까지, 당시 천하는 태평하고 오곡이 풍성하며 만백성이 생업에 즐거이 종사하였다. 길에는 잃어버린 물건을 줍는 이가 없고, 집집마다 밤에도 문을 잠그지 않았다. 이 9년을 일컬어 '첫 번째 풍요(一登)'라 한다. 명도 원년부터 황우 3년까지의 9년 또한 풍족하였으니 이를 '두 번째 풍요(二登)'라 한다. 황우 4년부터 가우 2년까지의 9년은 곡식이 크게 풍년이었으니 이를 '세 번째 풍요(三登)'라 한다. 이처럼 연달아 세 번의 9년, 즉 27년 동안을 '삼등(三登)의 세상'이라 불렀다. 그 시절 백성들은 꽤나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즐거움이 극에 달하면 슬픔이 생겨나는 법이다. 가우 3년 봄, 천하에 역병이 성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강남에서부터 양경(兩京)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 병에 걸리지 않은 백성이 없었다. 천하의 각 주와 각 부에서는 마치 눈송이가 날리듯 역병의 상황을 보고하는 상소문이 빗발쳤다.

한편, 동경성 안팎의 군인과 백성 중 절반 이상이 병에 걸리고 말았다. 개봉부의 부윤 포증(包拯) 대제(待制)는 직접 혜민화제국(惠民和濟局)의 처방집(局方)을 가지고, 자신의 녹봉을 털어 약을 지어 만백성을 구제하고자 애썼다. 그러나 병을 고칠 길은 없고 역병은 갈수록 성해졌다. 이에 문무백관이 상의하여 모두 대루원(待漏院, 관원들이 새벽 조회를 기다리는 곳)에 모여 조회를 기다리며 천자에게 아뢰기로 하였다. 이는 오로지 기도를 올려 역병을 물리치고자 함이었다.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어찌 천강 36원과 지살 72좌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 송나라의 천지(天地)를 뒤흔들고 조씨 왕조의 사직을 어지럽히겠는가.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온 세상 백성들 화목하게 길러지는 가운데,
세 번의 풍년이 든 삼등(三登)의 세상은 즐거움이 끝이 없네.
예악의 소리 울려 퍼지던 태평성대가 어찌 알았으랴,
날카로운 칼과 창이 뒤엉킨 전쟁터로 변할 줄을.
수호의 진영에는 의로운 협객들이 모여들고,
양산박 안에는 영웅들이 구름처럼 모였구나.
난세와 태평, 흥망성쇠의 이치를 자세히 따져보니,
모두가 하늘과 땅의 오묘한 이치에 달려 있네.

제1회 — 장 천사가 온역을 물리치기 위해 기우제를 지내고, 홍 태위가 실수로 요마를 풀어놓다

張天師祈禳瘟疫 洪太尉誤走妖魔

이야기는 이러하다. 송나라 인종 황제가 다스리던 시절, 가우 3년 3월 3일 오경 삼점(새벽 3시경)에 황제가 자신전에 앉아 백관의 조하를 받고 있었다. 이때의 모습은 이러하다.

상서로운 구름은 봉황의 누각을 가리고, 상서로운 기운은 용의 궁궐을 감싸네.
안개 머금은 버드나무는 깃발을 스치고, 이슬 머금은 궁궐 꽃은 창검을 맞이하네.
천상의 향기 그림자 속에, 옥비녀와 붉은 신발 신은 이들이 붉은 뜰에 모여들고,
신선들의 음악 소리 속에는, 수놓은 옷과 비단옷 입은 이들이 어가를

받드네.
진주로 만든 발은 걷히고, 황금 전각 위로 현가 수레가 나타나며, 봉황 깃털 부채는 펼쳐지고, 백옥 계단 앞에는 보배로운 수레가 멈춰서네.
은은한 채찍 소리 세 번 울려 퍼지니, 층층이 늘어선 문무 백관이 일제히 맞이하네.

전두관(殿頭官)이 호통을 쳤다. 「볼일이 있는 자는 어서 줄에서 나와 아뢰고, 볼일이 없는 자는 휘장을 걷고 물러가라!」

그러자 줄을 선 관리들 사이에서 재상 조철과 참정 문언박이 앞으로 나와 아뢰었다. 「지금 경사에 온역이 널리 퍼져 군사와 백성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죄를 사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형벌을 줄이며 세금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의 재앙을 물리치는 의식을 지내어 만백성을 구제해 주시옵소서.」

황제가 이 말을 듣고 급히 한림원에 명하여 조서를 초안하게 했다. 한편으로는 천하의 죄수들을 사면하고 마땅히 내야 할 민간의 세금도 모두 면제해 주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사의 도관(道觀)과 사찰에 명하여 재앙을 물리치기 위한 의식을 거행하게 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해의 온역은 더욱 기승을 부렸다.

인종 황제는 이 소식을 듣고 옥체가 불편해지자, 다시 백관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이때 관리들 사이에서 한 대신이 줄을 넘어 올라와 아뢰었다. 황제가 보니 바로 참지정사 범중엄이었다. 그는 문안 인사를 마친 뒤 이렇게 말했다. 「지금 천재지변이 성행하여 군사와 백성

들이 도탄에 빠졌으니, 밤낮으로 겨우 목숨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사한천사(嗣漢天師)를 밤낮을 가리지 말고 조정으로 불러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분을 경사의 금원(禁院)으로 모셔와 '삼천육백 분(分) 나천대초(羅天大醮)'를 지내며 상제께 아뢰어야만 민간의 온역을 막아 백성을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종 황제가 이를 허락했다. 황제는 급히 한림학사에게 조서 한 통을 초안하게 한 뒤, 직접 붓을 들어 글을 쓰고 어향(御香) 한 대를 내렸다. 이어 흠차내외제점(欽差內外提點)이자 전전태위인 홍신을 천사(天使, 황제의 사신)로 임명하여, 강서 신주 용호산으로 보내 사한천사 장진인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조정으로 모셔와 온역을 물리치는 기도를 올리게 했다. 금전(金殿)에 어향을 피운 뒤, 황제는 직접 쓴 단조(丹詔, 붉은 조서)를 홍신 태위에게 전달했고, 홍신은 즉시 길을 떠났다.

홍신은 어명을 받들어 황제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는 조서를 등에 메고 황제의 향을 정중히 받들어 모신 채, 수십 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길을 나섰다. 일행은 동경을 떠나 곧장 신주 귀계현을 향해 달려갔다. 이때의 모습은 이러하다.

멀리 산은 푸름을 겹쳐 쌓고, 먼 물은 맑게 비치네.
기이한 꽃은 비단처럼 숲에 펼쳐졌고, 어린 버들 금실처럼 땅을 스치며 춤추네.
바람은 온화하고 햇살은 따스하니, 어느덧 들판의 작은 마을을 지나고;

길은 곧고 모래는 평탄하니, 밤에는 역참에 머무네.
비단옷은 속세의 붉은 먼지 속에서 너울거리고, 준마는 번화한 거리 속을 달려가네.

한편, 태위 홍신은 어명을 받들어 든 채 일행을 이끌고 길을 떠났다. 하루 이틀이 지나 일행은 강서 신주에 도착했다. 그곳의 크고 작은 관리들이 성 밖으로 나와 마중을 나왔고, 곧바로 사람을 보내 용호산 상청궁의 주지와 도사들에게 어명을 전달할 준비를 하라고 알렸다.

다음 날, 관리들이 함께 홍신 태위를 모시고 용호산 아래까지 내려갔다. 상청궁의 수많은 도사가 종과 북을 울리고, 향과 꽃, 등불과 촛불을 밝히며, 깃발과 보개(불교나 도교 의식에서 쓰는 장식용 덮개)를 앞세운 채 신선들의 음악 같은 소리를 울리며 산 아래로 내려와 어명을 맞이했다. 이들은 상청궁 앞까지 홍신을 모셔온 뒤에야 말을 멈추었다. 태위가 그 궁전을 바라보니, 과연 대단히 훌륭한 상청궁이었다! 그 모습은 이러하다.

푸른 소나무는 굽이굽이 뻗어 있고, 비취빛 측백나무는 울창하여 그늘이 깊다. 문에는 어명을 적은 현판이 금색 글자로 걸려 있고, 문가에는 영험한 부적들이 옥빛 전서체로 늘어서 있다. 허황단(虛皇壇) 곁에는 버드나무와 이름난 꽃들이 아스라이 늘어져 있고, 약을 달이는 화로 주변에는 푸른 소나무와 오래된 노송나무가 어우러져 있다. 왼쪽 벽면에는 천정(天丁)과 역사가 태을진군을 모시고 있으며, 오른쪽에는 옥녀와 금동이 자미대제를 받들어 모시고 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칼을 짚은 채 거북과 뱀을 밟고 선 북방의 진무(眞武)와, 신을 끌고 관을 쓴

채 용과 호랑이를 굴복시킨 남극노인이 보인다. 앞줄에는 이십팔수 성군들이 늘어서 있고, 뒷줄에는 서른두 분의 천제(三十二帝天子)가 줄을 잇고 있다. 계단 아래로는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담장 뒤로는 아름다운 산들이 둘러싸고 있다. 머리에 붉은 깃을 가진 학과 초록빛 긴 털을 가진 거북이 노닌다. 나무 끝에서는 푸른 원숭이가 열매를 바치고, 풀숲 사이에서는 흰 사슴이 영지를 물고 있다. 삼청전 위에서는 도사들이 금종을 울리며 보허사(步虛詞)를 읊고, 사성당 앞에서는 진인들이 옥경(玉磬)을 두드리며 북두(北斗)에 예를 올린다. 향을 올리는 제단 섬돌에는 채색 노을빛이 푸른 유리기와에 쏟아지고, 장수를 부르는 요단(瑤壇)에는 붉은 햇빛 그림자가 붉은 마노 위에서 일렁인다. 이른 아침 문밖에 상서로운 구름이 나타나니, 마치 천사가 노군(老君)을 모시고 오는 듯하다.

그 자리에서 주지 진인부터 도동과 시종들에 이르기까지, 앞에서는 맞이하고 뒤에서는 안내하며 홍신 태위를 삼청전 위로 모셔갔다. 그리고는 어명을 가운데에 모셔 정중히 공양하게 했다. 홍신 태위가 궁을 관리하는 진인(監宮眞人)에게 물었다. 「천사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주지 진인이 앞으로 나아가 아뢰었다. 「태위께 아뢰옵니다. 이번 대의 조사님은 허정천사(虛靖天師)라 불리시는데, 성품이 매우 청고하여 사람들을 맞이하고 배웅하는 일을 번거로워하십니다. 그래서 몸소 용호산 꼭대기에 초암을 짓고 수행하며 본성을 닦고 계시기에, 본궁에는 머물지 않으십니다.」 태위가 말했다. 「지금 천자가 어명을 내리셨는데, 어찌하면 뵐 수 있겠는가?」 진인이 대답했다. 「아뢰옵건대, 어명은 우선 전각 위에 모셔져 있으나 저희 같은 미천한 이들은 감히 열어 읽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태위께서 방장(方

丈)으로 가셔서 차를 드시며 다시 의논하시기를 청합니다.」 이때 어명을 삼청전에 모셔둔 채, 태위는 다른 관리들과 함께 방장으로 향했다. 태위가 가운데에 앉자 시종들이 차를 올렸고, 이어 물에서 나는 것과 뭍에서 나는 것이 두루 갖추어진 정갈한 재공(齋供)이 차려졌다. 식사를 마친 뒤 태위가 다시 진인에게 물었다. 「천사께서 산꼭대기 초암에 계시다면, 어찌 사람을 보내 모셔 내려와 어명을 선포하게 하지 않는단 말인가?」 진인이 아뢰었다. 「이번 조사님께서는 비록 산꼭대기에 계시나, 그 도행이 매우 비범하시어 안개를 타고 구름을 일으키며 종적이 일정치 않으십니다. 저희들도 평소에 뵙기가 이토록 어려운데, 어찌 사람을 보내 모셔올 수 있겠습니까?」 태위가 말했다. 「그럼 어찌해야 만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경사에 온역이 성행하고 있어, 천자께서 특별히 나 같은 하관을 보내 어서(御書)로 쓴 단조(丹詔)를 받들고 친히 용향(龍香)을 받들어 천사를 모셔, 삼천육백 분(分) 나천대초(羅天大醮)를 지내 천재지변을 물리치고 만백성을 구제하고자 하신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진인이 아뢰었다. 「천자께서 만백성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오직 태위께서 한 점 지극한 정성을 보이셔야 합니다. 재계하여 몸을 깨끗이 하고, 평복으로 갈아입으신 뒤, 수행원을 거느리지 말고 직접 어명을 등에 지고 어향을 피우며 걸어서 산에 올라 절하며 천사께 간청해야만 비로소 뵐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마음속에 정성이 지극하지 못하다면, 헛되이 발걸음만 하고 결코 뵐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태위가 말했다. 「나는 경사에서부터 채식을 하며 여기까지 왔으니, 어찌 정성이 지극하지 않겠는가. 정 그렇다면 그대의 말대로 하겠소. 내일 반드시 이른 아침에 산에 오르겠소.」 그날 밤은 각자 잠시 휴식을 취했다. 다음 날 오경(五更) 무렵, 도사들이 일어나 향탕(香湯)을 준비하고 태위를 청해 목욕하게 했다. 태위는 새

평복으로 갈아입고 발에는 삼베신과 짚신을 신었다. 채식을 마친 뒤 어명을 가져와 황라(黃羅) 보자기로 싸서 등에 지고, 손에는 은 향로를 들고 어향을 솔솔 피워 올렸다. 수많은 도사들이 태위를 뒷산까지 배웅하며 길을 일러 주었다. 그때 진인이 다시 아뢰었다. 「태위께서 만백성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도중에 물러나거나 후회하는 마음을 품지 마시고 오직 정성을 다해 올라가십시오.」

태위는 사람들과 작별하고 천존(天尊)의 보배로운 명호(寶號)를 입으로 외우며 성큼성큼 산을 올랐다. 산 중턱에 이르자 산꼭대기가 마치 하늘 끝까지 닿을 듯 솟아 있는 것이 보이니, 과연 참으로 장엄한 큰 산이었다! 바로 이러하였다.

뿌리는 땅 구석에 박혀 있고, 꼭대기는 하늘의 중심과 맞닿아 있구나. 멀리서 보면 어지러운 구름의 흔적을 깎아낸 듯하고, 가까이서 보면 밝은 달의 정기를 삼켜버린 듯하네. 높낮이가 다르면 산이라 하고, 옆으로 뻗은 바위 사이 길은 소(岫, 골짜기)라 하며, 외로운 고개 험한 길은 로(路)라 하고, 위가 아주 평평하면 정(頂, 꼭대기)이라 한다. 머리는 둥글고 아래가 웅장하면 란(巒, 산봉우리)이라 하고, 호랑이와 표범이 숨어 있으면 혈(穴)이라 하며, 바람과 구름이 숨어 있으면 암(巖, 바위)이라 하고, 고인이 은거하면 동(洞, 동굴)이라 한다. 경계와 영역이 있으면 부(府, 관청이나 집)라 하고, 나무꾼이 드나들면 경(徑, 오솔길)이라 하며, 수레와 말이 다닐 수 있으면 도(道, 길)라 하고, 흐르는 물소리가 들리면 간(澗, 산골짜기 시내)이라 한다. 옛 나루터의 근원이 되는 곳은 계(溪, 시내)라 하고, 바위 절벽에서 물이 떨어지면 천(泉, 샘)이라 한다. 왼쪽 벽은 가로막고 오른쪽 벽은 비치니, 나가는 것은

구름이요 들어오는 것은 안개로다. 뾰족한 끝은 작아 보이고, 험준한 모습은 가파르며, 허공에 매달린 듯 위태롭고, 깎아지른 듯 평탄하구나. 천 개의 봉우리는 빼어나기를 다투고, 만 개의 골짜기는 물줄기를 다투며, 폭포는 비스듬히 날아오르고 덩굴은 거꾸로 매달려 있도다. 호랑이가 포효하면 바람이 골짜기 입구에서 일고, 원숭이가 울부짖으면 달이 산허리에 떨어지는 듯하네. 마치 푸른 먹으로 물들인 천 개의 옥덩이 같고, 푸른 비단으로 감싸 안은 만 개의 안개 더미 같구나.

홍신 태위는 홀로 길을 나아가 굽이진 고갯길과 오솔길을 지나며 칡넝쿨을 붙잡고 덩굴을 타고 올랐다. 대략 산봉우리 몇 개를 지나 두세 리 남짓한 길을 걸었을까, 슬슬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져 더는 걷기 힘들어졌다. 입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으나 속으로는 망설이며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조정의 귀한 관리로서, 경사에 있을 때는 폭신한 요를 겹겹이 깔고 누워 솥을 늘어놓고 진수성찬을 먹으면서도 늘 나른함을 느끼곤 했는데, 어찌 짚신을 신고 이런 산길을 걸어야 한단 말인가! 천사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어찌 이 하관에게 이런 고생을 시킨단 말인가!'

그는 채 서른에서 쉰 걸음(三五十步)도 더 가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숨을 헐떡였다. 그때 산골짜기에서 갑자기 바람 한 줄기가 일더니, 바람이 지나간 소나무 뒤편에서 마치 천둥이 치는 듯한 포효 소리가 울리며, 눈초리가 치켜 올라가고 이마가 흰, 비단 무늬 털의 커다란 호랑이(錦毛大蟲) 한 마리가 땅에서 튀어나왔다. 홍신은 깜짝 놀라 「아이고!」 하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큰 호랑이를 훔쳐보았는데,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온몸은 황금빛 털로 뒤덮였고,
열여덟 개의 은빛 갈고리 같은 발톱이 드러났네.
눈은 번개처럼 빛나고 꼬리는 채찍 같으며,
입은 피가 담긴 대야 같고 이빨은 창과 같구나.
허리를 펴고 팔을 벌린 기세는 흉측하고,
꼬리를 흔들며 머리를 흔드니 소리는 천둥 같네.
산속의 여우와 토끼는 모두 숨어버리고,
시냇가의 노루와 사슴은 모두 자취를 감추었네.

그 거대한 짐승은 홍신을 노려보며 왼쪽으로 한 바퀴, 오른쪽으로 한 바퀴 빙글빙글 돌더니, 한바탕 포효를 내지르고는 뒷산 고갯길 아래로 껑충 뛰어 내려갔다. 홍신은 나무뿌리 아래에 쓰러져 서른여섯 개의 이빨을 사정없이 맞부딪치며 덜덜 떨었고, 심장은 마치 열다섯 개의 물통이 위아래로 요동치듯 쿵쾅거리며 요동쳤다. 온몸은 마치 중풍이라도 걸린 듯 감각이 없고, 두 다리는 싸움에서 패한 수탉처럼 힘없이 풀린 채 입으로는 연신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했다.

거대한 짐승이 떠나고 한참 동안 시간이 흐른 뒤에야 홍신은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향로를 다시 추스르고 용향(龍香, 귀한 향의 일종)을 피워 올린 뒤, 반드시 천사를 찾아내겠다는 일념으로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다시 서른에서 쉰 걸음(三五十步)쯤 더 나아간 홍신은 입으로 연신 한숨을 내쉬며 원망스럽게 중얼거렸다. 「황제 폐하께서 기한을 정해 어명을 내려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더니, 결국 이런 공포를 겪게 만드시는구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디선가 또 한바탕 바람이 불어닥치더니, 독한 기운이 곧장 그를 향해 몰아쳤다. 홍신이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니, 산기슭의 대나무와 덩굴 사이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두레박만 한 크기의, 눈꽃처럼 하얀 뱀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 홍신은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에 든 향로를 내던지고는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이번에 나는 죽었구나!」 그는 그대로 뒤로 넘어져 반타석(盤陀石, 평평한 너럭바위) 옆에 쓰러졌다. 그러고는 눈을 살짝 떠서 그 뱀을 살펴보았는데,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고개 들어 보니 거센 바람 일고
눈을 돌리니 번갯불 번쩍이네.
요동치면 협곡과 언덕이 무너지고
숨을 내쉬면 구름과 안개가 뿜어져 나오네.
비늘 갑옷은 천 개의 옥 조각처럼 흩날리고
꼬리 끝은 은빛 더미처럼 휘감겨 도네.

그 거대한 뱀은 곧장 반타석 옆으로 달려오더니 홍신을 향해 한 무더기로 똬리를 틀었다. 뱀의 두 눈에서는 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왔고, 커다란 입을 벌려 혀를 내밀며 홍신의 얼굴에 독기를 내뿜었다. 그 바람에 홍신은 삼혼(三魂)이 흩어지고 칠백(七魄)이 아득해질 만큼 소스라치게 놀랐다. 뱀은 홍신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산 아래로 쏜살같이 내려가 어느새 사라져 버렸다.

그제야 겨우 몸을 일으킨 홍신이 말했다. 「부끄럽구나! 정말 놀라 죽을 뻔했네!」 그가 제 몸을 살펴보니, 온몸에 돋은 소름(寒栗子)이 골탁(餶飿, 만두 비슷한 음식)만큼이나 크게 돋아 있었다. 그는 도사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괘씸하고 무례한 놈들! 감히 나를 놀려 이토록 공포에 떨게 하다니! 만약 산 위에서 천사를 찾지 못한다면, 내려가서 반드시 따로 따져 물으리라.」 그는 다시 은 향로를 챙기고, 몸에 진 조서(詔敕)와 의복, 두건(巾幘)을 정돈한 뒤 다시 산을 오르려 했다. 막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어디선가 소나무 뒤편에서 은은한 피리 소리가 들려오더니 점점 가까워졌다. 홍신이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니, 한 목동이 황소를 거꾸로 타고 철피리를 옆으로 불며 산골짜기에서 돌아 나오고 있었다. 홍신이 그 목동을 바라보니 이러하였다.

머리에는 두 갈래 쪽머리를 틀어 올리고, 몸에는 푸른 옷 한 벌 걸쳤네.
허리춤에는 풀을 엮어 만든 끈을 맸고, 발에는 삼베로 짠 짚신을 신었네.
맑은 눈동자와 하얀 치아는 맑고 깨끗하여 먼지 하나 묻지 않은 듯하고,
푸른 머리카락과 붉은 얼굴은 빛나고 생생하여 세속의 때가 전혀 없네.

옛날 여동빈이 지은 목동에 관한 시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러하다.

풀은 들판 가득 육칠 리(里)에 깔려 펼쳐졌고,
저녁 바람에 피리 소리 서너 가락 들려오네.

해 저문 뒤 돌아와 배불리 밥 먹고는,
도롱이도 벗지 않은 채 밝은 달 아래 누웠네.

그 목동은 싱글벙글 웃으며 황소를 타고 철피리를 옆으로 불며 산을 넘어오고 있었다. 홍신이 그 모습을 보고 목동을 불러 물었다. 「너는 어디서 오느냐? 나를 알아보겠느냐?」 하지만 목동은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피리만 불어댔다. 홍신이 연달아 몇 번을 더 묻자, 목동은 허허 크게 웃더니 철피리를 손에 들고 홍신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곳에 오신 걸 보니, 혹시 천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홍신은 깜짝 놀라 물었다. 「네가 목동인데 어찌 그것을 아느냐?」 목동이 웃으며 답했다. 「제가 오늘 아침 초암에서 천사를 모시고 있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의 황제께서 홍 태위를 보내 단조(丹詔, 붉은 조서)와 어향(御香)을 받들고 산으로 오게 하셨으니, 나더러 동경으로 가서 삼천 육백 분(分) 나천대초(羅天大醮)를 지내 천하의 온역을 물리치라 하셨다. 나는 이제 학을 타고 구름을 몰아 떠나노라.』 아마 지금쯤이면 이미 떠나셔서 초암에는 안 계실 것입니다. 더 올라가지 마십시오. 산속에는 독충과 맹수가 아주 많으니, 혹여 목숨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홍신이 다시 물었다. 「네가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냐?」 목동은 웃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고, 다시 철피리를 불며 산비탈 너머로 사라져 버렸다. 홍신은 생각했다. '이 아이가 어찌 이 모든 일을 다 안단 말인가? 분명 천사가 미리 일러준 것이 틀림없구나.' 그는 다시 산에 오르려다가, 방금 전 겪었던 공포가 떠올랐다.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으니, 차라리 산을 내려가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홍신은 손 향로(提爐)를 챙겨 들고 다시 옛길을 찾아 산을 내려왔다. 도사들이 그를 맞이하여 방장(方丈)으로 모셔 앉혔다. 진인이 홍신에게 물었다. 「천사를 만나셨습니까?」 홍신이 말했다. 「나는 조정의 귀한 관리인데, 어찌 나에게 이 험한 산길을 걷게 하여 이토록 고생을 시키고 하마터면 목숨까지 잃게 만든단 말입니까? 산 중턱에서는 눈초리가 치켜 올라가고 이마가 흰 커다란 호랑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소관은 혼비백산하였고, 산모퉁이를 하나 더 돌자 대나무 덩굴 사이에서 눈처럼 하얀 큰 뱀이 튀어나와 똬리를 틀고 길을 막았습니다. 제 복이 커서 살아 돌아온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찌 경사로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모두 그대들 도사가 소관을 골탕 먹인 것이 분명합니다.」 진인이 대답했다. 「저희가 어찌 감히 대신을 홀대하겠습니까? 그것은 조사께서 태위의 마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 산에 뱀과 호랑이가 있다 하나, 사람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홍신이 다시 말을 이었다. 「마침 다리가 아파 더는 못 가겠다 싶어 다시 산비탈을 오르려는데, 소나무 옆에서 한 목동이 황소를 타고 철피리를 불며 산을 넘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느냐? 나를 알아보겠느냐?』 했더니, 그 아이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더군요. 천사께서 아침에 학을 타고 구름을 몰아 동경으로 떠나셨다는 말을 전하기에, 저는 그 말을 듣고 돌아온 것입니다.」 진인이 말했다. 「태위께서 아쉽게도 그분을 놓치셨군요. 그 목동이 바로 천사입니다.」 홍신이 되물었다. 「그분이 천사라면 어찌 저리도 초라한 모습이란 말입니까?」 진인이 답했다. 「이 대를 잇는 천사는 예사 인물이 아닙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나 도행(道行)은 매우 비범합니다. 그는 세속을 벗어난 분으로, 사방에 신통력을 나타내시니 지극히 영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를 도통조사(道通祖師)라 부릅니다.」 홍신이

말했다. 「내가 눈이 있어도 참된 스승을 알아보지 못하고 면전에서 놓치고 말았구나!」 진인이 말했다. 「태위께서는 부디 안심하십시오. 조사께서 법지(法旨)로 떠나셨다 하였으니, 태위께서 경사에 돌아가실 때쯤이면 이번 초사(醮事)도 모두 마쳤을 것입니다.」 그제야 홍신은 마음을 놓았다. 진인은 곧 연회를 준비하여 홍신을 대접하게 하고, 단조(丹詔)를 어서함(御書匣)에 넣어 상청궁에 보관하게 한 뒤, 용향(龍香)은 삼청전에 올려 향을 피우게 했다. 그날 방장에는 정갈한 재공이 푸짐하게 차려졌고, 잔치를 베풀어 저녁까지 술과 음식을 즐기다 밤이 깊어서야 잠자리에 들어 새벽까지 묵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진인과 도사들, 그리고 제점(提點)과 집사들이 홍신에게 산을 구경시켜 드리겠다고 청했다. 홍신은 크게 기뻐하며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방장을 나섰다. 앞장선 두 도동이 길을 안내하며 궁궐 앞뒤를 돌며 여러 경치를 구경시켜 주었다. 삼청전의 부귀함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왼쪽 회랑에는 구천전(九天殿), 자미전(紫微殿), 북극전(北極殿)이 있었고, 오른쪽 회랑에는 태을전(太乙殿), 삼관전(三官殿), 구사전(驅邪殿)이 늘어서 있었다.

여러 궁궐을 두루 구경하던 일행은 오른쪽 회랑 뒤편의 한곳에 다다랐다. 홍신이 보니, 그곳에 따로 떨어진 전각은 벽면 전체가 다진 산초를 섞은 붉은 진흙으로 발라져 있었고, 정면의 붉은 격자문 두 짝에는 팔뚝만 한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그 위에는 십자로 봉인지가 십여 장 겹겹이 붙어 있었는데, 봉인지마다 붉은 인장이 겹겹이 찍혀 있었다. 처마 앞에는 붉은 칠을 한 금색 편액이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금색 글자 네 자로 '복마지전(伏魔之殿)'이라 적혀 있었다.

홍신이 문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곳은 대체 어떤 곳입니까?」 진인이 대답했다. 「이곳은 전대의 노조사(老祖師)이신 천사께서 마왕을 가두어 진압하신 전각입니다.」 홍신이 다시 물었다. 「어찌하여 저렇게 봉인지를 겹겹이 붙여 놓은 것입니까?」 진인이 답했다. 「이곳은 노조사이신 대당(大唐)의 동현국사(洞玄國師)께서 마왕을 봉쇄하신 곳입니다. 대대로 천사가 한 대(代) 이어질 때마다 직접 봉인지를 한 장씩 덧붙여, 자자손손 함부로 열지 못하게 해 온 것입니다. 마군(魔君)이 빠져나오기라도 한다면 그 화가 매우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덟아홉 대의 조사를 거치는 동안 맹세코 누구도 감히 열지 못했습니다. 자물쇠는 구리물을 부어 주조한 것이니 그 안의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소도(小道)가 본궁의 주지를 맡은 지 삼십여 년이 되었으나, 그저 전해 들은 이야기뿐입니다.」

홍신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의아하고 괴이하게 여겨, '내 마왕이 어떤 놈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는 장진인에게 말했다. "그대들이 당장 문을 열어 보시오. 마왕이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내 직접 보겠소." 장진인이 간곡히 말했다. "태위님, 이 전각은 절대로 열 수 없습니다! 선대 천사께서 앞으로 누구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된다고 엄히 당부하며 경계하셨습니다." 홍신이 비웃으며 말했다. "헛소리 마시오! 당신들이 괴이한 일을 꾸며내어 선량한 백성들을 현혹하려고, 마왕을 가두어 다스린다는 핑계로 이런 곳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 도술을 과시하려는 것 아니오? 내가 책을 많이 읽었지만 마왕을 가두는 법 따위는 본 적이 없소! 신과 귀신은 저 멀리 저승에 있는 법인데, 내 보기엔 저 안에 마왕이 있을 리가 없소. 어서 빨리 문을 열어 보시오. 마왕이 어떤 놈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으니!"

장진인이 몇 번이고 거듭 간청했다. “이 전각을 열면 큰 재앙을 불러일으켜 사람을 해칠까 두렵사오니, 부디 열어서는 안 됩니다.” 홍신이 크게 노하여 도사들을 가리키며 호통을 쳤다. “당장 문을 열어 내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조정에 돌아가서 당신들 도사들이 황제의 조서를 받들기를 거부하고 천사를 만나지 못하게 방해한 죄를 먼저 고발할 것이오! 그다음에는 당신들이 마왕을 가두었다는 거짓을 꾸며내어 군민과 백성들을 선동하기 위해 이 전각을 사사로이 만들었다고 고발할 것이오. 그리하여 당신들의 도첩(승려나 도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을 모두 몰수하고, 멀고 험한 유배지로 보내 고생하게 만들 것이란 말이오!”

장진인과 도사들은 홍신의 권세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화공 도사 몇 명을 불러 먼저 봉인지를 떼어내게 하고 철퇴로 커다란 쇠사슬을 부수게 했다. 사람들이 문을 밀어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안은 칠흑같이 어두컴컴한 구멍뿐이었는데, 그 속은 이러하였다.

어둑어둑 고요하고, 아득하고 까마득하여, 수백 년 동안 햇빛 한 줄기 비치지 않았고, 억만년 세월 동안 밝은 달 그림자조차 보기 어려웠다. 남북을 가릴 수 없고, 동서조차 분간할 수 없으니, 검은 안개는 자욱이 피어올라 사람을 덮쳐 으스스하고, 차디찬 기운은 음산하게 몸을 파고들어 떨리게 한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요, 요괴들이 오가는 고장이라. 두 눈을 부릅떠도 마치 눈먼 자와 같고, 두 손을 뻗어도 손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늘 그믐날 밤(三十夜)처럼 캄캄하다가도, 어느새 오경(五更, 새벽녘)의 어스름 같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일제히 전각 안으로 들어갔으나,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홍신이 수하들에게 명하여 횃불 열댓 개를 밝혀 비추게 했다. 그러나 사방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중앙에 높이가 대여섯 자쯤 되는 석비 하나만이 서 있었다. 그 석비는 커다란 거북이 모양의 받침대 위에 놓여 있었는데, 받침대의 태반은 진흙 속에 파묻혀 있었다. 횃불을 비추어 비석을 살펴보니, 앞면은 온통 용이나 봉황이 춤추는 듯한 문양과 하늘의 글자, 부적 같은 기호들로 가득 차 있어 아무도 읽을 수 없었다. 그런데 비석 뒷면을 비추어 보니, '홍(洪)을 만나면 열린다'라는 네 글자가 커다랗게 새겨져 있었다.

이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첫째는 천강성이 마침 세상에 나올 때였고, 둘째는 송나라에 반드시 충신과 어진 선비들이 나타날 때였으며, 셋째는 운 좋게 홍신을 만났으니, 이 어찌 하늘이 정한 운명이 아니겠는가? 홍신은 이 네 글자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장진인에게 말했다.

"그대들이 나를 막으려 하더니, 어찌 수백 년 전부터 내 성씨가 여기에 적혀 있었단 말인가? '홍을 만나면 열린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는 분명 나더러 열어보라고 명하는 것이니 무엇이 문제겠는가. 내 생각에 이 마왕은 분명 저 석비 아래에 있을 것이네. 자네들 수하들은 나를 도와 화공 도사들을 더 불러오게. 그리고 괭이와 삽을 가져와서 저것을 파헤쳐 보자꾸나."

장진인이 황급히 간청했다.

"태위님, 파헤치시면 안 됩니다. 혹여 해가 되어 사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으니, 부디 신중하셔야 합니다."

홍신이 크게 노하여 호통을 쳤다.

"도사라는 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안단 말이냐? 비석에 분명 나를 만나면 열린다고 새겨져 있는데, 어찌 나를 막아서는가? 어서 사람들을 불러 열게 하라!"

장진인이 대여섯 번을 거듭하여 "불길한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라고 간곡히 말했으나, 홍신이 어찌 들으려 하겠는가. 결국 사람들을 모아 먼저 석비를 옆으로 눕힌 뒤, 다 함께 힘을 합쳐 거북 받침대를 파헤쳤다. 반나절이 지나서야 겨우 거북을 들어 올릴 수 있었다. 다시 그 아래를 파 내려가니 서너 자 깊이에서 사방 한 길 정도 되는 커다란 청석판이 나타났다. 홍신이 다시 파내라고 명령하자, 장진인은 또다시 괴로워하며 "안 됩니다"라고 만류했다. 그러나 홍신이 들을 리 만무했다. 결국 사람들이 그 석판을 한꺼번에 들어 올렸다.

석판 아래를 살펴보니, 그곳에는 끝을 알 수 없는 만장 깊이의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때 구멍 안에서 '콰르릉' 하는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결코 예사롭지 않았으니, 마치 이러하였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며, 큰 산이 흔들리고 봉우리가 무너지네.
전당강(錢塘江) 위에서는 파도 머리가 물결을 몰아 바다 어귀로 솟구쳐 나오고,
태화산(泰華山) 꼭대기에서는 거령신(巨靈神)이 산봉우리를 한 번 내리쳐 부수네.
공공(共工)이 분노하여 투구를 벗어 던지고 부주산(不周山)을 들이받아 무너뜨리고,

역사(力士)가 위력을 떨쳐 철퇴를 날려 진시황의 수레를 박살 내네. 한 줄기 바람은 천 그루 대나무를 꺾어 놓고, 십만 대군 속의 한밤중 천둥소리 같구나.

그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지자마자, 구멍 속에서 검은 기운 한 줄기가 솟구쳐 오르더니 전각 모퉁이 절반을 무너뜨렸다. 그 검은 기운은 하늘 높이 치솟더니, 이내 백여 갈래의 금빛으로 흩어져 사방팔방으로 퍼져 나갔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모두 달아났다. 괭이와 삽을 내팽개친 채 너 나 할 것 없이 전각 밖으로 정신없이 뛰쳐나가다가, 서로 밀치고 자빠지며 수없이 넘어졌다. 홍신은 너무 놀라 눈을 부릅뜨고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고, 얼굴색은 흙빛이 되었다. 그가 복도로 달려 나가니, 진인이 앞으로 나와 끊임없이 괴로워하며 탄식하고 있었다.

홍신이 물었다.

"도망친 저것들은 대체 무슨 요괴란 말이냐?"

장진인이 몇 마디 말을 이어가며 그 까닭을 설명해 주었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머지않아 황제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게 될 것이다. 마치 완자성에는 호랑이와 표범이 숨어 들고, 요아와에는 신비로운 교룡이 모여드는 형국이 되리라.

결국 용호산의 장진인이 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야기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2회 — 왕 교두가 몰래 연안부로 달아나고, 구문룡 사진이 사가촌을 발칵 뒤집다

王教頭私走延安府 九紋龍大鬧史家村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시 도관의 주지인 진인이 홍태위에게 말했다. '태위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이 전각은 본래 조사(祖師)이신 노천사 동현진인께서 법부(法符, 도술의 부적)를 전해 주시며 이렇게 당부하신 곳입니다. 「이 전각 안에는 서른여섯 명의 천강성(天罡星)과 일흔두 명의 지살성(地煞星), 모두 합쳐 백여덟 마귀가 갇혀 있다. 그 위에 돌비석을 세우고 용과 봉황 무늬의 천부(天符) 글자를 새겨 이들을 눌러 가두어 두었으니, 만약 이들을 세상에 풀어놓는다면 반드시 인간 세상의 생령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태위께서 그들을 풀어 달아나게 하셨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시로 이르되,

천고에 닫혀 있던 그윽한 문이 하루아침에 열리니, / 천강성과 지살성(108 마성)이 저승에서 솟아 나오는구나. / 예부터 일 없는 데서 공연

히 일이 많이 생기는 법, / 본래 재앙을 물리치려던 것이 도리어 재앙을 불러왔도다. / 사직(나라)은 이제부터 구름처럼 어지러워지고, / 곳곳에서 병란의 소동이 시끌벅적 벌어지리라. / 간신 고구가 비록 미워할 만하나, / 홍신이 이제부터 화근의 씨앗을 빚어내었구나.

그 말을 들은 홍태위는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부들부들 떨림을 멈추지 못했다. 그는 급히 짐을 챙겨 하인들을 거느리고 서둘러 산을 내려와 도성으로 돌아갔다. 진인과 여러 도사들은 홍태위를 전송하고 나서 다시 도관 안으로 돌아가, 전각을 수리하고 돌비석을 세웠으니, 이 일은 더 말하지 않기로 한다.

한편, 홍태위는 도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인들에게 단단히 일렀다. '요마들이 풀려난 일은 절대 바깥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혹여 천자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책망하실까 두렵구나.' 그는 길에서는 별다른 말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둘러 도성으로 돌아갔다. 변량성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이렇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천사께서 동경의 금원(궁중 도량)에서 이레 밤낮 동안 법사(法事)를 베푸셨다네. 부적을 널리 베풀어 재앙과 병을 물리치시니 온역이 모조리 사라지고 군사와 백성이 모두 평안해졌지. 천사께서는 조정에 하직 인사를 올리신 뒤 학을 타고 구름을 몰아 스스로 용호산으로 돌아가셨다더군.' 이튿날 이른 아침 조회에서 홍태위는 천자를 알현하고 이렇게 아뢰었다. '천사께서 학을 타고 구름을 몰아 먼저 도성에 당도하셨고, 신들은 역참을 거쳐 오느라 이제야 겨우 이곳에 당도하였나이다.' 인종은 그 아룀을 윤허하고 홍신에게 상을 내려 예전의 직책으로 복직시켰으니, 이 또한 더 말하지 않기로 한다.

그 후 인종 천자가 재위한 지 마흔두 해 만에 승하하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여 태자가 없었다. 이에 태종 황제의 손자인 복안의왕 윤양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니, 황제의 칭호를 올려 영종이라 하였다. 영종은 4년 동안 재위하다가 태자 신종에게 자리를 물려주었다. 신종은 18년 동안 재위하다가 태자 철종에게 자리를 물려주었다. 그 무렵 천하는 온통 태평성대를 이루어 사방에 아무런 난리가 없었다.

한편, 동경 개봉부 변량의 선무군에 성이 고(高) 씨이고 항렬이 둘째인 한 부랑 파락호(破落戶) 자제가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업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그저 창질과 봉술만 익혔는데, 특히 기구(氣毬, 공차기)를 차는 솜씨가 가장 뛰어났다. 도성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그를 고이(高二)라 부르지 않고 모두 '고구(高毬)'라고 불렀다. 훗날 그가 출세하게 되자, '기구(氣毬)'의 '毬' 자에서 '터럭 모(毛)' 변을 떼어내고 '사람 인(亻)' 변을 붙여, 성은 고(高), 이름은 구(俅)로 고쳐 썼다. 이 사람은 악기 연주와 노래·춤, 창질과 봉술, 씨름과 놀이판은 물론, 시·서·사·부 같은 글공부도 어설프게나마 익혔다. 다만 인·의·예·지·신·행·충·양 같은 덕목이라면 도무지 알지 못했다. 그저 동경 성 안팎을 떠돌며 한량 노릇이나 할 뿐이었다. 그러다 생철(生鐵) 왕 원외(員外)의 아들이 돈을 펑펑 쓰는 일을 거들며 어울려 지내던 중, 날마다 와사(瓦舍) 같은 환락가를 드나들며 주색과 풍류로 방탕하게 놀아댔다. 그러다 그 아버지가 개봉부에 고발장을 한 장 올리니, 부윤(府尹)은 고구에게 척장(脊杖) 스무 대를 치게 한 뒤 관할 경계 밖으로 유배 보내 내쫓았다. 게다가 동경 성 안의 백성들은 그가 집에 머물며 먹고 자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고구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회서(淮西) 임회주(臨淮州)로 가서, 그곳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는 한량 류대랑(柳大郎), 곧 류세권

(柳世權)에게 몸을 의탁했다. 류세권은 평소 손님 대접하기와 한량 거두기를 즐겨 사방의 떠돌이 사내들을 받아들이곤 했다. 고구는 류대랑의 집에 의탁하여 내리 3년을 머물렀다.

그 후 철종 천자가 남교에서 제사를 지내니, 바람과 비가 순조로워지는 감응이 있어 천하의 죄인들을 너그럽게 사면하였다. 임회주에 있던 고구는 사면령이 내려지자 동경으로 돌아갈 궁리를 했다. 마침 류세권은 동경 성 안 금량교 아래에서 약방을 운영하는 동장사와 친척 관계였기에, 고구에게 보낼 편지를 쓰고 약간의 사례금과 여비를 챙겨주었다. 그리하여 고구는 동장사의 집으로 가서 살아가기 위해 동경으로 떠나게 되었다.

당시 고구는 류대랑에게 작별을 고하고 짐 보따리를 등에 진 채 임회주를 떠났다. 그는 길을 따라 동경으로 돌아와 금량교 아래 동장사의 약방으로 곧장 가서 그 편지를 건넸다. 동장사는 고구를 보고 류세권이 보낸 편지를 읽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 고구를 우리 집에 어떻게 머물게 한단 말인가! 만약 지극히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집에 드나들게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것을 배우게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그저 빌붙어 사는 파락호라 신의가 없는 자다. 게다가 예전에 죄를 지어 유배까지 다녀온 자이니 옛 버릇을 결코 고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집에 머물게 했다가는 도리어 아이들이 나쁜 것을 배울까 걱정이고, 그렇다고 거두지 않자니 류대랑의 체면을 봐서 그럴 수도 없구나.' 동장사는 어쩔 수 없이 짐짓 매우 반가운 척하며 그를 집에 머물게 하고 날마다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그렇게 열흘 남짓 지낸 뒤, 동장사는 한 가지 방도를 생각해 내고는 옷 한 벌을 내오고 편지 한 통을 써

서 고구에게 말했다. '소인의 집은 반딧불만 한 빛이라 남을 환히 비출 만하지 못하니, 훗날 족하(足下)의 앞길을 그르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족하를 소소학사(小蘇學士)께 돌려 천거해 드리고자 하니, 머지않아 출셋길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족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고구는 크게 기뻐하며 동장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동장사는 사람을 시켜 편지를 들려 보내 고구를 학사부로 안내하게 했다. 문지기가 안에 알리자 소소학사가 나와 고구를 만나 보고 그 편지를 읽고는, 고구가 본래 빌붙어 노는 부랑한 자임을 알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을 내 집에 어떻게 머물게 한단 말인가! 차라리 인심이나 쓰는 셈 치고, 부마 왕진경(王晉卿)의 집에 천거하여 친수(親隨)로 삼게 하는 편이 낫겠다. 사람들이 그를 「소왕도태위(小王都太尉)」라 부르는데, 그는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을 좋아하니 말이다.' 그리하여 동장사에게 답장을 써 보내고 고구를 학사부에서 하룻밤 묵게 했다. 이튿날 추천서를 한 통 써서 일 잘하는 하인을 시켜 고구를 그 소왕도태위의 처소로 데려다 주게 했다.

이 태위(왕진경)는 철종 황제의 매제이자 신종 황제의 부마였다. 그는 풍류를 아는 인물을 좋아했던 터라 마침 이런 부류의 사람이 쓸모가 있었다. 소소학사가 사람을 시켜 편지와 함께 고구를 보내오자, 인사를 받고는 곧 기뻐하였다. 그는 즉시 답장을 써서 고구를 집안에 거두어 친수(親隨)로 삼았다. 이때부터 고구는 좋은 기회를 만나 왕도태위의 집을 마치 한집안 식구처럼 드나들게 되었다. 예부터 이르기를 '날이 갈수록 멀어지기도 하고, 날이 갈수록 가까워지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소왕도태위가 생일잔치를 맞아 집안에 연회를 차리도록 분부하고, 특별히 처남인 단왕(端王)을 청하였다. 이 단왕은 신

종 천자의 열한 번째 아들이요 철종 황제의 아우로, 지금 동가(東駕)를 관장하며 서열로는 구대왕(九大王)이라 불리는, 총명하고 준수한 인물이었다. 그는 부랑 자제들의 풍류와 한량 노름에 관한 일이라면 모르는 것이 없고, 못 하는 것이 없으며, 좋아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를테면 거문고·바둑·글씨·그림에 두루 통달했고, 공차기와 탄궁 쏘기, 피리 불기와 현악기 타기, 악기 연주와 노래·춤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날 왕도태위의 집에서는 물과 뭍의 산해진미를 두루 갖추어 연회를 준비하였으니, 그 광경을 보자면 이러하였다.

향로에서는 향기가 피어오르고, 금병에는 꽃이 꽂혀 있었다. 선음원에서는 새로운 곡조를 다투어 연주하고, 교방사에서는 기예를 뽐내느라 여념이 없었다. 수정 항아리 안에는 자부(紫府)의 신선이 마시는 듯한 명주가 가득했고, 호박 잔 속에는 요지(瑤池)의 옥액 같은 술이 넘실거렸다. 대모 쟁반에는 신선이 먹는다는 복숭아와 진귀한 과일들이 쌓여 있었고, 유리 그릇에는 곰 발바닥과 낙타 발굽 요리가 차려져 있었다. 회는 은사처럼 가늘고 정교하게 썰려 나왔고, 차는 꽃술처럼 고운 찻잎을 달여 올렸다. 붉은 치마를 입은 무희들은 악기 소리에 맞춰 춤을 추었으며, 비취색 소매를 입은 가희들은 온갖 관악기를 받쳐 들고 노래를 불렀다. 계단 앞에는 보석으로 장식한 여인들이 줄지어 서 있고, 연회장 안은 흥겨운 악기 소리와 노래로 가득했다.

한편, 단왕이 왕도태위의 집으로 연회에 참석하러 왔다. 태위는 자리를 마련하여 단왕을 가운데 앉게 하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아 시중을 들었다. 술이 몇 잔 오가고 음식 두 세트가 차려지자, 단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씻기 위해 잠시 서재로 들어갔다. 그런데 서안 위에 양지

옥을 깎아 만든 사자 모양의 문진 한 쌍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모양이 매우 정교하고 영롱하여 솜씨가 일품이었다. 단왕이 사자를 집어 들어 찬찬히 살펴보더니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좋구나!"

왕도태위는 단왕이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옥으로 만든 용 모양 붓걸이도 같은 장인이 만든 것인데, 지금 곁에 없군요. 내일 가져와서 함께 선물로 올리겠습니다."

단왕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그토록 배려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붓걸이는 분명 이것보다 훨씬 더 멋지겠군요."

왕도태위가 대답했다.

"내일 바로 가져다가 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단왕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두 사람은 다시 연회석으로 돌아갔고, 해가 저물 때까지 술과 음식을 즐기다 모두 취한 뒤에야 자리를 떴다. 단왕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궁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왕도태위(小王都太尉)는 옥으로 만든 용 모양 붓걸이와 사자 모양 옥 문진 한 쌍을 꺼내어 작은 금함에 담고, 황색 비단 보자기(黃羅)로 싼 다음, 편지 한 통을 써서 고구를 시켜 보냈다. 고구는 왕도

태위의 명(鈞旨)을 받들어 두 가지 옥 공예품을 들고 편지를 품에 안은 채 곧장 단왕의 궁으로 향했다.

궁문의 관리가 보고를 올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공(院公, 궁궐 관리)이 나와 물었다.

"너는 어느 집안에서 온 사람이냐?"

고구가 예를 갖춘 뒤 대답했다.

"소인은 왕 부마(王駙馬)의 집에서 대왕께 올릴 옥 공예품을 특별히 전달하러 왔습니다."

원공이 말했다.

"전하께서는 지금 뜰 한가운데에서 어린 황문(黃門, 내관)들과 기구(氣毬)를 차고 계시니, 네가 직접 그리로 가보거라."

고구가 말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원공이 뜰 앞으로 안내하자, 고구가 바라보니 단왕은 부드러운 비단 두건을 쓰고 자수 놓인 용포를 입었으며, 허리에는 문무 양쪽의 술이 달린 띠를 매고 있었다. 용포의 앞자락은 띠 옆에 묶어 고정해 둔 상태였다. 발에는 금실로 봉황을 수놓은 신을 신고 있었고, 서너 명의 어린 황문들이 곁에서 함께 기구를 차며 놀고 있었다. 고구는 감히 다가가 방해할 수 없어 수종 드는 이들의 뒤에 서서 기다렸다.

이때는 고구가 마침 출세할 운을 만난 때였다. 갑자기 기구가 허공으로 솟구쳤는데, 단왕이 이를 받지 못해 기구가 사람들 사이를 굴러 고구의 발치까지 왔다. 그 순간 고구는 한때의 담력으로 '원앙괴(鴛鴦拐)' 동작을 써서 기구를 차 단왕에게 다시 돌려보냈다.

단왕은 이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물었다.

"너는 누구냐?"

고구가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소인은 왕도태위의 친수(親隨)로서, 주인의 명을 받들어 두 가지 옥공예품을 대왕께 바치러 왔습니다. 여기 올릴 편지도 있습니다."

단왕은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다.

"매형께서 정말 이렇게 마음을 써 주시는구나."

고구가 편지를 꺼내 올리자, 단왕은 상자를 열어 공예품을 살펴본 뒤 모두 당후관(堂候官, 궁중 관리)에게 넘겨 보관하게 했다.

단왕은 옥 공예품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먼저 고구에게 물었다.

"네가 기구를 차는 재주가 있었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고구가 손을 맞잡고 엎드려 대답했다.

"소인은 고구라고 합니다. 그저 어설프게 발을 몇 번 놀릴 줄 알 뿐입니다."

단왕이 말했다.

"좋다! 그럼 너도 이리로 내려와 한 판 차 보거라."

고구가 절을 하며 말했다.

"소인 같은 미천한 사람이 어찌 감히 대왕께서 노시는 자리에 발을 들이겠습니까!"

단왕이 말했다.

"여기는 '제운사(齊雲社)'라는 모임이며, 이 기구의 이름은 '천하원(天下圓)'이라 한다. 그저 차는 것뿐인데 무엇이 해롭겠느냐?"

고구가 다시 절하며 말했다.

"어찌 감히 그러겠습니까!"

고구가 대여섯 번을 사양하며 물러나려 했으나, 단왕이 기어코 차 보라고 재촉하자 고구는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조아리며 죄를 청한 뒤 무릎을 펴고 마당으로 나갔다. 고구가 몇 번 발을 놀리자 단왕이 크게 환호했다. 고구는 단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평생 갈고닦은 솜씨를 남김없이 쏟아부었다. 그 솜씨가 어찌나 대단한지, 기구가 마치 몸에 착 달라붙어 움직이는 듯했다. 단왕은 크게 기뻐하여 고구를 집으로 돌려보내기는커녕, 궁 안에 머물게 하며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

다음 날, 단왕은 연회를 열어 왕도태위를 특별히 궁중으로 초대했다. 한편, 왕도태위는 그날 저녁이 되어도 고구가 돌아오지 않자 의아해하던 참이었다. 마침 다음 날 문지기가 달려와 보고했다.

"구대왕(九大王, 단왕)께서 사람을 보내 명을 전하셨습니다. 태위께서는 궁중 연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왕도태위는 나와서 전령을 만나고 명을 확인한 뒤, 즉시 말을 타고 단왕의 부(府)로 향했다. 그는 궁에 들어서서 단왕을 알현했다. 단왕은 매우 기뻐하며 고구가 가져온 두 가지 옥 공예품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연회가 이어지던 중 단왕이 말했다.

"저 고구라는 자가 기구를 차는 솜씨가 아주 일품이더군요. 저 사람을 내 친수(親隨)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왕도태위가 대답했다.

"전하께서 그를 쓰고자 하신다면, 궁에 머물게 하며 전하를 모시게 하면 될 것입니다."

단왕은 기뻐하며 잔을 들어 고마움을 표했다. 두 사람이 한참 동안 담소를 나누다 저녁이 되어 연회가 끝났다. 왕도태위는 자신의 부마부로 돌아갔다.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멈춘다.

한편, 단왕은 고구를 곁에 둔 뒤로 그를 궁 안에 머물게 하며 함께 먹고 자게 했다. 고구는 이때부터 단왕을 모시며 매일 그 뒤를 따랐으니,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로부터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철종 황제가 승하하였다. 후사가 될 태자가 없자 문무백관이 상의한 끝에 단왕을 천자로 책립하였으니, 제호(帝號)를 휘종이라 하였다. 그가 바로 옥청교주(玉淸敎主) 미묘도군황제(微妙道君皇帝)다. 휘종은 즉위한 후 한동안 별다른 일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구에게 말했다.

"짐이 너를 끌어주고 싶으나, 변방에서 공을 세워야만 승진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추밀원(樞密院, 국가 군사 기밀을 담당하는 관청)에 네 이름을 올려, 일단 황제를 수행하며 자리를 옮겨 가는 직책부터 맡게 하겠다."

그로부터 반년도 지나지 않아, 고구는 단숨에 전수부 태위(殿帥府太尉)의 직무에까지 올랐다. 이야말로 이러하다:

귀천을 따지지 않고 구름 같은 모임에 어울리며,
온 세상이 모호한 듯 둥글게만 돌아가네.
고구의 권세를 떠받드는 공놀이의 기세는,
오로지 손발을 놀려 권력을 잡는 재주에 달렸구나.

한편, 고구는 전수부 태위 자리에 오른 뒤 길일을 골라 전수부로 부임하러 갔다. 그곳에 소속된 모든 공리(公吏)와 아장(衙將), 도군(都軍)·감군(監軍), 그리고 기병과 보병(馬步) 등이 모두 나와 절을 올리

며 각자 수본(手本, 명부)을 제출하여 이름을 보고했다. 고구는 명단을 하나하나 훑어 내려가다, 단 한 명, 80만 금군 교두인 왕진(王進)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보름 전부터 왕진이 병이 났다는 보고가 관아에 올라와 있었으나, 아직 병이 다 낫지 않아 관청에 나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구가 크게 노하며 호통을 쳤다.

"헛소리 마라! 명부가 이미 올라왔는데, 저놈이 관청에 항거하며 나를 속이려 드는 것이 아니냐! 저자가 병을 핑계로 집에 숨어 있는 것이니, 당장 잡아 오너라!"

고구는 즉시 사람을 보내 왕진의 집으로 가서 그를 잡아 오게 했다. 한편, 왕진은 처자식 없이 예순이 넘은 노모만을 모시고 살고 있었다. 패두(牌頭, 전수부에서 보낸 군졸 우두머리)가 교두 왕진에게 말했다.

"지금 고 태위께서 새로 부임하셨는데, 당신을 점호하다가 빠진 것을 아셨습니다. 군정사(軍正司)에서는 당신이 병이 들어 집에 있다고 아뢰었고 병환 보고도 관아에 올라와 있으나, 고 태위께서는 몹시 화가 나셔서 도무지 믿지 않으시고, 당신이 병을 핑계로 집에 숨어 있다고만 여겨 반드시 잡아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교두께서 한번 다녀오셔야겠습니다. 만약 가지 않으시면 저희 같은 아랫사람들까지 모두 연루되어 화를 입게 됩니다."

왕진은 그 말을 듣고 병든 몸을 이끌고 갈 수밖에 없었다. 전수부 앞에 도착한 왕진은 태위를 뵙고 네 번 절한 뒤, 몸을 굽혀 인사를 올리고는 일어나 한쪽에 섰다. 고구가 말했다.

"네놈이 바로 도군교두(都軍敎頭) 왕승(王昇)의 아들이냐?"

왕진이 대답했다.

"소인이 맞습니다."

고구가 호통을 쳤다.

"이놈아, 네 아비는 저잣거리에서 봉술로 재주를 부리며 약을 파는 자인데, 네놈이 대체 무슨 무예를 안단 말이냐! 전임 관리가 눈이 멀어 너를 교두로 삼았으니, 네가 어찌 감히 나를 업신여기고 내 점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냐! 대체 누구의 세력을 믿고 병을 핑계 삼아 집에서 빈둥거리며 편히 쉬고 있는 것이냐!"

왕진이 아뢰었다.

"소인이 어찌 감히 그러겠습니까. 사실은 병이 아직 다 낫지 않았을 뿐입니다."

고 태위가 욕설을 퍼부었다.

"이 도적 같은 배군(配軍) 놈아, 병이 들었다면서 어찌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왕진이 다시 아뢰었다.

"태위께서 부르시는데 어찌 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 전수가 크게 노하여 좌우에 명령했다.

"저놈을 잡아라! 힘껏 매질해라!"

하지만 많은 아장(牙將)들이 왕진과 사이가 좋았기에, 군정사와 함께 이렇게 청했다.

"오늘 태위께서 부임하시는 좋은 날이니, 이번 한 번만은 이 사람을 면해 주십시오."

고 태위가 소리쳤다.

"이 도적 같은 배군 놈아, 여러 장수의 체면을 봐서 오늘만은 용서하겠지만, 내일은 반드시 너와 결판을 내겠다!"

왕진은 죄를 빌고 일어나 고개를 들어 보니, 바로 고구였다. 관청을 나온 왕진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 목숨이 이번에는 정말 보전하기 어렵겠구나. 대단한 고 전수라기에 누군가 했더니, 알고 보니 바로 동경(東京)의 건달패 '원사(圓社)'의 고이(高二)가 아닌가. 예전에 저자가 봉술을 배우다가 우리 아버지의 봉에 한 대 맞아 나가떨어져 서너 달을 일어나지 못했으니, 그 원한이 있었구나. 저자가 이제 출세하여 전수부 태위가 되었으니 막 복수를 하려는 참인데, 하필이면 내가 저의 관할 아래에 있다니. 예부터 '관리는 무섭지 않아도, 나를 다스리는 상관은 무섭다'고 했는데, 내가 어찌 저와 다툴 수 있겠는가?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왕진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답답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자, 모자는 서로를 붙잡고 울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아들아, 서른여섯 가지 계책 중에서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라지만, 다만 도망갈 곳이 없을까 걱정이구나."

왕진이 말했다.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런 계책밖에 없습니다. 연안부(延安府)의 노종경략상공(老种經略相公)께서 변방을 지키고 계시는데, 그 휘하 군관들 중에 예전에 도성에 왔던 이들이 많고, 그들이 제가 창봉(鎗棒)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그곳으로 달아나 그분들에게 의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곳은 사람을 쓰는 곳이니, 충분히 몸을 의탁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말로 이러하다:

사람을 써야 사람이 쓰임이 되고,
제 고집만 부리면 사람이 사람을 버린다.
저쪽에서 어진 이를 얻으면 이쪽에서 귀한 이를 잃으니,
억지로 몰아붙이거나 이끌려 하면 애석하고도 아플 뿐이다.

모자는 의논 끝에 길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아들아, 몰래 도망치려 해도 문 앞에 서 있는 두 명의 패군(門前牌軍, 문을 지키는 병사)이 걱정이구나. 전수부에서 너를 감시하라고 보낸 자들이라면, 만약 그들이 알게 될 경우 도망치기 어려울 게다."

왕진이 말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소자가 알아서 잘 대처하겠습니다."

그날 해가 저물어 어둑어둑해질 무렵, 왕진은 먼저 장패(張牌, 문을 지키는 병사)를 불러들여 분부했다.

"먼저 저녁을 좀 먹어 두어라. 너를 한 곳에 보내 시킬 일이 있다."

장패가 물었다.

"교두님, 소인을 어디로 보내려 하십니까?"

왕진이 말했다.

"내가 며칠 전 병을 앓는 바람에 산조문 밖 악묘(嶽廟, 악신을 모시는 사당)에 향을 올리겠다고 서원을 했으니, 내일 아침 일찍 가서 향을 한 대 피워야겠다. 너는 오늘 밤 미리 묘축(廟祝, 사당 관리인)에게 가서 말해 두어라. 내일 아침 일찍 사당 문을 열어 놓고, 내가 향을 피우러 가면 삼생(三牲, 소·돼지·양 세 가지 제물)을 준비하여 유이왕(劉李王)께 올릴 수 있도록 하라고 말이다. 그러고 나서 너는 사당에서 쉬면서 나를 기다려라."

장패는 대답하고 먼저 저녁을 먹은 뒤, 잘 자라고 취침 인사를 하고 사당 쪽으로 향했다.

그날 밤 모자는 짐과 옷가지, 귀중품과 은자 등을 챙겨 한 짐으로 묶어 어깨에 멜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사료 자루로 봇짐 두 개를 더 꾸려 말 안장에 묶었다. 오경(五更, 새벽 3시~5시 사이)이 되어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왕진은 이패(李牌)를 불러 분부했다.

"너는 이 은자를 가지고 악묘로 가서, 장패와 함께 삼생(三牲, 소·돼지·양)을 사서 삶아 놓은 뒤 거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나는 지전과 초를 좀 사서 곧 뒤따라가마."

이패는 은자를 챙겨 사당 쪽으로 향했다.

왕진은 스스로 말을 준비하여 뒷마구간에서 끌어낸 뒤, 사료 자루 봇짐을 말 안장에 얹고 밧줄로 단단히 묶었다. 그러고는 말을 뒷문 밖에 세워두고 어머니를 부축하여 말에 태웠다. 집안의 무거운 짐들은 모두 버려둔 채 앞뒤 문을 모두 잠그고, 짐을 짊어진 채 말 뒤를 따랐다. 오경이 되어 날이 채 밝기도 전에, 기세를 몰아 서화문을 빠져나와 연안부 쪽으로 길을 잡았다.

한편, 두 패군(牌軍, 관청의 하급 군인)은 제물을 사서 삶아 놓았다. 사당에서 사패(巳牌, 오전 9시~11시 사이)까지 기다렸으나 왕진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음이 초조해진 이패가 왕진의 집으로 달려가 찾아보았으나, 문은 굳게 잠겨 있어 들어갈 방도가 없었다. 한참을 찾아 헤매도 아무도 없었다. 날이 저물도록 왕진이 오지 않자, 악묘에서 기다리던 장패도 의아한 마음이 들어 곧장 왕진의 집으로 달려왔다. 장패는

이패와 함께 다시 황혼이 질 때까지 찾아보았으나, 어느덧 날이 캄캄해지고 말았다. 두 사람은 왕진이 그날 밤 돌아오지 않는 데다 그의 노모마저 보이지 않자 겁이 났다.

다음 날, 두 패군은 왕진의 친척 집들을 돌아다니며 수소문했으나 역시 흔적을 찾지 못했다. 자신들이 연루될까 두려워진 두 사람은 결국 전수부(殿帥府, 군사 지휘부)로 달려가 먼저 고발했다.

"왕 교두가 집을 버리고 도망쳤으며, 모자(母子)의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고구는 이 보고를 듣고 크게 노하여 외쳤다.

"적배군(賊配軍, 죄를 지어 군에 배속된 자)이 도망치다니, 그놈이 어디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으냐!"

고구는 즉시 문서를 작성하여 여러 주와 부로 보내, 도망친 군인 왕진을 체포하라는 명을 내렸다. 두 사람이 먼저 고발한 덕분에 자신들의 죄를 면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한편, 왕 교두 모자는 동경을 떠난 뒤로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며, 밤에는 쉬고 새벽에 길을 떠나기를 반복하며 한 달 넘게 길 위를 헤맸다. 그러던 어느 날, 날이 저물 무렵 왕진은 짐을 짊어진 채 어머니의 말 뒤를 따르며 입을 열었다.

"하늘이 도우셨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우리 모자가 이 천라지망 같은 재앙을 벗어났으니 말입니다. 이제 연안부도 멀지 않았습니다. 고구가 사람을 보내 저를 잡으려 해도 이제는 잡지 못할 것입니다."

모자는 기뻐하며 길을 가다 보니 어느덧 머물 곳을 지나치고 말았다. 밤새도록 걸었으나 마을 하나 보이지 않으니, 어디에 가서 묵어야 할지 막막할 따름이었다. 그때 멀리 숲속에서 등불 빛 하나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다. 왕진이 이를 보고 말했다.

"좋습니다. 저곳에 가서 조심스럽게 하룻밤 묵어 가도록 하지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면 됩니다."

그때 숲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그곳은 커다란 장원이었다. 장원 둘레는 모두 흙담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담장 밖에는 커다란 버드나무 이삼백 그루가 늘어서 있었다. 그 장원의 모습은 이러하였다.

앞으로는 관도로 통하고, 뒤로는 시냇가 언덕에 맞닿아 있었다.

장원 둘레에는 푸른 덩굴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사방에는 짙은 녹음이 물든 듯 가득했다. 모퉁이를 돌면 소와 양이 땅에 가득하고, 타작마당에는 거위와 오리가 떼를 지어 노닐었다. 논밭과 들판은 끝없이 넓어, 부리는 일꾼만 천 명에 달했고, 집안 식구들은 위엄 있고 당당하여, 시녀와 아이들의 수도 헤아릴 수 없었다. 그야말로 곳간에는 양식이 넘쳐나 닭과 개도 배불리 먹고, 집집마다 책이 많아 자손들이 어질고 똑똑한 곳이었다.

그때 왕진이 장원 앞에 도착하여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자, 장원 일꾼 하나가 밖으로 나왔다. 왕진은 짐을 내려놓고 그에게 예를 갖추었다. 일꾼이 물었다.

"우리 장원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왕진이 대답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모자가 길을 서두르다 보니 그만 여관을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이곳은 앞뒤로 머물 만한 마을이나 주막이 전혀 없으니, 부디 귀한 장원에서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일 아침 일찍 떠나겠습니다. 관례대로 숙박비를 낼 터이니, 부디 편히 머물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일꾼이 말했다.

"그렇다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가서 장주이신 사태공께 여쭤보겠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여기서 묵으셔도 좋습니다."

왕진이 다시 말했다.

"고맙습니다, 형님."

일꾼이 가서 한참 뒤에 돌아와 말했다.

"장주이신 사태공께서 두 분더러 안으로 들어오시랍니다."

왕진은 어머니를 말에서 내리게 했다. 그러고는 짐을 짊어지고 말을 끌며 일꾼을 따라 안쪽 타작마당으로 들어갔다. 왕진은 짐을 내려놓고

말을 버드나무에 묶었다. 모자는 곧장 초당으로 올라가 사태공을 뵈었다.

사태공은 나이가 예순에 가까워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얬다. 머리에는 먼지를 막아주는 따뜻한 모자를 쓰고, 몸에는 솔기가 곧은 넓은 옷을 입었으며, 허리에는 검은 비단 띠를 맸고 발에는 가죽 장화를 신고 있었다. 왕진은 그를 보고 절을 올렸다. 사태공이 급히 말했다.

"손님, 절하지 마시오. 길을 가는 도중에 비바람을 맞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우선 좀 앉으시오."

왕진 모자가 예를 나누고 나서 모두 자리에 앉았다. 사태공이 물었다.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어찌 이리 저녁 늦게 도착했소?"

왕진이 대답했다.

"소인은 성이 장씨이며, 원래 경사(수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밑천을 다 까먹어 살길이 막막해진 터라, 연안부로 친척을 찾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길을 서두르다 보니 그만 여관을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부디 귀한 장원에서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일 아침 일찍 떠나겠습니다. 숙박비는 관례대로 내겠습니다."

사태공이 말했다.

"괜찮소. 요즘 세상에 집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모자 두 분, 혹시 아직 식사 전이시오?"

그러고는 일꾼에게 음식을 준비하라고 일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청에 긴 탁자가 놓였고, 일꾼이 쟁반을 받쳐 들고 나와 네 가지 채소와 소고기 한 접시를 탁자 위에 차려냈다. 먼저 술을 데워 와 따랐다. 사태공이 말했다.

"마을이라 대접할 것이 그리 많지 않으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왕진이 일어나 감사 인사를 했다.

"저희 모자가 예고도 없이 번거롭게 해드렸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태공이 말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선 술부터 드시오."

사태공은 술을 대여섯에서 일곱 잔쯤 권한 뒤에 밥을 내왔다. 두 사람이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정리하자, 사태공은 일어나 왕진 모자를 객실로 안내하여 쉬게 했다. 왕진이 말했다.

"저희 어머니가 타고 온 말도 부디 좀 맡아주십시오. 사료도 챙겨주시면 모두 합쳐서 보답하겠습니다."

사태공이 말했다.

"그건 걱정 마시오. 우리 집에도 노새와 말이 있으니, 일꾼에게 시켜 뒷마당 우리에 끌어내 함께 먹이도록 하겠소."

왕진이 감사를 표했다. 그는 짐을 짊어지고 객실로 들어왔다. 일꾼이 등불을 켜고 따뜻한 물을 가져와 발을 씻겨주었다. 사태공은 안채로 돌아갔다. 왕진 모자는 일꾼에게 인사를 하고 방문을 닫은 채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장주인 사태공이 객실 앞을 지나가다가 방 안에서 왕진 모자가 앓는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다. 사태공이 물었다.

"손님, 날이 밝았으니 이제 일어나시오."

왕진은 그 소리를 듣고 황급히 방에서 나와 사태공에게 예를 갖추며 말했다.

"벌써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 너무 번거롭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사태공이 물었다.

"누가 그리 앓는 소리를 내는 것이오?"

왕진이 사실대로 말했다.

"사태공, 사실은 저희 노모께서 말을 타느라 기력이 다하셨는지, 어젯밤부터 가슴 통증이 도지셨습니다."

사태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손님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노모를 며칠간 우리 장원에서 머물게 해드리리다. 내 가슴 통증에 좋은 처방을 알고 있으니, 일꾼을 시켜 현 고을에서 약을 지어오게 하여 노모께 드립시다. 그러니 안심하고 천천히 요양하시게 하시오."

왕진이 거듭 감사를 표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고, 이후 왕진 모자는 사태공의 장원에서 약을 먹으며 머물렀다. 닷새나 이레쯤 지나 어머니의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자, 왕진은 떠날 채비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진이 말의 먹이를 주러 뒷마당 우리로 갔다가 공터에서 한 젊은이를 보게 되었다. 그 청년은 상체를 드러낸 채 온몸에 청룡 문신을 새기고 있었는데, 얼굴은 은반처럼 매끈했고 나이는 열여덟이나 열아홉쯤 되어 보였다. 그는 몽둥이 하나를 들고 한창 무예를 닦는 중이었다. 왕진이 한참을 지켜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한마디 내뱉었다.

"몽둥이질은 제법 잘하는구먼. 하지만 허점이 있어 진짜 호걸을 만나면 이기지 못하겠어."

그 말을 들은 청년이 크게 화를 내며 소리쳤다.

"네놈은 누구냐? 감히 어디서 내 솜씨를 비웃는단 말이냐! 나는 이름난 스승님을 일곱여덟 명이나 모셨다. 내가 너만 못할 것 같으냐? 어디 나랑 한번 붙어보겠느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태공이 다가와 그 청년을 꾸짖었다.

"무례하게 굴지 마라!"

청년이 투덜거렸다.

"괘씸하게도 저 사람이 제 몽둥이질을 비웃지 않습니까."

사태공이 왕진에게 물었다.

"손님께서는 창이나 몽둥이질을 좀 하실 줄 아십니까?"

왕진이 대답했다.

"조금은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어르신, 실례지만 저 청년은 댁의 누구입니까?"

사태공이 말했다.

"내 아들이라네."

왕진이 말했다.

"댁의 아드님이라면, 혹시 무예를 배우고 싶어 한다면 제가 몇 가르침을 주어 자세를 바로잡아 주는 건 어떻겠습니까?"

사태공이 반색하며 말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좋지요."

그러고는 청년에게 와서 스승님께 절을 올리라고 일렀다. 하지만 청년이 어찌 순순히 절을 하겠는가. 속으로 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 말했다.

"아버지, 저 사람의 헛소리를 듣지 마세요! 만약 저 사람이 이 몽둥이로 저를 이긴다면, 그때는 기꺼이 저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왕진이 말했다.

"도련님, 너무 흉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저와 몽둥이로 한 수 겨루어 보시지요."

그러자 청년은 공터 한가운데로 나가 몽둥이를 바람개비처럼 쌩쌩 돌리며 왕진에게 외쳤다.

"이리 오시오, 어서 오라고! 겁쟁이라서 못 오는 거 아니오?"

왕진은 그저 웃을 뿐, 손을 쓸 기색이 없었다. 사태공이 거들었다.

"손님께서 저 아이를 가르쳐 주시겠다는데, 한 번 겨루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왕진이 웃으며 말했다.

"혹시라도 도련님께 상처라도 입히게 되면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사태공이 말했다.

"그건 괜찮소. 만약 팔다리가 부러진다면 그것 또한 그 아이 자업자득 아니겠소."

왕진이 말했다.

“실례 좀 하겠소이다.”

그러고는 창 거치대에서 몽둥이 하나를 집어 들고 공터로 나가 기세 좋게 한 차례 자세를 잡아 보였다. 청년은 그 모습을 슬쩍 지켜보더니, 몽둥이를 든 채 굴러 들어오듯 달려들어 곧장 왕진을 덮쳤다. 왕진은 몽둥이를 끌며 슬쩍 뒤로 물러났고, 청년은 몽둥이를 크게 휘두르며 다시 뒤쫓아 들어왔다. 왕진이 몸을 돌려 공터 쪽을 향해 몽둥이를 내리찍자, 청년은 몽둥이를 들어 막아냈다. 그런데 왕진은 그대로 내리치지 않고 몽둥이를 휙 끌어당기더니, 청년의 품 안을 향해 곧장 찔러 넣었다. 그러고는 단번에 비틀자 청년의 몽둥이는 옆으로 날아가 버렸고, 청년은 그대로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왕진은 급히 몽둥이를 내려놓고 다가가 청년을 부축하며 말했다.

“탓하지 마시오, 탓하지 마시오.”

청년은 몸을 일으키더니 옆에 있던 의자를 가져와 왕진에게 권하며 앉히고는 절을 올렸다.

“제가 그동안 스승이라 부르며 모셨던 분들이 참 많았는데, 알고 보니 반만큼도 못 미치는 분들이었습니다. 스승님,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이제 스승님께 가르침을 청하겠습니다.”

왕진이 말했다.

"저와 어머니가 며칠째 댁을 번거롭게 해 드렸으니, 은혜를 갚을 길은 힘을 다해 돕는 것뿐입니다."

사태공은 크게 기뻐하며 청년에게 옷을 갈아입게 한 뒤, 다 함께 후당으로 가서 앉았다. 그리고 집안 일꾼에게 양 한 마리를 잡으라 일러 술과 음식, 과일 등을 차리게 한 뒤 왕진의 어머니도 함께 자리에 모셨다. 네 사람이 자리에 앉아 술잔을 나누자, 사태공이 일어나 술 한 잔을 권하며 말했다.

"스승님의 무예가 이토록 고강하시니, 필시 이름난 교두(教頭)이실 겁니다. 제 아들이 눈이 있어도 태산을 알아보지 못했군요."

왕진이 웃으며 말했다.

"속이지 않고 숨기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성은 장 씨가 아닙니다. 저는 동경의 80만 금군 교두였던 왕진입니다. 하루 종일 창과 몽둥이를 다루며 살아왔지요. 그런데 새로 부임한 고태위(高太尉)라는 자가 예전에 제 아버님께 호되게 당한 일이 있어, 지금은 전수부 태위(殿帥府太尉)가 되어 옛 원한을 품고 저를 해치려 합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그 사람의 관할 아래 있어 맞서 싸울 수가 없으니, 어머니를 모시고 연안부로 도망쳐 노종(老種) 경략상공(經略相公) 어른께 의탁해 그 밑에서 일을 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곳에서 어르신과 도련님을 만나 이토록 대접을 받게 되었고, 병든 어머니까지 돌봐주시니 정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도련님이 배울 의지가 있다면 제가 온 힘을 다해 가르치겠습니다. 다만 도련님이 지금까지 배운 것은

겉모양만 번지르르한 꽃몽둥이질이라 실전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으니, 제가 처음부터 다시 바로잡아 주겠습니다."

사태공은 그 말을 듣고 아들에게 말했다.

"얘야, 네가 졌다는 걸 알겠느냐? 어서 와서 다시 스승님께 절을 올리거라."

청년은 다시 왕진에게 절을 올렸다. 시로 이르되,

남의 스승 되기를 좋아하다간 헛된 명성만 짊어지기 마련이요,
마음으로 진정 따르게 함은 힘으로 다툰다고 될 일이 아니로다.
오직 가슴속에 참된 실력이 있어야만,
고집 세고 우둔한 자도 스승으로 절하게 하느니라.

사태공이 말했다.

"교두님, 여기는 화음현 경계인데 저 앞이 바로 소화산입니다. 이 마을은 사가촌이라 불리는데, 마을에 사는 삼사백 가구가 모두 사 씨 성을 쓰고 있지요. 제 아들놈은 어릴 때부터 농사일은 뒷전이고 오로지 창을 찌르고 몽둥이를 휘두르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으니, 속을 끓이다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늙은 저는 하는 수 없이 아들놈 성미대로 내버려 두었지요. 스승님께 배우게 하려고 그동안 재물을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모릅니다. 또 실력 좋은 장인을 불러 아들 몸에 화려한 문신을 새겨주었는데, 어깨와 팔, 가슴팍에 아홉 마리 용이 그려져 있어 온 현 사람들이

입을 모아 '구문룡' 사진이라 부릅니다. 교두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셨으니, 아들의 무예를 완성시켜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마땅히 두둑한 사례를 하겠습니다."

왕진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사태공, 걱정 마십시오.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가 도련님을 제대로 가르쳐 놓고 떠나겠습니다."

그날부터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왕진의 모자를 장원에 머물게 했다. 사진은 매일 왕진에게 열여덟 가지 무예를 가르쳐 달라고 졸랐고, 왕진은 하나하나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쳤다. 그 열여덟 가지 무예란 이러하다.

창과 쇠망치, 활과 쇠뇌와 총이요,
채찍과 쇠간(鐧), 검과 쇠사슬과 골타(撾)로다.
도끼와 부월(鉞), 아울러 과(戈)와 미늘창(戟),
방패와 곤봉, 그리고 창과 갈래창(扠)이라.

이야기는 이러하다. 사진은 매일 장원에서 왕진의 모자를 극진히 대접하며 무예를 배웠다. 사태공은 화음현에 가서 이정(里正, 마을 책임자) 직을 맡아 일을 보느라 바빴으나, 그 일은 차치하기로 하자. 어느덧 시간이 흘러 반년이 넘게 지났으니, 시로 이르되,

창밖의 햇살은 손가락 튕기듯 빠르게 지나가고,
자리 위 꽃그림자는 내 앞을 옮겨 다니네.

술 한 잔 채우기도 전에 노래와 악기 소리 멎으니,
계단 아래 시계는 다시 시간을 알리네.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진은 열여덟 가지 무예를 다시 익혀 아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왕진이 온 마음을 다해 가르쳐 준 덕분에, 배우는 무예마다 그 속에 담긴 오묘한 이치를 깨우칠 수 있었다. 사진이 무예를 익히는 것을 지켜보던 왕진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곳 생활이 비록 좋기는 하나, 계속 머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난 왕진이 작별을 고하며 연안부로 떠나겠다고 말했다. 사진이 어찌 순순히 보내주겠는가. 사진이 말했다.

"스승님, 부디 이곳에 머물러 주십시오. 제가 스승님과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며 평생을 보필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왕진이 말했다.

"아우님, 그 따뜻한 마음은 정말 고맙고 이곳 생활도 참으로 좋네. 하지만 고태위가 나를 뒤쫓아 올까 두렵구나. 자네에게 누를 끼치게 될까 봐 마음이 편치 않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네. 나는 마음을 굳혔으니 연안부로 가서 노종(老種) 경략상공 어른 밑에서 일을 보려 하네. 그곳은 변방을 지키는 곳이라 사람이 필요한 때이니, 가서 내 몸을 의탁하며 살아가기에 충분할 것이네."

사진과 사태공이 간곡히 만류했으나 결국 왕진을 붙잡아 둘 수 없었다. 사진은 떠나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그는 비단 두 필과 화은(花銀) 백 냥을 쟁반에 담아 정성스레 내놓으며 스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다음 날, 왕진은 봇짐을 꾸리고 말까지 준비하여 어머니와 함께 사태공에게 작별 인사를 올렸다. 왕진은 어머니를 말에 태운 뒤 연안부로 향하는 길을 따라 길을 떠났다. 사진은 장객들에게 짐을 지게 하여 십 리 길을 직접 배웅하며 아쉬운 마음을 달랬다. 사진은 스승에게 절을 하며 작별을 고하고 눈물을 흘리며 헤어진 뒤, 장객들과 함께 돌아왔다. 왕 교두는 예전처럼 스스로 봇짐을 짊어지고 말을 따라 어머니와 함께 관서 길로 떠나갔다.

왕진이 군역(軍役)에 종사하러 간 이야기는 차치하고, 사진이 장원으로 돌아온 이야기만 하자면 이러하다. 사진은 매일같이 기력을 다스리고 몸을 단련하는 데 힘을 쏟았다. 한창 혈기 왕성한 나이인 데다 돌봐야 할 노인이나 어린아이도 없었으니, 한밤중에는 일어나 무예를 연습하고 낮에는 장원 뒤편에서 활을 쏘고 말을 달리기 바빴다.

그렇게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사진의 아버지 사태공이 병을 얻어 며칠 동안 자리에 눕게 되었다. 사진은 사람을 시켜 근처의 의원들을 불러 치료하게 했으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아아, 슬프도다! 결국 사태공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사진은 서둘러 관을 준비해 시신을 모셨다. 스님들을 청해 재를 올리고 칠칠재를 지내며 사태공의 영혼을 천도했으며, 도사들까지 불러 재초(齋醮)를 베풀어 영혼이 하늘로 오르도록 빌었다. 도량에는 열댓 개의 제단이 차려질 정도로 정성껏 의식을 치렀다. 사진은 길일을 골라

장례를 치르고 안장을 마쳤다. 마을의 사가촌 삼사백 호 사람들이 모두 모여 조문하고 상복을 입었으며, 시신은 마을 서쪽 산에 있는 조상 묘 자리에 안장되었다.

이후 사진의 집안은 살림을 돌볼 사람이 없게 되었다. 하지만 사진은 농사일에 뜻이 없었기에, 그저 사람을 불러 무기를 다루며 창과 곤봉으로 무예를 겨루는 일에만 몰두했다.

사태공이 죽고 다시 어느덧 서너 달이 흘렀다. 때는 6월 중순이라 무더운 여름날의 열기가 한창이었다. 어느 날, 사진은 딱히 할 일도 없어 접이식 걸상(交床)을 가져다 타작마당 옆 버드나무 그늘 아래 앉아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맞은편 소나무 숲에서 바람이 솔솔 불어오자 사진이 소리쳤다. "아, 시원한 바람이로구나!"

한창 바람을 쐬고 있는데, 웬 사람 하나가 머리를 들이밀며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것이 아닌가. 사진이 꾸짖듯 외쳤다. "수상하구나! 거기서 누가 우리 장원을 엿보는 거냐?" 사진이 벌떡 일어나 나무 뒤로 돌아가 살펴보니, 사냥꾼인 '토끼잡이' 이길이었다. 사진이 다시 호통을 쳤다. "이길, 우리 장원을 엿보며 뭘 하는 거냐? 혹시 (도둑질하려고) 우리 집을 정탐하러 온 건 아니냐?"

이길이 앞으로 나와 깍듯이 인사를 하며 말했다. "도련님, 저는 그저 장원의 구을랑(矮丘乙郎)에게 술 한 사발 얻어먹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께서 여기서 더위를 식히고 계신 것을 보고, 감히 다가와 방해를 드릴까 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사진이 물었다. "내 하나 물어보자. 평소에는 사냥한 짐승을 메고 우리 장원에 와서 팔곤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손해 보게 한 적도 없는데, 어찌하여 요즘은 통 가져오지 않는 것이냐? 혹시 내가 돈이 없는 줄 알고 깔보는 것이냐?"

이길이 대답했다. "소인이 어찌 감히 그러겠습니까? 그저 요즘은 잡을 만한 짐승이 없어서 감히 찾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진이 말했다. "허튼소리 마라! 이 넓디넓은 소화산에 노루나 토끼 한 마리 없을 리가 있겠느냐!"

이길이 말했다. "도련님께서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최근 산 위에 강도 무리가 나타나 산채를 하나 세웠는데, 그곳에 졸개 오칠백 명이 모여 있고 좋은 말도 백여 필이나 됩니다. 우두머리 대왕은 '신기군사' 주무라 부르고, 두 번째는 '도간호' 진달, 세 번째는 '백화사' 양춘이라 합니다. 이 세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어 집집마다 털고 약탈하니, 화음현 관가에서도 그들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가에서 그들을 잡으라고 상금 삼천 관을 내걸었지만, 누가 감히 그들에게 덤비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 짐승을 잡을 엄두를 내지 못하니, 가져와 팔 것이 있겠습니까?"

사진이 말했다. "나도 강도들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놈들이 이토록 크게 일을 벌일 줄은 몰랐구나. 필시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길, 앞으로 사냥한 짐승이 생기면 좀 가져오너라."

이길이 대답하고는 곧바로 떠나갔다.

사진이 대청 앞으로 돌아와 생각했다. '그놈들이 저렇게 크게 날뛰니, 분명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러 내려올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사진은 즉시 장객들에게 명령하여 살진 물소 두 마리를 잡아오게 했다. 장원에는 이미 담가 둔 좋은 술이 있었기에, 먼저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를 비는 지전(紙錢) 한 묶음을 사른 뒤, 장객을 시켜 마을 사람 삼사백 명을 모두 청해 오게 했다. 사람들은 사진의 초당에 모여 나이 순으로 자리를 잡았고, 장객들은 술잔을 돌리며 술을 권했다.

사진이 사람들에게 말했다. "소화산에 강도 셋이 오칠백 명의 졸개를 거느리고 집집마다 털며 약탈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놈들이 저렇게 크게 일을 벌이니, 머지않아 우리 마을까지 들이닥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을 특별히 모셔 의논하고자 합니다. 만약 그놈들이 쳐들어온다면 각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장원에서 딱따기(梆子)를 치면, 여러분은 각자 창과 몽둥이를 들고 달려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집안에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돕고 보살펴서 우리 마을을 함께 지켜냅시다. 만약 강도들이 직접 찾아온다면 제가 앞장서서 상대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대답했다. "저희 같은 농민들은 오직 도련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딱따기 소리가 울리는데 누가 감히 오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 사람들은 술자리를 마치고 인사를 나눈 뒤, 각자 집으로 돌아가 무기를 준비했다. 이때부터 사진은 대문과 담장을 수리하고, 장원의 배치를 정비하고 곳곳에 딱따기를 설치했다. 또한 갑옷을 챙기고 도검과 말을 정비하여 도적의 침입에 대비하였으니, 이 이야기는 여기서 더 하지 않는다.

한편, 소화산 산채에서는 세 두령이 자리에 앉아 의논하고 있었다. 우두머리인 '신기군사' 주무는 본래 정원 사람으로, 쌍도(雙刀)를 능숙하게 다루었다. 비록 무예가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었으나 진법에 정통하고 계책이 풍부하였다. 그를 찬양하는 시 여덟 구절이 있으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포는 종려잎으로 짓고, 구름 같은 관은 사슴 가죽으로 깎았네.
붉은 얼굴에 두 눈은 준수하고, 흰 얼굴에 가는 수염이 드리워졌네.
진법은 제갈량에 견줄 만하고, 계책은 범려보다 뛰어나니,
화산에서 누가 으뜸인가, 주무(朱武)는 '신기(神機)'라 불리네.

두 번째 호걸은 성이 진(陳)이고 이름은 달(達)로, 본래 업성 사람이었으며 흰 점이 박힌 강철 창을 휘둘렀다. 그를 찬양하는 시가 있어 이르기를,

힘은 장사요 목소리는 우렁차며 성격은 거칠고 투박하니,
한 길 두 자(丈二)나 되는 긴 창을 빗발치듯 휘둘러대네.
업중(鄴中)의 호걸로서 화음 땅을 호령하니,
진달을 사람들은 '도간호(跳澗虎)'라 부른다네.

세 번째 호걸은 성이 양(楊)이고 이름은 춘(春)으로, 포주 해량현 사람이며 커다란 대간도(大桿刀)를 휘둘렀다. 그를 찬양하는 시가 있어 이르기를,

허리는 길고 팔은 말랐으나 힘은 자랑할 만하니,
가는 곳마다 칼날이 꽃잎처럼 어지러이 흩날리네.
화산에 우뚝 선 참된 사나이라,
강호에 '백화사'라는 이름 드높게 떨치네.

그날 주무가 진달, 양춘에게 말했다. "지금 듣자하니 화음현에서 우리를 잡으려고 상금 삼천 관을 내걸었다더군. 적들이 들이닥치면 한바탕 싸워야 할 텐데, 문제는 산채에 식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네. 차라리 어디 가서 좀 털어오는 게 어떻겠나? 식량을 좀 모아둬야 관군이 쳐들어왔을 때 제대로 맞서 싸울 것 아닌가." '도간호' 진달이 말했다. "맞는 말이네. 지금 당장 화음현으로 가서 먼저 식량을 좀 빌려달라고 해보고, 놈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나." '백화사' 양춘이 말했다. "화음현은 가지 말고 포성현으로 갑시다. 그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진달이 말했다. "포성현은 인구도 적고 식량도 많지 않네. 차라리 화음현을 치는 게 낫지. 그곳은 사람도 많고 먹을 것도 풍족하니까." 양춘이 말했다. "형님은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화음현을 치려면 반드시 사가장을 지나야 합니다. 저 '구문룡' 사진이라는 자는 아주 무서운 놈이라, 괜히 건드렸다가 그가 순순히 길을 비켜주겠습니까?" 진달이 말했다. "이 아우는 어찌 이리 겁이 많단 말인가! 마을 하나를 못 지나가서 어찌 관군을 상대하겠느냐?" 양춘이 말했다. "형님, 그를 얕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보통내기가 아닙니다." 주무가 말했다. "나도 그가 매우 영웅적이라는 말을 들었네. 정말 실력이 대단한 자라고 하니, 아우들은 그만두게나." 진달이 버럭 일어나며 말했다. "둘 다 입 좀 다물게! 남의 기운만 북돋아 주고 우리 위신만 깎아내리는군. 그놈이 아무리 대단한들 머리가 셋이거나 팔이 여섯은 아닐 것 아닌가, 난 못 믿겠

네!" 그러고는 부하들을 향해 소리쳤다. "어서 내 말을 준비해라! 지금 당장 사가장을 먼저 치고 나서 화음현으로 가겠다!" 주무와 양춘이 몇 번이고 만류했지만, 진달이 들을 리 없었다! 그는 곧장 무장을 하고 말에 올라타, 부하 백사오십 명을 거느리고 징과 북을 울리며 산을 내려가 사가장을 향해 달려갔다.

한편, 사진은 마침 장원 앞에서 무기와 말을 정비하고 있는데, 마침 장객이 달려와 이 일을 보고했다. 소식을 들은 사진은 즉시 장원 입구에서 딱딱이를 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자 장원의 앞뒤와 동서쪽을 막론하고 삼사백 명에 달하는 사가장 사람들이 딱딱이 소리를 듣고는, 저마다 창과 몽둥이를 들고 모여들어 삼사백 명의 대군을 이루어 일제히 사가장으로 모여들었다.

사진은 머리에 일자건(一字巾)을 쓰고, 몸에는 붉은 갑옷을 입었으며, 그 위에는 푸른 비단 저고리를 걸치고 아래에는 초록색 장화를 신었다.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앞뒤로 철제 가슴 보호대를 찼으며, 활 한 장과 화살통 하나를 메고 손에는 삼첨양인도(三尖兩刃刀, 끝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양옆에 날이 달린 칼)를 쥐고 있었다. 장객이 불빛처럼 붉은 적마를 끌고 오자, 사진은 말에 올라타 칼을 고쳐 쥐었다. 앞에는 서른에서 마흔 명 정도의 건장한 장객들이 늘어섰고, 뒤에는 여든에서 아흔 명 정도의 마을 장정들이 줄을 이었다. 사가장 사람들은 모두 그 뒤를 따르며 일제히 함성을 질렀고, 그 행렬은 마을 북쪽 길목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되었다.

한편, 소화산의 진달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산비탈 아래로 쏜살같이 달려와 부하들을 전열에 배치했다. 사진이 살펴보니, 진달은 머리에

붉은색 오목한 모양의 건(巾)을 쓰고 몸에는 금빛이 도는 생철 갑옷을 입었으며, 그 위에는 붉은색 누비 저고리를 걸치고 발에는 굽이 높은 장화를 신고 있었다. 허리에는 일곱 자 길이의 끈을 맸으며, 높다란 백마를 타고 손에는 한 장 여덟 자 길이의 점강모(點鋼矛, 강철을 박아 넣은 창)를 가로로 쥐고 있었다. 부하들이 양옆으로 늘어서서 함성을 지르자, 두 장수가 말 위에서 서로 마주 보았다.

진달은 말 위에서 사진을 바라보며 몸을 굽혀 예를 갖추었다. 사진이 호통을 쳤다. "네놈들은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지르며, 집을 털고 재물을 빼앗는 등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 큰 죄를 지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다! 너희도 귀가 있을 터—참으로 겁도 없구나!—감히 태세(太歲, 재앙을 관장하는 신)의 머리 위에서 흙을 파헤치려 들다니!"

진달이 말 위에서 대답했다. "우리 산채에 식량이 조금 부족하여 화음현에 곡식을 빌리러 가는 길입니다. 귀댁의 장원을 거쳐 길을 좀 빌리고자 할 뿐, 감히 풀 한 포기 건드리지 않을 것이니, 길을 열어준다면 나중에 반드시 찾아와 사례하겠습니다."

사진이 말했다. "헛소리 마라! 내가 지금 이 마을의 이정(里正, 마을 우두머리)으로서 바로 너희 같은 도적 떼를 잡으러 가려던 참이다. 그런데 오늘 네놈들이 하필 우리 마을 길로 지나가겠다니, 너희를 잡지 않고 그냥 보내준다면 현에서 알게 되어 나까지 연루될 것이 아니냐!"

진달이 말했다. "'천하가 모두 형제'라 하지 않았습니까. 번거로우시겠지만 길 좀 내어 주십시오."

사진이 맞받아쳤다. “무슨 한가한 소리냐! 내가 허락하더라도 허락하지 않을 자가 하나 있으니, 그에게 물어 허락을 받으면 가거라.”

진달이 물었다. “장사, 누구에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사진이 말했다. “내 손에 들린 이 칼이 허락하는지 물어보고, 허락하면 보내주마.”

진달이 크게 노하며 외쳤다. “사람을 몰아붙이더라도 끝까지 몰지는 말 것이지, 그렇게 위세를 부리지 마라!”

사진 역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손에 든 칼을 휘두르며 타고 있던 말을 박차고 달려 나가 진달에게 맞서 싸웠다. 진달 또한 말을 박차며 창을 곧추세워 사진을 맞이했다. 두 사람이 말을 맞대고 어우러지니,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한 번씩 치고받으며, 위아래로 격렬하게 부딪쳤다.

한 번씩 치고받는 모습은 마치 깊은 물속에서 용이 여의주를 가지고 노는 듯했고, 위아래로 몰아치는 기세는 마치 험준한 바위 위에서 호랑이 두 마리가 먹이를 두고 다투는 듯했다.

'구문룡' 사진이 분노하여 삼첨도를 머리 위로 치켜들며 날렸고, '도간호' 진달 또한 화가 치밀어 장팔모를 심장 꿰뚫듯 곧게 내질렀다.

고수들 사이에서 진정한 고수가 실력을 겨루니, 붉은 심장과 붉은 심장이 맞부딪치는 형국이었다.

사진과 진달이 한참 동안 격렬하게 맞붙었다. 싸움 도중 사진이 일부러 빈틈을 보이자, 진달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창을 사진의 가슴팍으로 찔러 넣었다. 그러나 사진이 순식간에 허리를 휙 비틀어 피하니, 진달은 창과 함께 앞으로 고꾸라지며 사진의 품 안으로 쏠려 들어왔다. 사진은 원숭이처럼 팔을 가볍게 뻗고 늑대처럼 허리를 유연하게 놀려 단번에 진달을 옆구리에 끼었다. 그러고는 진달을 꽃무늬를 아로새긴 안장에서 가볍게 떼어내어 허리에 두른 끈을 천천히 거머쥐고는, 그대로 땅바닥에 홱 내던졌다. 진달이 탄 군마는 마치 바람을 가르듯 멀리 달아나 버렸다.

사진은 장원 일꾼들에게 명령하여 진달을 꽁꽁 묶게 했고, 사람들은 도적의 졸개들을 모두 몰아내어 쫓아버렸다. 사진은 장원으로 돌아와 진달을 마당 한가운데 기둥에 묶어두었다. 그는 나머지 두 도적 두목까지 한꺼번에 잡아 관가에 넘겨 포상을 받을 날만을 기다렸다.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술을 대접하며 잠시 흩어지게 했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외쳤다.

"과연 우리 사진 형님은 호걸이십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술을 마시는 사이, 한편에서는 주무와 양춘 두 사람이 산채에서 의구심을 품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그들은 부하들을 보내 소식을 더 알아보게 했다. 그런데 함께 갔던 부하가 빈 말만 끌고 산 아래로 달려오더니 비명을 질렀다.

"이럴 수가! 진 형님이 두 형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시더니, 결국 목숨을 잃게 생겼습니다!"

주무가 그 이유를 묻자, 부하는 사진과 진달이 맞붙었던 상황을 상세히 보고했다. 사진의 무예가 어찌나 대단한지! 주무가 말했다.

"내 말을 듣지 않더니, 결국 이런 화를 당했구나."

양춘이 말했다.

"우리가 모두 가서 그와 함께 죽기 살기로 싸워보면 어떻겠습니까?"

주무가 대답했다.

"그것도 안 될 일이다. 그가 이미 패했는데, 네가 어찌 그를 이기겠느냐? 내게 고통스러운 계책이 하나 있으니, 만약 그를 구하지 못한다면 나와 너 모두 끝장이다."

양춘이 물었다.

"그 고통스러운 계책이 무엇입니까?"

주무가 양춘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이며 말했다.

"방법은 이렇다. ……"

양춘이 말했다.

"좋은 계책입니다! 당장 함께 갑시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편, 사진은 장원에서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다. 그때 장원 일꾼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주무와 양춘이 산채에서 내려왔습니다!"

사진이 말했다.

"그놈들을 그냥 둘 수 없지. 두 놈을 한꺼번에 관가에 넘겨 포상을 받아야겠다. 어서 말을 끌고 오너라!"

사진이 곧장 딱따기(경보용 나무 막대)를 두드려 신호를 보내자, 사람들이 일찍이 모두 모여들었다. 사진이 말에 올라 장원 문을 나서려는데, 마침 주무와 양춘이 걸어서 장원 앞에 도착해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사진이 말에서 내려 꾸짖듯 말했다.

"너희 둘은 무릎을 꿇고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냐?"

주무가 울며 말했다.

"저희 세 사람은 관가에 쫓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산에 들어가 도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같은 날 태어나지는 못했어도, 같은 날 죽기를 원한다'라고 맹세했었습니다. 비록 관우, 장비, 유비의 의리에는 미치지 못하나 그 마음만은 같습니다. 오늘 아우 진달이 저희의 충고를 듣지 않고 호랑이 같은 위엄을 범하는 바람에, 영웅이신 귀하의 장원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달리 방도가 없어 이렇게 죽으러 왔으니, 부디 영웅께서 저희 세 사람을 한꺼번에 관가에 넘겨 포상을 받으십시오. 저희는 결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영웅의 손에 죽는 것이라면 아무런 원한도 없습니다."

사진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저들의 의리가 이토록 깊다니. 만약 내가 저들을 잡아 관가에 넘겨 포상을 받는다면, 오히려 천하의 호걸들에게 영웅답지 못하다고 비웃음을 살 것이다. 예부터 이르기를, "큰 호랑이는 쓰러진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사진이 곧 말했다.

"너희 둘은 일단 나를 따라 들어오너라."

주무와 양춘은 전혀 겁을 내지 않고 사진을 따라 들어갔다. 후청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자, 사진은 그들을 꽁꽁 묶게 했다. 사진이 몇 번이나 일어나라고 권했지만, 두 사람은 도무지 일어날 기색이 없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통하니, 호걸은 호걸을 알아보는 법이다. 사진이 말했다.

"너희들의 의리가 이토록 깊으니, 내가 너희를 이대로 보내준다면 내가 호걸이라 할 수 없겠구나. 진달을 풀어주면 어떻겠느냐?"

주무가 대답했다.

"영웅께 폐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일을 그르치느니, 저희를 관가에 넘겨 포상을 받게 해주십시오."

사진이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내 술과 음식을 좀 먹겠느냐?"

주무가 말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데, 하물며 술과 고기가 어떠하겠습니까?"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이름은 제각기 달라도 생사를 함께하니,
의기는 넘쳐나도 잔꾀 부린들 부질없네.
다만 벼슬아치들 가운데 의로운 협객이 없는 탓에,
마침내 초야에서 빼어난 영웅이 나타나는구나.

사진은 크게 기뻐하며 진달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후청의 상좌를 마련하여 술과 음식을 차려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다. 주무, 양춘, 진달은 사진의 큰 은혜에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술이 몇 잔 오가자 분위기가 점차 화기애애해졌다. 술자리가 끝나자 세 사람은 사진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산채로 돌아갔다. 사진은 장원 문 앞까지 그들을 배웅하고는 다시 장원으로 돌아왔다.

한편, 주무 등 세 사람은 산채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주무가 말했다.

"우리가 이런 고육책을 쓰지 않았다면 어찌 목숨을 건질 수 있었겠느냐? 비록 한 사람을 구하긴 했으나, 사진이 의리를 생각해서 우리를 풀어준 것은 참으로 드문 일이다. 며칠 뒤에 예물을 좀 준비해서 보내, 우리 목숨을 살려준 은혜에 감사를 표하자꾸나."

말을 길게 늘어놓지 않고 곧장 일을 진행했다. 열댓 일이 지난 뒤, 주무 등 세 사람은 마늘 모양으로 엮은 금괴 서른 냥을 챙겨 두 명의 부하를 시켜 달이 어두운 밤을 틈타 사가장으로 보냈다. 그날 밤 초경(初更, 저녁 7시~9시 사이) 무렵, 부하들이 문을 두드리자 장원 일꾼이 사진에게 알렸다. 사진은 급히 옷을 걸쳐 입고 장원 앞으로 달려 나와 부하들에게 물었다.

"무슨 할 말이냐?"

부하가 대답했다.

"세 두령님께서 거듭 부탁하셨습니다. 특별히 작은 예물을 보내 대랑께서 살려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니,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는 금을 꺼내 사진에게 건넸다. 사진은 처음에는 사양했으나, 이내 속으로 생각했다.

'좋은 뜻으로 보내온 것이니, 받는 것이 마땅하다.'

사진은 곧장 장원 일꾼에게 술을 차리게 하여 부하들을 밤늦도록 대접했다. 그러고는 자잘한 은자를 상으로 내어준 뒤 부하들을 산채로 돌려보냈다. 또 보름 남짓한 시간이 흐른 뒤, 주무 등 세 사람은 산채에서 약탈한 아주 커다란 진주 한 꾸러미를 얻게 되자, 다시 부하를 시켜 밤을 도와 사가장으로 보냈다. 사진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이후의 일은 말할 것도 없었다.

또 보름 남짓한 시간이 흐른 뒤, 사진은 속으로 생각했다.

'저 세 사람이 나를 이토록 존중해 주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로다. 나도 예물을 좀 준비해서 답례를 해야겠다.'

다음 날, 사진은 장원 일꾼에게 재봉사를 찾아오게 한 뒤, 직접 현(縣)에 나가 붉은 비단 세 필을 사 왔다. 그리고 그것으로 비단 저고리 세 벌을 맞추게 했다. 또한 살이 통통한 양을 골라 세 마리를 삶아 큰 상자에 담은 뒤, 장원 일꾼 두 명에게 맡겨 보냈다. 사진의 장원에는 우두머리 격인 일꾼 왕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관가를 상대하는 일에 제법 능하고 말솜씨가 좋고 영리하여 장원 사람들 모두가 그를 '새백당(賽伯當)'이라 불렀다. 사진은 왕사에게 일 잘하는 다른 일꾼 하나를 붙여주며, 짐을 짊어지게 하여 산 아래로 직접 보내도록 했다.

부하들이 자세한 사정을 묻자, 일꾼들은 그들을 산채로 안내했다. 주무 등 세 두령은 부하들이 온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비단 저고리와 양고기, 술 선물을 받아 들었다. 그러고는 은자 열 냥을 꺼내 일꾼들에게 상으로 주었다. 일꾼들은 각자 술을 십수 사발씩 마신 뒤 산을 내려와 사진을 만나 말했다.

"산채의 두령님들께서 거듭 안부를 전해 달라 하셨습니다."

이후 사진은 주무 등 세 사람과 자주 왕래하였는데, 늘 왕사가 산채에 물건을 보내러 가는 일이 하루 이틀에 그치지 않고 이어졌다. 산채의 두령들 또한 사진에게 금과 은을 보내오는 일이 빈번해졌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8월 중추절이 다가왔다. 사진은 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보름날 밤에 장원으로 와서 달을 구경하며 술을 마시자고 청하기로 했다. 먼저 장원 일꾼 왕사를 보내 초청장을 들고 곧장 소화산으로 가게 하여, 주무, 진달, 양춘을 장원으로 초대해 연회에 참석해 달라고 전하게 했다. 왕사가 말을 달려 산채에 도착해 세 두령을 만나 초청장을 올리자, 주무는 이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세 사람이 모두 승낙했다. 주무는 즉시 답장을 써준 뒤 왕사에게 은자 다섯 냥을 상으로 주고 술을 열 사발 넘게 대접했다.

왕사가 산을 내려오는데, 마침 평소에 물건을 나르던 부하들과 딱 마주쳤다. 왕사가 그들을 덥석 붙잡고는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왕사를 산길 옆 마을 주막으로 끌고 가 술을 열댓 사발이나 마셔댔다. 왕사가 작별 인사를 하고 장원으로 돌아가려는데, 산바람이 훅 불어오자 술기운이 확 올라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발을 뗐다. 채 십 리도 못 가서 숲이 보이자 그 안으로 달려 들어간 그는, 푸른 풀이 깔린 땅 위로 털썩 쓰러지고 말았다.

알고 보니 '토끼 사냥꾼(摽兔)' 이길이 마침 산비탈 아래에서 토끼를 노리던 참이었다. 이길은 사진의 장원 사람인 왕사임을 알아보고 그를 부축하려 했으나, 술에 취한 왕사를 도저히 일으켜 세울 수가 없었다! 그런데 왕사의 전대(纏膊) 사이로 은자가 비죽 튀어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길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놈이 술에 취해 저렇게 정신이 없는데, 저 많은 은자를 어디서 났단 말인가? 좀 챙겨가지 못할 게 뭐 있나?'

이것 또한 천강성의 별들이 한데 모일 운명이라, 자연스럽게 기회가 생긴 셈이었다. 이길이 그 전대를 끌러 바닥에 대고 한 번 털자, 답장 편지와 은자가 모두 쏟아져 나왔다. 이길은 그것을 집어 들었다. 그는 글자를 어느 정도 읽을 줄 알았기에 편지를 뜯어 살펴보았다. 편지에는 '소화산 주무, 진달, 양춘'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문무를 뒤섞은 어려운 말들이 많았으나 이길은 알아볼 수 없었고 오직 세 사람의 이름만 알아봤다.

이길이 말했다.

"내가 사냥꾼 노릇이나 하면서 언제 출세하나 했더니, 점쟁이가 올해 큰 재물이 들어올 거라더니 바로 여기 있었구나! 화음현에서 저 도적 셋을 잡으면 포상금으로 삼천 관(貫)을 내걸었다는데. 괘씸한 사진 그놈, 며칠 전 내가 키 작은 구을랑(矮丘乙郎)을 찾으러 장원에 갔을 때 나더러 도둑질하려고 동정을 살피러 왔다고 몰아세우더니, 알고 보니 제놈이야말로 도적들과 내통하고 있었구나!"

이길은 은자와 편지를 모두 챙겨 들고, 고발하러 화음현으로 달려갔다.

한편, 장원 일꾼 왕사는 한바탕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밤이 깊어 이경(밤 9시~11시 사이)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떴다. 희미한 달빛이 몸을 비추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그는 벌떡 일어났으나, 사방에는 온통 소나무뿐이었다. 급히 허리춤을 더듬어 보니 전대와 편지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사방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풀밭 위에는 텅 빈 전대만 나뒹굴고 있을 뿐이었다.

왕사는 속수무책으로 괴로워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은자는 큰 문제가 아니라 해도, 이 답장 편지는 또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대체 어떤 놈이 가져간 거지?’

잠시 고민하던 그는 이내 꾀를 내어 혼자 중얼거렸다.

‘만약 장원에 돌아가서 답장 편지를 잃어버렸다고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대랑(사진)께서 분명 화를 내며 나를 쫓아내실 게 뻔해. 차라리 애초에 답장이 없었다고 말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아무도 확인할 길이 없지 않겠나.’

계획을 세운 왕사는 바람처럼 달려 장원으로 돌아왔다. 돌아와 보니 마침 오경(새벽 3~5시) 무렵이었다. 사진은 돌아온 왕사를 보고 물었다.

“너는 어찌하여 이제야 돌아온 것이냐?”

왕사가 대답했다.

“주인님의 은덕 덕분에 산채의 세 두령님께서 저를 보내주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술을 대접하며 붙잡아 두시는 바람에 돌아오는 것이 늦었습니다.”

사진이 다시 물었다.

“혹시 답장은 받아 왔느냐?”

왕사가 말했다.

“세 두령님께서 답장을 쓰려 하셨으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분께서 연회에 참석하기로 하셨는데 굳이 답장까지 쓰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제가 술까지 한잔 걸친 터라, 가는 길에 혹시라도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말입니다.”

사진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과연 사람들이 자네를 ‘새백당(賽伯當)’이라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정말 빈틈이 없어!”

왕사가 대답했다.

“소인이 어찌 실수를 하겠습니까. 오는 길에 쉬지도 않고 곧장 장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사진이 말했다.

“알았다. 그럼 사람을 시켜 현(縣)에 가서 과일과 안주를 좀 사 오게 하여 연회를 준비하라.”

어느덧 중추절이 되었는데, 그날은 날씨가 아주 맑고 화창했다. 사진은 그날 집안의 일꾼들에게 명하여, 커다란 양 한 마리를 잡고 닭과 거위 백여 마리를 잡아 연회에 올릴 술안주와 음식을 준비하게 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가니, 과연 중추절다운 풍경이 이러하였다.

시로 이르되,

한밤은 깊어 가고, 황혼은 이미 반쯤 지났으니, 은빛 달 하나가 걸려 있네.
얼음 쟁반 같은 달은 대낮처럼 환하여, 구경하기에 참으로 좋구나.
맑은 그림자는 더없이 둥글고 가득 차, 계화꽃과 옥토끼가 향기를 나누네.

주렴을 높이 걷어 올리고, 금잔에 자꾸만 술을 권하며,
웃음꽃 피우며 태평성대를 축하하네.
해마다 이맘때면,
거나하게 취해 비틀거리네.
밤새도록 마시기를 마다하지 말게,
은하수에 이슬빛이 새로워지고 있으니.

한편, 소화산의 세 두령 주무, 진달, 양춘은 부하들에게 산채의 울타리를 지키라고 명한 뒤, 서너 명의 동료만 데리고 박도를 챙기고 허리에는 각자 도를 찬 채 말도 타지 않고 걸어서 곧장 사가장으로 내려왔다. 사진은 그들을 맞이하여 서로 예를 나눈 뒤 후원으로 모셨는데, 장원 안에는 이미 연회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사진은 세 두령을 상석에 앉히고 자신은 맞은편에 앉아 술을 대접하며, 일꾼들에게 장원의 앞뒤 문을 모두 걸어 잠그라고 일렀다. 한편 술을 마시며 장원의 일꾼들이 차례로 잔을 돌리고 양고기를 썰어 술을 권하고 있자니, 어느덧 동쪽 하늘에서 밝은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시로 이르되,

[이후 시 내용]

계화(달)는 바닷가 산봉우리를 떠나 솟고, 조각구름은 하늘 길에 흩어지네.
채색 노을은 만 리를 은빛처럼 비추고, 하얀 달은 천 개의 산을 물결처럼 비추네.
그림자는 넓은 들판을 가로질러, 홀로 잠든 까마귀를 놀라게 하고;
빛은 잔잔한 호수를 쏘아, 짝 지어 쉬는 기러기를 비추네.
얼음 수레바퀴 같은 달은 삼천 리에 펼쳐지고, 옥토끼는 사백 주를 통째로 삼키네.

사진은 세 두령과 함께 후원에서 술을 마시며 중추절의 정취를 즐기고 옛이야기와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담장 밖에서 외침 소리가 들려오더니 횃불들이 어지럽게 번쩍였다. 사진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세 분 형님께서는 잠시 앉아 계십시오. 제가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고는 일꾼들에게 “문을 열지 마라!” 하고 소리쳤다. 사진은 사다리를 가져와 담 위로 올라가 살펴보았는데, 화음현의 현위(縣尉)가 말을 타고 앞장서서 두 명의 도두(都頭)와 삼사백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장원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진과 세 두령은 그저 탄식하며 괴로워할 뿐이었다. 밖에서는 횃불 빛 사이로 강철 작살(鋼叉), 박도(朴刀), 다섯 갈래 창(五股叉), 미늘 달린 갈고리창(留客住)이 마치 삼밭의 삼대처럼 빽빽하게 늘어서 번뜩이고 있었다. 두 도두는 입을 모아 외쳤다. “강도놈들아, 도망가지 마라!”

이들이 사진과 세 두령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면, 사진이 한두 명을 죽이고 십수 명의 호걸과 인연을 맺어 천강성(天罡星)과 지살성(地煞星)의 영웅들이 한데 모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마치 갈대꽃 깊은 곳에 병사들이 진을 치고, 연잎 그늘 아래서 전함을 정비하는 듯한 장관을 이루게 될 터였다. 결국 사진과 세 두령은 어떻게 몸을 빠져나갔을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3회 — 사진이 밤에 화음현으로 달아나고, 노 제할이 주먹으로 진관서를 때려눕히다

史大郎夜走華陰縣 魯提轄拳打鎮關西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시 사진이 말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주무를 비롯한 세 명의 두령이 무릎을 꿇고 대답했다. “형님, 형님은 결백한 분이니 저희 때문에 형님까지 연루되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저희 셋을 밧줄로 묶어 관가에 끌고 가 포상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형님께 누를 끼쳐 체면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진이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꾀어들인 뒤 잡아서 포상금을 받는 꼴이 되니, 공연히 천하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죽게 된다면 너희와 함께 죽을 것이요, 살게 된다면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너희는 어서 일어나거라. 마음을 놓아

라, 따로 좋은 방도를 찾아보자. 우선 내가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내막부터 알아보겠다."

사진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물었다. "너희 도두(포교) 둘은 어찌하여 한밤중에 내 장원을 습격했느냐?"

두 도두가 대답했다. "형님, 여태 발뺌하시는군요! 여기 원고인 이길이 와 있습니다."

사진이 호통을 쳤다. "이길, 네가 어찌하여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였느냐?"

이길이 대답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숲속에서 왕사의 답신을 주웠는데, 마침 현청 앞에서 읽다가 일이 이렇게 터진 것입니다."

사진이 왕사를 불러 물었다. "너는 답신이 없다고 하더니, 어째서 편지가 또 있다는 말이냐?"

왕사가 말했다. "그게… 소인이 잠시 술에 취해 답신을 깜빡 잊었나 봅니다."

사진이 크게 꾸짖었다. "이 짐승 같은 놈, 이 일을 어찌할 셈이냐!"

밖에 있던 도두 일행은 사진이 만만치 않음을 두려워하여 감히 장원 안으로 뛰어들어 사람을 잡지 못했다. 세 명의 두령이 손가락으로 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선 밖에 대답을 해 주십시오."

사진은 그 뜻을 알아차리고 사다리 위에서 외쳤다. “너희 도두들은 소란 피우지 말고 일단 한 걸음 물러나 있거라. 내가 직접 묶어서 나갈 테니, 관가에 넘겨 포상금을 받도록 하겠다.”

두 도두는 사진이 무서워 그저 대답할 뿐이었다. “우리는 아무 일 없을 테니, 형님이 묶어서 나오기만 하면 함께 가서 포상금을 받겠습니다.”

사진은 사다리에서 내려와 대청 앞으로 가더니, 먼저 왕사를 불러 뒷마당으로 데려가 단칼에 베어 죽였다. 그러고는 장원 일꾼들에게 소리쳐서 장원에 있는 온갖 돈과 귀중품 등 살림살이를 모조리 챙겨 단단히 꾸리게 하고, 한편으로는 횃불 서른에서 마흔 개에 불을 붙이게 했다. 사진과 세 명의 두령은 온몸에 무장을 갖추고, 창걸이에 걸린 각자의 허리칼을 차고 박도를 챙겨 든 뒤 옷매무새를 단단히 동여맸다. 이어 장원 뒤편의 초가집에 불을 질렀다. 일꾼들도 각자 짐 꾸러미를 챙겨 맸다.

밖에서 안이 불타는 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뒤쪽으로 몰려왔다. 한편, 사진은 중당에도 불을 지르고 장원의 대문을 활짝 연 채, 큰 소리로 외치며 밖으로 돌진했다.

사진이 앞장서고 주무와 양춘이 중간에서, 진달이 뒤에서 따랐다. 그들은 부하들과 장원 일꾼들을 거느리고 이리저리 부딪치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거침없이 휘몰아치며 싸웠다. 사진의 기세는 마치 거대한 호랑이와 같아서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었다! 뒤편에서는 불길이 어지럽게 치솟는 가운데, 그들은 길을 열어 뚫고 나오

다 마침내 두 도두와 이길을 마주쳤다. 사진은 그들을 보자 크게 노했으니, 원수끼리 마주치면 눈이 유난히 밝아지는 법이었다.

두 도두는 상황이 좋지 않음을 직감하고 몸을 돌려 달아나려 했다. 이길 역시 뒤로 물러나려 했으나, 사진이 한발 앞서 도착하여 박도를 휘둘러 이길을 단칼에 두 동강 내버렸다. 도망치려던 두 도두는 뒤쫓아온 진달과 양춘에게 붙잡혀, 각각 박도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현위(현의 치안을 담당하는 관리)는 깜짝 놀라 말을 타고 도망쳐 버렸다. 병사들은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제각기 목숨을 구하려 뿔뿔이 흩어져 어디론가 사라졌다. 사진은 일행을 이끌고 싸우면서도 끊임없이 이동했고, 관군들은 감히 뒤쫓아오지 못한 채 흩어졌다.

사진과 주무, 진달, 양춘, 그리고 장원 일꾼들은 모두 소화산 산채에 도착해서야 자리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진정할 수 있었다. 주무 등은 산채에 도착하자마자 급히 부하들을 불러 소를 잡고 말을 잡아 축하 연회를 베풀었으니, 이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며칠이 지나고 사진은 생각에 잠겼다. '순식간에 세 사람을 구하려다 장원에 불을 질렀으니, 비록 약간의 살림살이와 무거운 가재도구들이 있었으나 모두 잃어버렸구나.'

마음속에 망설임이 생겨 이곳에 더 머물 수 없다고 느낀 사진이 주무 등에게 입을 열었다. “내 스승인 왕 교두께서 관서 경략부에서 일하고 계신다. 진작 찾아뵈려 했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가지 못했다. 이제 집안과 장원이 모두 폐허가 되었으니 스승님을 찾아가 보려 한다.”

주무 일행 세 사람이 말했다. “형님, 가지 마십시오. 일단 우리 산채에서 머무르며 다시 의논해 봅시다. 만약 형님께서 산적 생활을 원치 않으신다면, 상황이 잠잠해진 뒤에 저희 아우들이 형님의 장원을 다시 일으켜 세워 다시 평범한 양민으로 돌아가게 해드리겠습니다.”

사진이 말했다. “너희의 정은 고맙지만, 내 마음이 이미 떠나 발길을 돌리기가 어렵구나. 스승님을 찾게 된다면 그곳에서 출셋길을 찾아 남은 생을 즐겁게 보내고 싶다.”

주무가 말했다. “형님께서 차라리 이곳에서 산채의 주인이 되시는 게 더 즐겁지 않겠습니까! 다만 산채가 작아 말을 쉬게 하기에는 부족할까 걱정입니다.”

사진이 말했다. “나는 결백한 호한인데, 어찌 부모께서 물려주신 이 몸을 더럽히려 하겠느냐? 나더러 산적이 되라고 권하는 말은 다시는 꺼내지 말거라.”

사진은 며칠을 더 머물렀으나 반드시 떠나겠다고 고집하여 주무 등이 간곡히 붙잡아도 소용이 없었다. 사진과 함께 왔던 장원 일꾼들은 모두 산채에 남기로 했다. 사진은 약간의 자잘한 은자만을 챙겨 보따리를 꾸렸고, 나머지 많은 재물은 모두 산채에 맡겨 두었다.

사진은 머리에 붉은 술이 달린 백색 범양 전모(氈帽)를 쓰고, 그 아래에는 짙푸른 색의 부드러운 두건을 둘렀다. 목에는 밝은 황색의 띠를 두르고, 몸에는 흰색 모시 비단으로 만든 깃이 두 개인 전포를 입었으며, 허리에는 손가락 다섯 개 너비의 진홍색 실로 짠 띠를 맸다. 다리에는 청백색 줄무늬 행전을 감고 산을 타도 끄떡없는 튼튼한 삼베 신을

신었으며, 구리 동발 모양의 안령도(雁翎刀)를 허리에 차고 등에 보따리를 멘 채 박도를 손에 들고 주무 등 세 사람과 작별했다. 수많은 부하들이 산 아래까지 배웅하러 내려왔고, 주무 일행은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나눈 뒤 다시 산채로 돌아갔다.

한편, 사진은 박도를 손에 들고 소화산을 떠나 관서 오로를 거쳐 연안부로 향하는 길을 잡았다. 길 위에는 다음과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험하고 굽이진 산령, 외로운 마을.
구름 안개 헤치며 밤에는 거친 숲에서 자고, 새벽달을 띠고 아침이면 험한 길을 오른다.
해 질 녘 서둘러 가다 개 짖는 소리 듣고, 서리 내린 이른 아침에 닭 울음소리 듣는다.

사진은 길을 가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음식을 먹고, 밤에는 쉬었다가 새벽에 다시 길을 떠났다. 그렇게 혼자서 보름 넘게 길을 걷다 보니 어느덧 위주에 도착했다.

"이곳에도 경략부(군사 행정 관청)가 있으니, 혹시 스승님인 왕 교두께서 이곳에 계시지는 않을까?"

사진은 곧장 성 안으로 들어갔다. 살펴보니 예전과 다름없이 여섯 개의 거리와 세 개의 시장이 북적이고 있었다. 그러다 길목에 있는 작은 찻집 하나를 발견했다. 사진은 찻집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하나 골라 앉았다.

찻집 주인인 다박사가 다가와 물었다. "손님, 어떤 차를 드릴까요?"

사진이 말했다. "우려낸 차 한 잔 주시오."

다박사는 차를 준비해 사진의 앞에 놓아주었다. 사진이 다시 물었다. "이곳 경략부가 어디에 있소?"

다박사가 대답했다. "그저 저 앞을 가시면 나옵니다."

사진이 이어서 물었다. "혹시 경략부에 도성에서 왔다는 왕진이라는 교두가 계시는지 알 수 있겠소?"

그러자 다박사가 말했다. "이 부(府)에는 교두가 아주 많습니다. 성이 왕 씨인 사람이 서너 명은 되는데, 그중 누가 왕진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다박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거구의 사내가 성큼성큼 찻집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사진이 그를 살펴보니 군관의 차림새를 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음과 같았다.

그는 머리에 깨꽃 무늬가 수놓아진 만자(卍) 문양의 비단 두건을 쓰고, 머리 뒤에는 태원부에서 가져온 듯한 꼬임이 있는 금고리 두 개를 달고 있었다. 몸에는 앵무새 빛깔의 초록색 비단 전포를 입었으며, 허리에는 문무관이 공통으로 쓰는 검은색 띠를 맸고, 발에는 네 줄로 꿰맨 노란색 가죽 장화를 신고 있었다.

얼굴은 둥글고 귀는 컸으며, 코는 곧고 입은 네모졌다. 뺨 주위에는 너구리 수염 같은 덥수룩한 수염이 나 있었다. 키는 8척에 달했고 허리는 매우 굵었다.

그 사내는 찻집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찻집 점소이가 얼른 다가와 말했다. "손님께서 왕 교두를 찾으시는 거라면, 이 제할(提轄, 군관 직책) 나으리께 여쭤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사진이 급히 일어나 예를 갖추며 말했다. "나으리, 앉으셔서 차부터 드십시오." 노달은 사진의 체구가 크고 건장하여 영락없는 호걸의 풍채임을 보고, 그에게 답례하며 마주 앉았다. 사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소인이 무례를 무릅쓰고 여쭙겠습니다만, 나으리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노달이 대답했다. "나는 경략부(經略府)의 제할이며, 성은 노(魯)요, 휘(이름)는 달(達)이라 하오. 아우는 성이 무엇이오?" 사진이 말했다. "소인은 화주 화음현 사람으로, 성은 사(史)요, 이름은 진(進)이라 합니다. 나으리께 여쭙건대, 제 스승님 한 분이 계시는데 동경의 80만 금군 교두이신 왕진(王進)이라는 분입니다. 혹 이 경략부에 그분이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달이 물었다. "아우, 혹시 자네가 사가촌의 그 '구문룡(九紋龍)' 사 대랑(史大郎) 아니오?" 사진이 절하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노달은 서둘러 답례하며 말했다. "이름을 듣느니 직접 만나봄만 못하고, 직접 만나보니 듣던 것보다 낫구려. 왕 교두를 찾는다면, 혹 동경에서 고 태위와 사이가 틀어진 그 왕진을 말하는 것이오?" "바로 그분입니다." 사진의 말에 노달이 말했다. "나도 그 이름을 들어보았소. 하지만 그분은 여기 없소. 듣기로는 연안부의 노충(老种) 경략상공(經略相公) 밑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 여기 위주는 소충(小种) 경략상공이 지키고 있으니, 그분은 이곳에 없소.

자네가 사 대랑이라면 그 명성을 익히 들었으니, 일단 나와 거리로 나가 술이나 한잔하세." 노달은 사진의 팔을 붙들고 찻집을 나섰다. 나가면서 노달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찻값은 내가 나중에 갚겠네." 찻집 점소이가 대답했다. "제할 나으리, 걱정 마시고 어서 다녀오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 팔짱을 끼고 찻집을 나와 거리로 향했다. 삼사십 보쯤 걸어갔을까, 사람들이 하얀 빈터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사진이 말했다. "형님, 우리도 가서 구경합시다."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가 보니, 한 사내가 십여 개의 몽둥이를 세워두고 그 가운데에 서 있었다. 바닥에는 약고(膏藥) 십여 개가 쟁반에 담겨 있었고, 그 위에는 종이 푯말이 꽂혀 있었다. 알고 보니 강호에서 창과 몽둥이를 다루며 약을 파는 장사꾼이었다. 사진이 살펴보니 그는 예전에 자신에게 처음 무예를 가르쳐 주었던 스승, 바로 '타호장(打虎將)' 이충이었다. 사진이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외쳤다. "스승님, 오랜만입니다!" 이충이 말했다. "아우, 어찌 여기까지 왔는가?" 노달이 거들었다. "사 대랑의 스승이라니, 나와 함께 가서 술을 세 잔 나누세." 이충이 대답했다. "이 약들을 다 팔아 돈을 좀 챙긴 뒤에 제할 나으리와 함께 가겠습니다." 노달이 성급하게 말했다. "누가 자네를 기다려 주겠나? 갈 거면 지금 같이 가세!" 이충이 다시 말했다. "소인의 입에 풀칠할 벌이라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나으리께서 먼저 가 계시면 소인이 곧 뒤따라가겠습니다. 아우, 자네가 먼저 제할 나으리를 모시고 한 발 앞서 가게나." 노달은 성미가 급한 나머지 구경하던 사람들을 거칠게 밀쳐 자빠뜨리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놈들아, 엉덩이 쑥 빼고 다 비켜라! 안 가면 내가 다 때려눕히겠다!" 사람들은 상대가 제할 나으리인 것을 보고는 우르르

흩어졌다. 이충은 노달의 사나운 기세에 눌려 화가 나면서도 감히 대들지 못한 채,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참으로 성미도 급하신 분이로군.” 이충은 서둘러 약 주머니와 장비를 챙기고 몽둥이를 한곳에 맡겨두었다. 세 사람은 골목을 돌고 돌아 주교(州橋) 아래에 있는, 판가(潘家)네로 유명한 주점에 도착했다. 가게 앞에는 긴 장대가 솟아 있고 술 깃발이 걸려 공중에서 너울너울 휘날리고 있었다. 참으로 보기 좋은 주점이었으니, 시로 이르되,

바람은 불고 안개는 감도는데 비단 깃발 펄럭이고,
태평성대라 해는 비로소 길어지는 날이로구나.
용맹한 장사의 영웅 기개를 북돋워 주고,
고운 여인의 시름 어린 마음을 풀어 주네.
세 자 깃발은 새벽녘 버드나무 밖으로 드리우고,
장대 하나는 살구꽃 옆에 비스듬히 꽂혀 있네.
사나이 평생의 뜻을 아직 이루지 못했으니,
그저 큰 소리로 노래하며 취향(醉鄕)에 들어 즐기리.

세 사람은 판가(潘家)네 주루 위층으로 올라가, 깨끗한 칸막이 별실을 골라 자리를 잡았다. 노달이 상석에 앉고 이충이 맞은편에 앉았으며, 사진은 아랫자리에 앉았다. 점소이가 와서 공손히 인사하고는 노달이 제할 나으리인 것을 알아보고 여쭈었다. “제할 나으리, 술은 얼마나 내어드릴까요?” 노달이 말했다. “우선 술 넉 각(角)을 가져오고, 안주로 채소와 과일, 술안주를 좀 차려 놓게.” 점소이가 다시 물었다. “나으리, 식사 안주는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노달이 퉁명스럽게 대답

했다. “묻기는 뭘 물어? 있는 대로 다 내오게. 나중에 한꺼번에 셈해 줄 테니. 이놈이 자꾸 와서 시끄럽게 구는구나!” 점소이가 물러가자 곧 따뜻하게 데운 술이 올라왔고, 입에 댈 고기 안주들도 연이어 상 위로 가득 차려졌다. 세 사람이 술을 몇 잔 마시며 한담을 나누고 창법을 견주는 이야기로 한창 무르익었을 때였다. 옆방 칸막이 너머에서 누군가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성미 급한 노달은 짜증이 나 접시와 잔들을 마룻바닥에 내던졌다. 이를 들은 점소이가 황급히 올라와 보니, 노달이 잔뜩 화가 나 있었다. 점소이가 두 손을 모아 쥐고 여쭈었다. “나으리,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분부만 하시면 바로 사다 드리겠습니다.” 노달이 말했다. “내가 뭘 원하겠느냐? 너도 나를 알 만한데, 어찌 옆방에서 저렇게 징징거리며 우는 자를 두어 우리 형제들의 술맛을 망치게 하느냐! 내가 술값을 떼먹기라도 하겠느냐!” 점소이가 대답했다. “나으리, 노여움을 푸십시오. 소인이 어찌 감히 사람을 울려 나으리의 술자리를 방해하겠습니까. 저기 우는 이들은 술자리를 돌며 노래를 불러 파는 부녀(父女) 두 사람인데, 나으리들께서 여기서 술을 드시는 줄도 모르고 그만 제 신세가 서러워 울고 있는 것입니다.” 노달이 말했다. “거참 괴이한 일이로다! 당장 그들을 이리로 불러오너라!”

주인이 사람을 불러오자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이 들어왔다. 앞에는 열여덟아홉 살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서 있었고, 그 뒤에는 쉰에서 예순 사이로 보이는 노인이 손에 박판(拍板, 박자를 맞추는 나무판)을 든 채 두 사람 앞으로 다가왔다. 여인을 살펴보니 아주 빼어난 미인은 아니었으나, 사람의 마음을 끄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헝클어진 구름 같은 머리칼에 청옥 비녀 하나 꽂고,
가녀린 허리에는 붉은 비단 치마를 둘렀네.
눈처럼 하얀 옛 저고리는 흰 몸을 감싸고,
연노란 부드러운 버선은 신발 속에 들어있네.
눈썹은 잔뜩 찌푸려지고, 맑은 눈에선 진주 같은 눈물 떨어지며,
고개 숙인 분칠한 얼굴에 고운 살결은 창백하게 질렸구나.
비바람에 몸이 상해 슬픈 것이 아니라면,
분명 마음속에 시름과 한이 쌓였음이로다.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다가와 정중하게 세 번 만복(萬福)의 절을 올렸다. 노인 역시 그 뒤를 따라 예를 갖추었다. 노달이 물었다. “너희 둘은 어디 사는 사람들이냐? 어찌하여 이리 슬프게 울고 있느냐?” 여인이 대답했다. “나으리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소첩이 사정을 아뢰겠습니다. 저희는 동경(東京) 사람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친척을 의지하러 이곳 위주까지 왔으나, 뜻밖에 그 친척이 남경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객점에서 병을 얻어 돌아가시고, 저희 부녀는 이곳을 떠돌며 고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진관서(鎭關西)’라 불리는 정 대관인(鄭大官人)이라는 부자가 있는데, 저를 보더니 억지로 중매를 넣고 보증을 세워 저를 첩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더니 삼천 관(貫)짜리 문서를 써놓고는, 돈은 한 푼도 주지 않은 헛것이면서 계약서만 진짜로 만들어 제 몸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채 석 달도 되지 않아 그 집 본처가 아주 사납게 굴며 저를 매질해 쫓아냈습니다. 그러고는 아예 함께 살지도 못하게 하면서, 객점 주인을 다그쳐 원래의 몸값 삼천 관을 도로 내놓으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성품이 유약

하여 그와 맞서 싸우지도 못하는데, 그는 돈과 권세까지 쥐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에게서 받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이제 와서 그 돈을 어디서 구해 갚는단 말입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어, 아버지가 어릴 적 가르쳐준 노래 몇 가락을 부르며 이 주루에서 술자리를 돌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일 번 돈의 대부분을 그에게 갚고, 겨우 저희 부녀가 먹고살 노자만 조금 남겨둡니다. 그런데 요 며칠 술손님이 적어 약속한 기한을 어기게 되니, 그가 돈을 받으러 와서 저희에게 모욕을 줄까 두렵습니다. 부녀가 이 고통을 떠올리니 하소연할 곳도 없어 그만 울음이 터진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나으리들의 심기를 건드렸으니,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노달이 다시 물었다. "너희 성은 무엇이며, 어느 객점에서 머물고 있느냐? 그리고 그 '진관서' 정 대관인은 어디에 사느냐?"

노인이 대답했다. "노인은 성이 김(金)가요, 항렬은 둘째입니다. 딸아이의 아명은 취련(翠蓮)이라 합니다. 정 대관인이라는 자는 바로 이곳 장원교(狀元橋) 아래에서 고기를 파는 정도(鄭屠)로, 별호가 '진관서(鎭關西)'입니다. 저희 부녀는 저 앞 동문(東門) 안쪽에 있는 노가(魯家) 객점에 묵고 있습니다."

노달이 그 말을 듣고는 침을 뱉으며 말했다. "퉤! 나는 그 정 대관인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돼지나 잡는 정도가 아니냐! 이 더럽고 못된 놈이 우리 소충(小种) 경략상공(經略相公)의 문하에 의탁해 고기 푸줏간이나 차려놓고서, 감히 사람을 이토록 업신여겼단 말이냐!"

노달은 고개를 돌려 이충과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 둘은 여기서 잠시 기다리게. 내가 가서 저놈을 때려죽이고 곧 돌아오겠네."

그러자 사진과 이충이 그를 붙들며 말렸다. "형님, 노여움을 가라앉히십시오. 내일 처리하시지요." 두 사람이 서너 번 거듭 만류한 끝에야 노달은 겨우 진정했다.

노달이 다시 말했다. "노인, 이리 좀 오게. 내가 여비를 좀 줄 테니, 내일 당장 동경(東京)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나?"

김 노인 부녀가 아뢰었다. "만약 고향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으리는 저희를 다시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객점 주인이 순순히 보내주겠습니까? 정 대관인이 분명 그를 다그쳐 돈을 받아내려 할 것입니다."

노달이 말했다. "그건 걱정 말게. 다 생각이 있으니." 그러고는 품속에서 은 다섯 냥을 꺼내 탁자 위에 놓으며 사진을 바라보고 말했다. "내가 오늘 돈을 넉넉히 챙겨 나오지 못했네. 자네 은자가 있거든 좀 빌려주게나. 내일 바로 갚겠네."

사진이 대답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형님께서 갚으신다 하십니까." 사진은 꾸러미에서 열 냥짜리 은자 한 덩이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노달은 이충을 보며 말했다. "자네도 좀 빌려주게." 이충은 품속에서 은 두 냥을 꺼냈다. 노달이 보니 액수가 적은지라 혀를 차며 말했다. "자네도 참 시원찮은 사람이로군."

노달은 은 열다섯 냥만 김 노인에게 건네며 분부했다. “자네들 부녀는 이 돈으로 여비를 마련하고, 그동안 짐을 꾸려두게. 내가 내일 이른 아침에 와서 자네 둘을 떠나보낼 테니, 그때 저 객점 주인이 감히 자네들을 붙잡아 두는지 어디 한번 보세!”

김 노인은 딸과 함께 절을 올려 고마워하고는 물러갔다.

노달은 이충이 내놓은 은 두 냥을 다시 그에게 돌려주었다. 세 사람은 술을 두 각 더 마신 뒤, 아래층으로 내려가며 외쳤다. "주인장, 술값은 내가 내일 다시 보내 갚겠네!"

주인이 연신 대답했다. "제할 나리, 마음 편히 다녀오십시오. 외상으로 드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제할 나리께서 앞으로도 외상으로라도 다시 와 주시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일 뿐입니다."

세 사람은 판가 주막을 나와 거리에서 헤어졌고, 사진과 이충은 각자 객점으로 향했다. 한편, 노제할은 경략부 앞 숙소로 돌아와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녁도 먹지 않은 채 분통이 터진 듯 씩씩거리며 잠이 들었다. 숙소 주인은 감히 그에게 무엇이 화가 났는지 묻지도 못했다.

한편, 은 열다섯 냥을 손에 넣은 김 노인은 객점으로 돌아와 딸을 안심시켰다. 먼저 성 밖 멀리 나가 수레 한 대를 구해 놓은 뒤, 돌아와 짐을 꾸리고 숙박비와 식비를 모두 정산하여 치렀다. 이제 다음 날 날이 밝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날 밤은 별 탈 없이 지나갔고, 이튿날 오경(새벽 3시~5시 무렵)이 되자 부녀는 먼저 불을 지펴 밥을 지어 먹고 채비를 마쳤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노달이 성큼성큼 객점으로 들어오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점소이, 김 노인이 묵는 곳이 어디냐?"

점소이가 대답했다. "김 어르신, 제할 나리께서 찾으십니다."

김 노인이 방문을 열고 나와 말했다. "제할 나리, 안으로 들어와 앉으십시오."

노달이 말했다. "앉긴 뭘 앉아? 자네는 갈 길을 가게나, 뭘 망설이는가?"

김 노인은 딸을 데리고 짐을 짊어진 채 노달에게 작별 인사를 올리고 막 문을 나서려 했다. 그때 점소이가 앞을 가로막으며 물었다. "김 어르신, 어디를 가십니까?"

노달이 물었다. "이 노인이 방값을 덜 냈느냐?"

점소이가 대답했다. "방값은 어젯밤에 다 계산했습니다. 다만 정 대관인에게 진 몸값(典身錢)을 갚아야 하는데, 그 일을 저더러 관리하라고 정 대관인이 시켜 놓았습니다!"

노달이 호통쳤다. "정도에게 줄 돈은 내가 직접 갚을 테니, 이 노인을 고향으로 보내주게나."

하지만 점소이가 순순히 보내줄 리 없었다. 노달이 크게 노하여 다섯 손가락을 쫙 펴더니 점소이의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휘둘렀다. 점소이는 입에서 피를 왈칵 쏟아냈고, 노달이 다시 주먹을 날리자 앞니 두 개가 툭 하고 빠져나갔다. 점소이는 비틀거리며 가게 안으로 도망쳐 숨

어버렸다. 주인장도 감히 나서서 노달을 막지 못했다. 김 노인 부녀는 서둘러 객점을 떠나 성 밖으로 나가 어제 구해둔 수레를 찾아갔다.

한편, 노달은 점소이가 뒤쫓아가 방해할까 염려되어 가게 안에서 긴 의자를 가져다 놓고 두 시진(약 4시간) 동안 앉아 기다렸다. 김 노인이 멀리 떠났을 즈음이 되어서야 비로소 몸을 일으켜 곧장 장원교로 향했다.

한편, 정도는 가게 두 칸을 열어두고 고기 도마 두 개를 놓은 채, 돼지고기 서너 덩이를 걸어두고 장사를 하고 있었다. 정도가 가게 앞 계산대 안에 앉아 열 명 남짓한 칼잡이들이 고기를 써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 노달이 다가와 외쳤다. "정도!"

정도가 고개를 들어보니 노달이었다. 그는 황급히 계산대 밖으로 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제할 나리,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부하에게 의자를 가져오라 시키며 덧붙였다. "제할 나리, 앉으십시오."

노달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경략부 상공의 명을 받들었으니, 살코기 열 근을 가져오너라. 고기 다짐으로 썰되, 비계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안 된다."

정도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고기로 골라 열 근을 썰어라!"

노달이 다시 말했다. "저런 지저분한 놈들에게 시키지 말고, 네가 직접 썰어라."

정도가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소인이 직접 썰겠습니다." 그는 고기 도마로 가서 살코기 열 근을 골라내더니, 아주 잘게 다져 놓았다.

그때 점소이가 머리에 손수건을 두른 채, 김 노인에게 일어난 일을 정도에게 알리러 왔다가 노달이 도마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그저 멀찍이 처마 밑에 서서 바라볼 뿐이었다. 정도가 꼬박 반 시진(약 1시간) 동안 정성껏 고기를 다져 연잎에 싸며 말했다. "제할 나리, 사람을 시켜 보내겠습니다."

노달이 말했다. "보내긴 뭘 보내? 거기서 멈춰라! 열 근 더 가져오너라. 이번에는 전부 비계로 하되, 살코기가 조금이라도 섞이지 않게 고기 다짐으로 썰어라."

정도가 의아해하며 말했다. "방금 다진 살코기는 관아에서 혼돈(餛飩, 만두)을 빚으려나 했습니다만, 비계 다짐이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노달이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상공께서 나에게 직접 명하신 일인데, 누가 감히 토를 다느냐?"

정도가 말했다. "쓰임새가 있는 것이겠지요. 소인이 썰겠습니다." 그는 다시 비계가 듬뿍 든 고기 열 근을 골라내어 잘게 다진 뒤 연잎에 쌌다. 한나절 내내 고기를 다지다 보니 어느덧 식사 때가 되었다. 점소이는 감히 다가오지 못했고, 고기를 사려던 손님들조차 근처에 오기를 꺼렸다. 정도가 말했다. "사람을 시켜 제할 나리께 가져다드리게."

노달이 또 말했다. "열 근 더 가져오너라. 이번에는 아주 부드러운 연골 부위를 가져와서 잘게 다져라. 고기 덩어리가 보이지 않게 말이다."

정도가 웃으며 말했다. "이건 정말 저를 골탕 먹이러 오신 게 아닙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노달이 벌떡 일어나 고기 다짐 두 꾸러미를 손에 쥐고는, 눈을 부릅뜬 채 정도를 쏘아보며 말했다. "내가 특별히 너를 골탕 먹이러 왔다!"

그러고는 고기 다짐 두 꾸러미를 정도의 얼굴을 향해 확 던져버렸다. 마치 고기 비가 내리는 듯했다. 정도가 크게 노하여 분노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그는 마치 타오르는 업화에 휩싸인 듯, 도마 위에 있던 뼈 발라내는 날카로운 칼을 낚아채며 땅을 박차고 뛰어내렸다. 노달은 이미 재빨리 길가로 몸을 피한 상태였다.

이웃 사람들과 열 명 남짓한 가게 일꾼 중 누구도 감히 나서서 말리지 못했다. 길을 지나던 행인들도 모두 발을 멈추었고, 점소이 역시 겁에 질려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정도가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왼손으로는 노달을 움켜쥐려 달려들었으나, 노달이 그 왼손을 낚아채 누르더니 그대로 밀어붙이며 복부를 향해 발을 힘껏 걷어찼다. 정도는 길 한복판에 그대로 고꾸라졌다. 노달은 한 걸음 더 다가가 정도의 가슴을 짓밟고는, 식초 항아리만 한 주먹을 치켜든 채 정도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처음에 노종(老种) 경략 상공을 모시며 관서 오로의 염방사(廉訪使, 지방 관리를 감찰하는 직책)까지 지냈으니, '진관서'라 불려도 아깝지 않았다. 그런데 고기나 써는 개 같은 도살장 주인 주제에 감히 '진관서'라는 별호를 쓰다니! 네놈이 어찌하여 김취련을 억지로 겁박하고 속였느냐?"

노달이 주먹을 내질러 정도의 코를 정통으로 때리자, 피가 왈칵 쏟아지며 코가 옆으로 삐뚤어졌다. 그 모습이 마치 양념 가게를 열어놓은 듯, 짠맛, 신맛, 매운맛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정도는 몸을 일으키지도 못한 채 옆으로 던져버린 날카로운 칼을 챙길 생각도 못 하고, 입으로는 그저 "잘도 때리는구나!"라며 비명을 질렀다.

노달이 욕설을 내뱉었다. "이 빌어먹을 놈이 아직도 입을 놀리는구나!"

노달이 다시 주먹을 휘둘러 눈가와 눈썹 근처를 때리자, 눈두덩이가 터지며 눈동자가 튀어나왔다. 그 모습은 마치 비단 가게를 열어놓은 듯, 붉은색, 검은색, 진홍색 천들이 한꺼번에 펼쳐지는 것 같았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노달이 무서워 감히 나서서 말리지 못했다. 정도는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빌었다.

노달이 호통을 쳤다. "이 천한 놈아! 네가 끝까지 맞서 싸웠다면 차라리 용서해 주었을 텐데, 어찌하여 살려달라고 비느냐? 네가 비니 내가 오히려 용서해 줄 수가 없구나!"

노달이 다시 한번 관자놀이를 정통으로 가격하자, 마치 성대한 수륙재(水陸齋) 도량에서 경쇠와 바라, 요발이 한꺼번에 울리는 듯했다. 노

달이 보니 정도는 땅에 뻣뻣하게 뻗은 채 나가는 숨만 있을 뿐 들어오는 숨이 없어 꼼짝도 하지 못했다. 노달이 짐짓 꾸짖으며 말했다. "이 놈이 죽은 척을 하는구나. 내가 다시 때려주마!"

하지만 정도의 안색은 이미 점점 변해가고 있었다. 노달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놈을 시원하게 한바탕 두들겨 패주려고 했는데, 주먹 세 번에 정말 죽어버릴 줄이야. 이대로 있다가는 관가에 잡혀가 옥살이를 할 텐데 밥 넣어줄 사람도 없으니, 얼른 자리를 뜨는 게 상책이다.'

노달은 재빨리 발을 떼며, 쓰러진 정도의 시체를 향해 뒤돌아보며 외쳤다. "네놈이 죽은 척을 한다면, 나중에 다시 와서 천천히 따져주마!"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성큼성큼 자리를 떠났다. 이웃 사람들과 정도의 가게 일꾼들 중 누구도 감히 그를 막아서지 못했다. 노달은 머물던 곳으로 돌아가 옷가지와 여비, 귀중품과 은자 등을 급히 챙겼다. 다만 낡고 무거운 옷은 버려두고, 눈썹 높이까지 오는 짧은 막대기 하나를 든 채 남문을 향해 번개처럼 달려 나갔다.

한편, 정도의 집안사람들이 한참 동안 살려보려 애썼으나 끝내 그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에 노소와 이웃들이 즉시 주아(州衙, 지방 관아)로 달려가 고발했다. 마침 부윤(府尹, 주를 다스리는 수령)이 대청에 올라 집무를 보고 있던 차에, 고발장을 접수한 부윤이 내용을 읽어보고 말했다. "노달은 경략부의 제할이니, 함부로 범인을 잡으러 나설 수는 없다."

부윤은 즉시 가마에 올라 경략부 앞으로 향했다. 가마에서 내린 부윤은 문을 지키던 군사를 시켜 안으로 소식을 전하게 했다. 소식을 들은 경략은 부윤을 대청으로 불러들여 예를 갖추어 맞이했다. 경략이 무슨 일로 왔는지 묻자, 부윤이 보고했다. "상공께 알려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중의 제할 노달이 아무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둘러 시장의 정도를 때려죽였습니다. 상공께 미리 여쭙지 못하고는 함부로 범인을 잡을 수 없어 이렇게 왔습니다."

경략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속으로 생각했다. '노달이 무예는 뛰어나다만 성격이 워낙 거칠고 덤벙대는데, 이번에 사람을 죽이는 사고를 쳤으니 내가 어떻게 감싸줄 수 있겠는가? 법대로 심문하게 해야겠다.'

경략이 부윤에게 말했다. "노달은 본래 내 부친이신 노경략(老經略) 어른 밑에서 근무하던 군관이었는데, 내게 도와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 그를 제할로 보내 둔 것이라네. 이미 인명을 해친 죄를 저질렀으니, 자네가 법도에 따라 그를 붙잡아 심문하게나. 만약 자백이 분명하고 죄가 확정된다면, 반드시 내 부친께도 알려야 비로소 처결할 수 있을 것이네. 훗날 부친께서 변방에서 이 사람을 필요로 하실 때, 일이 껄끄러워지면 곤란하지 않겠나."

부윤이 대답했다. "소관이 사정을 자세히 물어본 뒤, 노경략 상공께 정식으로 보고드려 아시게 한 다음에야 비로소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부윤은 경략 상공에게 작별을 고하고 관아 앞으로 나와 가마에 올라 주아로 돌아온 뒤, 대청에 올라 앉았다. 그는 즉시 그날 당직인 집포사

신(緝捕使臣, 범인 체포를 맡은 관원)을 불러 문서를 발부하여 범인 노달을 체포하라고 명했다.

이때 왕 관찰(觀察, 포도를 맡은 관원)이 공문을 받아 들고, 포졸 스무 명가량을 거느린 채 노달이 머물던 곳으로 곧장 달려갔다. 그곳의 집주인이 말했다. "방금 보따리 몇 개를 챙기고 막대기를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관의 명을 받들어 나가는 줄로만 알았지, 감히 어디로 가는지 묻지 못했습니다."

왕 관찰이 그 말을 듣고 방문을 열어 살펴보니, 안에는 낡은 옷가지와 이불 몇 채뿐이었다. 왕 관찰은 집주인을 데리고 사방을 샅샅이 뒤졌으나, 주 남쪽에서 북쪽까지 다 헤매도 노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왕 관찰은 이웃 주민 두 집과 집주인을 함께 잡아 주아로 가서 보고했다. "제할 노달이 죄가 두려워 도망쳤으며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과 이웃들만 잡아 왔습니다."

부윤은 이 보고를 듣고 일단 그들을 가두게 한 뒤, 정도의 이웃들을 소집하고 오작(仵作, 검시관)과 행인(行人, 수사 보조원)을 불러 모았다. 또한 현지의 방관(坊官)과 방상리정(坊廂里正, 마을 이장)에게 명하여 사건 현장을 거듭 검시하게 했다. 검시를 모두 마치자 정도의 집에서는 스스로 관을 마련해 시신을 거두어 절에 모셨다.

한편으로 서류를 꾸미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한을 정해 — 어기면 곤장을 치는 — 사람을 풀어 범인을 추격하게 했다. 고발인은 보증을 세워 집으로 돌려보냈고, 이웃들은 제때 구하러 나서지 못했다 하여 곤

장형에 처했으며, 집주인과 근처 이웃들은 그저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죄(不應)'에 그쳤다.

노달이 도주하자 관가에서는 해포급체(海捕急遞, 긴급 수배) 문서를 발령하여 각 로(路)에서 추격하게 했다. 또한 현상금으로 천 관(貫)을 내걸고, 노달의 나이와 본적, 생김새를 적어 곳곳에 수배령을 붙였다. 그리고 잡아 두었던 관련자들은 일단 풀어주어 분부를 기다리게 했다. 정도의 친족들은 스스로 상을 치르는 일이니 더 말할 것도 없었다.

한편, 노달은 위주를 떠난 뒤로 동쪽으로 도망쳤다 서쪽으로 달아나기를 반복하며, 무척이나 다급하게 움직였는데 그 모습은 다음과 같았다.

무리에서 떨어진 외로운 기러기, 밝은 달빛 빌려 홀로 하늘에 붙어 날고;
그물 빠져나온 살아있는 물고기, 물살 타고 몸을 뒤집으며 파도를 넘네.
가까운 곳 먼 곳 따지지 않고, 어찌 높고 낮은 것부터 따지겠는가.
마음이 급해 길 가는 사람을 치고, 발걸음은 전쟁터의 말처럼 빠르구나.

제찰 노달은 급히 여러 주와 부를 지나며 도망치느라 길을 가릴 겨를도 없었으니, 그야말로 "살기 위해 길을 가리지 않으니 가는 곳마다 집이로다" 하는 형편이었다. 예부터 이르기를 "배고프면 음식을 가리지 않고, 추우면 옷을 가리지 않으며, 당황하면 길을 가리지 않고, 가

난하면 아내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노달은 마음이 급하고 갈 길을 잃어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렇게 반달 넘게 길을 헤매다 보니, 어느덧 대주 안문현에 이르렀다. 성안으로 들어서니 저잣거리가 북적이고 사람과 집이 구름처럼 모여 있었으며, 수레와 말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었다. 백이십여 가지의 상업과 매매가 이루어지고 온갖 물건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 그 모습이 참으로 정연했다. 비록 현(縣) 단위의 행정 구역이었으나, 그 번화함은 주나 부에 못지않았다.

노달이 길을 걷고 있는데, 문득 사람들이 십자 교차로에 떼 지어 모여 수배 방을 구경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광경은 이러하였다.

어깨를 맞대고 등을 기대며, 목을 나란히 하고 머리를 맞대네.
어지러이 뒤섞여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를 분간할 수 없고, 북적북적 뒤엉켜 귀천을 가리기 어렵구나.
장삼은 어리석고 뚱뚱하여 글자를 몰라 머리만 흔들어 대고,
이사는 키 작고 왜소하여 남이 보는 것을 따라 발돋움하네.
머리 하얀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그 끝에 수염을 괴고 섰고,
검은 귀밑머리의 젊은 선비는 문방구를 꺼내 방문(榜文)의 자구를 베껴 적네.
줄줄이 죄다 소하(蕭何)의 법령이요, 구절구절이 모두 율령을 좇아 적혔구나.

노달은 사람들이 십자 교차로를 가득 메운 채 수배 방을 구경하고, 인파 속을 헤집고 다니며 그 내용을 엿듣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노달은 글을 읽을 줄 몰랐기에 사람들이 읽어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대주 안문현은 태원부 지휘사사(指揮使司)의 명령을 받들어, 위주의 문서를 근거로 경략부 제할(提轄)인 노달을 수배한다. 그는 정도를 때려죽인 범인이다. 만약 누군가 이 범인을 집에 숨겨주거나 먹여 살린다면 범인과 같은 죄로 다스릴 것이며, 만약 범인을 붙잡아 관가로 압송하거나 관아에 신고한다면 상금으로 일천 관(貫)을 내릴 것이다……."

노달이 한창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한 사람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장 형님, 어찌하여 여기 계십니까?"

그러더니 그 사람은 노달의 허리를 덥석 껴안고는 교차로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 사람이 노달을 발견하고는 억지로 끌고 가버리는 바람에, 노달은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살인범의 이름까지 바꾸어, 모든 부처와 나한을 노하게 만들 처지가 되었다. 마침내 선장(禪杖)은 위험한 길을 열어젖히고, 계도(戒刀)는 불의한 자들을 모조리 베어버리게 되리라.

결국 노달을 붙잡아 끌고 간 사람은 누구였을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4회 — 조 원외가 문수원을 중수하고, 화화상 노지심이 오대산을 발칵 뒤집다

趙員外重修文殊院 魯智深大鬧五臺山

이야기는 이러하다. 노달이 몸을 돌려 돌아보니, 그를 붙잡은 사람은 다름 아닌 위주 주막에서 구해 주었던 금노였다. 금노는 노달을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가며 말했다.

「은인, 정말 대담하시군요! 지금 관가에서 현상금 천 관을 걸고 은인을 잡으려고 방을 버젓이 붙여 놓았는데, 어찌하여 방을 보러 가신 겁니까? 만약 이 늙은이가 은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분명 관아의 포졸에게 붙잡혔을 겁니다. 방에는 은인의 나이와 생김새, 본적과 주소까지 다 적혀 있단 말입니다.」

노달이 대답했다.

「당신에게는 숨김없이 말하겠소. 당신 일 때문에 그날 장원교 아래로 돌아가다가 마침 정도 그놈을 마주쳤는데, 내가 주먹 세 방을 날려 그놈을 때려죽이고 말았소. 그 일로 지금 도망 다니는 중이라오. 가는

곳마다 사오십 일을 헤매다 보니 뜻밖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려. 그런데 당신은 왜 동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까지 왔소?」

금노가 말했다.

「은인께 아룁니다. 은인 덕분에 살아난 뒤, 이 늙은이가 수레를 한 대 마련해서 원래는 동경으로 돌아가려 했지요. 하지만 그놈이 쫓아올까 두렵기도 하고, 또 그곳에는 은인처럼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 동경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북쪽으로 길을 가던 중,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옛 도성 시절의 이웃을 만났는데, 그가 저희 부녀 두 사람을 이곳까지 데려와 주었습니다. 그 사람 덕을 톡톡히 보았지요. 그가 제 딸의 중매까지 서서 이곳의 큰 재력가인 조원외와 인연을 맺어 첩(외실)으로 들어가게 해 주었습니다. 먹고사는 것이 풍족하니 이 모든 것이 다 은인 덕분입니다. 제 딸이 평소에 그 서방님께 은인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자주 이야기하곤 합니다. 조원외도 창을 쓰고 봉을 다루는 것을 좋아해서, 늘 〈어떻게 하면 은인을 한 번이라도 뵐 수 있을까〉 하면서도 만날 길이 없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니 부디 며칠간 저희 집에 머무시면서 다시 의논해 보시지요.」

노달과 금노가 반 리쯤 걸어가 집 앞에 이르렀다. 금노가 문의 발을 걷어 올리며 안을 향해 외쳤다.

"얘야, 큰 은인께서 오셨다!"

그러자 화장을 짙게 한 여인이 안에서 나오더니, 노달을 가운데 자리에 앉히고는 촛불을 올리듯 정중히 여섯 번이나 절을 올리며 말했다.

"은인께서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어찌 오늘 같은 날이 있었겠습니까."

노달이 그 여인을 바라보니, 예전에 보았을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 있었다.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금비녀 비스듬히 꽂으니 검은 머릿결 사이로 비치고,
비취빛 소매 정교히 지어 눈처럼 흰 살결을 가볍게 감싸네.
앵두 같은 입술엔 옅은 홍조가 돌고, 봄순 같은 손은 연한 옥처럼 반쯤 펴졌네.
가녀린 허리는 하늘하늘하여 초록 비단 치마 아래로 작은 발(금련)이 살짝 드러나고,
희고 고운 몸은 가뿐하여 붉은 수놓은 저고리가 옥 같은 몸에 참으로 잘 어울리네.
얼굴에는 삼월의 고운 꽃이 피어 있고, 눈썹은 초봄의 어린 버들처럼 그려졌구나.
향기로운 살결은 요대(瑤臺)의 달처럼 어리고, 푸른 귀밑머리는 초산(楚山)의 구름처럼 풀어 헝클어졌네.

여인이 절을 올린 뒤 노달에게 청했다.

「은인, 위층으로 올라가 앉으십시오.」

노달이 말했다.

「그렇게까지 대접받을 것 없소. 난 바로 가보겠소.」

그러자 금노가 말했다.

「은인께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찌 그냥 보내드린단 말씀입니까?」

금노는 노달의 짐 보따리와 봉을 받아 들고 위층으로 모셔 가서 자리에 앉혔다. 그러고는 딸에게 분부했다.

「얘야, 은인께서 앉아 계시는 동안 곁에서 모시거라. 나는 음식을 준비하러 가마.」

노달이 말했다.

「번거롭게 할 것 없으니 형편대로 하시오.」

금노가 대답했다.

「제할(군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목숨을 바쳐도 갚기 어렵습니다. 그저 거친 음식과 변변찮은 안주뿐이니 어찌 입에 올릴 것이 있겠습니까.」

여인은 노달을 위층에 붙잡아 앉혀 두었고, 금노는 아래로 내려가 집에 새로 들인 어린 사내종을 부르고 시녀에게 분부하여 한편으로 불을 지피게 했다. 금노는 그 사내종과 함께 거리로 나가 싱싱한 물고기와 어린 닭, 소를 채운 거위, 기름진 생선젓, 제철 과일 같은 것들을 사들고 돌아왔다. 그러고는 술을 데우고 채소를 손질하여 음식을 모두 일찌감치 차려서 위층으로 날랐다. 상 위에 술잔 세 개와 젓가락 세 쌍을 놓고, 채소와 과일, 안주 등을 차려 놓았다. 시녀가 은 술병에 술을 데

워 올렸다. 금노와 딸은 번갈아 가며 술을 올렸고, 금노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다.

노달이 말했다.

「어르신, 어찌 이리 땅바닥에 절을 하십니까? 제가 다 송구합니다.」

금노가 말했다.

「은인께 말씀 올립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붉은 종이패에 글을 써서 아침저녁으로 향 한 대를 피울 때마다 저와 제 딸이 늘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인께서 직접 오셨으니, 어찌 절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노달이 말했다.

「그 마음이 참으로 갸륵하구려.」

세 사람은 천천히 술을 마셨다. 날이 저물 무렵, 아래층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노달이 창문을 열어 살펴보니, 아래층에서 서른 명 남짓한 사람들이 저마다 흰 나무 몽둥이를 들고는 "어서 잡아 내려라!"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사람들 틈 사이로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앉아 크게 외쳤다.

"저 도둑놈을 놓치지 마라!"

노달은 상황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 의자를 집어 든 채 위층에서 아래로 뛰어 내려갔다. 금노가 급히 손을 저으며 외쳤다.

"아무도 손대지 마시오!"

그러자 금노가 얼른 아래로 달려 내려가 말을 탄 관원 곁으로 다가가 몇 마디 말을 건넸다. 그러자 그 관원은 웃음을 터뜨리더니, 소리쳐서 서른 명 남짓한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고는 각자 돌아가게 했다.

그 관원은 말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갔다. 금노가 노달을 모셔 아래로 내려오자, 관원은 몸을 날려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이름을 듣는 것보다 직접 뵙는 것이 낫다더니, 직접 뵈니 명성보다 더 대단하십니다. 의로운 제할(군관)께서는 부디 제 절을 받으십시오.」

노달이 금노에게 물었다.

「이 관원은 누구시오?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어찌하여 저에게 절을 한단 말이오?」

금노가 대답했다.

「이분이 바로 제 딸의 서방님이신 조원외 어른입니다. 아까는 그저 이 늙은이가 어떤 외간 남자라도 위층에 데려와 술을 마시는 줄로만 알고, 그래서 장원 일꾼들을 데리고 와 싸움을 벌였던 것입니다. 제가 사정을 말씀드리자 그제야 사람들을 흩어 보냈습니다.」

노달이 말했다.

「과연 그랬구려. 그렇다면 원외를 탓할 일이 아니오.」

조원외는 다시 노달을 위층으로 모셔 자리에 앉혔다. 금노는 술잔과 그릇을 다시 정돈하고 술과 음식을 새로 차려 대접했다. 조원외는 노달에게 상석을 내주었다. 노달이 말했다.

「제가 어찌 감히 상석에 앉겠습니까!」

원외가 말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표하는 것뿐입니다. 제할께서 이토록 호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참으로 만행(萬幸)입니다.」

노달이 말했다.

「나는 그저 거칠고 무딘 사내일 뿐이고, 죽어 마땅한 죄까지 지었습니다. 만약 원외께서 나의 비천함을 개의치 않고 벗으로 맺어 주신다면, 나중에 나를 쓸 일이 있을 때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조원외는 크게 기뻐하며 정도를 때려죽인 일을 물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창술을 겨루어 보기도 했다. 밤이 깊도록 술을 마신 뒤, 그들은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조원외가 말했다.

"이곳은 아무래도 편치 않을 듯하니, 제 장원으로 오셔서 며칠 머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노달이 물었다.

"귀하의 장원이 어디에 있소?"

원외가 대답했다.

"여기서 열 리 남짓 떨어진 곳에 '칠보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노달이 말했다.

"그럼 원외께서 먼저 사람을 보내 장원에서 말 두 필을 끌고 오게 하는 것이 좋겠소."

정오가 되기도 전에 말이 도착했다. 원외는 노달을 말에 태우고, 장원 일꾼들에게는 짐을 지우게 했다. 노달은 금노 부녀와 조원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말에 올랐다. 두 사람은 나란히 말을 타고 길을 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칠보촌으로 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찍 장원에 도착하여 말에서 내렸다. 조원외는 노달의 손을 잡고 초가집까지 안내하여 손님과 주인으로 자리를 나누어 앉았다. 그러고는 양을 잡아 술을 차려 대접하게 했다. 저녁이 되자 객실을 정돈하여 쉬게 했고, 다음 날에도 또 술과 음식을 준비해 대접했다.

노달이 말했다.

"원외께서 이토록 과분한 대접을 해주시니, 제가 어찌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조원외가 말했다.

"'천하가 모두 형제'라는데, 보답 같은 소리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야기는 이러하다. 노달은 그 후로 조원외의 장원에서 대엿새 동안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서원에서 한가로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금노가 급히 장원으로 달려와 서원 안으로 들어오더니 조원외와 노달을 보았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금노가 노달에게 말했다.

「은인님, 이 늙은이가 괜히 걱정이 많아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은인님께서 며칠 전 저와 함께 위층에서 술을 드셨을 때, 원외께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보고를 듣고 장원 일꾼들을 데려와 이웃 동네를 소란스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비록 나중에는 흩어졌으나 사람들이 의심을 품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관아의 포졸 서너 명이 찾아오고 이웃들이 바짝 캐묻고 다니니, 조만간 마을로 은인님을 잡으러 올까 겁이 납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어찌합니까?」

노달이 말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스스로 떠나면 될 일 아니오.」

조원외가 말했다.

「제할을 이곳에 계속 머물게 하자니 혹여 일이 꼬여 제할께서 원망을 품으실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모시지 않자니 여러모로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방도를 생각했는데, 제할께서 아무런 탈 없이 몸을 피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다만 제할께서 원치 않으실까 봐 걱정입니다.」

노달이 말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 그저 몸을 의탁할 곳만 있다면 무엇인들 마다하겠소?」

조원외가 말했다.

「그렇다면 더없이 좋습니다. 여기서 서른 리 남짓 떨어진 곳에 오대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는 문수원이라는 절이 있는데, 본래 문수보살의 도량입니다. 절에는 오백에서 칠백 명가량의 승려가 있고, 그 우두머리인 지진(智真) 장로님은 저와 의형제를 맺은 분입니다. 저희 조상께서 예전에 그 절에 시주를 한 바 있어 본디 이 절의 시주이자 후원자(단월)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곳에 승려 한 명을 출가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이미 오화도첩(승려임을 증명하는 공인된 문서)을 한 장 사두었는데, 아직 믿고 맡길 심복이 없어 그 서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할께서 허락하신다면 일체의 비용은 모두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정말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시겠습니까?」

노달은 생각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면 의지할 곳이 마땅치 않은데, 차라리 이 길을 택하는 것이 낫겠구나.〉

노달이 대답했다.

「원외께서 이토록 주선해 주시니, 제가 기꺼이 스님이 되어 오로지 원외의 보살핌에 의지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이 결정되자, 노달은 밤새워 옷가지와 여비, 비단과 예물들을 짐으로 꾸렸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장원 일꾼들에게 짐을 지게 하고 두 사람은 오대산을 향해 길을 떠났다. 진시(辰時, 오전 7시~9시)가 지나서야 산 아래에 도착했다. 노달이 바라본 오대산은 과연 장엄한 큰 산이었다! 그 모습은 이러했다.

구름은 봉우리 꼭대기를 가리고, 해는 산허리를 돌아가네.
험준한 산세는 하늘의 관문과 맞닿은 듯하고, 높이 솟은 봉우리들은 은하수에 닿을 듯하구나.
바위 앞 꽃과 나무는 봄바람에 춤추며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동굴 입구 덩굴은 밤새 내린 비를 머금은 채 어린 실타래처럼 매달려 있네.
날아가는 구름 사이 폭포는 은하수 그림자처럼 차가운 달빛에 젖어 들고,
깎아지른 절벽의 푸른 소나무는 철각령이 흔들리듯 용의 꼬리가 움직이는 듯하네.

산줄기는 삼천 세계를 위엄 있게 버티고 서 있고, 산봉우리는 수만 년 동안 높이 솟아 있구나.

조원외와 노달은 가마 두 채를 타고 산을 올라오며, 한편으로는 장원 일꾼을 먼저 보내 미리 알리게 했다. 절 앞에 다다르자, 이미 절의 도사(都寺)와 감사(監寺)가 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두 사람은 가마에서 내려 산문 밖 정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절 안의 지진(智真) 장로가 이 소식을 듣고 수좌(首座)와 시자를 데리고 산문 밖까지 마중을 나왔다. 조원외와 노달이 앞으로 나아가 예를 갖추자, 지진 장로는 합장하여 문안하며 말했다.

「시주께서 먼 길을 오시느라 쉽지 않으셨겠습니다.」

조원외가 대답했다.

「작은 부탁이 있어 특별히 귀 사찰에 찾아와 폐를 끼칩니다.」

지진 장로가 말했다.

「우선 원외님을 방장실로 모셔 차를 드시도록 하지요.」

조원외가 앞장서 가고 노달이 그 뒤를 따르며 문수사를 살펴보니, 과연 장엄하고 훌륭한 큰 절이었다! 그 모습은 이러했다.

산문은 푸른 고개로 스며들고, 불전은 푸른 구름과 맞닿아 있네.
종루는 달이 머무는 굴과 이어지고, 경각은 봉우리와 마주 서 있네.
향적주에는 맑은 샘물이 흐르고, 승려들의 방에는 사방의 안개가 감도

네.
늙은 스님은 높은 산봉우리 곁에 머물고, 참선하는 손님은 구름 안개 속에 있네.
흰 얼굴 원숭이는 때때로 과일을 바치며, 기묘한 돌로 목탁을 두드리고,
노란 점 사슴은 날마다 꽃을 물어와, 보배로운 전의 금불상에 공양하네.
일곱 층 보탑은 하늘 끝에 닿아 있고, 예부터 성스러운 스님들이 이 큰 절을 찾았네.

그때 진장로가 조원외와 노달을 방장(方丈)으로 안내했다. 장로가 원외를 손님석으로 안내하여 앉게 하자, 노달은 그대로 아랫자리로 가서 선의(禪椅, 승려용 의자)에 앉았다. 조원외가 노달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나직이 말했다.

"여기까지 와서 출가하겠다면서, 어찌 장로님을 마주하고 함부로 자리에 앉으십니까?"

노달이 대답했다.

"제가 그런 예법을 잘 몰라서 그렇소."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원외의 어깨 아래에 섰다. 앞에는 수좌(首座), 유나(維那), 시자(侍者), 감사(監寺), 도사(都寺), 지객(知客), 서기(書記)가 차례로 동서 양반(兩班)으로 줄지어 섰다. 장원 일꾼들

이 가마를 정리한 뒤, 상자들을 모두 방장으로 옮겨와 앞쪽에 늘어놓았다. 장로가 말했다.

"어찌하여 또 예물을 가져오셨습니까? 절에서는 이미 시주님(檀越)께 폐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말입니다."

조원외가 말했다.

"약소한 예물일 뿐이니, 감사하실 것 없습니다."

그러자 도인과 행동(行童)들이 예물을 정리해 치웠다. 조원외가 몸을 일으켜 말했다.

"대화상(大和尚)께 한 가지 청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예전부터 품어온 서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절에 승려 한 명을 출가시키겠다고 약속하고 도첩(度牒)과 서류도 이미 다 갖추어 두었으나, 지금까지 아직 출가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데려온 이 사촌 동생은 성이 노(魯) 씨인데, 본래 관서(關西) 지역의 군인 출신이나 속세의 고단함을 보고 스스로 세속을 버리고 출가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부디 장로님께서 거두어 주시어, 자비를 베푸시고 저의 변변찮은 체면을 보아서라도 머리를 깎아 승려로 받아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자가 책임지고 준비하겠습니다. 부디 장로님께서 이 일을 성사시켜 주신다면 더없이 다행이겠습니다!"

장로가 그 말을 듣고 대답했다.

“이 일은 늙은 중의 산문을 빛낼 일이니 아주 쉬운 일입니다. 우선 차부터 드시지요.”

행동이 차를 받쳐 들고 나왔다. 차를 다 마신 뒤 찻잔 받침을 거두었다.

진장로는 즉시 수좌와 유나를 불러 이 사람의 출가 절차를 의논하게 하고, 감사와 도사에게는 공양을 준비하라고 일렀다. 그러자 수좌와 여러 승려가 모여 의논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출가하려는 사람의 모습 같지가 않소. 눈매가 어찌 이리 험악하단 말이오?"

승려들이 말했다.

"지객, 가서 손님들을 객관으로 모셔라. 우리는 장로님과 의논하겠다."

지객이 나와 조원외와 노달을 객관으로 안내하여 앉게 했다. 수좌를 비롯한 승려들이 장로에게 가서 보고했다.

"방금 본 출가하려는 사람은 생김새가 흉악하고 상이 사납습니다. 저 사람을 승려로 받아들였다가는 나중에 우리 절에 화가 미칠까 두렵사옵니다."

장로가 말했다.

"그는 조원외 시주의 형제인데, 어찌 그 체면을 깎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의심하지 말고 일단 기다려 보아라. 내가 직접 살펴보겠다."

향 한 대를 피우고 장로가 선의에 올라 가부좌를 틀고 앉더니, 주문을 외우며 명상에 들었다. 향이 다 타갈 무렵 장로가 깨어나 승려들에게 말했다.

"그저 이 사람을 승려로 받아들이도록 하여라. 이 사람은 타고난 운명이 하늘의 별과 맞닿아 있어 마음이 강직하다. 비록 지금은 험악하고 사나운 기운이 섞여 있으나, 머지않아 청정한 경지에 이르러 얻을 깨달음이 비범하니 너희 중 누구도 그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내 말을 명심하여 절대 거절하지 마라."

수좌가 말했다.

"장로님께서 그저 편을 들어주시니 저희로서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간언을 드려도 듣지 않으시니, 그저 이대로 끝낼 뿐입니다."

장로가 공양을 준비하게 하고 조원외 일행을 방장(方丈)으로 청해 공양을 대접했다. 공양이 끝나자 감사가 장부를 정리했다. 조원외는 은량을 꺼내어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 오게 했다. 한편 절에서는 승려가 신을 신발과 승복, 모자, 가사, 그리고 절하는 데 쓰는 배구(拜具)를 만들었다. 하루 이틀 만에 모든 준비가 완비되었다. 장로가 길일을 택해 좋은 시각을 정하고, 종과 북을 치게 하여 법당 안에 대중을 모았다. 오륙백 명에 달하는 승려들이 질서 정연하게 가사를 걸치고 법좌 아래에 모여, 동서 두 반(班)으로 나누어 서서 합장하며 예를 갖추었다. 조원외는 은덩이와 예물, 향을 꺼내어 법좌 앞에 올리고 절을 했

다. 소문(疏文)을 아뢰어 읽는 절차가 끝나자 행동이 노달을 법좌 아래로 인도했다. 유나가 노달에게 머리에 쓴 건책(巾幘)을 벗게 한 뒤, 머리카락을 아홉 갈래로 나누어 묶어 올리게 했다. 머리를 깎는 이가 먼저 머리 둘레를 다 밀고 나서 수염을 깎으려 하자, 노달이 말했다.

"이 정도는 이 몸에게 남겨두어야 좋지 않겠소."

그 말에 여러 승려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진장로가 법좌 위에서 말했다.

"대중은 게송을 들으라."

장로가 게송을 읊었다.

"한 치의 풀(머리카락)도 남기지 말고, 육근(六根)을 청정히 하라. 너를 위해 깎아 없애니, 다툼을 면하게 하리라."

장로가 게송을 마치고 크게 외쳤다.

"돌(咄)! 모조리 깎아버려라!"

그러자 머리 깎는 이가 단칼에 머리카락을 모두 밀어버렸다. 수좌가 도첩을 받들어 법좌 앞으로 가져와 장로에게 법명을 내려달라고 청했다. 장로가 빈 도첩(空頭度牒)을 손에 들고 게송을 읊었다.

"신령한 빛 한 점이 천금의 값어치가 있으니, 불법이 광대하도다. 그에게 지심(智深)이라는 이름을 내리노라."

장로가 법명을 내린 뒤 도첩을 아래로 건네주자, 서기 승려가 도첩에 내용을 기입하여 노지심에게 건네 받게 했다. 장로가 다시 법의(法衣)와 가사를 내려주어 노지심이 입게 했다. 감사가 그를 법좌 앞으로 인도하자, 장로가 손으로 그의 정수리를 어루만지며 마정수기(摩頂受記, 정수리를 만지며 계를 전수함)를 하며 말했다.

"첫째, 부처님의 성품에 귀의하고, 둘째, 올바른 가르침을 받들며, 셋째,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이것이 삼귀(三歸)이다. 다섯 가지 계율은 이러하니, 첫째 살생하지 말고, 둘째 도둑질하지 말며, 셋째 음란한 짓을 하지 말고, 넷째 술을 탐하지 말며, 다섯째 거짓말을 하지 마라."

노지심은 선종에서 '능(能)'이나 '부(否)' 두 글자로 답해야 하는 줄은 몰랐던 터라, 그저 이렇게 말했다.

"이 몸이 잘 기억해 두겠소."

그 모습에 승려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수기(受記)가 끝나자 조원외는 승려들을 운당(雲堂)으로 청해 자리에 앉히고, 향을 피워 공양을 올렸다. 크고 작은 직책을 맡은 승려들은 저마다 축하 예물을 바쳤다. 도사가 노지심을 인도하여 여러 사형과 사제를 찾아가 인사를 나누게 한 뒤, 다시 승당 뒤편 총림(叢林)에 있는 선불장으로 데려가 자리를 잡게 했다. 그날 밤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다.

다음 날 조원외가 돌아가려 하여 장로에게 작별을 고했다. 아침 공양이 끝나자 모든 승려가 산문 밖까지 나와 그를 배웅했다. 조원외가 합장하며 말했다.

"장로님과 여러 스님들께 청하옵건대, 부디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살펴 주십시오. 이 지심이라는 아우는 어리석고 거친 사람이라, 아침저녁으로 예법을 갖추지 못하거나 말로 결례를 범하고 청규를 어길 수도 있습니다. 부디 저의 체면을 봐서라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로가 말했다.

"원외께서는 안심하십시오. 노승이 천천히 경전 읽는 법과 주문 외우는 법, 도를 닦고 참선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조원외가 말했다.

"훗날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노지심을 불러 소나무 아래로 데려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당부했다.

"아우님, 오늘부터는 예전과 같지 않으니 매사에 스스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네.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되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나중에 얼굴을 보기가 어렵겠네. 몸조심하게, 몸조심하게. 옷가지가 필요하면 내가 사람을 시켜 보내주겠네."

노지심이 말했다.

"형님, 말씀 안 하셔도 이 몸이 다 알아서 하겠소."

이때 조원외는 장로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다시 사람들과 헤어진 뒤 가마에 올랐다. 그는 장원의 하인들을 거느리고 빈 가마 하나를 더 끌게 한 뒤, 상자를 챙겨 산을 내려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사이 장로는 승려들을 이끌고 절로 돌아갔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노지심은 숲속 선불장의 참선용 침상으로 돌아오자마자 머리를 박고 곧장 잠이 들었다. 양옆 자리(위·아래 어깨 쪽)에 앉아 있던 두 선화자(禪和子, 수행 중인 승려)가 그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미 출가하셨으면 어찌 좌선을 배우지 않으십니까?"

노지심이 말했다.

"이 몸이 잠 좀 자겠다는데, 네놈이 무슨 상관이냐?"

선화자가 말했다.

"선재(善哉, 좋습니다)!"

노지심이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다.

"자라(團魚)라면 이 몸도 잘 먹는다만, 무슨 '선재'란 말이냐?"

선화자가 말했다.

"이거 참 괴롭군요(苦也)!"

그러자 노지심이 대꾸했다.

"자라는 배가 불룩하고 기름지고 달아서 맛이 아주 좋은데, 어찌 '쓰다(苦)'고 하느냐?"

양옆의 선화자들은 그를 상대하지 않고 그냥 잠을 자게 내버려 두었다. 다음 날, 선화자들은 장로에게 노지심이 이토록 무례하다는 사실을 알리려 했다. 그러자 수좌(首座)가 그들을 말렸다.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자는 나중에 얻을 깨달음이 비범할 것이니 우리 중 누구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 하시며 그저 허물을 덮어 주려 하시네. 자네들은 어쩔 도리가 없으니, 저 자와 똑같이 시비를 따지려 들지 말게나."

그 말을 듣고 선화자들은 물러갔다. 노지심은 아무도 자신을 나무라지 않자, 밤마다 참선용 침상 위에 대(大)자로 뻗어 누워 잠을 잤다. 밤이면 코 고는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용변을 보려고 일어날 때면 야단스럽게 굴며 불전 뒤편에 아무 데나 소변과 대변을 보아 사방이 오물투성이가 되었다. 시자(侍者)가 장로에게 고했다.

"지심이 너무나 무례하여 출가한 사람의 체면이 전혀 없습니다. 이 총림(叢林)에 어찌 이런 사람을 둘 수 있겠습니까?"

장로가 꾸짖으며 말했다.

"허튼소리 마라! 시주(檀越)의 체면을 봐서라도, 저 자는 나중에 반드시 변할 것이다."

그 뒤로는 아무도 감히 그를 나무라지 못했다.

노지심은 오대산(五臺山) 사찰에서 어느덧 네다섯 달 동안 소란을 피우며 지냈다. 그러다 초겨울이 되자, 지심은 오래 가만히 지낸 탓에 몸이 근질거려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마침 날씨가 아주 맑고 화창한 날이었다. 노지심은 검은색 무명 도포를 입고 짙은 청색 띠를 맸으며, 승려 신발로 갈아 신은 뒤 성큼성큼 산문 밖으로 걸어 나왔다.

발길 닿는 대로 걸어 산 중턱 정자에 다다르자, 그는 거위 목처럼 굽은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게 대체 무슨 꼴이란 말인가? 예전에는 매일같이 좋은 술과 좋은 고기를 입에서 떼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몸이 중이 되어 굶주려 비쩍 말라버렸구나. 조원외는 요 며칠 먹을 것을 보내주는 사람도 없으니, 입안이 심심해 죽을 지경이다. 이참에 술이라도 좀 얻어 마실 수 있으면 좋으련만."

술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다. 저 멀리서 한 사내가 통 두 개를 멜대에 메고 노래를 부르며 산을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통 위에는 뚜껑이 덮여 있었다. 사내는 손에 구기(鏇子, 술을 푸는 국자 모양 그릇)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다가왔다.

"구리산(九里山) 앞은 옛 전쟁터요, 목동이 주워온 것은 낡은 칼과 창이라. 순풍에 불어가는 오강(烏江)의 물결은, 마치 우희(虞姬)가 패왕(霸王)과 이별하는 듯하구나."

노지심은 그 사내가 멜대에 통을 메고 올라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정자에 앉아, 사내가 정자로 다가와 멜대를 내려놓는 것을 지켜보았다. 노지심이 말했다.

"이봐, 사내! 그 통 안에 든 게 무엇이냐?"

사내가 대답했다.

"좋은 술입니다!"

노지심이 다시 물었다.

"한 통에 얼마냐?"

사내가 말했다.

"스님, 정말 농담하시는 겁니까?"

노지심이 대꾸했다.

"이 몸이 네놈이랑 농담할 것 같으냐?"

사내가 말했다.

"제가 이 술을 메고 올라가는 건, 절 안에서 불을 때는 화공 일꾼(火工道人)이나 당직 가마꾼, 그리고 막일하는 늙은 일꾼들에게 팔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절 장로님께서 내리신 법지(法旨)가 있는데, 만약 스님들에게 술을 팔아 마시게 하면 저희는 모두 장로님께 벌을 받고 밑천까지 추징당한 채 살던 집에서 쫓겨납니다. 저희는 절의 밑천을 빌려 쓰고 절의 집에 얹혀사는 처지인데, 어찌 감히 스님께 팔 수 있겠습니까?"

노지심이 물었다.

"정말로 안 팔겠다는 말이냐?"

사내가 말했다.

"저를 죽여도 못 팝니다!"

노지심이 말했다.

"이 몸이 너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술을 사서 마시겠다는 것 아니냐."

사내는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고는 멜대를 메고 가버리려 했다. 노지심이 정자에서 달려 내려가더니, 두 손으로 멜대를 붙잡고 발로 사내의 가랑이 사이를 걷어찼다. 사내는 두 손으로 사타구니를 감싼 채 바닥에 한 덩어리로 웅크려 쓰러졌고,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노지심은 술 두 통을 모두 정자 위로 들어 올려 놓은 뒤, 바닥에 떨어진 구기(鏇子)를 집어 들고 통 뚜껑을 열어 차가운 술을 마음껏 퍼 마셨

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술통 두 개 중 하나를 다 비웠다. 노지심이 말했다.

"이봐, 내일 절로 돈 받으러 오너라."

사내는 그제야 통증이 좀 가라앉았지만, 절의 장로가 알게 되어 밥줄이 끊길까 두려워 분을 꾹 삼킬 뿐, 감히 돈을 달라고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사내는 남은 술을 반 통씩 둘로 나누어 멜대에 메고, 구기를 챙겨 들고는 나는 듯이 산 아래로 내려가 버렸다.

한편, 노지심은 정자에 앉아 반나절을 보내는 사이 술기운이 올라왔다. 정자에서 내려와 소나무 뿌리 근처에 다시 잠시 앉아 있자니, 술기운이 갈수록 더 솟구쳐 올랐다. 결국 노지심은 검은 무명 도포를 벗어 어깨 아래로 내리고 두 소매를 허리춤에 감아 묶었다. 그러자 등에 새긴 화려한 꽃 문신(花繡)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양팔을 휘저으며 산을 향해 걸어 올라갔다.

그 모습이 어떠했냐면, 머리는 무겁고 발걸음은 휘청거렸으며 눈은 붉게 충혈되고 얼굴은 술기운에 벌겋게 달아올랐다. 몸은 앞뒤로 쏠리고 좌우로 기울어져, 비틀거리며 산을 오르는 모습은 마치 바람을 맞은 학 같았고, 흔들거리며 절로 돌아가는 모습은 마치 물에서 나온 뱀 같았다.

하늘의 궁궐을 가리키며 천봉원수(天蓬元帥)에게 욕설을 퍼붓고, 저승을 짓밟아 열며 명을 재촉하는 판관(催命判官)을 잡으려 드네. 벌거벗은 알몸으로 술에 취한 마군(醉魔君)이요, 불 지르고 사람 죽이는 화화상(花和尚, 노지심)이라네.

노달이 산문에 이르자, 멀리서 그를 발견한 문지기 두 명이 대나무 매를 들고 산문 아래로 달려 나와 노지심을 가로막으며 호통을 쳤다.

"당신은 불가의 제자가 되어서 어찌 이토록 만취한 채 산으로 올라온단 말이오? 눈이 멀지 않았다면 창고에 붙은 공고를 보았을 텐데, 스님이 계율을 어기고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나무 매로 마흔 대를 때리고 사찰에서 쫓아내기로 되어 있소. 만약 문지기가 술 취한 승려를 들여보내면 문지기 또한 열 대를 맞게 되어 있단 말이오. 어서 산 아래로 내려가시오. 그러면 매 몇 대는 봐주겠소."

노지심은 이제 막 승려가 된 데다 예전의 거친 성미를 버리지 못한 터라, 눈을 부릅뜨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 빌어먹을 놈들! 너희 둘이 감히 이 몸을 때리려 드느냐? 정 그렇다면 어디 한번 맞붙어 보자꾸나!"

문지기들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한 놈은 나는 듯이 사찰 안으로 들어가 감사(監寺)에게 보고하러 달려갔고, 남은 한 놈은 짐짓 대나무 매를 끌며 노지심을 막아섰다. 노지심은 손을 들어 그것을 막아내고는, 제 다섯 손가락을 쫙 펴서 그대로 문지기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후려쳤다. 문지기는 휘청거리며 비틀거렸다. 그가 다시 몸을 가누려 하자 노지심이 또 한 번 주먹을 날려 산문 아래로 쓰러뜨려 버렸으니, 문지기는 그저 비명만 질러댈 뿐이었다.

노지심이 말했다.

"이놈, 내가 이번 한 번은 봐주마."

그러고는 노지심은 비틀거리며 절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감사가 문지기의 보고를 듣고는 곧바로 나이 든 일꾼과 화공(火工, 절의 잡일을 맡은 일꾼), 직청의 가마꾼들을 불러 모았다. 이삼십 명 남짓한 사람들이 각자 하얀 나무 몽둥이를 들고 서쪽 복도 아래에서 튀어나와 마침 노지심과 맞닥뜨렸다. 노지심은 그들을 보자마자 입가에서 벼락이라도 치는 듯한 커다란 함성을 내지르며 성큼성큼 달려들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가 군관 출신인 줄 몰랐으나, 이내 그의 기세가 워낙 흉포한 것을 보고는 당황하여 모두 장전(藏殿, 경전을 보관하는 전각) 안으로 허겁지겁 도망쳐 들어가 빚살 새는 격자문을 쾅 닫아걸었다. 노지심은 계단 위까지 치고 올라가 주먹질 발길질로 격자문을 박살 내고 들어가, 이삼십 명을 퇴로도 없이 몰아붙였다. 그러고는 몽둥이 하나를 빼앗아 들고 장전 안에서부터 그들을 두들겨 패며 밖으로 몰아냈다.

감사는 당황하여 급히 진장로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진장로가 보고를 듣고는 즉시 서너 명의 시자를 데리고 복도로 달려 나와 호통을 쳤다.

"지심아, 무례하게 굴지 말거라!"

노지심은 비록 술에 취해 있었으나 상대가 진장로임을 알아보고는 들고 있던 몽둥이를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앞으로 나아가 합장하여 예를 올리고, 복도 쪽을 가리키며 장로에게 말했다.

"지심이 술을 딱 두 사발 마셨을 뿐이고 저놈들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저놈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 몸을 때리려 하지 않았습니까!"

진장로가 말했다.

"내 얼굴을 봐서라도 어서 가서 잠이나 자거라.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꾸나."

그러자 노지심이 대꾸했다.

"장로님 체면을 봐서가 아니었다면, 이 몸이 저 까까머리 놈들을 그냥 때려죽였을 겁니다!"

진장로는 시자들에게 노지심을 부축하게 하여 선상(禪床)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러자 노지심은 그대로 바닥에 엎어져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사찰의 여러 소임 승려가 진장로를 에워싸고 말했다.

"예전에도 제자들이 장로님께 간언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꼴을 좀 보십시오! 우리 사찰이 어찌 저런 들고양이 같은 놈을 용납하여 청규(淸規)를 어지럽히게 둔단 말입니까!"

진장로가 말했다.

"지금 당장은 좀 시끄럽겠지만, 나중에 저놈이 반드시 정과(正果)를 이룰 것이다. 어쩔 수 없으니 일단 조원외 시주의 체면을 봐서 이번 한

번만 너그럽게 넘어가 주자꾸나. 내일 내가 불러다가 따끔하게 나무라면 될 일 아니냐."

승려들이 냉소하며 말했다.

"참으로 사리 분별 못 하는 장로님이시구려!"

그들은 각자 흩어져 휴식을 취하러 갔다.

다음 날 아침 공양을 마친 뒤, 진장로가 시자를 보내 승당의 참선하는 곳에서 노지심을 깨우라고 했으나 그는 여전히 일어나지 않았다. 마침내 노지심이 일어나 직철(直裰, 승복) 한 벌을 걸치고는 맨발로 연기처럼 승당 밖으로 걸어 나왔다. 시자는 깜짝 놀라 밖으로 따라 나가 노지심을 찾았으나, 노지심은 불전 뒤편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다. 시자는 웃음을 참지 못하다가, 노지심이 손을 씻고 나자 말했다.

"장로님께서 말씀 좀 하시겠답니다."

노지심은 시자를 따라 방장(方丈, 주지 스님의 거처)으로 갔다. 진장로가 말했다.

"지심아, 네가 비록 무부(武夫) 출신이라지만, 이번에 조원외 시주가 너를 출가시켜 머리를 깎아 주었고, 내가 네 정수리를 어루만져 계를 내리며 다섯 가지를 가르쳤다. 첫째는 살생하지 말 것, 둘째는 도둑질하지 말 것, 셋째는 음란한 짓을 하지 말 것, 넷째는 술을 탐하지 말 것, 다섯째는 거짓말하지 말 것이다. 이 다섯 가지 계율은 승가에서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다. 출가한 이에게 무엇보다 금해야 할 것이 술을

탐하는 것인데, 너는 어찌하여 어젯밤에 그렇게 취하도록 마셨느냐? 문지기들을 때리고, 장전의 붉은 격자문까지 망가뜨렸으며, 화공(火工)과 도인(道人) 같은 절 일꾼들까지 다 때려 쫓아버리고 고함을 질러댔으니, 대체 어찌 이런 짓을 한단 말이냐?"

노지심이 무릎을 꿇고 말했다.

"이번에는 정말 그러지 않겠습니다."

진장로가 꾸짖었다.

"이미 출가하였거늘, 어찌하여 시작부터 술계를 어기고 청규를 어지럽힌단 말이냐? 내가 시주인 조원외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당장 너를 절에서 쫓아냈을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마라!"

노지심은 일어나 합장하며 대답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진장로는 노지심을 방장에 머물게 하여 아침 식사를 챙겨 먹이며 좋은 말로 그를 타일렀다. 그러고는 고운 천으로 만든 직철 한 벌과 승려용 신발 한 켤레를 노지심에게 주며 승당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옛날에 글재주가 뛰어난 어진 이가 단숨에 붓을 놀려 오직 술 하나만을 두고 구호(口號) 한 편을 지었는데, 참으로 기가 막히게 잘 지었으니 그 내용은 이러하다.

시로 이르되,

"지금껏 온갖 허물과 악행은 모두 술로 돌아가니, 내 한마디 말로 세상에 밝히리라.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이 합쳐져 사람이 되듯, 밀가루와 누룩과 쌀과 물이 어우러져 진한 술이 되네. 술은 병 속에 있을 때는 고요하여 물결조차 일지 않고, 사람도 취하기 전에는 입이 없는 듯하네. 누가 갓난아이더러 곧 술 취한 늙은이라 하던가, 찹쌀을 먹고 개처럼 나자빠진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네. 그런데 어찌 석 잔을 거리낌 없이 들이부어, 사대(四大, 인간을 구성하는 네 요소)가 제 몸을 가누지 못하게 만드는가! 어떤 이는 한 방울도 입에 대지 못하고, 어떤 이는 단숨에 삼백 말을 들이켜네. 멀쩡히 깨어 있어도 미친 무리가 있는가 하면, 곤드레만드레 취해도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는 이도 있네. 술 속의 '성인(聖)'과 '현인(賢)'이 사람들 입에 전해 내려오지만, 술 때문에 나라와 가문을 저버리고 뒤엎는 이도 있네. 비웃음을 풀고 미혹을 깨뜨리는 옛말이 있으니,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술에 취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네."

무릇 술을 마실 때는 지나치게 즐기지 말아야 하니, 흔히들 "술이 일을 성사시키기도 하지만, 일을 망치기도 한다"라고 말한다. 겁이 많은 사람조차 술을 마시면 대담하게 날뛰며 함부로 행동하거늘, 하물며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오죽하겠는가?

한편, 노지심은 술을 마시고 한바탕 난동을 피운 뒤로 석 달이나 네 달 동안 감히 절 문밖을 나서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씨가 무척 따뜻해진 2월경이었다. 그는 승방을 벗어나 한가로이 산문 밖으로 걸어 나가 오대산의 풍경을 바라보며 크게 환호성을 질렀다. 그때 갑자기 산 아래에서 챙그랑챙그랑하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산 위로 들려왔다.

노지심은 다시 승방으로 돌아가 은자 몇 냥을 챙겨 품에 넣고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내려갔다. 오대산 복지(福地)의 패루를 벗어나 보니, 그곳은 뜻밖에도 오칠백 가구 정도가 모여 사는 저잣거리였다. 노지심이 마을을 살펴보니 고기를 파는 집도 있고 채소를 파는 집도 있었으며, 술집과 국수집도 있었다. 노지심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곳이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그 술통을 빼앗아 마시는 대신 그냥 내려와서 먹을 것을 좀 사 먹을 걸 그랬구나. 요 며칠 물만 마시며 버텼는데, 가서 무엇을 좀 사 먹을 만한 게 있는지 보자.'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대장간에서 쇠를 두드리고 있었고, 바로 옆집 문에는 '부자객점'이라 적혀 있었다. 노지심이 대장간 문 앞까지 가서 보니 세 사람이 쇠를 두드리고 있었다. 노지심이 말했다. "이보게, 대장장이! 좋은 강철이 좀 있는가?" 대장장이는 노지심을 보았다. 턱수염을 갓 깎아 뺨 주위에 거칠게 자라난 수염이 험상궂게 뻗쳐 있어, 보자마자 겁부터 났다. 대장장이가 손을 멈추고 말했다. "스님, 앉으십시오. 무엇을 만들어 드릴까요?" 노지심이 말했다. "내가 선장(禪杖) 하나와 계도(戒刀) 한 자루를 만들려는데, 상등품의 좋은 철이 있는가?" 대장장이가 말했다. "마침 좋은 철이 좀 있습니다만, 스님께서는 선장과 칼을 각각 얼마나 무겁게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노지심이 말했다. "백 근 무게의 선장 하나면 되네." 대장장이가 웃으며 말했다. "너무 무겁습니다. 스님, 제가 만들기가 겁이 납니다. 스님께서 그걸 어떻게 휘두르시려고요? 관우 장군의 칼도 겨우 팔십일 근밖에 안 됩니다." 노지심이 조급하게 말했다. "내가 관우보다 못하겠는가! 그 사람도 결국 사람일 뿐이다." 대장장이가 말했다. "제 생각에는 사오십 근 정도만 되어도 충분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노지심이 말했다. "네 말대로 하더라도 관우의 칼만큼인 팔십일 근으로 만들어 주게." 대장장이가 말했다. "스님,

너무 무거우면 보기에도 안 좋고 쓰기도 불편합니다. 제 말대로 예쁘게 잘 빠진 육십이 근짜리 수마(水磨) 선장을 만들어 드릴 테니, 만약 쓰기 힘들다고 해도 저를 탓하지 마십시오. 칼은 따로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알아서 아주 좋은 철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노지심이 물었다. "두 물건을 다 하는 데 은자 몇 냥이나 들겠나?" 대장장이가 말했다. "흥정은 안 하겠습니다. 딱 은 다섯 냥을 받겠습니다." 노지심이 말했다. "좋다, 다섯 냥에 하도록 하지. 만약 잘 만들어지면 상을 더 주겠다." 대장장이가 은자를 받으며 말했다. "그럼 바로 만들겠습니다." 노지심이 말했다. "여기 잔돈이 좀 있으니, 술 한 잔 사 마시게나." 대장장이가 말했다. "스님, 편히 계십시오. 제가 일을 서둘러 마쳐야 해서 술 한 잔 대접할 겨를이 없습니다."

노지심은 대장간을 떠나 채 서른 걸음도 걷지 못했는데, 처마 끝에 내걸린 술집 깃발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노지심은 가림막을 걷어 올리고 안으로 들어가 앉으며 탁자를 두드려 외쳤다. "술을 가져오너라!"

술집 주인이 말했다. "스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머무는 이 집도 절의 소유이고, 장사 밑천도 모두 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장로님께서 내리신 법령에, 만약 저희가 술을 팔아 절의 승려가 마시게 되면 밑천을 몰수하고 집에서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부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노지심이 말했다. "그저 내가 마실 술을 조금 팔아준다고 해서, 네 집에서 샀다는 말은 하지 않으마."

주인이 대답했다.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스님, 다른 곳에 가서 드십시오. 부디 노여워 마십시오.”

노지심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다른 데서 마시면 될 것이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러 오마.”

가게를 나와 몇 걸음 가니, 이번에는 술 깃발이 문 앞에 길게 걸려 있는 집이 보였다. 노지심은 곧장 안으로 들어가 앉으며 외쳤다. “주인장, 어서 술을 가져와 내게 팔게나.”

주인이 말했다. “스님, 참으로 사리를 모르시는군요. 장로님의 법령을 스님께서도 아실 텐데, 어찌하여 저희의 생계를 망치려 하십니까?”

노지심은 움직일 생각이 없었기에 몇 번이고 계속 요구했지만, 주인은 도무지 팔려 하지 않았다. 노지심은 상대가 팔지 않을 것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길을 떠났다. 연달아 서너 군데를 더 가보았으나 모두 술을 팔지 않았다. 노지심은 꾀를 내어 보았다. ‘어떤 명분이 없으면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겠는가?’

저 멀리 살구꽃이 만발한 깊은 곳, 마을 끝자락에 한 집이 짚 빗자루를 장대에 매달아 내건 것이 보였다. 노지심이 그곳으로 가서 보니 마을 변두리에 있는 작은 주막이었다.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마을 곁 술집이 세워진 지 이미 여러 해,
뽕나무와 삼밭 사이 옛길가에 비스듬히 서 있네.
나무 판자 의자 펼쳐 손님들 앉아 있고,
대나무 울타리에는 가시덤불 엮어 두었네.

깨진 항아리로 노란 쌀술을 짜내고,
사립문에는 푸른 천 가림막을 드리웠네.
더 웃음이 나는 재미있는 구석은,
소똥 섞은 진흙 벽이 술의 신을 닮았구나.

노지심은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가 창가에 걸터앉으며 외쳤다. "주인장, 지나가던 승려인데 술 한 사발 좀 팔게나."

주인이 노지심을 한번 훑어보더니 물었다. "스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노지심이 말했다. "나는 떠돌이 승려라네. 이곳을 지나던 길에 술 한 사발 마시려는데."

주인이 말했다. "스님, 만약 오대산 절에 계신 스님이라면 저는 감히 술을 팔 수 없습니다."

노지심이 말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 어서 술을 가져오게."

주인은 노지심의 험상궂은 모습과 범상치 않은 목소리를 보고는 얼른 물었다. "술을 얼마나 드릴까요?"

노지심이 말했다. "양은 묻지 말고, 그저 큰 사발로 넉넉히 가져오게나."

대략 열 사발 정도를 마셔갈 때쯤, 노지심이 물었다. "고기는 좀 있는가? 한 접시 가져와 보게."

주인이 말했다. “아침에 소고기가 좀 있었는데 벌써 다 팔렸습니다.”

그때 노지심의 코끝에 갑자기 고기 냄새가 확 끼쳤다. 마당으로 나가 살펴보니, 담벼락 옆 솥 안에서 개 한 마리가 삶아지고 있었다. 노지심이 말했다. “자네 집에 개고기가 있는데 어찌 내게 팔지 않는가?”

주인이 말했다. “스님은 출가하신 몸이라 개고기를 안 드실까 봐, 차마 여쭈어보지 못했습니다.”

노지심이 말했다. “내 은자가 여기 있네.” 그는 주인에게 은자를 건네며 말했다. “그 개를 반 마리만 내게 팔게.”

주인은 서둘러 삶은 개고기 반 마리를 꺼내 마늘을 찧어 곁들인 뒤 노지심 앞에 놓아주었다. 노지심은 크게 기뻐하며 손으로 개고기를 뜯어 마늘에 찍어 먹었고, 그사이 술을 또 열 사발이나 들이켰다. 그는 입에 맛이 들려 정신없이 먹어대느라 도무지 멈출 줄을 몰랐다.

주인은 그 모습에 넋이 나가 소리쳤다. “스님, 그만 좀 하시지요!”

노지심이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내가 공짜로 먹는 것도 아닌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주인이 물었다. “그럼 얼마나 더 드릴까요?”

노지심이 말했다. “술 한 통을 더 가져오게.”

주인은 어쩔 수 없이 술 한 통을 다시 떠다 주었다. 노지심은 순식간에 그 술을 다 비우더니, 남은 개 다리 하나를 품에 챙겨 넣었다. 그리고 가게를 나서며 다시 말했다. “남겨 둔 돈으로는 내일 또 와서 먹겠네.”

주인은 너무 놀라 눈만 멍하니 뜬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노지심은 벌써 오대산 위로 올라가 버린 뒤였다.

노지심은 산 중턱에 있는 정자에 이르러 잠시 앉아 있었다. 그러나 술기운이 다시 치밀어 오르자, 그는 벌떡 일어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한동안 주먹질도 발길질도 안 했더니 몸이 찌뿌둥하구나. 내 몸 좀 풀어봐야겠다.”

정자를 내려온 노지심은 양 소매를 걷어붙이고 상하좌우로 몸을 크게 움직이며 권법을 휘둘렀다. 한참 힘을 쓰던 중, 그가 팔을 한 번 크게 휘두르자 정자 기둥에 정통으로 맞았다. 그러자 ‘콰직’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기둥이 부러지더니 정자의 절반이 무너져 내렸다.

산문을 지키던 문지기들이 중턱에서 들려온 소란에 위를 올려다보니, 노지심이 한 걸음에 한 번씩 비틀거리며 산을 향해 달려 올라오고 있었다. 문지기들이 소리쳤다. “이런, 큰일 났네! 저 짐승 같은 놈이 이번에도 엄청나게 취했구먼! 얼른 산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 잠가라!”

문지기들이 틈새로 살짝 내다보니, 노지심이 산문 아래까지 들이닥쳐 문이 닫힌 것을 보고는 북을 치듯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들겨 대고 있었다. 문지기들이 어찌 감히 문을 열 수 있겠는가. 노지심은 한참을 두드리더니 몸을 돌려 왼쪽의 금강상을 보며 호통을 쳤다. “이 빌어먹

을 덩치 큰 놈아! 나를 위해 문을 두드려 주지는 못할망정, 주먹을 쥐고 나를 겁주려 드느냐? 난 전혀 겁나지 않는다!"

그는 곧장 대좌 위로 뛰어올라 울타리 가시를 파를 꺾듯 쑥 뽑아버렸다. 그러고는 부러진 나무 막대기를 집어 들어 금강상의 다리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매를 맞은 금강상은 흙과 색칠이 후두둑 떨어져 나갔다. 이를 본 문지기가 겁에 질려 외쳤다. "큰일이다! 어서 장로님께 알려야겠다!"

노지심은 잠시 기다리더니 이번에는 몸을 돌려 오른쪽의 금강상을 보며 소리쳤다. "이놈아, 입을 크게 벌리고 나를 비웃는 것이냐?" 그는 다시 오른쪽 대좌 위로 뛰어올라 금강상의 다리를 두어 차례 내리쳤다. 그러자 하늘이 울리는 듯한 굉음이 나더니 금강상이 대좌에서 쿵 하고 쓰러졌다. 노지심은 부러진 나무 막대기를 든 채 크게 웃어댔다.

문지기들이 달려가 장로에게 보고하자, 장로는 말했다. "그를 건드리지 마라. 너희는 그냥 물러가거라."

한편, 수좌(首座)와 감사(監寺), 도사(都寺)를 비롯한 모든 직책을 맡은 승려들이 방장으로 달려가 아뢰었다. "이 야생 고양이 같은 놈이 오늘 술에 잔뜩 취해 산 중턱의 정자와 산문의 금강상까지 다 부숴놓았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장로가 대답했다. "예부터 천자조차 술 취한 자는 피하는 법인데, 하물며 이 늙은 승려가 어찌 감당하겠느냐? 만약 금강상을 부쉈다면 그 시주인 조원외가 알아서 새로 만들 것이고, 정자가 무너졌다면 그가 다시 지을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어라."

승려들이 물었다. “금강상은 산문을 지키는 주인인데, 어찌 함부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장로가 말했다. “금강상을 부순 정도가 아니라, 만약 전각 안의 삼세불을 부순다 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그저 피하는 수밖에 없다. 너희도 엊그제 그놈이 행패 부린 것을 보지 않았느냐?”

승려들이 방장을 나와서 서로 수군거렸다. “그 장로라는 사람, 참으로 두루뭉술한 양반이군! 문지기야, 문은 열지 말고 안에서 소리만 들어라.”

그때 밖에서 노지심의 고함이 들려왔다. “이 빌어먹을 대머리 놈들아! 당장 문을 열어 나를 들여보내지 않으면, 산문 밖에서 불을 가져다 이 빌어먹을 절을 다 태워버리겠다!”

승려들은 그 소리를 듣고, 문지기에게 어쩔 수 없이 빗장을 풀라고 명령했다. 문을 열지 않으면 정말로 불을 지를 기세였기 때문이다. 문지기들은 살금살금 다가가 빗장을 풀고는 방 안으로 번개같이 숨어버렸고, 승려들도 제각기 몸을 피했다.

노지심은 양손으로 산문을 힘껏 밀어젖혔는데, 그 바람에 땅바닥에 고꾸라지며 한 번 나뒹굴고 말았다. 그는 다시 기어 일어나 머리를 한 번 만져보고는 곧장 승방으로 직행했다. 선불장에 이르니 승려들이 막 참선하며 앉아 있었다. 노지심이 발(주렴)을 걷어 올리고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것을 본 승려들은 깜짝 놀라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노지심은 참선용 평상 곁에 다다르더니, 목구멍에서 그르렁 소리를 내며 바닥에

토를 해댔다. 승려들은 그 고약한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저마다 "선재(善哉)로다!"를 외치며 코와 입을 틀어막았다.

노지심은 한바탕 토를 해내더니 평상 위로 기어 올라갔다. 그러고는 허리띠를 풀고 장삼(直裰)의 옷끈을 부드득 잡아뜯어 끊어버리고는, 챙겨두었던 개 다리를 꺼냈다. 노지심이 말했다. "좋아, 좋아,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이었다!" 그는 고기를 뜯어 바로 먹기 시작했다. 승려들은 그 꼴을 차마 보지 못하고 소매로 얼굴을 가렸고, 위아래 자리에 앉아 있던 승려 두 명은 멀찍이 피해 버렸다.

노지심은 승려들이 피하는 것을 보고는 개고기 한 점을 뜯어 상석에 앉은 승려를 보며 말했다. "자네도 한입 들게나." 상석에 앉은 스님은 양 소매로 얼굴을 꽉 가리고 있었다. 노지심이 말했다. "먹지 않겠다고?" 그는 고기를 아랫자리에 앉은 승려의 입가로 밀어 넣었다. 그 승려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평상 아래로 내려가려 하자, 노지심은 그의 귀를 낚아채고는 강제로 고기를 입에 처넣었다. 건너편 평상에 있던 네댓 명의 승려가 달려와 말리려 들자, 노지심은 개고기를 내팽개치고 주먹을 치켜들어 그 대머리들의 머리통을 주먹으로 사정없이 쥐어박기 시작했다.

법당 안의 모든 승려가 비명을 지르며 각자 옷과 바리때(衣鉢)를 챙겨 들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 난리는 이른바 '권당대산(捲堂大散, 승려들이 떼 지어 흩어짐)'이라 불릴 만했다. 수좌(首座)인들 어찌 이 난리를 막을 수 있었겠는가?

노지심이 한결같이 난동을 부리자, 참선하던 승려들 대부분이 복도 밖으로 피해 버렸다. 감사와 도사는 장로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직책을 맡은 승려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고는 노랑(老郎, 주방 담당), 화공(火工, 불 관리 담당), 도인(道人, 의례 담당), 직청(直廳, 행정 담당), 가마꾼 등 일백 명에서 이백 명 남짓한 이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모두 지팡이와 창, 몽둥이를 들고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맨 채 일제히 승방으로 들이닥쳤다.

노지심은 그들을 보자마자 크게 호통을 쳤다. 그는 별다른 무기도 없었기에, 곧장 승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 불단 앞의 공양상을 밀어엎고 탁자 다리 두 개를 꺾어 들고는 당당하게 싸우며 밖으로 밀고 나왔다. 그 광경은 이러하였다.

마음속에서는 불길이 치솟고, 입에서는 천둥소리가 울려 퍼지니, 여덟아홉 자에 달하는 맹수 같은 몸집을 떨치고, 삼천 장 높이의 구름을 찌를 듯한 기개를 뿜어낸다. 사람을 죽일 듯한 괴이한 담력을 억누를 길 없으니, 바다를 뒤집을 듯한 두 눈을 부릅뜬다. 앞뒤 가릴 것 없이 곧장 들이치는 기세는 마치 화살을 맞고 절벽으로 뛰어드는 호랑이와 표범 같고, 앞으로 내닫고 뒤로 솟구치는 모습은 마치 창에 찔린 채 계곡을 뛰어넘는 승냥이와 이리 같다. 설령 게제(揭帝,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라 할지라도 당해내기 어려울 것이요, 금강역사라 할지라도 두 손 모아 물러나야 하리라.

당시 노지심이 탁자 다리 두 개를 휘두르며 싸우며 나오자, 수많은 승려가 그 기세가 너무 흉포한 것을 보고는 모두 몽둥이를 든 채 복도 아래로 물러났다. 노지심이 탁자 다리 두 개를 땅에 딛고 거칠게 몰아

치며 다가오니, 승려들이 일찌감치 양옆에서 에워싸며 달려들었다. 노지심은 크게 분노하여 동쪽을 치고 서쪽을 치며, 남쪽과 북쪽을 치되 양 끝의 승려들만은 살려두었다. 노지심이 법당 아래까지 거침없이 몰아붙일 때, 장로가 꾸짖으며 외쳤다. "지심아, 무례하게 굴지 마라! 승려들도 모두 손을 떼라!" 양쪽에서 맞붙었던 사람들 중 수십 명이 다쳤는데, 장로가 나타나자 모두 각자 물러갔다. 노지심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탁자 다리를 내던지며 외쳤다. "장로님, 이 사람(소승)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이때 술기운은 이미 칠팔 할쯤 깨어 있었다.

장로가 말했다. "지심아, 네가 노승을 곤란하게 만드는구나. 지난번에도 한 차례 취해서 소란을 피우더니, 그 소식이 네 형님인 조원외에게까지 들어가 그가 편지를 보내와 승려들에게 사과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대낮부터 술에 취해 무례하게 굴며 청규를 어지럽히고, 정자를 무너뜨리고 금강상까지 부수다니. 정자 부순 것은 이번 한 번만 넘어가겠다만, 네가 승려들을 쫓아내고 난장판을 만든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곳은 오대산 문수보살의 도량으로, 수천 년 동안 청정하게 향불을 이어온 곳인데 어찌 너 같은 불결한 자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우선 나를 따라 방장(方丈, 주지 스님의 거처)으로 가서 며칠 머물거라. 내가 네가 갈 곳을 알아봐 주마."

노지심은 장로를 따라 방장으로 향했다. 장로는 직책을 맡은 승려들에게 참선하던 승려들을 붙잡아 두라고 일렀고, 그들은 다시 승방으로 돌아가 앉아 참선을 하거나, 다친 스님들은 각자 가서 몸을 추슬렀다. 장로는 노지심을 데리고 방장으로 가서 하룻밤을 머물게 했다.

다음 날, 진장로는 수좌(首座)와 상의하여 말했다. “은자 몇 냥을 챙겨주어 그를 다른 곳으로 보내야겠소. 우선 조원외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좋겠소.” 장로는 즉시 편지를 한 통 써서 직청(直廳) 도인 두 명을 보냈다. 도인들은 곧장 조원외의 장원으로 달려가 사정을 상세히 알리고 그 자리에서 답을 기다렸다가 가져오게 했다.

조원외는 편지를 읽어보고는 몹시 언짢았다. 그러나 답장을 써서 장로에게 정중히 회답하였다. “부서진 금강상과 정자는 제가 곧 비용을 마련하여 수리하겠습니다. 지심은 장로님께서 보내시는 곳 어디든 가도록 맡기겠습니다.”

장로는 답장을 받은 뒤, 시자를 불러 검은 베로 만든 장삼(直裰) 한 벌과 승려용 신발 한 켤레, 그리고 은 열 냥을 챙기게 한 다음 방으로 노지심을 불러들였다. 장로가 말했다. “지심아, 지난번에 크게 취해 승방을 소란스럽게 한 것은 그래도 실수로 저지른 일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술에 취해 금강상을 부수고 정자를 무너뜨리며, 선불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승려들을 흩어지게 했으니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게다가 참선하던 이들까지 다치게 했으니 말이다. 이곳은 출가하여 수행하는 청정한 곳인데, 네 행동은 참으로 좋지 못하구나. 네 형님인 조 단월(檀越, 시주)의 체면을 봐서 이 편지를 들려 보내 네가 몸을 의탁할 곳을 하나 찾아주마. 이곳에서는 도저히 너를 더 머물게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밤새 헤아려 네게 줄 게송 네 구절을 지었으니, 평생토록 받아 쓰도록 해라.”

노지심이 말했다. “스승님, 이 제자가 어디로 가서 몸을 의탁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스승님의 게송 네 구절을 듣고 싶습니다.”

진장로가 노지심을 가리키며 몇 마디 말을 건네고는 그를 어느 곳으로 보내게 되니, 이야말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되게 하였다.

웃으며 선장을 휘둘러 천하의 영웅호걸과 싸우고, 노하여 계도(戒刀)를 뽑아 세상의 패륜한 자식과 간신을 베리라. 그 이름은 변방 북쪽 삼천 리에 떨치고, 마침내 강남 제일의 고을에서 불도(佛果)를 이루리라.

결국 진장로가 노지심에게 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다음 회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라.

제5회 — 소패왕이 취하여 소금장에 들고, 화화상 노지심이 도화촌을 발칵 뒤집다

小霸王醉入銷金帳 花和尚大鬧桃花村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날 지진 장로가 말했다.

“지심아, 너는 이제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내게 사제가 하나 있는데, 지금 동경의 대상국사(大相國寺)에서 주지를 맡고 있는 지청선사라는 분이다.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써 줄 테니, 그분을 찾아가 직사승(직책을 맡은 승려)으로 자리를 부탁해 보거라. 내가 밤새 고민하며 네게 줄 게송 네 구절을 지었으니, 평생의 지침으로 삼아 오늘의 말을 명심하거라.”

노지심이 무릎을 꿇고 말했다.

“이 못난 놈, 게송을 듣겠나이다.”

장로가 말했다.

"숲을 만나면 일어나고, 산을 만나면 풍요로워지며, 물을 만나면 흥하고, 강을 만나면 멈추리라."

노지심은 이 네 구절의 게송을 듣고 장로에게 아홉 번 절을 올렸다. 그러고는 짐 꾸러미와 허리 주머니, 배낭을 챙기고 편지를 품에 숨겼다. 장로와 스님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한 뒤 오대산을 떠난 노지심은 곧장 대장간 옆 객점에 들러 하룻밤 쉬었다. 선장(禪杖, 수행자의 지팡이)과 계도(戒刀, 승려가 차는 칼)를 새로 맞추고 모든 채비를 마친 뒤 길을 떠날 준비를 했다.

사찰의 스님들은 노지심이 떠난 것을 보고 모두 진심으로 기뻐했다. 장로는 화공 도인에게 명령하여 부서진 금강정자를 스스로 정리하게 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조원외가 직접 많은 돈과 물건을 가지고 오대산에 찾아왔다. 그는 금강상을 다시 만들고 반산정을 중수하니, 그 뒤의 일은 말할 것도 없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선림을 떠나 다시 선림으로 들어오니,
마음 통하는 벗을 만나 의리가 쇠라도 끊을 만큼 굳네.
위엄을 떨쳐 도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묘한 이치를 펼쳐 선심을 즐겁게 하리라.
별호로는 오랫동안 화화상(花和尚)이라 불려 왔고,
도호는 친히 지으신 노지심(魯智深)이라네.

속세의 소망 이루는 날 마침내 깨달음을 증득하련만,
눈앞에 마음 알아줄 이 없으니 어찌하리오.

한편, 노지심은 객점에 며칠 더 머물며 장비들을 모두 갖추었다. 칼집을 새로 만들어 계도를 꽂아 넣고, 선장에는 칠을 새로 입혔다. 그는 은자 몇 푼을 대장장이에게 상으로 주고는, 짐 꾸러미를 등에 지고 계도를 허리에 찬 뒤 선장을 손에 들었다. 그러고는 객점 주인과 대장장이에게 작별을 고하고 길을 떠났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를 보고는 과연 거친 스님이로구나 생각할 정도였다.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검은색 두루마기 옷을 입고 소매가 두 갈래로 갈라진 옷을 걸쳤으며, 푸른색 둥근 띠를 비스듬히 둘러 그 양 끝을 매듭지었다.

칼집 속의 계도는 마치 세 자 길이의 차가운 얼음처럼 날카롭고, 어깨에 멘 선장은 마치 한 마리의 쇠구렁이가 가로놓인 듯했다.

다리에는 빳빳한 천으로 발목을 단단히 동여맸고, 배에는 옷과 바루를 튼튼하게 묶었다.

입가에는 수천 가닥의 거친 철사를 꿰맨 듯한 수염이 덥수룩하고, 가슴팍에는 짐승의 가죽을 덧댄 듯 거친 털이 삐져나와 있었다.

그 모습은 고기를 먹고 생선을 씹는 것이 어울릴 뿐, 경전을 읽고 불공을 드리는 수행자로 보이지는 않았다.

한편, 노지심은 오대산 문수원을 떠난 뒤 동경을 향해 길을 잡았다. 보름 넘게 길을 재촉하며 나아가는 동안, 그는 길가에 있는 사찰에 들

러 쉬는 법이 없었다. 그저 객점에 머물며 불을 피워 몸을 녹이고, 낮에는 주막에서 술과 음식을 사 먹으며 여정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던 노지심이 산세가 수려하고 물빛이 맑은 풍경에 넋을 잃고 구경하다 보니, 어느덧 하늘이 어둑어둑해졌다. 그 풍경은 이러하였다.

산 그림자 깊게 가라앉고, 회화나무 그늘은 점차 사라지네.
푸른 버드나무 교외에는, 때때로 새들이 숲으로 돌아가는 소리 들리고;
붉은 살구꽃 핀 마을에는, 매번 소와 양이 우리로 들어가는 모습 보이네.
지는 해는 안개를 머금어 푸른 안개 피어오르고, 끊긴 노을은 물에 비쳐 붉은 빛 흩뿌리네.
시냇가 낚시 노인은 배를 저어 떠나가고, 들판의 마을 아이는 송아지 타고 돌아오네.

노지심은 산세가 수려한 풍경에 마음을 빼앗겨 반나절이나 길을 재촉하다 보니, 마땅히 머물 곳을 찾지 못했다. 길 위에는 동행할 사람도 없으니 어디서 하룻밤을 지내야 할지 막막할 따름이었다. 그렇게 삼십 리쯤 더 달려 판자다리를 건너는데, 멀리 붉은 노을 사이로 나무숲 가운데 장원이 하나 보였다. 장원 뒤편으로는 험한 산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다. 노지심이 말했다. "저 장원에 들어가 하룻밤 묵어가는 수밖에 없겠군."

그는 곧장 장원 앞으로 달려갔다. 가보니 수십 명의 일꾼이 분주하게 이리저리 물건을 옮기고 있었다. 노지심은 장원 앞에 이르러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서서 일꾼에게 인사를 건넸다. 일꾼이 물었다. "스님, 날도 저물었는데 우리 장원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노지심이 대답했다. "길을 가다 숙소를 제때 찾지 못해, 하룻밤만 빌려 묵어가려 하오. 내일 아침이면 바로 떠날 것이니 말이오."

그러자 일꾼이 말했다. "오늘 밤 우리 장원에 일이 있어 묵으실 수 없습니다."

노지심이 다시 말했다. "그저 하룻밤만 묵게 해주시오. 내일이면 바로 갈 테니 말이오."

일꾼이 쏘아붙였다. "스님, 어서 가시오! 여기서 죽고 싶어 환장했소?"

노지심이 어이없어하며 말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군! 하룻밤 묵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왜 죽는다는 소리까지 하는 거요?"

일꾼이 말했다. "갈 거면 얼른 가시오. 가지 않겠다면 붙잡아 여기 묶어버릴 테니까!"

노지심이 크게 노하며 외쳤다. "이 마을 놈이 참으로 막무가내로 구는구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를 묶어두겠다는 말이냐!"

일꾼들 중에는 욕을 퍼붓는 자도 있었고, 그만 물러가라고 권하는 자도 있었다.

노지심이 화가 나 지팡이를 치켜들고 한바탕 소동을 피우려는데, 마침 장원 안에서 노인 한 명이 걸어 나왔다. 노지심이 보니 예순은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다. 노인은 머리 높이까지 오는 지팡이를 짚고 걸어 나오더니, 일꾼들에게 호통을 쳤다. "너희들 무엇 때문에 이리 소란이냐?"

일꾼이 대답했다. "이 스님이 저희를 때리려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자 노지심이 말했다. "소승은 오대산에서 온 승려로, 동경에 가서 일을 좀 보려던 참이었소. 그런데 오늘 밤 숙소를 제때 찾지 못해 귀한 장원에서 하룻밤 묵어가려 했더니, 저 일꾼 놈이 무례하게도 나를 묶어두겠다고 하더란 말이오."

노인이 말했다. "오대산에서 오신 스님이라면 나를 따라 안으로 들어오시오."

노지심은 노인을 따라 정당(正堂, 손님을 맞이하는 큰 방)에 이르러 주인과 손님으로 나누어 앉았다. 노인이 말했다. "스님, 노여워 마십시오. 일꾼 놈들이 스님께서 살아있는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오신 줄 모르고 그저 평소 하던 대로 대했을 뿐입니다. 이 늙은이는 평소 불교의 삼보를 공경해 왔으니, 비록 오늘 밤 장원에 일이 있어 분주하긴 하나 스님을 하룻밤 머물게 해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노지심은 지팡이를 옆에 기대어 놓고 일어나 인사를 건네며 감사를 표했다. "보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귀한 장원의 성씨가 무엇인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이 늙은은 성이 유 씨요, 이곳은 도화촌이라 부르며 마을 사람들은 나를 도화장 유태공이라 부른다오. 스님의 속명은 무엇이라 하시오?"

노지심이 말했다. "제 스승님은 지진 장로이신데, 제게 이름을 지어 주셨소. 제 성은 노 씨이고, 이름은 노지심이라 합니다."

유태공이 말했다. "스님, 우선 저녁 식사부터 하시지요. 혹 고기나 술을 드시는 데 거부감은 없으십니까?"

노지심이 대답했다. "나는 고기와 술을 가리지 않소. 깨끗한 술이든 아니든 상관없고, 소고기든 개고기든 있는 대로 잘 먹을 것이오."

유태공이 말했다. "스님께서 가리지 않으신다니, 어서 일꾼에게 술과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겠소."

얼마 지나지 않아 일꾼이 탁자를 차려오더니, 노지심 앞에 소고기 한 접시와 서너 가지 채소 요리, 그리고 젓가락 한 쌍을 놓았다. 노지심은 허리춤에 찬 주머니와 봇짐을 풀어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다. 일꾼이 술병을 따서 잔에 술을 따라 노지심에게 건넸다. 노지심은 사양하거나 겸손하게 굴지 않고, 순식간에 술 한 병과 고기 한 접시를 깨끗이 비워 버렸다. 유태공은 그 모습을 보고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어 일꾼이 밥을 가져오자 노지심은 밥까지 다 먹고 나서야 탁자를 물렸다.

유태공이 일꾼에게 분부했다. "스님을 대충 정돈하여 바깥쪽 행랑방에 모셔라. 밤중에 밖이 시끄럽더라도 절대로 밖을 내다보게 해서는 안 된다."

노지심이 물었다. "귀한 장원에 오늘 밤 무슨 일이 있기에 그러시오?"

유태공이 대답했다. "출가하신 스님께서 상관하실 일은 아니오."

노지심이 말했다. "태공께서 왜 그리 표정이 좋지 않으시오? 혹 내가 와서 소란을 피운 것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오? 내일 아침에 방값은 잊지 않고 갚을 테니 말이오."

유태공이 말했다. "스님께서 들으셨겠지만, 우리 집은 평소 승려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보시를 해왔소. 스님 한 분 모시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오. 다만 오늘 밤 우리 딸아이의 혼사 문제 때문에 번뇌가 심해서 그렇소."

노지심이 허허 크게 웃으며 말했다. " '사내아이는 장성하면 장가를 들어야 하고, 계집아이는 장성하면 시집을 가야 하는 법'이라 하지 않소. 이것은 인륜의 큰일이요 오상(五常)의 예법인데, 어찌 번뇌하신단 말이오?"

유태공이 말했다. "스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이번 혼사는 서로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오."

노지심이 다시 크게 웃으며 말했다. "태공께서도 참으로 어리석으시구려!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데 어찌 데릴사위로 맞이하려 하시오?"

유태공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늙은이에게는 이 어린 딸 하나뿐인데, 이제 겨우 열아홉 살이 되었소. 그런데 이곳에 도화산이라는 산

이 있는데, 근래 그 산에 대왕 두 놈이 나타나 산채를 세우고 오백에서 칠백 명의 무리를 모아 집을 털고 재물을 빼앗고 있소. 이곳 청주 관군이 도적을 잡으려 해도 막지 못하고 있소. 그러던 차에 그놈들이 우리 장원에 공물을 거두러 왔다가 내 딸을 보고는, 금 스무 냥과 붉은 비단 한 필을 예물로 던져놓고 오늘 밤을 길일로 골라 저녁에 데릴사위로 들어오겠다고 하였소. 그놈들과 싸워 이길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내주어야 할 판이니, 이 때문에 번뇌하는 것이지 스님 한 분 때문이 아니오."

노지심이 그 말을 듣고 말했다. "사정이 그러했구려. 내게 그놈의 마음을 돌려놓아 귀한 따님과 혼인하지 않게 할 방도가 있는데, 어찌하면 좋겠소?"

유태공이 말했다. "그놈은 사람을 죽일 때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마귀 같은 놈인데, 스님께서 어찌 그놈의 마음을 돌리신단 말이오?"

노지심이 말했다. "나는 오대산 지진 장로님 밑에서 인연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소. 그 법을 쓰면 아무리 철석같은 사람이라도 마음을 돌릴 수 있소. 오늘 밤 따님을 다른 곳에 잠시 숨겨두시오. 내가 따님의 방에 들어가서 그놈에게 인연을 논하며 타이르면, 분명 마음을 돌려앉을 것이오."

유태공이 말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오만, 자칫 호랑이 수염을 건드리는 격이 될까 두렵소."

노지심이 대답했다. "내 목숨이 달린 일이라 해도 아깝지 않소! 그러니 그저 내 말대로만 하시오."

유태공이 감격하며 말했다. "정말 좋구려! 우리 집에 복이 굴러들어 왔소. 살아있는 부처님이 강림하셨으니 말이오!"

이 말을 곁에서 듣던 일꾼들은 모두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유태공이 노지심에게 또 먹을 것이 필요한지 물었다. 노지심이 말했다. “밥은 필요 없으니, 술이 있다면 좀 가져다 주시오.”

유태공이 “있고말고요,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즉시 일꾼을 불러 삶은 거위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큰 사발에 술을 가득 따라 오게 했다. 노지심은 술을 스무서른 사발이나 들이켜고 삶은 거위도 다 먹어치웠다. 그러고는 일꾼에게 자신의 보따리를 가져오게 하여 먼저 방 안에 놓아두게 한 뒤, 선장(禪杖, 승려가 짚는 지팡이)과 계도(戒刀, 승려가 차는 칼)를 챙겨 들고 물었다.

“태공, 따님은 잘 숨겨두었소?”

유태공이 대답했다. “이미 딸아이를 이웃 장원으로 피신시켜 두었소.”

노지심이 말했다. “나를 신부의 방으로 안내하시오.”

유태공이 방 근처로 데려가 가리키며 말했다. “저 안이 바로 그 방이오.”

노지심이 말했다. “당신들은 이제 가서 숨으시오.”

유태공과 일꾼들은 밖으로 나가 잔치를 준비하러 나갔다. 노지심은 방 안의 탁자와 의자 같은 가구들을 모두 한쪽으로 밀어 놓았다. 그리고 계도를 침상 머리에 두고 선장은 침상 옆에 기대어 놓은 뒤, 금실로 수놓은 휘장을 내려 쳤다. 그러고는 옷을 모두 벗어 던지고 알몸이 된 채 침상 위로 뛰어 올라가 앉았다.

유태공은 날이 점점 어둑해지는 것을 보고 일꾼들에게 시켜 앞뒤로 등불을 밝혀 환하게 만들게 했다. 그러고는 타작마당에 탁자를 하나 가져다 놓게 한 뒤, 그 위에 향기로운 꽃과 등불을 차려 놓았다. 한편으로는 일꾼들에게 고기를 큰 쟁반에 가득 담아 오게 하고, 술은 큰 항아리에 따뜻하게 데워 오게 했다.

초경(初更, 저녁 7시~9시 사이) 무렵이 되었을 때, 산기슭 쪽에서 징과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태공은 속으로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고, 일꾼들도 모두 식은땀을 흘리며 잔뜩 긴장한 채 장원 문밖으로 나가 상황을 살폈다. 멀리서 마흔에서 쉰 개쯤 되는 횃불이 대낮처럼 밝게 빛나며, 한 무리의 인마가 장원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안개는 푸른 산 그림자를 가두고, 앞뒤로 미친 듯이 달려오는 무리가 굴러 나오니, 연기는 푸른 숲 가장자리를 뒤덮고, 떼를 지어 먹잇감을 다투는 귀신들이 줄지어 서 있구나. 사람마다 흉악한 기운이 넘치고, 하나같이 험상궂은 얼굴들이라. 머리에 두른 수건은 다 진홍빛이고, 걸친 옷은 온통 단풍처럼 붉구나. 창을 든 자들은 짝을 지어 사람의 간과 심장을 뜯어먹을 작은 마왕들을 호위하고, 몽둥이를 든 자들은 떼를 지어 부모도 모르는 안하무인인 대두령들을 떠받들고 있도다. 밤중

에 나찰이 신부를 맞으러 오고, 산속의 큰 호랑이가 말에서 내려오는구나.

유태공이 이 광경을 보고는 즉시 일꾼들에게 시켜 장원의 문을 활짝 열고 마중 나가게 했다. 살펴보니 앞뒤로 병사들이 에워싸고 있었는데, 번쩍이는 무기와 창, 깃발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그 위에는 온통 빨강과 초록의 비단 천이 둘러져 있었다. 부하들의 머리에 두른 수건에는 들꽃들이 어지럽게 꽂혀 있었다. 그 앞에는 네다섯 쌍의 붉은 비단 초롱이 말 위에 앉은 대두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차림새가 어떠했는지, 다음과 같았다.

머리에는 끝이 뾰족하고 오목하게 파인 진홍색 두건을 썼는데, 관자놀이 쪽에는 비단으로 만든 꽃을 한 송이 꽂아 마치 살아 있는 꽃처럼 보였다. 위에는 호랑이 같은 몸을 휘감는, 융단을 두른 금실 자수의 초록 비단 도포를 입고, 허리에는 늑대 같은 허리에 꼭 맞는 금실 장식의 배가리개를 댄 붉은 띠를 둘렀으며, 발에는 양쪽이 맞물리는 구름무늬 뒤축의 소가죽 장화를 신었다. 그리고 키가 크고 털이 곱슬거리는 큰 백마 한 마리에 올라타고 있었다.

그 대두령이 장원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리자, 부하들이 일제히 소리 높여 축하 노래를 불렀다. “머리는 반짝반짝, 오늘 밤은 멋진 신랑. 옷차림은 맵시 있게, 오늘 밤은 귀한 손님.” 유태공은 황급히 술잔을 받들어 들고 좋은 술을 한 잔 가득 따라 바친 뒤 땅에 무릎을 꿇었다. 장원의 일꾼들도 모두 무릎을 꿇었다. 그러자 대두령이 손을 내밀어 그를 부축하며 말했다. “어르신은 제 장인어른이신데, 어찌하여 제게 무릎을 꿇으십니까?” 유태공이 대답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노인은

그저 대왕님 휘하에서 관리되는 가구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미 술기운이 일고여덟 분은 오른 대두령이 허허 크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귀댁의 사위가 된다면 어르신께도 결코 손해는 아닐 것이오. 어르신의 따님을 내 배필로 삼는 것도 좋겠구려." 유태공은 말에서 내린 손님에게 권하는 환영의 술잔(下馬杯)을 올렸다. 일행이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대두령이 향기로운 꽃과 등불, 촛불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말했다. "장인어른, 어찌 이리 거창하게 마중을 나오셨소?" 그는 그곳에서 술을 세 잔 더 마신 뒤 대청으로 향했다. 그리고 부하에게 일러 말을 버드나무에 매어 두게 했다. 부하들이 대청 앞에서 북을 치며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대두령이 대청에 올라 앉으며 외쳤다. "장인어른, 내 부인은 어디 있소?" 유태공이 대답했다. "부끄러움을 타서 감히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두령이 웃으며 말했다. "우선 술을 가져오너라. 내가 장인어른께 답례를 하겠다." 대두령은 술을 한 잔 들이켜고는 이어서 말했다. "내가 먼저 부인과 인사를 나누고 와서 술을 마셔도 늦지 않겠소."

유태공은 오로지 저 승려가 그놈(대왕)의 마음을 돌려놓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했다. "노인이 직접 대왕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는 촛대를 들고 대두령을 안내하여 병풍 뒤를 돌아 신부의 방 앞까지 이끌었다. 유태공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바로 이곳입니다. 대왕님께서 직접 들어가십시오." 그러고는 유태공이 촛대를 들고 곧장 자리를 떠났다. 흉한 일이 생길지 길한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기에, 우선 도망칠 길부터 마련해 둔 것이었다.

대두령이 방 문을 밀어 열었으나,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대두령이 말했다. “내 장인어른을 좀 보시오. 어찌나 알뜰한 분인지 방 안에 등불 하나 켜두지 않아, 내 부인을 이 어두운 곳에 앉아 있게 하다니 말이오. 내일 당장 부하들에게 산채에서 좋은 기름 한 통을 가져오라 일러 등불을 밝히게 해야겠소.” 휘장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노지심은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꾹 참으며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대두령이 방 안으로 더듬더듬 들어가며 외쳤다. “부인, 어찌 나와서 나를 맞이하지 않소?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내일 당신을 산채의 안주인으로 삼을 것이니!” 그는 연신 ‘부인’이라 부르며 방 안을 더듬거렸다. 그러다 금실로 장식된 휘장을 만지자마자 그것을 걷어 올리고, 한쪽 손을 집어넣어 더듬거렸다. 그러다 노지심의 배를 만지는 순간, 노지심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의 두건과 그 귀퉁이를 움켜쥐더니 그대로 침상 아래로 눌러 버렸다. 대두령이 몸부림치려 하자, 노지심이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욕설을 내뱉었다. “이 빌어먹을 놈!” 귀밑과 목덜미에 주먹을 한 방 날리자, 대두령이 비명을 질렀다. “어찌하여 남편을 때리는 게요?” 노지심이 호통을 쳤다. “네 마누라가 누군지 똑똑히 가르쳐 주마!” 노지심은 그를 침상 가로 쓰러뜨린 뒤, 주먹과 발길질을 한꺼번에 퍼부어 대두령이 살려달라고 울부짖게 만들었다. 유태공은 너무 놀라 멍하니 서 있었다. 이맘때쯤이면 노지심이 한창 설법으로 대왕을 타일러 마음을 돌리게 하고 있으려니 여겼는데, 갑자기 안에서 살려달라는 비명이 들려온 것이다. 유태공은 황급히 등불을 들고 부하들을 데리고 함께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사람들이 등불 아래를 살펴보니, 웬 덩치 큰 승려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맨몸으로 대두령을 침상 앞에 엎어놓고 두들겨 패고 있지 않겠는가. 우두머리 격인 부하가 외쳤다. “모두 달려들어 대왕님을 구하라!” 부하들이 일제히 창과 몽둥

이를 휘두르며 구하러 들어오자, 이를 본 노지심은 대두령을 내팽개치고 침상 가에 있던 선장을 집어 들고 바닥을 휩쓸며 쳐 나갔다. 부하들은 노지심의 기세가 워낙 맹렬한 것을 보고는 소리를 지르며 모두 달아나 버렸다. 유태공은 그저 울상만 지을 뿐이었다.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사이, 대두령은 방 문을 박차고 나가 문 앞에 있는 말로 달려갔다. 하지만 빈 말만 손에 잡히자 나무에서 버들가지 하나를 꺾어 훌쩍 말 등에 올라타더니, 버들가지로 말을 때렸으나 말은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대두령이 말했다. "아이고, 맙소사! 이 말까지 나를 괴롭히는구나!" 다시 살펴보니 너무 당황한 나머지 고삐를 풀지도 못한 채였고, 급히 고삐를 잡아당겨 끊어버린 뒤에야 말을 몰아 나는 듯이 달아났다. 장원 문을 빠져나오며 그는 크게 욕을 퍼부었다. "유태공 이 늙은 당나귀 같은 놈, 당황하지 마라. 네놈이 날아가 버릴까 봐 두렵지도 않다!" 그는 말에게 버들가지로 두어 대 매질을 하더니, 말은 덜컹거리며 대두령을 태운 채 산 위로 급히 달려 올라갔다.

유태공이 노지심을 붙잡고 말했다. "스님, 스님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아주 큰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지심이 말했다. "무례했다고 원망하지 마시오! 우선 옷과 직철(直裰, 승려의 평상복)을 가져오시오. 그걸 입고 이야기합시다." 장원 사람들이 방에서 옷을 가져오자 노지심은 옷을 갈아입었다. 유태공이 탄식하며 말했다. "나는 처음에 스님이 설법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어 저 대왕이 마음을 돌리도록 설득해 주실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먹을 휘둘러 두들겨 패실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분명 저 산채에 알려 강도 떼가 우르르 몰려와 우리 집을 몰살하려 들 것입니다." 노지심이 말했다. "유태공,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말해두겠는데,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오. 연안부

의 노충(老种) 경략상공 휘하에서 제할(提轄, 군관 직책)을 지내던 사람이오. 사람을 쳐 죽인 일 때문에 출가하여 승려가 된 것이지. 저런 새대가리 같은 두 놈은 말할 것도 없고, 천 명 이천 명의 군마가 몰려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소. 믿기지 않는다면 내 선장을 직접 들어 보시오." 장원 사람들이 선장을 들어 올릴 수 있을 리 없었다. 노지심이 선장을 건네받아 휘두르니, 마치 등불의 심지를 비비듯 가볍게 다루었다. 유태공이 말했다. "스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 식구들을 좀 지켜 주셔야지요." 노지심이 말했다. "무슨 헛소리요, 나는 죽어도 가지 않을 것이오." 유태공이 말했다. "그럼 스님, 술이라도 좀 드십시오. 다만 죽도록 취하지는 마십시오." 노지심이 대답했다. "내 술 실력은 한 푼어치 술을 마시면 한 푼어치 재주를 부리고, 열 푼어치 술을 마시면 열 푼어치 힘이 솟구치는 법이오." 유태공이 반색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군요! 여기 술과 고기가 넘쳐나니, 스님께서는 그저 마음껏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한편, 도화산의 대두령은 산채에 앉아 사위로 들어갈 이두령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살피라고 사람을 산 아래로 내려보내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부하 몇 명이 몹시 화가 난 기색으로 산채 안으로 뛰어 들어오며 소리쳤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대두령이 급히 물었다. "무슨 일이길래 이토록 허둥지둥하느냐?" 부하가 말했다. "이형님이 두들겨 맞고 오셨습니다!" 대두령이 깜짝 놀라 자세한 사정을 묻기도 전에,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 외쳤다. "이형님이 오셨습니다!" 대두령이 보니, 이두령은 머리에 두른 붉은 수건도 없어지고 초록색 도포는 갈기갈기 찢어진 채, 말을 타고 내려오다 대청 앞에 쓰러지듯 멈춰서 있었다. 그는 입으로 연신 말했다. "형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대

두령이 물었다. “어찌 된 일이냐?” 이두령이 대답했다. “아우가 산 아래로 내려가 그 장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늙은 여우 같은 놈이 딸을 숨겨버리고, 웬 뚱뚱한 승려를 딸의 침상에 숨겨두었지 뭡니까. 제가 방심하고 휘장을 걷어내어 더듬거렸더니, 그놈에게 붙잡혀 주먹과 발길질을 한바탕 얻어맞았습니다. 사람들이 구하러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놈이 손을 놓더니, 선장을 휘두르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덕분에 겨우 몸을 빼서 목숨만 건졌습니다. 형님, 제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대두령이 말했다. “사정이 그랬구나. 우선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라. 내가 너와 함께 그 도둑놈 같은 중놈을 잡으러 가겠다.” 그러고는 좌우를 향해 호통쳤다. “어서 내 말을 준비시켜라!” 부하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대두령은 말에 올라타 창을 손에 쥐고, 부하들을 모두 거느린 채 기세 좋게 산 아래로 내려갔다.

한편, 노지심이 한창 술을 마시고 있는데 장원 사람들이 달려와 보고했다. '산에서 대두령이 부하들을 다 거느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노지심이 말했다. '너희는 겁먹지 마라. 내가 때려눕히는 놈들은 너희가 그저 묶어서 관가에 끌고 가 상을 받기만 하면 된다. 내 계도(戒刀, 승려가 쓰는 칼)를 가져오너라.' 노지심은 입고 있던 직령을 벗어 던지고 밑에 입은 옷을 단단히 여며 묶은 뒤, 계도를 차고 선장을 짚으며 성큼성큼 타작마당으로 나갔다. 대두령이 횃불 무리를 이끌고 말을 달려 장원 앞으로 들이닥치더니, 말 위에서 긴 창을 겨누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 까까머리 중놈이 어디 있느냐? 어서 나와서 승부를 겨뤄보자!' 노지심이 크게 노하여 욕설을 내뱉었다. '이 더럽고 매 맞아 마땅한 놈, 네놈에게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주마!' 그러고는 선장을 휘둘러 땅을 휩쓸 듯이 몰아쳤다. 대두령이 창으로 막아내며 소리쳤다. '스님, 잠시

만 멈추시오! 목소리가 아주 낯익은데, 우선 성함부터 밝히시오.' 노지심이 말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오. 노충경략상공(老种經略相公) 휘하에서 제할을 지내던 노달이라 하오. 지금은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으니, 노지심이라 부르시오.' 그러자 대두령이 허허 웃으며 말에서 뛰어내려 창을 내팽개치고는, 덥석 엎드려 절을 하며 말했다. '형님, 그간 별고 없으셨습니까? 어쩐지 둘째 형님이 형님 손에 당했더군요.' 노지심은 그가 자신을 속이는 줄 알고 뒤로 몇 발자국 훌쩍 물러나며 선장을 고쳐 잡았다. 그러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니, 횃불 아래서 보이는 이는 다름 아닌 강호에서 창과 곤봉을 휘두르며 약을 팔던 교두, 타호장 이충이었다. 본래 강도들이 절을 할 때 '배례(下拜)'라는 말을 쓰면 군중(軍中)에 불길하다고 여겨, 길한 의미를 담아 '전불(剪拂)'이라 불렀다. 이충은 즉시 몸을 굽혀 절을 올리며 노지심을 부축해 말했다. '형님, 어찌하여 승려가 되셨습니까?' 노지심이 말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꾸나.' 이 광경을 본 유태공은 다시 한번 탄식하며 울상을 지었다. '이 스님도 알고 보니 저놈들과 한패였구나!'

노지심은 안으로 들어가 다시 직령을 챙겨 입고 이충과 함께 대청으로 나가 옛 정을 나누었다. 노지심이 상석에 앉고 유태공을 불러내라고 하자, 노인은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노지심이 말했다. '태공께서는 겁내지 마시오. 이 사람도 나의 형제요.' 노인은 그가 형제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더욱 불안해졌으나, 감히 나오지 않을 수도 없었다. 이충이 두 번째 자리에 앉았고, 유태공이 세 번째 자리에 앉았다. 노지심이 입을 열었다. '두 분이 여기 계시니 내 사정을 말하겠소. 나는 위주에서 주먹 세 방으로 「진관서」(정도)를 때려죽인 뒤, 대주 안문현으로 도망쳐 왔소. 거기서 예전에 내가 노자를 주어 떠나보냈던 김(金)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이 동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는 사람을 따라 안문현에 머물고 있었소. 그 노인의 딸은 이곳의 재력가인 조원외에게 시집을 갔는데, 나와 만나 예의를 갖추며 아주 잘 대접해주었소. 그런데 관가에서 나를 잡으려는 기세가 너무 급박하여, 조원외가 돈을 써서 나를 오대산 지진장로에게 보내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게 해주었소. 나는 두 번이나 술에 취해 승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스승이신 장로께서 편지 한 통을 주시며 동경 대상국사로 가서 지청 선사를 찾아가 직사승(職事僧)으로 지내라 하셨소. 날이 저물어 이 장원에 묵으러 왔다가 뜻밖에 형제를 만나게 되었구려. 그런데 방금 내가 두들겨 팬 자가 누구이며, 자네는 어찌하여 여기 있는 것인가?' 이충이 대답했다. '아우는 그날 위주 주루에서 형님, 그리고 사진과 더불어 우리 세 사람이 헤어진 뒤, 다음 날 형님이 정도를 때려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찾아가 상의하려 했으나 그는 이미 어디론가 떠나고 없더군요. 관가에서 사람을 풀어 잡으려 한다는 말을 듣고 저도 황급히 도망치다가 마침 이 산 아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방금 형님께 맞은 자는 이곳 도화산에 산채를 틀고 「소패왕」이라 불리는 주통입니다. 그자가 사람들을 이끌고 산 아래로 내려와 저와 싸웠으나 제가 이겼습니다. 그러자 그놈이 저를 산채의 우두머리로 모시며 첫 번째 교의(상석)를 내어주기에, 이렇게 이곳에서 산적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지심이 말했다. “아우가 여기 있으니, 유태공의 혼사 문제는 더 이상 입에 올리지 마시오. 그에게는 이 딸 하나뿐이라 평생을 돌보며 살아야 하는데, 자네가 억지로 빼앗아 가버리면 노인네가 의지할 곳 없이 망연자실하게 되지 않겠나.” 유태공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술과 음식을 차려내어 두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다. 산채의 졸개들에게도

각각 만두 두 개와 고기 두 점, 술 한 사발씩을 주어 모두 배불리 먹게 했다. 유태공은 원래 약속했던 금과 비단 꾸러미를 내놓았다. 노지심이 말했다. "이 형제, 자네가 저쪽에서 물건을 받아 가시게. 이 일은 자네에게 달렸네." 이충이 말했다. "그건 아무 문제 아닙니다. 형님께서는 우선 저희 작은 산채에 가셔서 며칠 머무르십시오. 유태공께서도 함께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태공은 장원 사람들에게 일러 가마를 준비하게 하여, 노지심을 태우고 선장과 계도, 그리고 짐을 챙겼다. 이충도 말에 올랐고, 유태공도 작은 가마에 몸을 실으니 어느덧 날이 밝아왔다. 일행이 산에 올라 노지심과 유태공이 산채 앞에 도착하여 가마에서 내리자, 이충도 말에서 내려 노지심을 산채 안으로 정중히 안내했다. 세 사람은 취의청(聚義廳, 의리를 모으는 대청)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충이 주통을 불러들였다. 주통은 스님을 보자 속으로 분노하며 생각했다. '형님이 나 대신 복수를 해 주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저놈을 산채로 불러들여 상석에 앉히다니!' 이충이 물었다. "아우야, 이 스님이 누구인지 아느냐?" 주통이 대답했다. "제가 만약 저분을 알았다면, 당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충이 웃으며 말했다. "이 스님이 바로 내가 평소에 말하던, 주먹 세 번에 '진관서'를 때려죽였다는 그 사람이라네." 주통이 머리를 긁적이다가 "아차!"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덥석 엎드려 절을 올렸다. 노지심이 답례하며 말했다. "무례를 범했다 해도 탓하지 마시오."

세 사람이 자리를 잡고 앉자 유태공이 그들 앞에 서 있었다. 노지심이 곧 입을 열었다. "주가 아우, 내 말을 잘 듣게나. 유태공의 혼사 문제는 말일세, 이 노인에게는 이 딸 하나뿐이라 노후를 돌보고 제사를 모시는 일 모두 이 아이에게 달려 있네. 만약 자네가 억지로 혼인을 해

버리면 노인네가 의지할 곳을 잃게 되니, 마음속으로 분명 원망할 것이야. 그러니 내 말대로 이번 혼사는 파기하고, 차라리 다른 좋은 처자를 찾아보게나. 원래 약속했던 금과 비단 꾸러미는 여기 준비되어 있네. 자네 생각은 어떠한가?" 주통이 대답했다. "형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다시는 감히 혼사를 청하러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노지심이 말했다. "대장부가 일을 함에 있어 결코 말을 바꾸어서는 안 되네!" 주통은 화살을 꺾어 맹세하며 약속했다. 유태공은 절하며 감사를 표하고 금과 비단을 돌려받은 뒤, 산을 내려가 장원으로 돌아갔다.

이충과 주통은 소를 잡고 말을 도축하여 잔칫상을 차리고 며칠 동안 노지심을 극진히 대접했다. 그들은 노지심을 데리고 산 앞뒤를 돌며 경치를 구경시켜 주었는데, 과연 도화산은 경치가 일품이었으나 지형이 험하고 기괴했다. 사방이 험준한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오직 길 하나만이 나 있을 뿐 주변은 온통 잡풀이 무성했다. 노지심이 이를 보고 말했다. "과연 험하고 요새 같은 곳이로구나." 며칠을 머물렀으나, 노지심은 이충과 주통이 호탕하기보다는 인색하고 구두쇠 같은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산을 내려가기로 마음먹었다. 두 사람이 간곡히 붙잡았으나 노지심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나는 이미 출가한 몸인데, 어찌 산적질을 하겠는가?" 주통이 말했다. "형님께서 산적질을 원치 않으신다면, 떠나실 때 저희가 내일 산을 내려가서 얼마가 되든 모두 형님의 여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산채에서는 양과 돼지를 잡아 떠나는 길을 배웅하기 위한 잔치를 열었다. 잔치상을 정돈하며 금은보화가 담긴 술잔과 그릇들을 탁자 위에 차려 놓았다. 막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려는데, 졸개 하나가 달려와 보고했다. "산 아래에 수레 두 대와 열댓 명의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이 보

고를 들은 이충과 주통은 수많은 졸개를 불러 모으고, 노지심의 술시중을 들 졸개 한둘만 남겨두었다. 두 호걸이 말했다. “형님께서는 그저 편히 술을 몇 잔 드시고 계십시오. 저희 둘이 산 아래로 내려가 재물을 가져온 뒤, 형님의 배웅을 해 드리겠습니다.” 말을 마친 그들은 사람들을 이끌고 산 아래로 내려갔다.

한편, 노지심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 두 놈이 어찌나 인색한지, 금은보화가 눈앞에 뻔히 있는데도 나에게 한 푼도 주지 않으려 하다니. 굳이 남의 것을 털어다가 나에게 주려고 기다리는 꼴이라니! 이건 공도(公道)를 제 인심인 양 베푸는 것이요, 그저 애꿎은 남만 괴롭히는 짓이 아닌가. 내 오늘 이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리라.' 노지심은 졸개 몇을 가까이 불러 술을 따르게 하여 마시기 시작했다. 술을 두 잔쯤 마셨을 때,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 두 방으로 졸개 둘을 때려눕혔다. 그러고는 전대를 풀어 한 덩어리로 묶고 입안에는 삼부스러기와 호두를 쑤셔 넣어 말을 못 하게 만들었다. 이어 자신의 보따리를 풀어 중요하지 않은 물건들은 모두 내던졌다. 그리고 탁자 위에 있던 금은 술그릇들만 챙겨서 모두 발로 밟아 납작하게 만든 뒤, 보따리 앞쪽 도첩(度牒) 주머니에 단단히 묶어 넣었다. 지진 장로가 준 편지도 간직하고, 계도(戒刀)를 차고 선장(禪杖)을 든 채 옷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산채를 나섰다. 산 뒤편에 이르러 둘러보니 온통 험준한 지형이었다. 노지심은 생각했다. '내가 앞산 길로 내려가면 틀림없이 저 놈들과 마주칠 테니, 차라리 이 잡풀이 무성한 곳으로 굴러 내려가는 게 낫겠다.' 그는 먼저 계도와 보따리를 묶어 아래로 던지고, 선장도 아래로 던져 떨어뜨렸다. 그러고는 몸을 아래로 굴려 데굴데굴 산기슭까지 내려갔는데, 다행히 아무 데도 다치지 않았다. 시로 이르되:

험한 절벽에 새가 다닐 길조차 없었으니,
가려던 발걸음 멈추고 스스로 의심하며 망설였네.
대머리 사내가 위에서 아래로 굴려 내리니,
잘 익은 수박들이 줄줄이 밑으로 떨어져 내리네.

그때 노지심은 험준한 곳에서 굴러 내려온 뒤 벌떡 일어나, 보따리를 찾아 챙겼다. 이어 계도를 차고 선장을 든 채, 팔다리를 쭉 펴고 성큼성큼 길을 떠났다.

한편, 이충과 주통이 산기슭까지 내려가니, 마침 무기를 든 수십 명의 행인과 마주쳤다. 이충과 주통이 창을 치켜세우자, 졸개들이 함성을 지르며 앞장서 달려 나가 소리쳤다. '이보게 손님들! 눈치가 있다면 길을 지나갈 통행료를 내놓으시오!' 그 행인들 중 한 명이 박도를 휘두르며 이충에게 달려들어 맞섰다. 두 사람은 엎치락뒤치락 십여 합을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에 화가 난 주통이 크게 호통을 치며 앞으로 나서자, 졸개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행인들은 이 기세를 당해내지 못하고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중 발이 늦은 일고여덟 명이 모두 창에 찔려 죽고 말았다. 이들은 수레에 실린 재물을 약탈한 뒤, 승전가를 부르며 천천히 산 위로 올라갔다. 산채에 도착해 살펴보니, 졸개 두 명만이 정자 기둥 옆에 한 덩어리로 묶여 있었다. 탁자 위에 있던 금은 술그릇들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주통은 졸개들의 묶음을 풀어 자세한 사정을 물으며, 노지심은 어디로 갔느냐고 다그쳤다. 졸개가 대답했다. '저놈이 저희 둘을 때려눕히고 묶어버린 뒤, 여러 그릇을 몽땅 챙겨서 가버렸습니다.' 주통이 투덜거렸다. '그 까까머리 도둑놈, 보통내기가 아니로구나. 도리어 우리가 그놈의 수에 당

했으니, 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 그들은 샅샅이 흔적을 찾아 뒷산으로 향했다. 그러다 잡풀이 우거진 평평한 곳이 온통 짓눌려 누군가 데굴데굴 굴러 내려간 흔적을 발견했다. 주통이 그것을 보고 말했다. '그 중놈이 아주 노련한 도둑놈이로구나! 이토록 험한 산비탈을 이 길로 굴러 내려갔단 말이지.' 이충이 말했다. '지금이라도 따라 올라가 따져 물어서 저놈에게 망신이라도 한번 줍시다.' 주통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됐네, 됐어! 도둑이 떠난 뒤에 문을 잠그는 격인데 어디로 쫓아간단 말인가? 설령 따라잡는다 해도 물건을 되찾지는 못할 걸세. 만약 일이 잘못되어 싸움이라도 나면, 우리 둘이 힘을 합쳐도 저놈을 당해내기 어려울 텐데, 나중에 다시 만나기도 껄끄러워질 거야. 차라리 여기서 그만두는 게 나중에 얼굴 보기 편할 걸세. 우선 수레의 보따리를 풀어 금은과 비단을 셋으로 나누세. 나와 자네가 각각 한 몫씩 갖고, 나머지 한 몫은 졸개들에게 상으로 주도록 하세.' 이충이 미안해하며 말했다. '내가 괜히 저놈을 산으로 데려온 탓에 자네 물건을 많이 잃었으니, 내 몫은 자네에게 다 주겠네.' 주통이 말했다. '형님, 우리는 생사를 함께할 사이인데 어찌 그런 계산을 하십니까.' 독자 여러분, 이충과 주통이 도화산에서 약탈을 일삼는 사연을 잘 기억해 두시게.

한편, 노지심은 도화산을 떠나 발걸음을 재촉했다. 아침부터 쉬지 않고 걷다 보니 어느덧 오후가 되었고, 대략 쉰에서 예순 리(약 20~24km) 남짓한 길을 걸어온 상태였다. 배는 점점 고파오는데 길가에는 끼니를 때울 만한 곳이 보이지 않자, 노지심은 속으로 생각했다.

'아침부터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했구나. 대체 어디로 가야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을까?'

동쪽과 서쪽을 두루 살피던 그때, 멀리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종소리가 노지심의 귀에 닿았다. 노지심이 그 소리를 듣고 말했다.

"좋구나! 절이거나 혹은 도교 사찰이 분명하겠어. 바람에 처마 끝 종소리가 울리는 걸 보니, 일단 그곳을 찾아가 몸을 의탁해야겠다."

노지심이 찾아간 곳이 어디였기에, 그곳에서 십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이름난 영산의 고찰을 불태워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황금빛 전각에는 붉은 불길이 치솟고, 푸른 옥으로 장식된 전각 앞에는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게 만들다니. 결국 노지심이 찾아간 곳은 어떤 사찰이었을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6회 — 구문룡 사진이 전경길 적송림에서 길을 끊고, 화화상 노지심이 와관사를 불태우다

九紋龍剪徑赤松林 魯智深火燒瓦罐寺

이야기는 이러하다. 노지심이 산등성이를 몇 개나 넘어가다 보니 커다란 소나무 숲과 산길 하나가 나타났다. 그 산길을 따라 반 리쯤 걸어 들어갔을 때, 고개를 들어보니 바람에 풍경 소리가 울리는 퇴락한 사찰 하나가 보였다. 산문을 살펴보니 낡은 주홍색 편액이 걸려 있었는데, 그 위에 금색 글자로 '와관사'라고 쓰여 있었으나 빛이 바래 흐릿했다. 다시 사오십 걸음쯤 더 걸어가 돌다리를 건너고 보니,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고찰이 모습을 드러냈다. 산문 안으로 들어서서 자세히 살펴보니, 비록 큰 사찰이었으나 곳곳이 허물지고 망가져 있었다. 그 모습은 이러했다.

종루는 무너져 내렸고, 전각들은 형체도 없이 허물어져 있었다. 산문에는 푸른 이끼가 길게 깔렸고, 경전을 보관하는 각에는 초록색 이끼

가 가득 피어 있었다. 석가불의 무릎까지는 갈대와 풀이 무성하여 마치 설령산에 있을 때와 같았고, 관세음보살은 가시덤불에 온몸이 휘감겨 마치 향산에 머물던 시절 같았다. 하늘의 신들이 머물던 곳은 파손되어 새들이 품 안에서 둥지를 틀고 있었고, 제석천의 상은 비스듬히 기울어 입 안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머리가 떨어진 나한은 그 법신조차 재앙을 입었으니, 팔이 부러진 금강역사는 신통력을 어찌 발휘할 수 있겠는가. 향적주 부엌에는 토끼가 굴을 파고 숨어들었고, 용화대 위에는 여우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노지심이 절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지객료(知客寮, 손님을 맞이하는 곳)로 향했다. 보니 지객료의 정문은 이미 사라지고 사방의 벽도 다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노지심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커다란 사찰이 어찌 이토록 폐허가 되었단 말인가?' 곧장 방장(方丈, 주지 스님의 거처) 앞으로 가보니 바닥에는 제비 똥이 가득했고, 문에는 자물쇠 하나가 채워져 있었는데 그 위에는 거미줄이 엉망으로 쳐져 있었다. 노지심은 선장을 땅에 짚고 크게 외쳤다. "지나가던 승려인데 공양 좀 들겠소!" 한참을 불렀으나 대답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향적주 부엌으로 내려가 보니 솥도 사라지고 아궁이마저 다 허물어져 있었다. 노지심은 봇짐을 내려 감재사자(監齋使者, 공양을 관리하는 직책) 앞에 놓아두고, 선장을 든 채 이곳저곳을 찾아다녔다.

부엌 뒤편의 작은 방 하나를 찾아 들어가 보니, 노승 몇 명이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같이 얼굴이 누렇게 뜨고 몹시 수척했다. 노지심이 호통을 쳤다. "이 스님들이 도통 예의가 없구려! 내가 이렇게 불러대는데 대답하는 이가 하나도 없으니 말이오." 노승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

다. "목소리를 높이지 마시오." 노지심이 말했다. "나는 지나가는 승려인데 밥 한 끼 얻어먹으려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이라고 그러시오?" 노승이 대답했다. "우리는 사흘 동안 입에 풀칠도 못 했소. 어찌 당신에게 줄 밥이 있겠소?" 노지심이 말했다. "나는 오대산에서 온 승려요. 죽이라도 좋으니 대충 반 그릇만 내어주시오." 노승이 말했다. "당신이 만약 살아있는 부처님 같은 스님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공양을 올려야겠으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찰의 승려들은 다 흩어지고 남은 식량이 한 톨도 없소. 우리 노승들도 정말 사흘째 굶고 있다오."

노지심이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큰 사찰에 식량이 없을 리가 없소." 노승이 말했다. "여기는 보통 곳이 아니오. 어떤 유랑 승려가 도인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이곳을 차지하더니, 사찰의 물건들을 죄다 망가뜨려 놓았소. 그 두 사람이 못 하는 짓이 없어서 승려들을 모두 쫓아냈단 말이오. 우리 같은 노인들은 몸이 따라주지 않아 이곳에 머물 수밖에 없으니, 먹을 것이 없어 이렇게 지내는 것이오." 노지심이 물었다. "그 두 놈이 누구길래 그러오? 관가에 가서 고발해야지 왜 가만히 있단 말이오?" 노승이 말했다. "스님, 관아가 여기서 너무 멀 뿐만 아니라 관군이 온다 해도 그들을 막지 못할 것이오. 그 승려와 도인이 보통내기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지르는 자들이오. 지금은 방장 뒤편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소." 노지심이 다시 물었다. "그 두 놈의 이름이 무엇이오?" 노승이 대답했다. "그 승려의 성은 최 씨이고 법호는 도성인데, '생철불'이라 불리오. 도인의 성은 구 씨이고 이름은 소을인데, '비천야차'라고 불린다오. 그 둘이 어찌 출가한 사람 같겠소? 그저 녹림의 강도 같은 놈들이 출가의 탈을 쓰고 몸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오."

노지심이 한창 묻고 있을 때, 갑자기 향긋한 냄새가 풍겨왔다. 노지심이 선장을 들고 뒤편으로 돌아가 살펴보니, 풀로 덮인 흙아궁이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노지심이 덮개를 열어보니 조죽 한 솥이 끓고 있었다. 노지심이 꾸짖었다. "이 노승들이 정말 염치가 없구려! 사흘을 굶었다더니, 지금 죽을 끓이고 있는 것을 보니 출가자가 어찌 거짓말을 한단 말이오?" 노승들은 노지심에게 죽을 들킨 것을 알고는 괴로워하며 그릇과 발, 국자, 물통 등을 모두 빼앗아 갔다. 노지심도 배가 고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죽을 먹으려는데 마땅히 놓을 곳이 없자, 아궁이 옆에 칠이 벗겨진 낡은 찬탁(饌卓, 음식 놓는 상) 위에 먼지만 쌓여 있는 것이 보였다. 노지심은 '사람이 급하면 지혜가 생긴다'더니, 선장을 기대 세워두고는 아궁이 옆의 풀을 한 움큼 집어 찬탁의 먼지를 닦아냈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솥을 들어 올려 죽을 찬탁 위에 쏟아부었다. 노승들이 죽을 먹으려고 달려들었으나, 노지심이 밀치고 휘두르는 바람에 어떤 이는 넘어지고 어떤 이는 도망쳐 버렸다. 노지심은 그제야 손으로 죽을 떠먹기 시작했다.

몇 입 먹었을 때, 노승이 말했다. "우리가 사흘을 굶다가 겨우 어디서 보시를 받아 조죽을 끓였는데, 당신이 우리 것을 뺏어 먹다니!" 노지심은 대여섯 숟가락을 먹다가 그 말을 듣고는 흥을 깨며 먹기를 그만두었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 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노지심이 손을 씻고 선장을 든 채 밖으로 나가보니, 허물어진 벽 사이로 한 도인이 보였다. 검은 수건을 머리에 쓰고 베옷을 입었으며, 허리에는 색색의 끈을 매고 삼베 신을 신은 차림이었다. 그는 짐을 짊어지고 있었는데, 한쪽 바구니에는 물고기 꼬리가 보이고 연잎으로 감싼 고기

가 들어 있었으며, 다른 한쪽에는 술병을 메고 연잎으로 덮어두었다. 그는 입으로 노래를 흥얼거리며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

그대는 동쪽에 있고 나는 서쪽에 있으니, 그대는 남편이 없고 나는 아내가 없네.
내게 아내가 없을 때는 그나마 한가할 수 있으나, 그대에게 남편이 없을 때는 참으로 외롭고 쓸쓸하겠구나.

노승들은 쫓겨나면서도 손을 내저으며 노지심에게 몰래 가리켜 말했다. "저 도인이 바로 비천야차 구소을이라오." 노지심은 그 말을 듣고는 선장을 들고 뒤를 따라갔다. 그 도인은 노지심이 뒤따라오는 줄도 모르고 그저 방장 뒤편 담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노지심이 곧바로 안으로 따라 들어가 보니, 푸른 회화나무 아래 탁자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위에는 음식 몇 가지와 잔 세 개, 젓가락 세 쌍이 차려져 있었다. 그 가운데 한 뚱뚱한 승려가 앉아 있었는데, 눈썹은 옻칠을 한 듯 검고 얼굴은 먹을 바른 듯 캄캄했으며, 온몸에 흉악한 살집이 울퉁불퉁 솟아 있었고 가슴 아래로는 검은 배가 드러나 있었다. 그 옆에는 젊은 여인이 앉아 있었다. 도인이 대바구니를 내려놓고 그 곁에 자리를 잡았다. 노지심이 앞으로 다가가자, 그 승려가 깜짝 놀라 일어나며 말했다. "사형, 어서 앉으십시오. 같이 술 한 잔 드시지요." 노지심이 선장을 치켜들며 말했다. "너희 두 놈이 어찌하여 이 절을 이 모양으로 망가뜨려 놓았느냐?" 그러자 그 승려가 말했다. "사형, 일단 앉아서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노지심이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말해 봐라! 어서 말해 봐!" 승려가 말했다. "예전에는 우리 사찰이 참으로 좋은 곳이었고, 소유한 논밭도 넓으며 승려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복도에 있던 저

노승 몇 놈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며 절 돈으로 여자를 첩으로 길렀습니다. 장로님이 그들을 금지하자, 오히려 장로님을 고발하여 쫓아내 버렸지요. 그래서 절이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승려들은 모두 흩어지고 논밭도 이미 다 팔아치웠습니다. 저와 이 도인이 새로 와서 이곳을 맡게 되었고, 이제 막 산문을 정비하고 전각을 수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노지심이 물었다. "저 여인은 누구냐? 어찌 여기서 술을 마시고 있단 말이냐?" 승려가 대답했다. "사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여인은 앞마을 왕유금의 딸입니다. 예전에 그분의 아버지가 본 사찰의 시주였으나, 지금은 가산을 다 탕진하여 형편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집안 식구들도 다 떠나고 남편마저 병이 들어, 쌀을 좀 빌리러 온 것입니다. 소승은 시주님의 면면을 생각하여 술로 대접했을 뿐, 다른 뜻은 없으니 사형께서는 저 노구탱이들이 하는 말은 듣지 마십시오." 노지심은 그 말을 듣고, 또 그가 이토록 조심스럽게 구는 것을 보고는 말했다. "그 노승들이 나를 골탕 먹이는구나." 그러고는 선장을 들고 다시 향적주 부엌으로 돌아왔다. 노승들은 방금 전까지 죽을 먹고 있었다. 노지심이 화가 난 기색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노승들이 그를 가리키며 말했다. "사형, 저놈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저놈이 공양을 망가뜨려 놓고도 어찌 저렇게 뻔뻔하게 제 앞에서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까." 노승들이 일제히 말을 이었다. "저놈은 지금 저기 여인 하나를 끼고 있습니다. 방금 사형이 계도와 선장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에게는 무기가 없으니 감히 맞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못 믿겠으면 다시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저놈들이 술과 고기를 먹을 때 우리는 죽조차 먹지 못하는데, 사형께서도 방금 저놈들에게 죽을 뺏기지 않았습니까?" 노지심이 말했다. "그 말도 일리가 있구나." 그러고는 선장을 거꾸로 들고 다시 방장 뒤편으로 갔으나, 모퉁이 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노지심

이 크게 화가 나 발로 차서 문을 부수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보니 생철불 도성이 박도를 휘두르며 회화나무 아래에서 노지심에게 달려들었다. 노지심은 이를 보고 크게 호통을 치며 손에 든 선장을 휘둘러 도성과 맞붙었다. 두 사람이 열너댓 합을 싸웠으나, 도성은 노지심을 당해내지 못하고 그저 선장을 막아내며 요리조리 피하기 급급했다. 도성이 도저히 버티지 못해 달아나려 하자, 뒤에서 지켜보던 구 씨 도인이 박도를 들고 성큼성큼 달려들었다. 노지심은 싸우는 와중에 갑자기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으나, 감히 뒤를 돌아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곧이어 어떤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암습하려는 자가 있음을 직감한 노지심이 "받아라!" 하고 외쳤다. 도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노지심의 선장에 맞을세라 훌쩍 몸을 빼 싸움 권 밖으로 뛰어나갔다. 노지심이 급히 몸을 돌리니, 마침 세 사람이 발을 멈추고 서로 마주 보는 형국이 되었다. 이어서 도성과 구 씨 도인 두 사람이 함께 노지심에게 다시 달려들어 열 합 넘게 싸웠다. 노지심은 배도 고픈 데다 먼 길을 걸어온 터라, 신선한 두 사람의 기세를 당해내지 못해 허점을 보이고는 선장을 끌며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이 박도를 휘두르며 산문 밖까지 쫓아오자, 노지심은 다시 열 합을 싸우다가 선장을 챙겨 급히 도망쳤다. 두 사람은 돌다리까지 쫓아와 난간에 걸터앉은 채 더는 쫓아오지 않았다.

노지심이 멀리 달아나 숨을 고르고 나서야 겨우 진정이 되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봇짐을 감재사자 앞에 두고 오느라 정신없이 달려오느라 챙기지 못했구나. 길 위에 돈 한 푼 없으니 여비는커녕 배까지 고픈데 이를 어쩐단 말인가? 다시 돌아가자니 저놈들을 당해낼 수도 없고, 저 둘이 나 하나를 상대한다면 목숨만 헛되이 버리는 꼴이

되겠지.' 그는 발길 닿는 대로 앞을 향해 나아갔으나, 한 걸음 떼기가 무척이나 고단했다. 그렇게 몇 리를 가다 보니 앞쪽에 붉은 소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커다란 숲이 나타났다. 그 풍경은 이러하였다.

용의 가지 뒤엉켜 뻗어 있으니, 수천 줄기 붉은 발의 늙은 용 같고
기괴한 그림자 어지러이 서 있으니, 수만 줄기 붉은 비늘의 거대한 구렁이 같네.
멀리서 보면 판관의 수염 같더니, 가까이서 보니 마귀의 머리카락 같구나.
누가 숲 끝에 선혈을 뿌렸기에, 나무 꼭대기에 주사 가루를 깔아 놓은 듯한가.

노지심이 그 광경을 보고 말했다. "참으로 험악하고 무시무시한 숲이로구나." 살펴보니 나무 그림자 사이로 어떤 사내 하나가 머리를 내밀고 살피더니, 퉤 하고 침을 한 번 뱉고는 숲속으로 잽싸게 몸을 숨겼다. 노지심이 말했다. "내 짐작에 저 재수 없는 놈은 이 길목에서 강도질을 노리는 산적인 모양인데, 내가 승려인 것을 보고는 재수 없다고 침을 뱉고 들어가 버렸구나. 저놈이 참으로 재수 없게도 나를 마주쳤고, 마침 내 속도 부글부글 끓어 화풀이할 데가 없었으니, 저놈 옷이라도 벗겨 술값이나 마련해야겠다." 그는 선장을 치켜들고 곧장 소나무 숲가로 달려가 호통을 쳤다. "숲속에 숨은 재수 없는 놈, 당장 나오지 못할까!" 숲속에서 그 소리를 들은 사내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재수 없게도 저놈이 먼저 나를 건드리네!" 그러더니 사내는 박도를 든 채 숲에서 훌쩍 뛰어 나오며 외쳤다. "이 대머리 중놈아, 네놈이 죽을 때가 됐지, 내가 너를 찾아간 게 아니다!" 노지심이 말했다. "내 누군지 똑똑

히 보여주마." 그러고는 선장을 휘둘러 사내에게 달려들었다. 사내는 박도를 휘두르며 승려와 맞붙었는데, 막 앞으로 나서려다 문득 속으로 생각했다. '이 승려의 목소리가 어딘가 낯익은데?' 그는 그래서 물었다. "이봐, 중놈! 목소리가 아주 익숙한데, 성이 무엇이냐?" 노지심이 대답했다. "일단 너와 삼백 합은 싸워봐야 네 이름을 말해줄 것이다." 사내는 크게 노하여 손에 든 박도를 휘두르며 선장에 맞섰다. 두 사람이 열 댓 합을 싸우자, 사내는 속으로 '제법 힘센 중놈이로구나' 하며 내심 감탄했다. 다시 서너 합을 더 싸우던 중 사내가 소리쳤다. "잠깐 멈춰라, 할 말이 있다!" 두 사람 모두 싸우던 자리에서 물러나자 사내가 물었다. "도대체 성함이 무엇이냐? 목소리가 정말 낯익단 말이다." 노지심이 이름을 말하자, 사내는 박도를 옆으로 던져두고 몸을 돌려 정중히 절하며 말했다. "사진을 아십니까?" 노지심이 웃으며 말했다. "알고 보니 사 대랑이었구나!" 두 사람은 다시 서로 절을 나누고는 함께 숲속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노지심이 물었다. "사진 아우, 위주에서 헤어진 뒤로 줄곧 어디에 있었느냐?" 사진이 대답했다. "그날 주막 앞에서 형님과 헤어진 다음 날, 형님께서 정도를 때려죽이고 도망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침 포졸들이 사진과 형님이 노래 부르던 금노 부녀에게 노잣돈을 마련해 떠나보낸 일을 알아냈다 하기에, 저도 위주를 떠나 스승이신 왕진을 찾아 나섰습니다. 연주까지 갔으나 끝내 찾지 못했고, 북경에 돌아와 잠시 머물다 여비가 다 떨어져 이곳에 돈을 좀 벌러 왔는데, 뜻밖에 형님을 만나게 되었군요. 그런데 어찌하여 중이 되셨습니까?" 노지심은 아까 겪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었다. 사진이 말했다. "형님께서 배가 고프시다면 여기 말린 고기와 구운 떡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꺼내 노지심에게 먹였다. 사진이 다시 말했다. "형님께서 사찰에 봇짐을 두고 오셨다니, 제가 형님과 함

께 가서 찾아오겠습니다. 만약 그놈들이 순순히 내주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단칼에 끝내버리겠습니다." 노지심이 말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사진이 가져온 음식을 배불리 먹고는, 각자 무기를 챙겨 들고 다시 와관사로 향했다.

사찰 앞에 도착하니, 도성과 구소을 두 놈이 여전히 다리 위에 앉아 있었다. 노지심이 크게 호통을 쳤다. "이놈들아, 이리 와라! 이번에야 말로 너희와 생사를 걸고 싸워주마!" 그러자 그 승려가 웃으며 말했다. "너는 이미 내 손에 패한 장수가 아니냐, 어찌 감히 다시 덤비려 하느냐?" 노지심은 크게 노하여 쇠로 만든 선장을 휘두르며 다리를 향해 달려갔다. '생철불' 도성은 버럭 화를 내며 박도를 휘두르고 다리 아래로 뛰어 내려갔다. 노지심은 사진과 합세하여 기세가 당당해진 데다, 배까지 든든히 채우니 정신과 기력이 평소보다 훨씬 넘쳐났다. 두 사람이 여덟 아홉 합을 싸우자 도성은 점점 힘이 빠져 겨우 발을 움직이는 정도가 되었다. 이를 본 '비천야차' 구소을 도인이 승려가 밀리는 것을 보고 박도를 휘두르며 도성을 돕기 위해 달려들었다. 이때 사진이 이 광경을 보고 숲속에서 튀어나오며 크게 외쳤다. "아무도 못 간다!" 사진은 삿갓을 젖히고 박도를 치켜든 채 구소을에게 맞붙었다. 네 사람이 두 쌍으로 나뉘어 격렬하게 싸웠다. 노지심과 도성이 한창 싸우던 중, 노지심이 기회를 잡아 크게 외쳤다. "받아라!" 선장 한 번을 휘두르니 '생철불' 도성이 다리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도인이 쓰러지는 것을 본 구소을은 싸울 마음이 사라져 빈틈을 만들어 도망치려 했다. 사진이 호통을 쳤다. "어딜 도망가느냐!" 사진이 뒤를 쫓아 박도를 휘두르니,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도인이 옆으로 쓰러졌다. 사진은 그에게 달려들어 박도를 거꾸로 잡고는 아래를 향해 마구 찔러댔다. 노지심도 다리 아래로

내려가 도성의 등을 선장으로 내리쳤다. 가련한 두 강도 놈들이 한낱 꿈처럼 사라져 버린 것이다.

시로 이르되, "예전에 저지른 일들이 이제야 함께 찾아왔구나."

노지심과 사진은 구소을과 도성의 시신을 묶어 계곡에 던져버렸다. 두 사람이 다시 사찰 안으로 들어갔을 때, 주방에 있던 노승들은 노지심이 패하는 것을 보고 도성과 구소을이 자신들을 죽이러 올까 두려워 이미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였다. 노지심과 사진이 방장(사찰의 책임자)의 뒷문 안쪽까지 들어가 살펴보니, 붙잡아 왔던 여인도 우물에 뛰어들어 죽어 있었다. 안쪽의 방 여덟아홉 칸을 뒤졌으나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고, 다만 봇짐만 찾아냈을 뿐 아직 열어보지는 않은 상태였다. 노지심은 봇짐을 찾자 예전처럼 다시 등에 멨다. 다시 안쪽을 찾아보니 침상 위에 옷가지 서너 꾸러미가 있었는데, 사진이 열어보니 모두 옷가지였고 그 안에는 금은보화가 들어 있었다. 사진은 좋은 것들만 골라 한 꾸러미를 만들어 등에 멨다. 주방을 찾아가니 술과 고기가 있어 두 사람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러고는 아궁이 앞에 횃불 몇 개를 묶어둔 뒤, 화로를 헤쳐 불을 붙여 활활 타오르는 불길로 뒤쪽 작은 방부터 문 앞까지 태워 나갔다. 다시 횃불을 묶어 불전의 뒷처마까지 가져가 불을 붙였다. 마침 바람이 세게 불어 불길이 거세게 휘몰아치더니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을 듯 타올랐다. 노지심과 사진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잠시 기다리니 사방이 온통 불바다가 되었다. 두 사람이 말했다. "양원이 아무리 좋다 한들 오래 머물 곳은 아니니, 우리 이제 그만 떠나자꾸나."

두 사람은 서둘러 길을 재촉하며 밤새도록 걸었다. 날이 어렴풋이 밝아올 무렵, 멀리서 민가 몇 채가 모여 있는 것이 보이는데 언뜻 보기에 마을인 듯했다. 두 사람이 그 마을로 들어서니, 외나무다리 옆에 작은 주막 하나가 있었다.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사립문은 반쯤 닫혀 있고, 베 휘장은 낮게 드리워졌네.
시큼한 술 담긴 항아리는 흙담 가에 놓여 있고, 먹으로 그린 신선은 먼지 낀 벽 위에 걸렸네.
술을 따르는 마을 아이는 그릇 닦던 옛 사마상여(司馬相如)가 아니요,
술청을 지키는 못생긴 아낙도 그 옛날의 탁씨(卓文君)가 아니로다.
담장 사이 큰 글씨는 마을 학구(學究, 시골 훈장)가 취중에 쓴 것이요,
시렁 위 도롱이는 들판 어부가 흥에 겨워 잡힌 전당물이라네.

노지심과 사진은 마을 주막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며, 주모에게 고기를 좀 사 오고 쌀도 좀 빌려 달라고 하여 불을 피워 밥을 지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길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을 이야기했다. 술과 밥을 다 먹자 노지심이 사진에게 물었다. 「아우는 이제 어디로 갈 셈인가?」 사진이 대답했다. 「저는 지금 다시 소화산으로 돌아가 주무 등 세 사람을 찾아가 합류한 뒤, 한동안 지내다가 차차 다시 도모해야겠습니다.」 노지심이 그 말을 듣고 「아우 말이 옳네」 하고는 봇짐을 풀어 금은을 조금 꺼내 사진에게 주었다. 두 사람은 봇짐을 꾸리고 무기를 챙겨 술값을 치렀다. 주막 문을 나와 마을을 벗어나 다시 오 리에서 칠 리 남짓 더 가니 삼거리 갈림길이 나왔다. 노지심이 말했다. 「아우, 이제 여기서 헤어져야겠네. 나는 동경으로 갈 터이니 그대는 배웅하지 말게. 자네가 화주(華州)로 가려면 이 길로 가야 하니, 훗날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네. 혹 편한 사람이 있다면 서로 소식이라도 전해 주게.」 사진은 노지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각자 갈 길로 나뉘어 떠났으며, 사진은 제 갈 길을 갔다.

한편, 노지심은 홀로 동경을 향해 길을 떠났다. 길을 가며 또 8, 9일 쯤 더 나아가니 멀리서 동경이 보였다. 성안으로 들어서니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수많은 대문과 집들, 어지러이 붉고 푸른 단청이 서로 빛을 발하고,
저자와 큰길에는, 멋스러운 의관 차림의 사람들이 빽빽이 모여드네.
봉각(鳳閣)에는 아홉 겹 금과 옥이 늘어서 있고,
용루(龍樓)에는 한 줄기 유리 같은 맑은 빛이 드러나네.
꽃 거리와 버드나무 골목에는, 이름난 미녀들이 가득하고,
초관진루(楚館秦樓, 화류 기루)에는, 풍류 넘치는 가무 기생이 끝이 없네.
호족과 부호들은 모여 호로(呼盧, 주사위 도박)를 벌이고,
귀공자와 왕손들은 웃음을 사러 모여드네.

노지심은 동경의 북적이는 시장통과 활기찬 사람들의 소리를 구경하며 성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람들에게 다가가 물었다. "대상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웃 사람이 대답했다. "앞으로 쭉 가서 주교(州橋)가 나오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노지심은 선장(禪杖, 승려가 짚는 지팡이)을 들고 곧장 걸어가 일찍이 절 앞에 도착했다. 산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과연 대단히 웅장하고 장엄한 사찰이었다!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산문은 높이 솟아 있고, 불교 사찰의 경내는 맑고 고요하였다. 정면에 걸린 편액의 글자는 또렷이 보였고, 양옆의 금강역사는 기세가 맹렬하였다. 다섯 칸 규모의 대전에는 용 비늘 모양의 기와가 푸른 빛을 띠며 줄지어 놓였고, 사방의 승방은 거북 등껍질 무늬를 새긴 벽돌을 꽃무늬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쌓았다. 종루는 숲처럼 울창하게 서 있고, 경각은 높고 웅장하였다. 깃대들은 높이 솟아 푸른 구름에 닿을 듯하였고, 보탑은 아스라이 푸른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목어는 가로로 걸려 있고, 운판은 높이 매달려 있었다. 부처님 앞의 등불과 초는 환하게 빛났으며, 향로 안에서는 향연이 끊임없이 피어올랐다. 깃발은 바람에 계속 나부끼고, 관음전은 조사당과 이어져 있었다. 보개(寶蓋, 장식용 덮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수륙재를 치르는 곳은 나한원까지 통하고 있었다. 때때로 호법신들이 내려오고, 해마다 마귀를 굴복시키는 존자들이 찾아오는 듯한 신성한 기운이 가득하였다.

노지심이 절 안으로 들어와 동서로 이어진 회랑을 살펴보더니, 곧장 지객료(知客寮, 손님을 맞이하는 곳)로 향했다. 이를 발견한 도인(절의 일꾼)이 지객승에게 보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객승이 밖으로 나왔는데, 노지심의 생김새가 워낙 흉맹한 데다 쇠로 만든 선장(禪杖)을 들고 허리에는 계도(戒刀, 승려가 차는 칼)를 찼으며 등에 커다란 보따리까지 메고 있으니, 보자마자 절반쯤은 그를 무서워하였다. 지객승이 물었다. 「사형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노지심은 보따리와 선장을 내려놓고 예를 갖추어 문안을 올렸고, 지객승도 답례를 했다. 노지심이 말했다. 「소승은 오대산에서 왔습니다. 본사(本師)이신 지진(智眞) 장로님께서 이 서신을 보내셨으니, 이곳 대찰의 지청(智淸) 대사 장로님께 의탁하여 직사승(職事僧, 사찰의 일을 맡아 하는 승려) 자리

를 얻게 하라 하셨습니다.」 지객승이 대답했다. 「지진 대사 장로님께서 서신을 보내셨다면 마땅히 함께 방장으로 가야 합니다.」 지객승은 노지심을 곧장 방장으로 데리고 갔다. 노지심은 보따리를 풀어 서신을 꺼내 손에 들었다. 지객승이 말했다. 「사형, 어찌 이리 예법을 모르십니까. 곧 장로님께서 나오실 터인데, 어서 계도를 풀고 그 칠조(七條) 가사와 좌구(坐具), 신향(信香)을 꺼내어 장로님께 예를 올려야지요.」 노지심이 말했다. 「그걸 왜 진작 말하지 않았소.」 그러고는 즉시 계도를 풀고 보따리 속에서 편향(片香) 한 대와 좌구 칠조를 꺼냈으나, 한참 동안이나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지객승이 다시 가사를 입혀주고 먼저 좌구를 펴라고 일러주었다. 잠시 후 지청(智清) 선사가 나오자 지객승이 앞으로 나아가 보고했다. 「이 승려가 오대산에서 왔는데, 지진 선사님의 서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청 장로가 말했다. 「사형께서 오래도록 법첩(法帖)을 보내지 않으셨더이다.」 지객승이 노지심에게 말했다. 「사형, 어서 장로님께 예를 올리십시오.」 노지심은 먼저 그 향을 향로에 꽂고 세 번 절한 뒤 서신을 올렸다. 지청 장로가 서신을 받아 펼쳐 보니, 그 안에 자세히 적혀 있기를 「노지심이 출가하게 된 연유와 지금 산을 내려와 상찰(上刹, 큰 절)에 의탁하려는 까닭을 상세히 적었으니, 부디 자비로운 마음으로 거두어 직사승으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결코 사양하지 마옵소서. 이 승려는 머지않아 반드시 정과(證果)를 이룰 것입니다.」라 하였다. 지청 장로가 서신을 다 읽고 말했다. 「멀리서 온 승려이니 우선 승당(僧堂)으로 가서 잠시 쉬며 공양을 들게 하시오.」 노지심은 감사를 표한 뒤, 좌구 칠조를 챙기고 보따리와 선장, 계도를 챙겨 들고 행동(行童, 시동)을 따라 나섰다.

지청(智淸) 장로가 양반(兩班)의 직사승들을 모두 불러 모아 방장 앞에 오게 하더니 말했다. 「너희 여러 승려는 들으라. 보아라, 내 사형이신 지진(智眞) 선사께서 참으로 분별이 없으시도다. 이번에 온 이 승려는 원래 경략부(經略府)의 군관이었는데, 사람을 때려죽인 죄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그곳에서 두 차례나 승당을 어지럽혀 데리고 있기 어려워졌다고, 그쪽(오대산)에서 그를 두지 못해 도리어 나에게 떠넘기는구나. ―받아들이지 않으려 해도 사형께서 천만번 '결코 사양하지 말라'고 당부하셨고, ―이곳에 두자니 혹여 청규(淸規, 승려가 지켜야 할 규칙)를 어지럽히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지객승이 말했다. 「저희가 저 승려를 보아도 도무지 출가한 사람의 모습 같지가 않은데, 본사에서 어찌 그를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도사(都寺, 사찰의 살림을 총관하는 직임)가 말했다. 「제가 생각해 보니, 산조문(酸棗門) 밖 퇴거 관청 뒤편에 채원(菜園) 한 자리가 있는데, 평소 영내의 군졸들과 문밖의 부랑자 스무 명 남짓이 자주 침범해 양과 말을 풀어놓는 등 어지간히 소란을 피웁니다. 그곳에 노승 한 분이 주지로 계시지만 어찌 감히 그들을 단속하겠습니까? 차라리 노지심을 그곳으로 보내 주지를 맡긴다면 도리어 능히 단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청 장로가 말했다. 「도사의 말이 옳다.」

그러고는 시자를 시켜 승당 안 객실로 가서 노지심이 밥을 다 먹기를 기다렸다가 그를 불러오게 했다.

시자가 나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노지심을 이끌고 방장 안으로 왔다. 지청(智清) 장로가 말했다. 「그대는 나의 사형 지진 대사께서 우리 절에 머물도록 천거하신 자이니 직사승의 한 자리를 맡으라. 우리 변변찮은 절에 산조문 밖 악묘(嶽廟)와 담을 맞댄 곳에 큰 채원이 하나 있다. 그대가 그곳에 가서 주지로 머물며 관리하도록 해라. 매일 그곳 농사꾼들로 하여금 채소 열 짐을 절에 바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그대가 쓰도록 해라.」

노지심이 즉시 말했다. 「본사 지진 장로님께서는 저를 큰 절로 보내 직사승을 맡기라 하셨는데, 어찌하여 저에게 도사(都寺)나 감사(監寺)를 시키지 않고 채원이나 관리하게 하십니까?」

그러자 수좌(首座)가 나서서 말했다. 「사형,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사형은 이제 막 이곳에 머물기 시작하셨고 아직 공로도 없는데, 어찌 곧장 도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채원을 관리하는 것도 엄연한 큰 직사 자리입니다.」

노지심이 말했다. 「나는 채원 따위는 상관 않겠다. 오직 도사나 감사가 되고 싶을 뿐이다.」

지객승이 다시 말을 거들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절집의 직사승은 저마다 맡은 소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지객(知客)은 오가는 손님과 승려들을 접대하는 일만 맡습니다. 위나(維那)·시자·서기·수좌 같은 직책은 모두 청직(淸職, 품위 있는 직책)이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사(都寺)·감사(監寺)·제점(提點)·원주(院主) 같은 직책은 모두 사찰의 상주(常住) 재물을 관장하는 자리입니다. 사형께서는

이제 막 방장 스님을 뵈었는데, 어찌 곧바로 상등 직책을 맡겠습니까? 또한 경장(經藏)을 관리하는 자는 장주(藏主), 전각을 관리하는 자는 전주(殿主), 누각을 관리하는 자는 각주(閣主), 화연(化緣, 시주 모집)을 맡는 자는 화주(化主), 욕당(浴堂)을 관리하는 자는 욕주(浴主)라 부르는데, 이들은 모두 주사(主事) 인원으로 중등 직책입니다. 그리고 탑을 관리하는 탑두(塔頭), 밥을 관리하는 반두(飯頭), 차를 관리하는 차두(茶頭), 동측 변소를 관리하는 정두(淨頭), 그리고 이 채원을 관리하는 채두(菜頭)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두사(頭事) 인원으로 말등 직책입니다. 만약 사형께서 일 년 동안 채원을 잘 관리하시면 탑두로 승진시켜 드릴 것이고, 또 일 년 잘하시면 욕주로, 또 일 년을 더 잘하시면 그제야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노지심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래도 출신(出身)할 길은 있는 셈이니, 나는 내일부터 가겠다.」

지청 장로는 노지심이 가겠다고 하자 방장에 머물며 쉬게 했다. 그날 직책을 정한 뒤 곧바로 방문(榜文)을 작성했고, 먼저 사람을 채원 안 퇴거 관청에 보내 고사(庫司)의 방문을 내걸게 하여 이튿날 인수인계하도록 했다. 그날 밤은 그렇게 모두 흩어졌다. 다음 날 아침, 지청 장로가 법좌(法座)에 올라 법첩(法帖, 임명장)에 서압(押)을 두어 노지심을 채원 관리로 임명했다. 노지심은 법좌 앞으로 나아가 법첩을 받고 장로에게 인사를 올린 뒤, 보따리를 메고 계도를 차고 선장을 든 채, 그를 채원으로 데려다줄 스님 두 명과 함께 곧장 산조문 밖 관청 건물로 가서 주지를 맡았다. 시(詩)에 이르되,

부평초 같은 자취, 물결 같은 발길로 동경에 들어서니,
산림을 다 지나며 수십 리 노정을 걸었네.
옛 절(상국사)은 이번에 겁화(劫火)를 겪을 것이요,
중원은 이로부터 도병(刀兵, 전란)이 일어나리.
상국사 안에 다시 적을 두어 머무르고,
채소 가꾸는 동산 안에서 잠시 살림을 꾸리네.
예부터 흰 구름은 가고 머묾이 정해진 바 없으니,
그 얼마나 많은 변화가 종횡으로 펼쳐졌던가.

한편, 채원 근처에는 도박에 빠져 앞날이 막막한 부랑자와 건달 스무서른 명 정도가 모여 살고 있었는데, 평소 채원 안의 채소를 훔쳐 생활하곤 했다. 이들이 채소를 훔치러 왔다가 관아(廨宇) 문 위에 새로 걸린 고사(庫司)의 방문(공고문) 한 장을 보게 되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상국사에서 채원을 관리할 승려 노지심을 임명하였으니, 내일부터 관리를 맡는다. 잡스러운 자들은 채원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그 건달들이 이를 보고는 다른 부랑자들을 불러 모아 의논했다. "대상국사에서 스님 한 명을 시켰다는데, 노지심인지 뭔지 하는 자가 채원을 관리한다나 봐. 우리가 저놈이 새로 온 틈을 타서 한바탕 소란을 피워 두들겨 패준 다음, 우리 밑으로 기게 만들어 버리자고."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내게 좋은 생각이 있네. 저놈이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짜고짜 가서 소란을 피우겠나? 저놈이 올 때

를 기다렸다가 분뇨 구덩이 근처로 유인한 다음, 인사를 올리는 척하며 다가가 두 손으로 다리를 꽉 붙잡고 공중제비를 돌려 저놈을 분뇨 구덩이 속으로 처박아 버리는 거야. 그저 가볍게 골려주는 거지."

건달들이 일제히 외쳤다. "좋아, 좋아!"

이렇게 모의를 마쳤으니, 이제 그가 오기를 두고 볼 일이었다.

한편, 노지심이 채원 관리용 건물 안쪽 방에 도착하여 보따리와 짐을 정리하고, 선장을 기대어 세운 뒤 계도를 걸어 두었다. 채소를 재배하는 도인들이 모두 찾아와 인사를 올렸고, 사찰의 열쇠 등 모든 물품을 인수인계받았다. 함께 왔던 스님 두 명은 기존에 머물던 노스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절로 돌아갔다.

노지심이 채원 밭으로 나가 동서로 둘러보며 밭의 형편을 살피고 있을 때였다. 저 건달 스무서른 명이 과일 상자와 술 같은 예물을 들고는 히히거리며 웃으며 다가왔다. "스님께서 새로 부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웃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하러 왔습니다."

노지심은 그것이 함정인 줄도 모르고 그대로 분뇨 구덩이 근처까지 걸어갔다. 그 순간 건달 무리가 일제히 앞으로 달려들었다. 한 놈은 왼쪽 다리를 낚아채고, 다른 놈은 오른쪽 다리를 낚아채며 노지심을 구덩이로 처박으려 했다. 하지만 노지심이 발끝을 치켜들 때면 산속의 맹호도 깜짝 놀랄 기세였고, 주먹을 내지를 때면 세상의 교룡도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였다.

한가로운 채소밭이 순식간에 작은 전쟁터로 변해버렸다. 저 건달 무리가 과연 노지심을 구덩이에 처박을 수 있을지, 그 결과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7회 — 화화상 노지심이 버드나무를 뿌리째 뽑고, 표자두 임충이 잘못하여 백호당에 들다

花和尚倒拔垂楊柳 豹子頭誤入白虎堂

이야기는 이러하다. 산조문 밖에서 불량배 노릇을 하는 서른 명 남짓한 무리 중에는 두 명의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과가노서' 장삼이라 불렸고, 다른 하나는 '청초사' 이사라 불렸다. 이 두 우두머리가 앞장서고 있을 때, 마침 노지심이 분뇨 구덩이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는 이 무리가 움직이지 않고 구덩이 가에 나란히 서서 일제히 외치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스님께 축하를 해드리러 특별히 왔소!"

노지심이 말했다.

"이웃 마을 사람들인 듯한데, 다들 사찰 안으로 들어와 앉으시오."

그러자 장삼과 이사가 바닥에 넙죽 엎드려 일어나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노지심이 자신들을 부축해 주기를 기다렸다가 슬쩍 손을 써볼 심산이었다. 이를 본 노지심은 속으로 의구심이 들었다.

'이놈들이 예사롭지 않구나.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고 서성이는 꼴이 나를 골탕 먹이려는 게 분명해. 저놈들이 호랑이 수염을 건드리려 드는구나! 내가 직접 앞으로 가서 이놈들에게 내 손발이 얼마나 매운지 보여주마.'

노지심이 성큼성큼 무리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장삼과 이사가 말했다.

"저희 형제들이 스님을 뵙고자 특별히 찾아왔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들은 앞으로 달려들었다. 한 놈은 왼발을, 다른 한 놈은 오른발을 낚아채려 했다. 노지심은 그들이 몸을 붙이기도 전에 오른발을 번쩍 들어 이사를 먼저 분뇨 구덩이 속으로 걷어차 버렸다. 장삼이 도망치려 하자, 노지심은 즉시 왼발을 휘둘러 그놈마저 구덩이 속으로 차 넣었다. 두 불량배는 구덩이 안에서 허우적거렸다. 뒤에 있던 서른 명 남짓한 불량배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겁에 질린 채 도망치려 했다. 노지심이 호통을 쳤다.

"한 놈이 도망가면 한 놈을 집어넣을 것이고, 두 놈이 도망가면 두 놈을 집어넣을 것이다!"

불량배들은 감히 움직이지도 못했다. 그사이 장삼과 이사가 구덩이 속에서 머리를 내밀었다. 알고 보니 그 구덩이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

도로 깊었는데, 두 놈은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쓴 채 머리카락에는 구더기가 들끓는 몰골로 서서 외쳤다.

"스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노지심이 소리쳤다.

"이놈들아, 어서 저놈들을 끌어올려라! 그러면 너희 모두를 용서해 주마."

사람들이 달려들어 호리병 선반 쪽으로 그들을 끌어올렸으나, 악취가 너무 심해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노지심이 허허 웃으며 말했다.

"이 어리석은 놈들아, 가서 채소밭 연못에 몸을 깨끗이 씻고 오너라. 그래야 너희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느냐!"

두 불량배가 몸을 씻고 돌아오자, 사람들은 옷을 벗어 그들에게 입혀 주었다. 노지심이 외쳤다.

"다들 사찰 안으로 들어와 앉아 이야기하자꾸나."

노지심이 먼저 가운데 자리에 앉고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놈들아, 나를 속이려 들지 마라. 너희는 대체 어떤 놈들이기에 여기까지 와서 나를 골탕 먹이려 드는 것이냐!"

그러자 장삼과 이사가 동료들과 함께 일제히 무릎을 꿇고 말했다.

"저희는 원래 이곳에 살던 놈들로, 도박이나 하며 입에 풀칠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채소밭이 저희의 밥줄인 까닭에, 대상국사(大相國寺)에서 몇 번이나 돈을 들여 저희를 쫓아내려 했지만 어쩌지 못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대체 어디서 오신 어른이시기에 이리도 대단하십니까? 상국사에는 스님 같은 분이 계신 적이 없었는데, 오늘부터 저희가 진심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노지심이 대답했다.

"나는 관서(關西) 연안부(延安府)의 노종(老种) 경략상공(經略相公) 휘하에서 제할(提轄, 군관 직책)을 지냈던 사람이다.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 탓에 스스로 출가하여, 오대산(五臺山)에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 속성(俗姓)은 노(魯)씨요, 법명은 지심이다. 너희 서른 명 남짓한 놈들이 대수냐? 천군만마(千軍萬馬)의 진영이라 해도 나는 당당히 뚫고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다."

불량배들은 연신 대답하며 감사의 절을 올리고 물러갔다. 노지심은 사찰 방 안으로 들어가 몸을 정돈하고 잠을 청했다.

다음 날, 불량배들이 돈을 모아 술 열 병과 돼지 한 마리를 사 와서 노지심을 대접하기로 했다. 사찰 안에 자리를 마련한 뒤 노지심을 가운데 앉히고, 양옆으로는 서른 명 남짓한 불량배들이 둘러앉아 술을 마셨다. 노지심이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너희들에게 돈을 쓰게 한단 말이냐?"

사람들이 말했다.

"저희에게 복이 닥쳤습니다. 오늘 스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저희의 주인이 되어 주시지 않습니까!"

노지심은 매우 기뻤다. 술이 반쯤 오르자 노래를 부르는 이도 있었고, 이야기를 하는 이도 있었으며, 박수를 치거나 웃는 이들도 있었다. 한창 떠들썩하게 흥을 돋우고 있을 때, 문밖에서 까마귀가 '까악까악' 하고 울어댔다. 사람들 중에는 이를 톡톡 부딪치는 자도 있었으니, 일제히 말하기를,

"붉은 입은 하늘로 올라가고, 하얀 혀는 땅으로 들어가라!"

노지심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무슨 헛소리들을 하는 것이냐?"

사람들이 대답했다.

"까마귀가 우니, 구설수가 생길까 두렵습니다."

노지심이 되물었다.

"그게 무슨 근거 있는 말이냐?"

채마밭을 가꾸는 사찰의 잡일꾼(種地道人)이 웃으며 말했다.

"담장 구석 푸른 버드나무 위에 까마귀 둥지가 새로 생겼는데, 매일 저녁까지 시끄럽게 울어댑니다."

사람들이 말했다.

"사다리를 가져가서 저 둥지를 부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자 몇몇이 "우리가 당장 가겠습니다"라고 나섰다. 노지심도 술기운을 빌려 함께 밖으로 나가 보니, 과연 푸른 버드나무 위에 까마귀 둥지가 하나 있었다. 사람들이 다시 말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둥지를 없애버려야 귀가 편안해지겠습니다."

이사가 나서며 말했다.

"내가 올라갈 테니, 사다리는 필요 없소."

노지심이 잠시 살펴보더니 나무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직철(直裰, 승려복)을 벗어 던지고, 오른손을 아래로 내려 몸을 거꾸로 감아 안듯이 하고, 왼손으로 나무의 윗부분을 단단히 붙잡았다. 그러고는 허리에 힘을 한 번 팍 주더니, 그 푸른 버드나무를 뿌리째 뽑아 올려 버렸다.

불량배들은 이 광경을 보고 일제히 바닥에 엎드려 외쳤다.

"스님은 평범한 분이 아니십니다! 진정한 나한(羅漢)의 몸이시로군요. 천만 근의 힘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 나무를 뽑으실 수 있겠습니까!"

노지심이 말했다.

"이까짓 게 무슨 대수냐? 내일 내가 무예를 선보이고 병기를 다루는 것을 직접 보아라."

불량배들은 그날 밤 각자 흩어져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부터 이 서른 명 남짓한 불량배들은 노지심에게 완전히 굴복하여, 매일 술과 고기를 가져와 노지심을 대접하며 그가 무예를 펼치고 권법을 쓰는 것을 구경했다. 며칠이 지나자 노지심은 생각했다.

'매일 저들의 술과 음식을 얻어먹기만 했으니, 나도 오늘 답례로 자리를 마련해야겠구나.'

노지심은 잡일꾼(道人)을 시켜 성안에 가서 과일을 몇 가지 사 오게 하고, 술 두세 짐(擔)을 받아 오게 한 뒤 돼지 한 마리와 양 한 마리를 잡아 두게 했다. 마침 삼월 말이라 날씨가 제법 더워지고 있었다. 노지심이 말했다.

"날이 덥구나."

그는 잡일꾼을 시켜 푸른 회화나무(綠槐樹) 아래에 갈대 자리(蘆席)를 깔게 하고, 그 많은 불량배들을 둥글게 둘러앉게 했다. 큰 사발에 술을 가득 따르고 고기를 큼직하게 썰어 내놓으니,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다시 과일을 꺼내 먹으며 술기운이 한창 무르익어 갔다. 불량배들이 말했다.

"요 며칠 스님의 힘쓰는 모습은 보았으나, 아직 병기를 다루는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스님, 저희에게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지심이 대답했다.

"옳은 말이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 통째로 무쇠로 만든 선장(渾鐵禪杖)을 가지고 나왔는데, 머리부터 끝까지 길이가 다섯 자(五尺)요, 무게는 예순두 근(六十二斤)이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모두 깜짝 놀라며 말했다.

"두 팔뚝에 물소만 한 힘이 없고서야 어찌 저것을 움직일 수 있겠소?"

노지심이 그것을 받아 들고 휘두르자, '슝슝' 바람 소리가 나며 움직임이 거침이 없었고 온몸의 동작에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노지심이 한창 활기차게 철선장을 휘두르고 있을 때, 담장 밖에서 한 관원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크게 외치며 환호했다.

"정말로 솜씨가 대단하시구려!"

노지심이 그 소리를 듣고 손을 멈추고 살펴보니, 담장 한쪽이 무너진 곳에 한 관원이 서 있었다. 그 차림새는 이러하였다.

머리에는 푸른 깁(青紗)으로 모서리를 동여맨 두건을 쓰고, 뒤로는 백옥 두 고리에 구슬을 꿴 빈환(鬢環)을 늘어뜨렸네.
홑겹 연두 비단에 둥근 꽃무늬를 놓은 전포(戰袍)를 입고, 허리에는 두 끝이 늘어진 거북 등껍질 무늬의 은띠(雙搭尾龜背銀帶)를 둘렀네.
박을 두드린 듯한 모양(磕瓜頭)의 조정 양식 검은 장화 한 켤레를 신고, 손에는 접는 종이로 만든 서천(西川) 부채를 들었구나.

그 관원은 표범 같은 머리(豹頭)에 부리부리한 둥근 눈(環眼), 제비턱(燕頷)에 호랑이 같은 수염(虎鬚)을 하였고, 키는 여덟 자 정도 되었으며 나이는 서른네다섯 살쯤 되어 보였다. 그가 입을 열어 말했다.

"이 스님, 참으로 비범하시구려. 병기 다루는 솜씨가 대단하십니다!"

불량배들이 말했다.

"저 교두님께서 환호하시는 걸 보니 분명 대단한 솜씨임이 틀림없습니다."

노지심이 물었다.

"저 군관은 누구인가?"

사람들이 대답했다.

"저분은 팔십만 금군(八十萬禁軍)의 창봉교두(鎗棒教頭)이신 임 무사(林武師), 이름은 임충(林沖)이라는 분이십니다."

노지심이 말했다.

"어찌 저분을 이리로 모셔다 인사드리지 않는가?"

그러자 임 교두가 담장을 넘어 들어왔고, 두 사람은 회화나무 아래에서 만나 함께 앉았다. 임 교두가 먼저 물었다.

"사형(師兄)은 어디 분이십니까? 법휘(法諱)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노지심이 대답했다.

"나는 관서의 노달(魯達)이올시다.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 탓에 스스로 승려가 되기로 했지요. 어릴 적에 동경(東京)에 온 적이 있어 그대의 부친이신 임 제할(林提轄)을 알고 있소."

임충은 크게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노지심과 의형제를 맺었다. 노지심이 말했다.

"교두께서는 오늘 어찌 이곳에 오셨소?"

임충이 대답했다.

"마침 졸처(拙妻)와 함께 옆에 있는 악묘(嶽廟)에 향원(香願)을 풀러 가던 참이었소. 그때 봉술 소리가 들려 와 보니 솜씨가 눈에 띄어, 여종 금아(錦兒)에게 졸처를 따라 사당에 가서 향을 사르게 하고 나는 여기서 잠시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뜻밖에 사형을 뵙게 되었구려."

노지심이 말했다.

"나는 이곳에 처음 와서 아는 이가 없었는데, 이 형제들이 매일 곁을 지켜주더니 이제 교두까지 나를 마다하지 않고 의형제를 맺어 주시니 참으로 좋구려."

그러고는 잡일꾼을 시켜 술을 더 가져오게 하여 대접했다. 막 술을 세 잔쯤 마셨을 때였다. 여종 금아가 얼굴이 새빨개진 채 허둥지둥 담장 틈으로 달려와 외쳤다.

"나으리,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마님께서 사당에서 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으셨습니다!"

임충이 급히 물었다.

"어디에 있느냐?"

금아가 말했다.

"지금 오악루(五嶽樓) 아래에서 아주 간사하기 짝이 없는 놈을 만났는데, 그놈이 마님을 가로막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임충이 당황하며 말했다.

"사형, 다시 와서 뵙겠소. 양해해 주시오, 양해해 주시오!"

임충은 노지심과 작별하고 급히 담장 틈을 뛰어넘어 금아와 함께 곧장 악묘(嶽廟)로 달려갔다. 오악루(五嶽樓)로 달려가 살펴보니, 새총(彈弓)과 취통(吹筒, 입으로 부는 통), 끈끈이 막대(粘竿) 등을 든 몇몇 사내들이 난간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사다리 위에는 한 젊은 사내가 홀로 등을 돌리고 서서 임충의 부인을 가로막으며 말하고 있었다.

"너는 일단 위층으로 올라가서 나와 이야기를 좀 하자꾸나."

임충의 부인이 얼굴이 붉어진 채 말했다.

"태평한 세상에 어찌 양가집 부녀(良人)를 희롱한단 말이오?"

임충이 급히 다가가 그 젊은 사내의 어깨를 홱 돌려 세우며 호통쳤다.

"남의 처를 희롱하다니,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아느냐!"

주먹을 휘두르려던 찰나, 임충은 그자가 바로 자신이 모시는 고(高) 태위(太尉)의 양자(螟蛉之子)인 고아내(高衙內)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원래 고구(高俅)는 새로 출세한 터라 친자식이 없어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그의 아저씨인 고삼랑(高三郎)의 아들을 자기 집으로 들여 양아들로 삼았던 것이다. 본래는 사촌 형제(叔伯弟兄) 사이였지만 양아들로 삼게 된 것이다. 그래서 고 태위는 그를 끔찍이 아꼈다. 그 놈은 동경에서 권세를 믿고 날뛰며 남의 처녀와 부녀자를 더럽히는 일에만 빠져 있었다. 도성 사람들은 그의 권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누구도 그에게 맞서지 못하고, 그를 일컬어 '화화태세(花花太歲, 호색한 귀공자)'라 불렀다. 이를 증명하는 시(詩)가 있으니,

눈앞에 꽃이 어른거리니 추악하여 가까이하기 어렵고
마음속에 꽃이 피니 남의 부녀를 탐하네
운수 사나운 해(年庚)를 만나고서야
태세(太歲)가 흉신(凶神)임을 비로소 알겠구나

그때 임충은 그를 홱 돌려 세웠다가, 상대가 바로 자신이 모시는 고(高) 태위의 양자인 고아내(高衙內)임을 알아채고는 먼저 손이 풀려 차마 손을 쓸 수가 없었다. 고아내가 말했다.

"임충, 네가 무슨 상관이야! 쓸데없이 참견 마라!"

알고 보니 고아내는 그녀가 임충의 부인인 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만약 알았더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임충이 손을 쓰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제야 그런 말을 내뱉은 것이다. 구경하던 한량들이 소란이 인 것을 보고 일제히 몰려와 말렸다.

"교두님, 너무 노여워 마십시오. 도련님(衙內)께서 부인이신 줄 몰라 뵙고 결례가 많았던 것입니다."

임충은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 눈을 부릅뜬 채 고아내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한량들이 임충을 달래는 한편 고아내를 어르고 달래어 절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에 태워 보냈다.

임충은 부인과 여종 금아를 데리고 회랑을 지나 밖으로 나왔다. 그때 마침 노지심이 철선장(鐵禪杖)을 들고 이삼십 명의 불량배를 거느린 채 성큼성큼 절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임충이 그를 보고 외쳤다.

"사형,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노지심이 대답했다.

"자네를 도와 한바탕 싸워주러 왔네!"

임충이 말했다.

"알고 보니 제가 모시는 고 태위의 양자였습니다. 졸처인 줄 모르고 한순간 무례를 범한 것이지요. 저놈을 호되게 두들겨 패주고 싶었지만, 태위의 체면을 봐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예부터 '관(官)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나를 관할(管)하는 자가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임충

이 어쩌다 그(태위)의 녹봉(請受)을 받아 먹는 처지인지라, 이번 한 번은 그냥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노지심이 말했다.

"자네야 자네 상관인 태위를 두려워하겠지만, 이 몸이 그놈 따위를 두려워할 게 무엇이냐? 내가 만약 그 새 같은 놈을 마주치기라도 하면, 내 선장으로 저놈을 삼백 대는 두들겨 패 보내 줄 것이다!"

임충은 노지심이 술에 취한 것을 보고 말했다.

"사형 말씀이 옳습니다. 임충이 잠시 사람들의 만류에 못 이겨 이번만 용서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노지심이 덧붙였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나를 부르게. 같이 가서 싸워 주마."

불량배들은 노지심이 취한 것을 보고 그를 부축하며 말했다.

"스님,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지요."

노지심은 선장을 치켜들며 말했다.

"형수님, 노여워 마시고 비웃지도 마십시오. 형님, 내일 다시 봅시다!"

노지심은 그렇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불량배들과 함께 떠났다. 임충은 부인과 금아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지만, 마음속에는 답답하고 울적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다.

한편, 고아내는 한량들을 거느리고 임충의 아내를 본 뒤로 그 자에게(노지심에게) 일행이 한 번 흩어져 쫓긴 일까지 있어, 그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혀 마음이 들뜨고 울적한 기분을 가누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와 고민에 빠졌다. 이삼일이 지나자 한량들이 모두 와서 수발을 들었으나, 고아내의 마음이 초조하고 어지러운 것을 보고는 모두 흩어졌다. 그중에는 부안(富安)이라 불리는 시종이 있었는데, 그는 고아내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혼자 부중(府中)으로 들어가 그를 모셨다. 부안이 서재에 한가로이 앉아 있는 고아내에게 다가가 말했다.

"도련님, 요 며칠 안색이 수척해지시고 즐거워 보이지 않으시니, 분명 마음속에 언짢은 일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고아내가 물었다.

"네가 그걸 어찌 아느냐?"

부안이 대답했다.

"소인이 한 번 짐작해 보면 그대로 맞힐 수 있습니다."

고아내가 다시 물었다.

"그럼 내가 무엇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은지 맞춰 보아라."

부안이 말했다.

"도련님께서는 그 쌍목(雙木) — 곧 림(林)씨 부인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제 짐작이 어떻습니까?"

고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네 말이 맞다. 다만 그 여인을 얻을 방도가 없을 뿐이다."

부안이 말했다.

"그게 무슨 어려움입니까? 도련님께서 임충이 만만치 않은 사내라 감히 해치지 못할까 걱정되시는 거라면, 그건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는 태위의 휘하에서 부림을 받으며 후한 대접을 받고 있으니, 감히 태위께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가볍게는 자배(刺配)하여 얼굴에 자자를 떠 유배 보내버리고, 무겁게는 목숨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소인이 도련님께서 그 여인을 얻으실 수 있는 계책을 하나 생각해 두었습니다."

고아내가 그 말을 듣고 말했다.

"그동안 많은 미인을 보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여인에게 마음이 쏠려 울적하기까지 하구나. 네게 좋은 방도가 있어 그 여인을 얻게 해 준다면 내 후하게 상을 내리겠다."

부안이 말했다.

"도련님의 심복인 육우후(陸虞候) 육겸이 있습니다. 그는 임충과 사이가 아주 가깝습니다. 내일 도련님께서 육우후의 집 누각의 깊숙한 방에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숨어 계십시오. 그러고는 육겸을 시켜 임충을 불러내, 곧장 번루(樊樓)의 깊은 방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 사이 소인이 임충의 집으로 가서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댁의 임 교두께서 육겸과 술을 드시다 갑자기 격분하여 누각 위에서 쓰러지셨으니, 마님께서 어서 가 보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 부인을 꾀어 누각 위로 올라오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인이란 본디 마음이 잘 흔들리는 법이라, 도련님처럼 풍류 있는 인물을 보고 다시 달콤한 말로 어르면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소인의 이 계책이 어떠합니까?"

고아내가 박수를 치며 외쳤다.

"좋은 계책이다! 당장 오늘 밤 사람을 보내 육우후를 불러 일러두어야겠다."

알고 보니 육우후의 집은 고 태위의 집 옆 골목 안에 있었다. 다음 날, 계책을 들은 육우후는 한순간에 응낙은 했으나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저 도련님이 기뻐하실 일만 생각하느라 친구와의 의리는 돌볼 겨를이 없었다.

한편, 임충은 연일 마음이 답답하여 거리로 나가는 것조차 싫어했다. 사패시(巳牌時, 오전 9시~11시 사이) 무렵, 문밖에서 누군가 "교두님, 집에 계십니까?"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임충이 밖으로 나가 보니 육우후였다. 임충이 황급히 물었다.

"육 형, 어쩐 일이십니까?"

육겸이 대답했다.

"형님을 뵙고자 특별히 찾아왔습니다. 어찌하여 요 며칠 거리에서 형님을 뵐 수가 없습니까?"

임충이 말했다.

"마음이 울적하여 나가지 못했습니다."

육겸이 말했다.

"제가 형님과 함께 술을 몇 잔 나누며 이 답답함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임충이 말했다.

"잠시 앉아 차부터 드시지요."

두 사람이 차를 마신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육우후가 임충의 아내에게 말했다.

"형수님, 제가 형님과 함께 집에 가서 술을 몇 잔 나누겠습니다."

임충의 아내가 발치까지 달려 나와 외쳤다.

"아주버님,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일찍 돌아오세요!"

임충과 육겸은 문을 나서 거리로 잠시 한가로이 거닐었다. 육우후가 말했다.

"형님, 집으로 가지 말고 그냥 번루에 가서 술을 두어 잔 마십시다."

두 사람은 곧장 번루로 올라가 누각 방 하나를 차지하고는, 점원을 불러 상등(上色)의 좋은 술 두 병과 안주로 곁들일 진귀한 과일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두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임충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육우후가 물었다.

"형님, 어찌하여 한숨을 쉬십니까?"

임충이 말했다.

"아우는 모르네……. 대장부로서 한 몸의 재주를 가졌음에도 명군을 만나지 못해, 소인배 밑에서 굽실거리며 이런 더러운 수모를 당해야 하니 말이네!"

육우후가 달랬다.

"지금 금군 중에 교두가 몇 명 있긴 하지만, 누가 형님의 재주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태위께서도 형님을 아껴주시는데, 대체 누구의 수모를 당하신단 말씀입니까?"

임충은 며칠 전 고아내가 저지른 일을 육우후에게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다. 육우후가 말했다.

"도련님께서 분명 형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형님,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그저 술이나 드십시오."

임충은 술을 여덟아홉 잔쯤 마신 뒤, 소변을 보러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내가 손 좀 씻고 오겠네."

임충은 누각에서 내려와 주막 문을 나서더니, 동쪽 골목 안으로 들어가 손을 씻고 돌아 나왔다. 그런데 골목 어귀에서 여종 금아(錦兒)가 그를 보고 외쳤다.

"서방님, 저를 찾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여기 계셨군요!"

임충이 황급히 물었다.

"무슨 일이냐?"

금아가 말했다.

"서방님과 육우후께서 나가신 지 채 반 시진(한 시간)도 되지 않아, 어떤 사내가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오더니 마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육우후의 이웃인데, 댁의 교두께서 육겸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숨이 넘어가 쓰러지셨으니, 마님께서 어서 가서 살펴보십시오!' 하고요. 그 말을 들으신 마님께서는 급히 옆집 왕 씨 할멈에게 집을 좀 봐달라고 부탁하시고, 저와 함께 그 사내를 따라 태위의 부(府) 앞 골목에 있는 어느 집까지 가셨습니다. 그런데 누각에 올라가 보니 상에는 술과 음식이 차려져 있을 뿐 서방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

내려가려는데, 며칠 전 악묘(嶽廟)에서 마님을 희롱했던 그 젊은 놈이 나오면서 '부인, 잠시만 앉아 계시오. 남편이 오는 중이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황급히 누각에서 내려올 때 마님께서 위에서 '사람 살리라'고 비명을 지르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를 헤매며 서방님을 찾았는데 보이지 않다가, 마침 약을 파는 장 선생을 만났는데 '내가 번루 앞을 지나다가 교두께서 어떤 사람과 술을 마시러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시기에 이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서방님, 어서 가보십시오!"

임충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여종 금아를 챙길 겨를도 없이 세 걸음을 한 걸음처럼 뛰어 육우후의 집으로 달려갔다. 누각 계단을 박차고 올라갔으나 누각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러자 안에서 임충의 아내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태평한 세상에, 어찌 양인(良人)의 아내인 나를 이곳에 가두어 둔단 말이냐!"

이어 고아내의 목소리도 들렸다.

"부인, 부디 가엾이 여겨 저를 살려 주십시오. 무쇠나 돌 같은 사람이라도 빌고 빌면 마음이 돌아설 것입니다."

임충이 계단 위에 서서 소리쳤다.

"여보, 문을 여시오!"

그 소리가 남편의 목소리임을 알아챈 아내는 정신없이 문을 열러 나왔다. 고아내는 깜짝 놀라 누각 창문을 박차고 열어 담을 넘어 달아나 버렸다. 임충이 누각 위로 올라갔으나 고아내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아내에게 물었다.

"그놈에게 욕을 보지는 않았소?"

아내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충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육우후의 집을 산산이 부수어 놓았다. 아내를 데리고 누각에서 내려와 문밖을 내다보니, 이웃집들은 양쪽 모두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 여종 금아까지 합세하여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임충은 손목 자르는 날카로운 단도(解腕尖刀) 한 자루를 챙겨 들고 곧장 번루 앞으로 달려가 육우후를 찾았으나, 그 역시 보이지 않았다. 결국 임충은 육우후의 집 앞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기다렸으나 그가 돌아오지 않자 스스로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달랬다.

"제가 그놈에게 농락당한 것도 아닌데, 너무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임충이 분통을 터뜨리며 말했다.

"이 빌어먹을 육겸이라는 짐승 같은 놈! 내가 자네와 친형제처럼 지냈거늘, 자네까지 나를 속이다니! 다만 고아내를 마주치지 못한 것이 한일 뿐, 만나기만 했더라면 그놈의 낯짝도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네."

아내가 간곡히 말리니 임충은 도저히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육우후 역시 태위의 부(府) 안에 숨어 감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임충은 사흘 동안이나 계속 기다렸지만 끝내 그를 만나지 못했다. 태위의 부 앞에서 임충의 안색이 몹시 좋지 않은 것을 본 사람들은 누구도 감히 그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나흘째 되는 날 식사 때가 되자, 노지심이 임충의 집을 찾아와 안부를 물으며 말했다.

"교두님, 어찌하여 요 며칠 얼굴을 비추지 않으십니까?"

임충이 대답했다.

"제가 잠시 분주하여 미처 사형(師兄)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누추한 저의 집까지 찾아와 주셨으니 마땅히 변변치 않은 술이라도 세 잔 대접해야 하거늘, 마침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형과 함께 거리로 나가 한바탕 거닐며 두어 잔 사 마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노지심이 말했다.

"그거 더없이 좋소."

두 사람은 함께 거리로 나가 하루 종일 술을 마셨고, 내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 후로 임충은 매일 노지심과 함께 거리로 나가 술을 마시며, 이 일을 점차 마음에서 미루어 두었다. 정녕 이러하였다.

사내의 마음속 시름은 친한 벗들과 나누며,
웃고 떠들며 노래 부르니 답답함이 흩어지네.
오직 여인네의 근심 어린 마음은,
깊은 방 안에서 말도 못 한 채 병이 깊어만 가네.

한편, 고아내는 그날 육겸의 집 다락에서 큰 소동을 겪고 담을 넘어 달아난 뒤로, 태위에게는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채 태위의 집 안에서 앓아누워 있었다. 육겸과 부안이 고아내를 보러 태위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고아내의 안색이 좋지 않고 기운이 몹시 초췌해 보였다. 이에 육겸이 물었다.

"아드님, 어찌하여 이토록 기운이 없으십니까?"

고아내가 대답했다.

"사실대로 말하겠네. 임충의 아내를 두 번이나 넘보려 했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게다가 그놈에게 크게 놀라기까지 했으니 병세가 갈수록 깊어지는구먼. 이대로라면 반년이나 석 달 안에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겠어."

두 사람이 말했다.

"아드님, 부디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저희 두 사람이 어떻게든 그 여인과 다시 만나게 해 드릴 테니, 그 여자가 스스로 목을 매 죽는 일만 없으면 됩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태위의 집 노도관(늙은 집사)도 고아내의 병세를 살피러 왔다.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몸은 가렵지도 아프지도 않은데, 온몸에 오한이 들었다가 열이 났다. 속은 뒤숭숭하고 어지러운데, 배는 부르다가도 금세 허기가 졌다. 낮에는 먹는 것도 잊고, 저녁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조차 잊었다. 부모님을 뵈면 가슴 속 한을 어찌 말하며, 아는 이를 만나면 얼굴에 서린 수치심을 어찌 감춘단 말인가.

육겸과 부안은 노도관이 병세를 살피러 오는 것을 보고 둘이서 속삭였다.

"그 방법뿐이오."

노도관이 병세를 살피고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두 사람은 노도관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말했다.

"도련님의 병을 고치려면, 태위께 아뢰어 임충의 목숨을 해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내를 도련님과 함께 두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련님의 목숨이 끝장날 것입니다."

노도관이 대답했다.

"그건 어렵지 않네. 늙은 내가 오늘 밤 당장 태위께 말씀드리겠네."

두 사람이 말했다.

"저희에게 이미 계책이 있으니, 어르신의 답변만 기다리겠습니다."

밤이 되어 노도관이 태위를 뵙고 아뢰었다.

"도련님께서 다른 병이 아니라, 오직 임충의 아내를 앓고 계십니다."

고구가 물었다.

"그 아낙을 언제 보았다는 것이냐?"

노도관이 보고했다.

"지난달 스무여드레에 악묘(嶽廟)에서 보셨는데,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고는 육우후가 세운 계책을 상세히 아뢰었다. 고구가 말했다.

"이러하다면 — 그 아낙 때문에 어찌 임충을 해친단 말인가? — 내가 생각해 보니, 만약 임충 한 사람을 아끼려다 내 아들의 목숨을 잃게 된다면 어찌하겠느냐. 이를 어쩌면 좋겠느냐?"

노도관이 말했다.

"육우후와 부안에게 계책이 있을 것입니다."

고구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 둘을 불러와서 상의해 보자."

노도관이 즉시 육겸과 부안을 대청으로 불러들이니, 두 사람이 예를 갖춰 인사했다. 고구가 물었다.

"내 어린 자식의 일을 두고 너희에게 무슨 계책이 있느냐? 내 아이를 무사히 구해낸다면 내가 너희 두 사람을 후히 등용하겠다."

육우후가 앞으로 나아가 아뢰었다.

"은상께서는 오직 이러이러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고구가 그 말을 듣고는 박수를 치며 외쳤다.

"좋은 계책이로구나! 너희 둘은 내일 당장 나를 위해 실행에 옮기도록 해라."

이 일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는다.

한편, 임충은 매일 노지심과 술을 마시며 이 일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열무방(閱武坊) 골목 어귀에 이르렀는데, 길가에 한 장한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머리에 뿔 모양으로 묶은 두건을 쓰고 낡은 전포를 걸쳤으며, 손에는 풀표(草標)가 꽂힌 보검 한 자루를 들고 길가에 서서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안목 있는 이를 만나지 못해, 이 보검이 빛을 보지 못하고 묻혀가는구나."

임충은 아랑곳하지 않고 노지심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냥 지나치려 했다. 그러자 그 사내가 뒤에서 다시 말했다.

"참으로 좋은 보검인데, 안목 있는 이를 만나지 못하니 참으로 아깝구나!"

임충은 노지심과 이야기를 나누는 데 한창 빠져 걸어가고 있었다. 사내가 또 뒤에서 외쳤다.

"이 넓디넓은 동경 땅에, 무기를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

임충이 그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자, 사내가 휙 하고 칼을 뽑아 들었다. 칼날이 번쩍이며 눈을 어지럽힐 정도로 빛났다. 임충에게 변고가 닥칠 운명이었던지, 그가 불쑥 말했다.

"이리 좀 줘 보시오."

사내가 칼을 건네주자, 임충은 그것을 받아 노지심과 함께 살펴보았다. 칼의 모습은 이러하였다.

맑은 빛은 눈부시게 쏟아지고, 서늘한 기운은 사람을 파고드네.
멀리서 보면 옥빛 연못의 봄 얼음 같고, 가까이서 보면 보석 누대(瓊臺)에 내린 상서로운 눈 같구나.
꽃무늬는 촘촘히 새겨져, 풍성(豐城) 옥사(獄舍)에서 날아온 듯하고,
자줏빛 기운은 하늘을 가로질러, 초나라 소왕(楚昭王)의 꿈속에서 거둔 듯하네.
태아(太阿)와 거궐(巨闕) 같은 명검도 비할 바 못 되고, 막야(莫邪)와 간장(干將) 같은 칼도 그 앞에서는 평범하구나.

임충은 칼을 보고 깜짝 놀라 자신도 모르게 외쳤다.

"정말 좋은 칼이로군! 얼마에 팔겠나?"

사내가 대답했다.

"값은 삼천 관을 받고 싶으나, 실제로는 이천 관에 팔겠소."

임충이 말했다.

"이천 관의 가치는 충분하네만, 이 칼의 진가를 알아줄 주인을 만나지 못했구려. 만약 천 관에 팔 생각이 있다면 내가 사겠네."

사내가 말했다.

"급히 쓸 돈이 좀 필요해서 말이오. 만약 정말로 사겠다면 오백 관을 깎아주겠소. 실제로는 천오백 관에 주겠소."

임충이 말했다.

"딱 천 관이면 바로 사겠네."

사내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금덩이를 쇳덩이 값에 파는 격이로군! 에휴, 됐소, 됐어. 단 한 푼도 깎지 말고 내 돈을 다 주시오."

임충이 말했다.

"우리 집에 가서 돈을 가져와 바로 갚아줌세."

임충은 몸을 돌려 노지심에게 말했다.

"사형, 우선 찻집에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노지심이 말했다.

"나는 이만 돌아가겠네. 내일 다시 만나세."

임충은 노지심과 헤어진 뒤, 칼을 파는 사내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돈을 가져와 건네주었다. 그러고는 사내에게 물었다.

"그 칼은 어디서 난 것이오?"

사내가 대답했다.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것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내놓게 되었습니다."

임충이 다시 물었다.

"그대의 조상이 대체 누구시오?"

사내가 말했다.

"그 이름을 말씀드리면 제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임충은 더는 묻지 않았다. 사내는 은량을 받아 들고는 곧바로 떠났다. 임충은 그 칼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한참을 살펴보더니 감탄하며 말했다.

"참으로 훌륭한 칼이로구나! 고 태위의 부중에도 보도(寶刀)가 한 자루 있지만, 함부로 남에게 보여주려 하지 않더군. 내가 몇 번이나 빌려 달라고 했어도 좀처럼 내놓지 않았네. 오늘 나도 이 좋은 칼을 샀으니, 천천히 그의 칼과 견주어 보리라."

임충은 그날 저녁 내내 칼을 손에서 놓지 않고 살피다가, 밤이 되자 벽에 걸어두었다. 그리고 날이 밝기도 전에 다시 칼을 보러 갔다.

다음 날 사패시(巳牌時, 오전 9시~11시 사이)쯤 되었다. 문 앞에서 두 명의 승국(承局, 태위부의 하급 사령)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임 교두님! 태위의 균지(鈞旨)를 받들고 왔습니다. 좋은 칼을 한 자루 사셨다니 그 칼을 가지고 와서 함께 견주어 보라 하십니다. 태위께서 부중에서 직접 기다리고 계십니다!"

임충은 그 소리를 듣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또 어느 입싼 자가 일러바쳤단 말인가."

두 승국이 재촉하는 바람에 임충은 서둘러 옷을 입고 칼을 챙겨 그들을 따라나섰다. 임충이 물었다.

"나는 부중에서 그대들을 본 적이 없는데."

두 사람이 대답했다.

"저희는 새로 들어와 모시게 된 자들입니다."

어느새 그들은 태위부 앞에 이르러 대청 앞까지 들어갔다. 임충이 발걸음을 멈추자 두 사람이 다시 말했다.

"태위께서 안쪽 후당에 앉아 계십니다."

병풍을 돌아 후당에 이르렀으나, 정작 태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임충이 또 멈춰 서자 두 사람이 다시 말했다.

"태위께서는 더 안쪽에서 기다리고 계시며, 교두님을 모시고 들어오라 하셨습니다."

두세 겹의 문을 더 지나자 사방이 초록색 난간으로 둘러싸인 곳이 나타났다. 두 사람은 임충을 그 당 앞에 데려다 놓으며 말했다.

"교두님,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저희가 들어가서 태위께 아뢰겠습니다."

임충은 칼을 쥔 채 처마 아래 서 있었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간 뒤 차 한 잔 마실 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다. 임충이 의아한 마음에 발을 내딛어 발 사이로 안을 살피니, 처마 위 현판에 푸른 글씨로 네 글자가 적혀 있었다.

'백호절당(白虎節堂)'

임충은 그제야 아차 싶어 깨달았다.

'이 절당은 군기(軍機) 대사를 의논하는 곳인데, 어찌 함부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급히 몸을 돌리려는데, 갑자기 가죽신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울리더니 한 사람이 밖에서 들어왔다. 임충이 보니 다름 아닌 자신을 관할하는 고 태위였다. 임충은 그를 보자 칼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 예를 갖추었다.

태위가 호통을 쳤다.

"임충!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찌 감히 백호절당에 함부로 들어온단 말이냐? 네 이놈, 법도를 모르느냐! 손에 칼까지 들고 있으니, 혹시 본관(本官)을 찌르러 온 것이냐? 누군가 내게 알리기를, 네놈이 이삼 일 전부터 칼을 들고 부중 앞을 서성였다 하니 필시 흉심을 품은 것이 아니냐!"

임충이 허리를 굽혀 아뢰었다.

"은상(恩相)이시여, 방금 두 승국이 저를 불러 칼을 가져와 함께 견주어 보자 하시기에 온 것일 뿐입니다."

태위가 다그쳤다.

"승국들이 어디 있느냐?"

임충이 대답했다.

"그 두 사람이 이미 안쪽 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위가 말했다.

"헛소리 마라! 어떤 승국이 감히 내 부의 당 안까지 들어간단 말이냐! 좌우는 당장 이놈을 잡아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방에서 스무 명 남짓한 무리가 쏟아져 나와 임충을 거칠게 밀치고 끌어 쓰러뜨렸다. 그 기세가 마치 검은 매가 자줏빛 제비를 쫓듯 매서웠고, 사나운 호랑이가 어린 양을 물어뜯는 듯했다.

고 태위가 크게 노해 외쳤다.

"네가 금군 교두라는 자가 법도조차 모르느냐! 어찌 날카로운 칼을 들고 일부러 절당에 들어와 본관을 죽이려 한단 말이냐!"

태위는 좌우에게 명하여 임충을 끌어내게 했으니, 그 목숨이 어찌 될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일이 있었기에 장차 중원을 뒤흔들고 사해(四海)를 종횡할 일이 벌어지게 되니, 마침내 농부의 등에는 심자(心號) 표식이 새겨지고, 어부의 배 위에는 인식(認旗)의 깃발이 꽂히게 되리라.

결국 임충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8회 — 임 교두가 창주도로 유배를 가고, 노 지심이 야저림을 발칵 뒤집다

林教頭刺配滄州道 魯智深大鬧野豬林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시 태위(고구)는 좌우에 호령하여 군교(軍校)들을 줄지어 늘어세우게 한 뒤, 임충을 끌어내어 베라고 명하니, 임충이 억울하다고 크게 외쳤다. 태위가 호통쳤다.

"네가 절당(節堂)에 무슨 볼일로 왔느냐? 지금 손에 날카로운 칼을 쥐고 있는데, 어찌 이 관(下官, 곧 나)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냐?"

임충이 말했다. “태위님께서 부르지 않으셨는데 제가 어찌 감히 왔겠습니까? 저기 두 명의 승국(承局, 하급 관리)이 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저를 이곳으로 불러내려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고구가 호통을 쳤다. “헛소리 마라! 내 부중에 승국이 어디 있단 말이냐? 이놈이 반항하니 당장 보내버려라!”

그러고는 좌우의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임충을 개봉부로 압송하라. 등 부윤에게 일러 사정을 낱낱이 심문하여 명백히 가린 뒤 처결하도록 전하고, 저놈의 보도(寶刀)는 압수하여 봉인해 두어라.”

부하들이 명령을 받들고 임충을 압송하여 개봉부로 향하니, 마침 부윤이 아직 관아를 떠나지 않고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 모습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다.

붉은 비단이 벽을 두르고, 자줏빛 띠가 탁자를 감쌌다. 정면 이마 위에는 주홍빛 현판이 걸려 있고, 사방으로는 반죽(斑竹)으로 엮은 발이 드리워져 있었다. 관리들은 정도(正道)를 지키고 있었으니, 계석(戒石) 위에는 어제(御製)의 네 줄 글귀가 새겨져 있고, 영사(令史)들은 삼가 엄정하였으니, 옻칠한 패(漆牌) 한가운데에는 '저성(低聲, 소리를 낮추라)' 두 글자가 쓰여 있었다. 제할관(提轄官)은 기밀을 능히 관장하고, 객장사(客帳司)는 패단(牌單)을 전담하여 다스렸다. 하급 관리와 병졸들은 위엄이 묵직하였고, 절급(節級)들은 위풍이 엄숙하였다. 계단 앞에는 등조(藤條) 회초리를 든 시종이 늘어섰고, 큰 몽둥이를 든 자들은 반열에서 나와 좌우로 나뉘어 섰다. 호혼(戶婚)과 송사를 판결할 때는 마치 옥형(玉衡)이 환히 비추는 듯하였고, 싸움과 시비를 가릴 때는 마치 금감(金鏡)으로 비추듯 분명하였다. 비록 한 고을을 다스리는 재신(宰臣)일 뿐이로되, 과연 사방 백성의 부모라 할 만하였다. 죄수로 하여금 얼음 위에 선 듯 떨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울 속을 걷듯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니, 그 위의(威儀)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마치 한 당(堂)에 신상(神道)들을 빚어 모셔 놓은 듯하였다.

고태위의 부하(幹人)가 임충을 압송하여 부(府) 앞에 끌고 가 계단 아래 꿇어앉히고는, 태위의 분부를 등(滕) 부윤에게 그대로 전하면서, 태위가 봉인한 그 칼을 임충 앞에 내려놓았다.

부윤이 말했다. "임충, 너는 금군교두로서 어찌 법도를 모르고 손에 날카로운 칼을 쥔 채 일부러 절당에 들어왔느냐? 이는 죽어 마땅한 죄다."

임충이 호소했다. "은상(恩相)께서 명경처럼 밝히 살피시어, 임충이 굴욕을 안고 원통함을 머금고 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소인이 비록 거친 군인이오나 법도는 어느 정도 아니, 어찌 감히 함부로 절당에 들어가겠습니까? 지난달 28일, 임충이 아내와 함께 악묘(嶽廟)에 가서 빌었던 향원(香願)을 갚으려는데, 마침 고태위댁의 소아내(小衙內)와 마주쳤습니다. 그자가 제 아내를 희롱하기에 소인이 호통쳐서 흩어 버렸습니다. 그 뒤 또 육우후(陸虞候)를 시켜 소인을 속여 술을 마시게 하고, 다시 부안(富安)을 시켜 임충의 아내를 속여 육우후의 집 이층으로 데려가 희롱하려 하였으나, 이번에도 소인이 쫓아가 막아내고는 그 김에 육우후의 집을 한바탕 부숴 놓았습니다. 두 번 다 간음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모두 증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임충이 직접 이 칼을 샀는데, 오늘 태위께서 승국(承局) 두 명을 보내 임충을 집으로 부르며 칼을 부중으로 가져와 견주어 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충이 그 두 사람과 함께 절당 아래에 이르렀습니다. 두 승국이 당 안으로 들어간 사이, 뜻밖에 태위께서 밖에서 들어오시어 임충을 함정에 빠뜨릴 계책을 꾸미신 것입니다. 부디 은상께서 공정히 처결해 주십시오."

부윤은 임충의 진술을 듣고는 회신 문서(回文)를 써 주게 한 뒤, 형구인 칼(枷)과 수갑(杻)을 가져와 채워 감옥에 가두게 하였다. 임충의 집에서는 평소처럼 밥을 들여보내며 돈을 썼고, 임충의 장인 장교두(張教頭) 또한 위아래로 사람을 사서 청탁하며 재물을 썼다.

마침 사건을 맡고 있던 공목(孔目)에 손(孫)씨 성을 가진 정(定)이라는 자가 있었으니, 사람됨이 매우 강직하고 선량하여 오로지 남을 두루 도와주려고만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그를 '손불아(孫佛兒)'라 불렀다. 그는 이 사건의 내막을 훤히 알고 있어, 부윤 앞에서 빙빙 둘러 그 속사정을 아뢰며 말했다.

"이 일은 과연 임충이 억울하게 당한 것이니, 그를 잘 살펴 두루 보살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윤이 말했다. "그가 이런 죄를 저질렀거늘! 게다가 고태위께서 '죄를 확정하라(仰定罪)'고 비답을 내리시며, '날카로운 칼을 들고 일부러 절당에 들어와 본관을 살해하려 하였다'는 죄로 다스리라 하셨으니, 내 어찌 그를 두루 보살필 수 있겠느냐?"

손정이 말했다. "이 남아(南衙) 개봉부가 조정의 것이 아니라 고태위 댁의 것이란 말씀입니까?"

부윤이 꾸짖었다. "헛소리 마라!"

손정이 다시 말했다. "고태위께서 권세를 잡고 위세를 부려 횡포를 휘두르며 그 부중에서 못 하는 짓이 없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그를 거스르면 곧 개봉부로 보내,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능지처참하고 싶으면 능지처참하니, 이러고서야 개봉부가 그 집안의 관아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윤이 물었다. "네 말대로라면, 임충의 일은 어떻게 편의를 봐주어 처결하면 좋겠느냐?"

손정이 답했다. "임충의 진술을 보면 본디 무죄한 사람이지만, 다만 그 두 승국을 붙잡지 못한 것이 흠일 뿐입니다. 지금은 그저 '허리에 칼을 찬 채 부주의하게 절당에 잘못 들어갔다'고 자백을 받아 척장(脊杖) 20대를 치고, 멀고 험한 군주(遠惡軍州)로 자자(刺)하여 유배(配)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등 부윤도 이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친히 고태위 앞으로 나아가 임충의 진술을 거듭 아뢰었다. 고구는 도리에 맞지 않음을 알면서도 부윤의 체면을 거스를 수 없어 마침내 허락하였다.

그날 부윤은 관아로 돌아와 마루에 올라, 임충의 긴 칼(長枷)을 벗기게 한 뒤 척장 20대를 치게 하고, 자자(刺字) 장인(文筆匠)을 불러 뺨에 죄명을 새기게 한 다음,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헤아려 창주(滄州) 뇌성(牢城)으로 유배 보내기로 정하였다. 그 자리에서 일곱 근 반짜리 둥근 머리 철엽(鐵葉) 호신가(護身枷)를 채워 못 박고, 봉피(封皮)를 붙이며, 첩문(牒文) 한 통을 작성한 뒤, 호송 공인(防送公人) 두 사람을 차출하여 압송해 가게 하였다.

호송을 맡은 두 사람은 동초(董超)와 설패(薛霸)였다. 두 사람은 공문을 받아 들고 임충을 호송하여 개봉부를 나섰는데, 이웃들과 임충의

장인 장교두가 모두 부(府)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임충과 두 공인을 데리고 주교(州橋) 아래에 있는 술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임충이 말했다. "손 공목(孫孔目)이 힘써 도와주신 덕분에 매가 그리 모질지 않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교두는 점원(酒保)에게 안주와 술, 과일을 차리게 하여 두 공인을 대접하였다. 술이 몇 잔 돌고 나자, 장교두가 은량(銀兩)을 꺼내 호송 공인 두 사람에게 노자(路資)로 나누어 주었다. 임충은 장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장인어른(泰山)께 아룁니다. 운수가 사납고 액월이 들어 고아내(高衙內)와 부딪치는 바람에 한바탕 억울한 송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 말씀 올리고자 하니, 부디 들어 주십시오. 장인어른께서 분에 넘치는 사랑으로 따님을 소인에게 시집보내신 지 어느덧 삼 년이 되었으나, 그동안 조금의 차질도 없었습니다. 비록 자식 하나 보지는 못했어도, 얼굴 붉히며 다투거나 사소한 말다툼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인이 이런 횡액을 당해 창주로 배소되어 가니, 살아 돌아올지 죽을지조차 기약할 수 없습니다. 부인이 집에 홀로 남아 있으면 소인의 마음이 놓이지 않고, 진실로 고아내가 위세로 이 혼사를 어지럽힐까 두렵습니다. 게다가 부인은 아직 청춘이니, 임충 때문에 앞날을 그르쳐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임충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지 결코 남이 강요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웃분들이 자리하신 이 자리에서 분명히 휴서(休書)를 써 두니, 부인이 마음대로 재가하시더라도 결코 다투지 않겠습니다. 이리 해야 임충이 마음 놓고 떠날 수 있고, 고아내의 음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장교두가 말했다. "사위, 그 무슨 말인가! 자네는 천운이 고르지 못해 횡사를 만난 것일 뿐, 자네가 저지른 일이 아닐세. 우선은 창주로 가서 액운을 피하고 있게나. 머지않아 하늘이 가엾이 여겨 자네를 돌려보내 주시면, 그때 다시 부부로 단란하게 모이면 되네. 이 늙은이의 집에도 살아갈 만큼은 있으니, 곧 내 딸과 시비 금아(錦兒)까지 친정으로 데려가 두면, 어떻게든 삼 년이고 오 년이고 부양할 수 있네. 또 출입도 시키지 않을 것이니 고아내가 만나려 한들 어찌 만날 수 있겠는가. 걱정 말게, 모두 이 늙은이가 책임지겠네. 자네가 창주 뇌성에 있는 동안 내 자주 편지와 옷가지를 보내 주겠으니, 부디 잡생각 말고 마음 놓고 떠나게."

임충이 말했다. "장인어른의 두터운 정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소인이 도무지 마음을 놓을 수 없으니, 공연히 두 사람이 서로의 앞날을 그르치게 될까 두렵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임충을 가엾게 여기신다면 부디 소인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야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장교두는 도저히 응낙하려 하지 않았고, 이웃 사람들도 모두 그러면 안 된다고 만류하였다. 그러자 임충이 말했다.

"만일 소인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임충이 설령 살아 돌아오더라도 결단코 부인과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장교두가 말했다. "정 그렇다면 우선 자네 뜻대로 쓰게나. 다만 나는 결코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보내지는 않겠네."

그때 점원(酒保)을 시켜 문서를 써 줄 사람을 찾아오게 하고 종이 한 장을 사 왔다. 그 사람이 받아쓰는 대로 임충이 부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경(東京) 팔십만 금군 교두 임충은 중죄를 저질러 창주로 유배되어 가니, 떠난 뒤 살아 돌아올지 죽을지 기약할 수 없다. 처(妻) 장씨(張氏)가 아직 젊으므로, 본인의 자원(自願)으로 이 휴서(休書)를 세워, 마음대로 재가하더라도 영원히 다투지 않기로 한다. 이는 진실로 본인 스스로의 뜻이지 결코 강요받은 것이 아니다. 뒷날 증빙이 없을까 두려워 이 문약(文約)을 세워 증거로 삼는다.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임충은 그 자리에서 남이 글을 다 쓰는 것을 지켜본 뒤, 붓을 빌려 연월일(年月) 아래에 화압(花押, 서명)을 하나 놓고, 손도장(手模, 지장)을 찍었다.

임충은 그 자리에서 글을 다 써 내려간 뒤 태산에게 건네주려는데, 갑자기 임충의 아내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듯 통곡하며 달려 들어왔다. 하녀 금아가 옷 꾸러미를 안고 길을 찾아 주막까지 따라온 것이었다. 임충은 아내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으며 말했다.

"부인, 드릴 말씀이 있소. 이미 태산에게는 말해두었소. 내가 운이 나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제 창주로 유배를 가게 되었으니, 살아서 돌아올지 죽어서 돌아올지 알 수 없구려. 혹여 부인의 젊은 시절을 망치게 될까 두렵소. 그래서 여기 몇 글자를 적어 두었으니, 부디 나

를 기다리지 말고 현명하게 판단하여 새사람을 찾아가시오. 나 때문에 부인의 앞날을 그르치지 마시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서방님, 저는 단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는데 어찌 저를 버리려 하십니까!"

임충이 다시 말했다.

"부인, 내 진심을 알아주시오. 나중에 서로 마음 고생만 하며 부인을 고생시킬까 두려워 그러는 것이오."

그러자 장교두가 나서서 말했다.

"아가야, 걱정 마라. 비록 사위가 뜻을 정했다지만, 내가 어찌 네가 다시 시집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 사위는 마음 놓으라고 해라. 설령 사위가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내가 네 평생의 살림 밑천을 마련해 줄 테니 그저 마음 굳게 먹고 잘 지내기만 하면 된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메어와 목이 메었으며, 눈앞의 휴서를 보자 그만 통곡하며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먼저 사지가 축 늘어지고 말았으니,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형산의 옥이 깨졌으니, 수십 년을 함께한 부부의 인연이 아깝구나. 보배로운 거울에 꽃이 시들었으니, 봄날의 정을 나눈 아흔 날이 허망하

구나.

꽃 같은 얼굴은 쓰러져 누웠으니, 서쪽 정원의 작약이 붉은 난간에 기댄 듯하고,

말 없는 입술은 고요하니, 남해의 관음보살이 선정에 든 듯하구나.

작은 정원에 어젯밤 거친 바람 불어, 강가의 매화 꺾여 땅 위에 누웠네.

임충과 장인 장교두(泰山)가 달려들어 부인을 일으켜 세우니, 한참이 지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으나, 그래도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임충은 휴서를 장교두에게 맡겼고, 이웃 가운데 부인네들도 와서 임충의 처를 위로하며 부축해 데리고 돌아갔다. 장교두가 임충에게 당부하며 말했다.

"가서 앞날을 위해 잘 버티고 있다가 돌아와 다시 만나세. 자네의 식구(老小)는 내일 내가 데려가 집에서 보살피며, 자네가 돌아와 다시 모일 때를 기다리겠네. 그러니 부디 마음 놓고 가고, 마음에 두지 말게. 인편이 있거든 부디 자주 편지를 보내주게."

임충은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드린 뒤, 장인과 이웃들에게 절하며 작별을 고하고는, 봇짐을 짊어진 채 공인들을 따라 길을 떠났다. 장교두와 이웃들이 길을 잡아 집으로 돌아간 이야기는 더 말하지 않는다.

한편, 두 압송관은 임충을 데리고 사신방(使臣房)으로 가서 그를 가두어 두었다. 동초와 설패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 짐을 챙겼다. 동초가 집에서 짐을 꾸리고 있는데, 골목 어귀 주막의 점원(酒保)이 찾아와 말했다.

'동 단공(端公, 압송관을 높여 부르는 말), 어떤 나리께서 저희 가게에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동초가 물었다.

'누구냐?'

'소인은 잘 모르겠으나, 그저 단공을 모셔 오라고만 하셨습니다.'

원래 송나라 시대의 압송관들은 모두 '단공'이라 불렀다. 동초는 점원을 따라 곧장 주막 안쪽 방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곳에는 만자무늬 두건을 쓰고 검은 비단 배자(背子)를 입었으며, 아래에는 검은 장화와 깨끗한 버선을 신은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남자는 동초를 보자 황급히 읍하며 말했다.

'단공, 어서 앉으시오.'

동초가 말했다.

'소인은 귀한 분을 뵌 적이 없는데, 어떤 일로 부르셨는지요?'

남자가 대답했다.

'앉아서 조금만 기다리면 알게 될 것이오.'

동초가 맞은편에 앉자, 점원이 술잔과 채소, 과일, 안주를 차려 한 상 가득 내왔다. 남자가 물었다.

'설 단공은 어디에 사나?'

동초가 대답했다.

'바로 앞 골목에 삽니다.'

남자가 점원을 불러 주소를 물은 뒤 말했다.

'가서 그를 모셔 오게.'

점원이 차 한 잔 마실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설패를 모셔 와 방으로 들어왔다. 동초가 설패에게 말했다.

'이 나리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부르셨네.'

설패가 조심스레 물었다.

'감히 여쭙건대, 나리의 성함이 어찌 되시는지요?'

남자가 다시 말했다.

'조금 있으면 알게 될 터이니, 우선 술부터 드시오.'

세 사람이 자리를 잡고 앉자 점원이 술을 따랐다. 술을 몇 잔 마셨을까, 남자가 소매 안에서 금 열 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두 단공이 각각 다섯 냥씩 받으시오. 작은 부탁을 하나 하려 하오.'

두 사람이 말했다.

'소인들은 귀한 분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찌 저희에게 금을 주십니까?'

남자가 말했다.

'두 분 모두 창주로 가지 않으시는가?'

동초가 대답했다.

'저희 둘은 관청의 명을 받아 임충을 창주까지 압송하는 중입니다.'

남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두 분께 부탁을 좀 하겠소. 나는 고 태위 댁의 심복인 육우후(陸虞候)라 하오.'

동초와 설패는 황급히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어찌 감히 나리와 마주 앉겠습니까.'

육겸이 말을 이었다.

'두 분도 알다시피 임충과 태위는 원수지간이오. 이번에 태위의 엄명을 받들어 이 금 열 냥을 두 분께 드리는 것이니, 부디 제 부탁을 들어주시오. 멀리 갈 것 없이 앞쪽의 한적한 곳에서 임충을 처단하고, 그곳에서 회신 문서(回狀)만 받아 오면 되오. 만약 개봉부에서 무슨 말이 나오더라도 태위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테니 아무 걱정 마시오.'

동초가 망설이며 말했다.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개봉부의 공문에는 임충을 산 채로 압송하라고만 되어 있지, 죽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자는 아

직 나이도 한창이라 기운이 펄펄한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자칫 일이 꼬이면 곤란해질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설패가 거들었다.

'이보게 동씨, 내 말 좀 들어보게. 고 태위께서 우리더러 죽으라 하셔도 따라야 할 판인데, 하물며 이 나리께서 금까지 주시지 않는가. 자네는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이 돈을 나누어 갖세. 인심을 써두어야 나중에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 아닌가. 앞쪽에 큰 소나무 숲의 험한 곳이 있으니, 어떻게든 임충을 처단해 버리자고.'

결국 설패는 금을 챙기며 말했다.

'나리, 안심하십시오. 많아야 다섯 역참(站), 적어도 두 정거장(程) 안에서는 결판이 날 것입니다.'

육겸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역시 설 단공은 시원시원하구려! 내일 그곳에 도착하면 반드시 임충의 얼굴에 새긴 금인(刺字, 죄인의 얼굴에 새기는 문신)을 떼어 와 증거로 삼도록 하시오. 그러면 내가 다시 금 열 냥을 보태어 사례하겠소. 좋은 소식을 기다릴 테니 절대 일을 그르치지 마시오.'

원래 송나라 시대에는 죄수를 유배 보낼 때 얼굴에 글자를 새겼는데, 사람들이 원망할까 봐 이를 '금인을 새긴다'고 불렀다. 세 사람은 술을 조금 더 마신 뒤, 육우후가 술값을 계산하자 방을 나와 각자 흩어졌다.

한편, 동초와 설패는 금을 나누어 가진 뒤 각자 집으로 돌아가 짐을 챙겼다. 그리고 수화곤(水火棍, 송대 압송관이 쓰던 붉고 검게 칠한 곤봉)을 들고 사신방으로 가서 임충을 데리고 압송 길에 올랐다. 그날 성을 나서서 30리쯤 가다가 길가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송나라 시대에는 길가에 있는 객점에서 압송관들이 죄수를 데리고 묵을 때 방값을 받지 않았다. 동초와 설패는 임충을 데리고 객점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었다.

이튿날 날이 밝자, 그들은 불을 지피고 음식을 먹은 뒤 창주를 향해 길을 떠났다. 때는 유월이라 날씨가 무척 더웠다. 임충은 처음 매를 맞았을 때는 그나마 견딜 만했으나, 사흘 정도 지나자 뙤약볕 아래서 매 맞은 상처가 덧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매를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몸이라, 길을 갈 때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설패가 말했다.

'정말 눈치도 없군. 창주까지 가려면 이천 리가 넘게 남았는데, 네가 이런 식이면 언제 도착하겠느냐?'

임충이 대답했다.

'소인이 태위 댁에서 화를 좀 당한 터라, 엊그제야 매를 맞아서 상처가 도졌습니다. 날까지 이토록 무더우니, 한 걸음씩 겨우 버티며 가는 수밖에요.'

동초가 거들었다.

'네 놈은 그냥 천천히 가기나 해라. 쓸데없는 소리 말고.'

설패는 길을 가는 내내 입을 삐죽거리며 투덜거렸다. 그는 속으로 원망하며 괴롭다고 중얼거렸다.

'정말 재수 없게도 이런 마귀 같은 놈을 만나다니, 운도 없지.'

날이 점점 저물어 가는데, 하늘은 이와 같았다.

붉은 해는 낮게 내려앉고, 둥근 달은 떠오르려 하네.
멀리 보니 들녘에 연기 피어오르며 삶의 온기 피어나고,
가까이 보니 사립문은 반쯤 열려 있네.
스님은 옛 절로 들고, 구름 낀 숲에는 까마귀 돌아가는 소리 들리는데,
어부는 그늘진 물가에 있고, 바람 부는 나무에선 매미 소리 여전하네.
바삐 소를 몰고 양을 몰며 달려오고, 수고로이 나귀와 말을 타고 더운 길을 쉬어 가네.

그날 밤, 세 사람은 마을 객점에 들어갔다. 방에 도착하자 두 압송관은 수화곤(水火棍)을 내려놓고 짐을 풀었다. 임충도 짐을 풀더니, 압송관들이 입을 떼기도 전에 보따리에서 은전 몇 푼을 꺼냈다. 그는 점소이를 불러 술과 고기를 사고 쌀도 좀 사 오게 하여 음식을 차려낸 뒤, 두 압송관을 앉혀 대접했다. 동초와 설패는 술을 더 가져와 임충에게 억지로 먹여 취하게 만들고는, 임충을 칼(枷, 죄수의 목에 씌우는 형구)을 씌운 채 한쪽에 쓰러뜨려 놓았다.

설패가 솥에 물을 팔팔 끓이더니, 끓는 물을 가져와 대야에 들이부으며 외쳤다.

'임 교두, 발이라도 씻고 자게나.'

임충이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칼이 걸리적거려 몸을 굽히기가 어려웠다. 그러자 설패가 말했다.

'내가 대신 씻겨 주지.'

임충이 급히 대답했다.

'그건 안 됩니다.'

설패가 비아냥거렸다.

'길 떠나는 사람들이 따질 게 뭐가 그리 많아?'

임충은 그 속셈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발을 내밀었다. 그러자 설패가 임충의 발을 덥석 눌러 끓는 물 속에 집어넣었다.

'아이고, 뜨거워라!'

임충이 비명을 지르며 급히 발을 뺐으나, 이미 발등은 붉게 부어올랐다. 임충이 말했다.

'이런 고통은 사양하겠습니다.'

설패가 맞받아쳤다.

'죄수가 압송관을 받드는 법은 있어도 압송관이 죄수를 받드는 법은 없다. 호의로 발을 씻겨 주겠다는데, 뜨겁다 차갑다 하며 싫다니, 선의를 베풀고도 보답을 못 받는 격이로구나!'

설패는 밤새도록 투덜거리며 욕설을 퍼부었고, 임충은 감히 대꾸도 못 한 채 구석에 쓰러져 있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그 물을 쏟아 버리고 다른 물로 갈아서 밖에 나가 발을 씻고 잠자리를 정리했다.

사경(四更, 새벽 1시~3시) 무렵, 객점 사람들이 채 깨어나기도 전에 설패가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불을 지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임충은 일어나 보았으나 어지러움이 가시지 않았고, 음식도 넘기기 힘들었으며 발을 떼는 것조차 버거웠다. 설패는 수화곤을 챙겨 들고 서둘러 출발하자고 재촉했다. 동초는 허리춤에서 새 짚신 한 켤레를 풀었는데, 발끝 고리(耳朵)와 끈(索兒)이 모두 거친 삼으로 엮인 것이었다. 그것을 임충에게 신으라고 건넸다. 임충이 내려다보니 발등은 온통 물집투성이였다. 낡은 짚신을 찾아 신으려 해도 어디서 구할 방도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임충은 새 짚신을 신었다. 점소이에게 술값을 계산하게 한 뒤, 두 압송관이 임충을 데리고 객점을 나섰을 때는 이미 오경(五更, 새벽 3시~5시)이었다.

임충은 채 2~3리도 가지 못해 새 짚신에 물집이 터져 피가 철철 흘렀다.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 임충은 계속해서 신음하며 소리를 냈다. 설패가 욕을 하며 말했다.

'빨리 걷기나 해! 안 걸으면 이 몽둥이로 확 쑤셔버릴 테니까!'

임충이 말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인이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발이 아파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동초가 말했다.

'그럼 내가 부축해 줄 테니 가자.'

동초가 임충을 부축하자 겨우 4~5리를 더 갈 수 있었다. 그러다 정말 더는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저 멀리 앞쪽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험악한 숲이 보였다.

마른 덩굴 겹겹이 쌓여 빗줄기 같고,
무성한 나뭇가지 구름 뭉게구름 같구나.
언제쯤 하늘의 해가 비출지 알 수 없으니,
오직 맺힌 원혼들만 끊임없이 슬퍼하네.

이 숲의 이름은 '야저림(野豬林)'이라 불리는데, 동경에서 창주로 가는 길목에서 마주치는 첫 번째 험난한 고비였다. 송나라 시대에 이 숲은 원한을 품은 자들이 돈을 써서 압송관을 매수해 죄수를 이곳으로 끌고 와, 얼마나 많은 호걸이 목숨을 잃었는지 모를 정도로 악명 높은 곳이었다. 오늘 동초와 설패도 임충을 데리고 이 숲 안으로 들어섰다.

동초가 말했다.

'오경(五更, 새벽 3시~5시)부터 지금까지 걸었는데도 10리도 채 못 왔으니, 이래서야 창주에 어떻게 도착하겠느냐?'

설패가 말했다.

'나도 이제 더는 못 걷겠다. 일단 숲속에서 잠시 쉬어가자꾸나.'

세 사람은 숲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 짐과 보따리를 풀어 나무뿌리 근처에 모아 두었다. 임충은 '아이고!' 하고 비명을 지르더니 커다란 나무에 몸을 기댄 채 쓰러졌다. 그러자 동초와 설패가 말했다.

'한 걸음 걷고 한 걸음 쉬어가다 보니 우리도 피곤해 죽겠구나. 잠시 눈 좀 붙였다가 다시 가세.'

두 사람은 수화곤(水火棍)을 내려놓고 나무 곁에 누워 잠시 눈을 감으려는 듯하더니, 갑자기 땅바닥에서 벌떡 일어났다. 임충이 물었다.

'나리들,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동초와 설패가 대답했다.

'우리 둘이 잠시 자려는데, 여기는 자네를 묶어둘 자물쇠도 없지 않은가. 혹시라도 자네가 도망칠까 봐 마음이 놓이지 않아 도무지 잠을 설칠 것 같으니 말일세.'

임충이 답했다.

'소인은 호걸입니다. 이미 관재(官災)를 겪었으니 평생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설패가 비웃으며 말했다.

'그 말을 어떻게 믿겠나? 우리가 마음 편히 자려면 자네를 좀 묶어두어야겠어.'

임충이 말했다.

'묶으시려거든 묶으십시오. 소인이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설패는 허리춤에서 밧줄을 풀어 임충의 손과 발, 그리고 칼을 나무에 단단히 묶어버렸다. 그러고는 동초와 함께 벌떡 일어나 몸을 돌리더니, 수화곤을 치켜들고 임충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자네를 죽이려는 게 아니네. 사실 엊그제 올 때 그 육우후가 고 태위의 명을 전해왔거든. 여기서 자네를 끝장내고 곧장 금인(金印, 얼굴에 새긴 자자)을 받아 돌아가 복명하라는 명령이었지. 며칠 더 걸음이 늦어지더라도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차라리 오늘 여기서 끝내는 게 우리가 빨리 돌아가 보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러니 우리 형제 원망하지 말게나. 상사의 명령이라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네. 자네도 명심하게나. 내년 오늘이 자네 제삿날이 될 테니. 우리는 이미 날짜를 정해두었으니 얼른 돌아가 복명해야 하네.'

임충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비 오듯 흘리며 말했다.

'두 분께 여쭙건대, 저는 두 분과 예전부터 원한이 없었고 최근에도 아무런 원수가 없었습니다. 부디 두 분께서 저를 구해주십시오. 만약 살려주신다면 죽어서도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동초가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우리가 어떻게 자네를 구하겠나!'

설패는 즉시 수화곤을 들어 올려 임충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가련하게도 천하의 호걸이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실로 '만 리 황천길에 여관 하나 없으니, 세 영혼은 오늘 밤 어느 집으로 떨어질까(萬里黃泉無旅店, 三魂今夜落誰家)'라는 격이었다. 결국 임충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9회 — 시진이 천하의 손님을 문앞으로 불러들이고, 임충이 몽둥이로 홍 교두를 때리다

柴進門招天下客 林沖棒打洪教頭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시 설패가 두 손으로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고 임충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 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 찰나의 순간이었다. 설패가 몽둥이를 막 들어 올렸을 때, 소나무 뒤에서 마치 천둥이 치는 듯한 굉음이 울리더니 철선장(鐵禪杖)이 날아와 설패의 몽둥이를 쳐내고는 저 멀리 하늘 끝까지 날려 버렸다. 이어 덩치가 크고 살집이 있는 스님 한 명이 껑충 뛰어나오며 호통을 쳤다.

"이놈들, 내가 숲속에서 네놈들 하는 짓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두 공인이 그 스님을 바라보니, 검은 무명 직철(直裰)을 걸치고 허리에 계도(戒刀)를 찼으며, 선장(禪杖)을 들어 올려 마구 휘두르면서 두 공인을 후려치는 것이었다.

임충이 그제야 눈을 떠 살펴보니, 바로 노지심이었다. 임충은 급히 외쳤다.

"형님, 손을 멈추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노지심은 그 말을 듣고 선장을 거두었다. 두 공인은 한동안 멍하니 서서 움직이지도 못했다. 임충이 말했다.

"이놈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고 태위(高太尉)가 육우후(陸虞候)를 시켜 저 두 공인에게 제 목숨을 해치라 분부한 탓입니다. 저들이 어찌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형님께서 저들을 때려죽이신다면, 그것 또한 억울한 일이 될 것입니다."

노지심은 계도(戒刀)를 뽑아 결박한 밧줄을 모두 끊어버리고는 임충을 부축해 일으키며 말했다.

"아우님, 자네와 함께 칼을 사러 갔던 그날 헤어진 이후로, 내 자네 걱정에 마음이 쓰라렸네. 자네가 관재구설에 휘말렸을 때도 내가 구해 줄 길이 없었지. 자네가 창주로 단배(斷配, 유배)된다는 소식을 듣고 개봉부 앞에서 한참을 찾아 헤맸으나 자네를 만나지 못했네. 그러다 누군가에게 듣기로는 사신방(使臣房) 안에 갇혀 있다더군. 그 후 주막 점원(酒保)이 저 두 공인을 불러다가 '가게에 한 분이 와서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고 청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에 의심이 일어 자네를 그냥 둘 수 없었네. 저놈들이 길에서 자네를 해칠까 두려워 내가 일부러 뒤를 쫓아왔지. 저 못된 놈들이 자네를 데리고 객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도 그 객점에 묵었다네. 밤중에 저놈들이 귀신같이 음흉한 수작을 부려 끓는 물로 자네의 발을 데이게 한 것을 듣고는, 그때 당장 저 두 못

된 놈들을 죽이려 했네. 허나 객점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 저놈들을 누가 구해낼까 염려되어 참았네. 저놈들이 흉심을 품은 것을 보고 나니 자네를 더더욱 그냥 둘 수 없었지. 그래서 자네가 오경(五更)에 객점을 나설 때, 내가 먼저 이 숲속으로 달려와 저 두 못된 놈들을 죽이려고 기다린 것이라네. 저놈들이 마침 여기까지 와서 자네를 해치려 하니, 두 놈을 죽이기에 더없이 좋은 때로구나."

임충이 간곡히 권했다.

"형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으니, 저들의 목숨만은 거두지 마십시오."

그러자 노지심이 호통을 쳤다.

"이 못된 놈들! 내가 아우의 얼굴을 봐주지 않았다면 너희 둘을 다 잘게 다져 고기죽(肉醬)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아우의 체면을 봐서 목숨만은 살려주마."

노지심은 그 자리에서 계도를 칼집에 꽂고는 소리쳤다.

"이 못된 놈들아, 어서 아우를 부축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고는 선장을 들고 앞장서 걸어갔다. 두 공인은 감히 대꾸도 못하고 "임 교두, 저희 둘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치며, 예전처럼 짐을 등에 메고 몽둥이를 든 채 임충을 부축했다. 또한 임충의 짐까지 대신 짊어진 채 함께 숲을 빠져나왔다. 삼사 리쯤 걸었을까, 마을 입구에 작은 주막 하나가 보이기에 네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주막의 모습은 이러했다.

앞으로는 역길과 맞닿아 있고, 뒤로는 시냇가 마을로 이어진다.
몇 그루 복숭아와 버드나무는 푸른 그늘 짙고, 몇 군데 접시꽃과 석류는 붉은 그림자 어우러졌네.
문밖에는 무성하게 자란 삼과 보리, 창가에는 싱그러운 연꽃 피었네.
살랑이는 술 깃발은 훈풍에 춤추고, 짧게 드리운 갈대 발은 뜨거운 햇살 가려주네.
벽 곁 기와 항아리에는, 하얗고 맑은 마을 술 가득 담겨 있고;
선반 위 자기 병에서는, 향긋한 새 술 냄새 풍겨 나오네.
백발의 노인은 정성껏 그릇을 씻고, 고운 마을 처녀는 웃으며 술을 따르네.

그 자리에서 노지심, 임충, 동초, 설패 네 사람은 마을 주막에 앉아 점원(酒保)을 불러 고기 대여섯 근과 술 두 각(角)을 주문하고, 밀가루를 가져다 떡을 부쳐 달라고 했다. 점원이 한편으로 음식을 준비하며 술을 걸러 올리는 사이, 두 공인이 물었다.

"감히 여쭙건대, 스님께서는 어느 절에 머물고 계십니까?"

노지심이 웃으며 말했다.

"이 못된 놈들이 내 거처는 왜 묻느냐? 가서 고구(高俅)에게 일러바쳐 나를 어찌해 보라고 부추기려는 게냐? 남들은 그를 두려워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만약 내가 그놈과 마주친다면 선장으로 삼백 대를 두들겨 줄 것이다."

두 공인은 감히 다시 입을 열지 못했다. 술과 고기를 좀 먹고 짐을 챙겨 술값을 치른 뒤 주막을 나섰다. 임충이 물었다.

"형님,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노지심이 대답했다.

"'사람을 죽이려면 피를 보아야 하고, 사람을 구하려면 끝까지 구해야 한다'고 하지 않더냐. 내가 자네를 그냥 둘 수 없으니, 창주까지 직접 데려다주겠네."

이 말을 들은 두 공인은 속으로 생각했다.

'아이고, 망했구나! 우리 계획을 다 망쳐놓았으니, 돌아가서 대체 뭐라고 보고한단 말인가? 그저 저 사람의 뜻에 따라 함께 길을 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간사한 꾀가 대낮의 밝음을 속이는 것이 가장 한스럽고,
홀로 의기를 품어 황금의 유혹을 멀리하네.
멀고 먼 천 리 길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고생스러운 길 위에서도 오직 한결같은 마음뿐이라네.

그 후로 길을 가는 동안 노지심이 가자 하면 가고, 쉬자 하면 쉬었으니, 그들이 어찌 감히 노지심을 거스를 수 있었겠는가? 노지심은 기분이 좋으면 욕을 하고, 기분이 나쁘면 매질을 했다. 두 공인은 스님이 발

작할까 두려워 감히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했다. 두 일정쯤 길을 가다 수레 한 대를 빌리니, 임충은 수레에 올라 잠시 쉬고 나머지 세 사람은 수레를 따라 걸어갔다. 두 공인은 딴마음을 품고 각자 목숨을 보전할 궁리만 하느라, 그저 조심스레 노지심의 뜻에 따라 길을 갈 뿐이었다. 노지심은 길을 가는 내내 술과 고기를 사서 임충을 돌보았고, 두 공인도 함께 먹었다. 객점을 만날 때마다 일찍 들어 쉬고 늦게 길을 나섰는데, 밥을 짓고 불을 피우는 일은 모두 두 공인이 도맡았으니 그 누가 감히 노지심의 뜻을 거역하겠는가?

두 사람이 몰래 의논했다.

"우리가 저 스님에게 감시를 당하게 생겼으니, 내일 돌아가면 고 태위께서 분명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실 걸세."

그러자 설패가 말했다.

"내가 듣기로 대상국사(大相國寺) 채원(菜園) 관아(廨宇)에 노지심이라는 이름의 스님이 새로 왔다고 하니, 분명 그놈일 것이네. 돌아가서 사실대로 말하세. 야저림에서 그놈을 해치려 했는데 저 스님이 나타나 임충을 구하는 바람에 창주까지 호송하도록 내내 따라붙어 손을 쓸 수가 없었다고 말이야. 받은 금 열 량(兩)은 차라리 도로 돌려주어 버리고, 육겸(陸謙)더러 알아서 저 스님을 찾아가게 하면 그만일세. 우리는 그저 몸만 깨끗이 빠져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나."

동초가 말했다.

"그 말도 일리가 있군."

두 사람은 은밀히 이렇게 의논하였으나, 이 일은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한다.

이야기는 이와 같다. 노지심의 감시 아래 한시도 떨어지지 못한 채 십칠팔 일을 더 가니, 창주까지는 이제 겨우 칠십여 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가는 길목마다 민가가 있어 더는 외진 곳이 없었다. 노지심은 사정을 확실히 알아본 뒤, 소나무 숲에서 잠시 쉬었다.

노지심이 임충에게 말했다.

"아우님, 이제 창주가 머지않았네. 앞길은 모두 민가뿐이라 더는 외진 곳이 없으니 내가 미리 다 알아두었네. 이제 여기서 자네와 헤어져야겠으니, 훗날 다시 만나세."

임충이 말했다.

"형님, 돌아가시거든 태산(泰山, 장인 어른)께 꼭 말씀 전해 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신 은혜는 죽는 한이 있어도 두터이 갚겠습니다."

노지심은 다시 은자 열 량 내지 스무 량을 꺼내 임충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중 두세 량을 두 공인에게 던져주며 말했다.

"이 못된 놈들아, 원래대로라면 길 위에서 네놈들 목을 베어버렸어야 마땅하나, 아우의 체면을 봐서 목숨만은 살려주마. 이제 갈 길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다시는 나쁜 마음을 품지 마라."

두 공인이 대답했다.

"어찌 감히 그러겠습니까? 모두 태위께서 시키신 일인 것을요."

은자를 받은 뒤 헤어지려 하자, 노지심이 두 공인을 쏘아보며 말했다.

"이 못된 놈들의 머리가 이 소나무처럼 단단하냐?"

두 사람이 대답했다.

"소인의 머리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살과 피이며, 그저 뼈가 좀 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노지심이 선장을 휘둘러 소나무를 한 차례 내리쳤다. 그러자 나무에 두 치 깊이의 자국이 나며 단번에 꺾여 나갔다. 노지심이 호통을 치며 말했다.

"이 못된 놈들아, 만약 나쁜 마음을 품었다간 네놈들 머리도 이 나무처럼 만들어버릴 것이다!"

노지심은 손을 휘저으며 선장을 끌고는, "아우님, 몸 조심하게!"라고 외치며 돌아가 버렸다.

동초와 설패는 혀를 내밀었다가 한참 동안이나 다시 집어넣지 못했다. 임충이 말했다.

"자, 이제 우리끼리 갑시다."

두 공인이 말했다.

"정말 무시무시한 스님이로군. 단 한 번의 휘두름에 나무 한 그루를 꺾어버리다니."

임충이 말했다.

"그게 무엇이 대수겠습니까? 대상국사에서는 버드나무 한 그루를 뿌리째 뽑아버리기도 하는데요."

두 사람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세 사람은 곧장 소나무 숲을 떠났다. 한낮이 되었을 무렵, 관도 위에 있는 주막 한 곳이 멀리서 보였다.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옛길 위 외딴 마을, 길가에 자리 잡은 주막. 버드나무 늘어진 언덕 위로 새벽녘 비단 깃발이 드리워져 있고, 연꽃 흔들리는 못가에 바람이 푸른 술 깃발(青帘)을 스쳐 지나간다. 유령(劉伶)이 누운 모습은 그림 침상 앞에 그려져 있고, 이백(李白)이 취해 잠든 모습은 채색된 벽 위에 그려져 있구나. 마을 술은 농부의 담력을 키워주고, 시골 막걸리는 노인의 여유를 더해준다. 신선이 남긴 옥패가 머물다 갔을 법하고, 고관대작의 금초(金貂, 금장식 단 검은담비 관)도 들를 만한 곳이로다.

세 사람은 주막 안으로 들어갔다. 임충은 두 공인을 상석에 앉게 했다. 동초와 설패 두 사람은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마음을 놓았다. 주막 안에는 자리 몇 군데가 있었고, 서너 명의 술 시중드는 일꾼들이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며 물건을 나르고 있었다. 임충과 두 공인이 자리에 앉은 지 반 시진(한 시간)이 지나도록 술집 일꾼은 다가와 묻지도 않았다. 임충은 기다리다 못해 탁자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 집 주인은 손님을 너무 업신여기는 것 아니오? 내가 죄인인 것을 보고는 아예 상대도 하지 않으니, 내가 공짜로 먹을 생각도 없거늘 이게 대체 무슨 도리란 말이오?"

주인이 대답했다.

"손님께서는 제 본심을 모르고 말씀하시는군요."

임충이 되물었다.

"술과 고기를 팔지 않으면서 무슨 본심이 있단 말이오?"

주인이 말했다.

"이 마을에 시진이라는 큰 부자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사람들은 그를 시 대관인이라 부르고, 강호에서는 '소선풍(小旋風)'이라 칭송합니다. 그는 대주(大周)나라 시세종의 후손이지요. 진교에서 왕위를 양보할 때, 태조 무덕 황제께서 그에게 서약이 담긴 철권(鐵券)을 하사하여 집에 두었으니, 누가 감히 그를 괴롭히겠습니까? 그는 천하를 떠도는 호걸들을 불러 모아 서른에서 쉰 명 정도를 집에 거두어 살게 하는데, 늘 우리 주막에 이렇게 당부하곤 합니다. '혹시 유배 오는 죄인이 있다면 내 장원으로 보내주시오. 내가 알아서 도와주겠소'라고 말이지요. 제가 지금 손님께 술과 고기를 파는 건, 손님이 맛있게 드셔서 얼굴이 발그레해지면, 주인인 제가 '이분은 여비가 넉넉하니 도와줄 필요 없겠소'라고 말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제 본심입니다."

임충은 그 말을 듣고 두 공인에게 말했다.

"내가 동경(東京, 개봉)에서 군사를 가르칠 때, 군인들 사이에서 시 대관인의 이름을 자주 들었는데 바로 이곳에 계셨구려. 우리도 그분을 찾아가 도움을 청해보는 게 어떻겠소?"

동초와 설패도 생각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손해될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곧장 짐을 챙기며 임충을 따라 주인에게 물었다.

"주인장, 시 대관인의 장원이 어디에 있소? 우리가 지금 그분을 찾아가려 하오."

주인이 대답했다.

"앞으로 한 2~3리쯤 가면 됩니다. 큰 돌다리 근처에서 길을 꺾어 들어가면 커다란 장원이 보일 것입니다."

임충 일행은 주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세 사람이 문을 나섰다. 과연 2~3리쯤 가니 커다란 돌다리가 나타났다. 다리를 건너니 평탄한 대로가 이어졌고, 멀리 버드나무 그늘 사이로 커다란 장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장원 주변으로는 시냇물이 한 바퀴 휘감아 돌고 있었는데, 양쪽 기슭마다 버드나무가 늘어져 그늘을 만들고 있었고, 나무 그늘 사이로 하얀 담장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길을 꺾어 장원 앞으로 다가서서 보니, 참으로 장관인 큰 장원이었다!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대문은 황금빛 기운을 맞이하고, 산줄기는 푸른 용처럼 이어지네. 무릉계에는 만 가지 복숭아꽃 피어나고, 금곡원에서 천 그루 꽃나무 만

발하네.
현인들이 모이는 집 안에는, 사계절 내내 지지 않는 기이한 꽃이 있고;
꽃들이 모인 마당 앞에는, 여덟 절기마다 봄날의 경치가 끊이지 않네.
대청에는 임금의 글귀가 적힌 금패가 걸려 있고, 집안에는 약속이 담긴 철권이 있네.
붉은 지붕과 푸른 기와는 아홉 층 높은 집을 감싸 안고;
그림 같은 들보와 조각된 대들보는, 참으로 신선이 머무는 정사 같구나.
지금 조정의 권세 있는 집안은 아닐지라도, 옛날 황제의 집안이라 해도 믿겠네.

세 사람은 장원에 도착했다. 넓은 판자로 만든 다리 위에는 장원 식솔 서너다섯 명이 앉아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세 사람이 다리 가로 다가가 그들에게 예를 갖추자, 임충이 말했다.

"형님들, 번거로우시겠지만 대관인께 전해 주십시오. 경사(京師, 도성)에서 뇌성(牢城)으로 유배 가는 임 씨 성을 가진 죄인이 있으니, 뵙기를 청한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장원 식솔들이 일제히 말했다.

"운이 없구려. 대관인이 집에 계셨다면 술과 음식, 재물까지 내주었을 텐데, 오늘 아침에는 사냥을 나가셨다오."

임충이 물었다.

"언제쯤 돌아오시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장원 식솔이 대답했다.

"언제 올지 모르겠소. 아마 동쪽 장원에 가서 쉬실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꼭 만날 수 있다는 법도 없지."

임충이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복이 없어 뵙지 못하는 것이군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임충은 장원 식솔들과 작별하고 두 공인과 함께 다시 옛길로 돌아왔으나, 마음속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반 리 남짓을 더 가는데, 멀리 숲 깊은 곳에서부터 한 무리의 인마가 장원을 향해 급히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사람마다 용모가 준수하고 하나하나가 영웅의 기백을 갖추고 있었다.

수십 마리의 준마가 바람을 가르며 울부짖고, 두세 개의 수놓은 깃발이 햇빛을 받아 휘날렸다. 분청빛(粉青) 모전 삿갓(氈笠)은 마치 뒤집힌 연잎을 높이 치켜든 듯했고, 진홍빛의 붉은 술(絳色紅纓)은 마치 흐드러지게 핀 연꽃을 어지러이 꽂아놓은 듯했다. 비어대(飛魚袋) 안에는 금작새 무늬를 그려 넣은 가볍고 정교한 활이 높이 꽂혀 있었고, 사자 모양 화살통(獅子壺) 속에는 비취 깃털을 박은 독수리 깃의 곧은 화살이 가지런히 모여 있었다. 노루를 쫓는 날렵한 사냥개 몇 마리를

끌고, 토끼를 잡는 푸른 매(蒼鷹) 몇 쌍을 받쳐 들고 있었다. 구름을 뚫는 날쌘 송골매(俊鶻)는 융단 끈을 차고 잠시 머물러 있었고, 두건을 벗은 비단 무늬 수리(錦鵰)는 받쳐주는 손가락(護指)을 찾았다. 표창은 바람처럼 날카로워 안장 옆으로 차가운 빛을 살짝 내뿜었고, 둥근 화고(畫鼓)는 말 위에 매달려 움직일 때마다 울림을 전했다. 안장 옆에 매달린 것들은 모두 하늘을 나는 새들이요, 말 위에서 높이 들고 있는 것들은 모두 산속을 누비는 짐승들이었다. 그 기세가 마치 진왕(晉王)이 자색 변방(紫塞)에 임한 듯하고, 한 무제(漢武帝)가 장양궁(長楊宮)에 당도한 듯 장엄하였다.

그 인마 무리가 장원을 향해 급히 달려오는데, 그 가운데 눈처럼 하얀 말 한 마리를 타고 관원 한 명이 앞장서 있었다. 말 위에 탄 이는 용의 눈썹과 봉황의 눈을 가졌으며, 하얀 치아와 붉은 입술이 돋보였다. 세 갈래로 갈라진 수염이 입가를 덮고 있었으니 나이는 서른넷이나 다섯쯤 되어 보였다. 머리에는 검은 비단으로 만든 꽃무늬 모자를 쓰고, 몸에는 보랏빛 자수를 놓은 화려한 도포를 입었으며, 허리에는 보석이 박힌 영롱한 옥띠를 두르고, 발에는 금실로 수를 놓은 초록빛 검은 신을 신고 있었다. 활 한 장을 차고 화살통을 메고는 수행원들을 거느린 채 장원으로 들어왔다.

임충은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혹시 시진 대관인이신가?' 하지만 감히 묻지는 못하고 속으로만 망설였다. 그때 말을 타고 앞서 달려온 젊은 관원이 물었다. "저기 칼(형틀)을 쓰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임충은 황급히 몸을 굽히며 대답했다. "소인은 동경(東京, 개봉)의 금군 교두 임충이라고 합니다. 고 태위의 미움을 사는 바람에 개봉부에 압송되어 죄를 묻고 창주로 유배를 오게 되었습니다. 앞쪽 주막에서 이곳에 인재를 불러 모으는 호걸 시진 대관인이 계신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으나, 인연이 닿지 않아 뵙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관원은 말에서 뛰어내려 임충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시진이 마중 나가지 못해 송구하오." 그러고는 풀밭 위에서 임충에게 예를 갖추어 절했다. 임충도 서둘러 답례했다. 시진은 임충의 손을 맞잡고 함께 장원으로 들어갔다. 장원의 하인들이 이를 보고 대문을 활짝 열었고, 시진은 임충을 곧장 대청으로 모셨다.

두 사람이 인사를 나누자 시진이 말했다. "교두님의 명성은 익히 들어왔는데, 뜻밖에 오늘 이 미천한 곳까지 찾아와 주시니 평생의 소원을 이룬 듯합니다."

임충이 대답했다. "보잘것없는 임충입니다. 대관님의 귀한 성함은 온 세상에 퍼져 있어 누가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뜻하지 않게 죄를 지어 이곳으로 유배를 오게 되었으나, 오늘 이렇게 대관님의 얼굴을 뵙게 되니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행운입니다."

시진이 거듭 겸양의 말을 건네자 임충은 손님석에 앉았고, 동초와 설패도 함께 자리에 앉았다. 시진을 따르던 일행은 각자 말을 끌고 뒷마당으로 가서 쉬었으니, 이야기는 이러하다.

시진은 즉시 장원의 하인들을 불러 술을 가져오라고 일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인 몇 명이 고기 한 접시와 떡 한 접시, 그리고 따뜻하게

데운 술 한 항아리를 받쳐 들고 나타났다. 또 다른 하인은 쌀 한 말과 그 위에 놓인 돈 열 관을 쟁반에 받쳐 들고 나왔다. 시진은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촌놈들이 격식도 모르는구나. 교두께서 오셨는데 어찌 이리 소홀히 대하는 것이냐? 어서 안으로 모셔라. 우선 과일과 술을 내오고, 곧바로 양을 잡아 대접할 테니 서둘러 준비하거라."

임충이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 인사를 했다. "대관인님, 너무 과하게 베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진이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교두께서 어렵게 오셨는데 어찌 소홀히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인들은 감히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먼저 과일과 술을 내왔다. 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술잔 세 개를 직접 들었다. 임충은 시진에게 감사를 표하고 술을 마셨으며, 두 공인도 함께 술을 마셨다. 시진이 말했다. "교두님, 안쪽으로 들어가 앉으시지요."

시진은 곧바로 자신이 차고 있던 활과 화살통을 내려놓고는, 두 공인에게도 함께 술을 마시자며 권했다.

시진은 즉시 주인이 되어 자리에 앉았고, 임충은 손님석에 앉았으며, 두 공인은 임충의 아래쪽에 앉았다. 한가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강호의 일들에 대해 담소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붉은 해가 서산으로 저물고 있었다. 술과 음식, 과일과 해산물 등을 차려 각 사람의 앞에 상을 차려 내왔다. 시진은 직접 잔을 들어 세 차례나 술을 권한 뒤,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자, 어서 국부터 드시지요."

국을 한 그릇 비우고 술을 대여섯 잔쯤 마셨을 때, 하인이 들어와 보고했다. "교사(敎師, 스승)께서 오셨습니다."

시진이 말했다. "이리 오시거든 한자리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겠구나. 어서 탁자를 하나 가져오너라."

임충이 일어나 살펴보니, 그 교사가 머리에 두른 수건을 비스듬히 쓰고 가슴을 펴고 위풍당당하게 후당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임충은 속으로 생각했다. '장원의 하인이 저분을 교사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 분명 대관인의 스승이실 것이다.' 임충은 급히 몸을 굽혀 예를 갖추며 인사했다. "임충이 삼가 문안드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임충을 전혀 아는 체하지도 않고 답례조차 하지 않았다. 임충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시진이 홍교두를 향해 임충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이 바로 동경(東京)의 80만 금군 창봉 교두이신 임 무사(林武師) 임충입니다. 어서 인사를 나누시지요."

임충은 그 말을 듣고 홍교두를 향해 절을 했다. 그러자 홍교두가 말했다. "절하지 말고 일어나시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은 몸을 굽혀 답례하지 않았다. 시진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몹시 불쾌했다. 임충은 두 번 절을 올린 뒤 일어나 홍교두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하지만 홍교두는 양보하지 않고 곧장 상석으로 가서 앉아버렸다. 시진은 그 광경을 보고 다시금 기분이 언짢아졌다. 임충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아래쪽 자리에 앉았고, 두 공인도 함께 자리에 앉았다.

홍교두가 물었다. "대관인께서는 오늘 어찌하여 유배된 죄수병(配軍)을 위해 이토록 후하게 대접하십니까?"

시진이 말했다. "이분은 다른 이들과는 다릅니다. 바로 80만 금군의 교두이십니다. 스승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리 소홀히 대하십니까?"

홍교두가 말했다. "대관인께서 창봉 무술 익히기를 좋아하시다 보니, 유배 온 군인들이 종종 풀이나 나무에 기대듯 의지처를 찾아 이곳에 와서는 하나같이 자신이 '창봉 교사(教師)'라 떠벌리며 장원에 투신해 술과 음식, 돈과 쌀을 얻어내려 듭니다. 대관인께서 어찌 이리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십니까?"

임충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시진이 말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분을 얕보지 마십시오."

홍교두는 시진이 "이분을 얕보지 마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못마땅하여, 벌떡 일어나 말했다. "나는 못 믿겠소! 저 자가 감히 나와 봉을 한 번 겨뤄본다면, 그때 가서 진짜 교두인지 아닌지 판단하겠소."

시진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좋소! 아주 좋소! 임 무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임충이 말했다. "소인은 감히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홍교두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자는 분명 무술을 못 하는구나. 벌써 겁을 집어먹었어.' 그래서 그는 더욱 임충을 자극하며 봉을 겨뤄보자고 재촉했다.

시진은 한편으로는 임충의 솜씨를 보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임충이 그를 이겨서 홍교두의 입을 다물게 하고 싶었다. 시진이 말했다. "우선 술이나 마시며 달이 뜨기를 기다립시다."

그사이 술을 대여섯 잔 더 마시니 어느덧 달이 떠올라, 대청 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다. 시진이 일어나며 말했다. "두 교두께서 봉을 한번 겨뤄보시지요."

임충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홍교두는 분명 시 대관인의 스승이니, 만약 내가 봉으로 그를 때려눕히기라도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이다.' 시진은 임충이 망설이는 것을 보고 말했다. "홍교두께서도 이곳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대결할 상대가 없습니다. 임무사께서는 사양하지 마십시오. 저 또한 두 교두의 솜씨를 보고 싶습니다."

시진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임충이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서 실력을 다 발휘하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임충은 시진이 속내를 시원하게 말해주자 그제야 마음을 놓았다. 홍교두가 먼저 일어나며 외쳤다. "자, 자, 자! 어디 한번 봉을 겨뤄보자고!"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모두 대청 뒤편의 빈터로 나갔다. 하인이 몽둥이 한 묶음을 가져와 바닥에 내려놓았다. 홍교두는 먼저 겉옷을 벗고 옷자락을 질러 묶은 뒤, 봉 하나를 집어 들고 위세를 떨치며 외쳤다. "자, 오너라!"

시진이 말했다. "임무사, 어서 겨뤄보시오."

임충이 말했다. "대관인, 저를 비웃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땅에 놓인 봉 하나를 집어 들며 말했다. "스승님,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홍교두는 그 모습을 보고 당장이라도 물을 들이켜 그를 삼켜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임충은 봉을 잡고 산둥 지방의 큰 비무 방식인 대뢰(大擂)의 기세로 달려들었다. 홍교두는 봉을 땅에 내리치며 기세를 올리더니 임충을 덮치듯 달려들었다. 두 교두는 밝은 달빛 아래서 서로 맞붙었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볼만했다. 산둥의 대뢰가 어떠한가? 다음과 같았다.

산둥의 대뢰는 마치 미꾸라지가 구멍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듯하고, 허베이의 협창은 거대한 구렁이가 둥지에서 튀어나오는 듯하다.

대뢰의 봉술은 뿌리째 뽑힌 괴상한 나무와 같고, 협창의 봉술은 땅바닥을 휘감는 마른 덩굴과 같다.

두 마리 용이 바다 위에서 보물을 다투듯, 한 쌍의 호랑이가 바위 앞에서 먹이를 두고 싸우는 듯한 격렬한 대결이었다.

두 교두는 밝은 달빛 아래서 서로 맞붙어 봉술을 네다섯 합 정도 주고받았다. 그러다 갑자기 임충이 땅을 박차고 원 밖으로 뛰어 나가더니 외쳤다. "그만하십시오."

시진이 물었다. "교두께서 어찌 실력을 다 발휘하지 않으십니까?"

임충이 말했다. "소인이 졌습니다."

시진이 말했다. "두 분이 겨루는 것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어찌 벌써 졌다고 하십니까?"

임충이 말했다. "소인에게는 이 칼(죄인의 목에 씌우는 칼)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단 진 것으로 치겠습니다."

시진이 말했다. "제가 잠시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러고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거라면 어렵지 않지요."

시진은 즉시 하인을 시켜 은자 열 냥을 가져오게 했다. 시진은 압송 중이던 두 공인에게 다가가 말했다. "제가 무례를 범했습니다만, 두 분께서 너그럽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임 교두의 칼을 풀어 주십시오. 내일 노성영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 모두 제가 책임질 것이며, 은자 열 냥을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초와 설패는 시진의 풍채가 당당하고 기품 있는 것을 보고 감히 거절하지 못했다. 어차피 인심을 얻는 셈이고 은자 열 냥까지 얻을 수 있으니, 그가 떠난다고 해서 딱히 손해 볼 것도 없었다. 설패는 곧바로 임충의 목에 씌워진 칼을 풀어 주었다. 시진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이번에는 두 교두께서 다시 한번 봉을 겨뤄보십시오."

홍교두는 임충의 방금 봉술이 시들했던 것을 보고 속으로 그를 업신여기며, 봉을 들어 휘두르려 했다. 그때 시진이 외쳤다. "잠깐 멈추십시오!"

시진은 하인을 시켜 은자 한 덩이를 가져오게 했는데, 무게가 스물다섯 냥이나 되었다. 잠시 후 은자가 눈앞에 놓였다. 시진이 말했다.

"두 교두의 비무는 여느 겨룸과는 다릅니다. 이 은자를 상금(利物)으로 걸겠으니, 이기는 쪽이 가져가십시오."

시진은 속으로 임충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기만을 바랐기에, 일부러 은자를 바닥에 던져두었다. 홍교두는 임충을 깊이 원망하면서도 이 큰 은자를 차지하고 싶었고, 한편으로는 기세가 꺾일까 두려워, 봉을 들고 온 힘을 다해 위세를 떨치며 자세를 펼쳤으니, 이를 '파화소천세(把火燒天勢, 불로 하늘을 사르는 형세)'라 했다. 임충은 속으로 생각했다. '시 대관께서는 속으로 내가 이기기만을 바라시는구나.'

임충 또한 봉을 가로로 잡고 자세를 펼치며 기세를 드러냈으니, 그 모습을 '발초심사세(撥草尋蛇勢, 풀을 헤쳐 뱀을 찾는 형세)'라 했다. 홍교두가 "오너라, 오너라, 오너라!" 하고 크게 외치며 봉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듯 공격해 왔다. 임충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나자 홍교두가 바짝 따라들며 봉을 다시 한 번 휘둘렀다. 임충은 홍교두의 발걸음이 이미 흐트러진 것을 보고, 봉을 들고 땅에서 한 번 펄쩍 뛰었다. 홍교두가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임충은 그 도약하는 기세로 몸을 한 바퀴 돌리며 봉을 휘둘러 홍교두의 정강이뼈를 그대로 후려쳤다. 홍교두는 봉을 놓치며 바닥에 엎어지고 말았다.

시진은 크게 기뻐하며 어서 술을 가져와 잔을 채우라고 명령했다. 사람들은 일제히 크게 웃어댔다. 홍교두는 좀처럼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하인들이 웃으며 그를 부축해 일으키니, 홍교두는 얼굴이 수치심으로 가득 찬 채 장원 밖으로 나갔다.

시진은 임충의 손을 잡고 다시 후당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며, 하인에게 상금을 가져와 교두에게 돌려주라고 일렀다. 임충이 어찌 이를 거절하겠는가. 거듭 사양해 보았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았다.

시가 이르되,

남을 업신여기는 기세는 참으로 보기 괴롭고,
냉정하게 곁에서 지켜보는 것도 마음 편치 않네.
상처 입고 이익마저 꺾이는 모습을 지켜보고 나서야,
교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비로소 알게 되리라.

시진은 임충을 장원에 머물게 하며 며칠 동안 매일 좋은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극진히 보살폈다. 그러다 한 닷새나 일주일쯤 더 지났을 무렵, 두 공인이 서둘러 길을 떠나자고 재촉했다. 시진은 다시 잔치를 베풀어 송별의 예를 갖추고, 편지 두 통을 써서 임충에게 당부했다.

"창주의 대윤(大尹, 부윤府尹)도 저와 친분이 두텁고, 노성영의 관영(管營)과 차발(差撥) 역시 저와 사이가 매우 좋습니다. 이 편지 두 통을 가져가 전하면, 필시 교두님을 각별히 보살펴 줄 것입니다."

그러고는 스물다섯 냥짜리 은자 한 덩이를 받들어 임충에게 건네고, 또 은자 다섯 냥을 두 공인에게 수고비로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 이튿날 날이 밝자 아침 식사를 마친 뒤, 하인들에게 세 사람의 짐을 짊어지게 했다. 임충은 여전히 칼(枷)을 쓴 채 시진과 작별하고 길을 떠났다. 시진은 장원 문 앞까지 배웅하며 당부했다.

"며칠 뒤에 제가 사람을 보내 교두님께 겨울옷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임충이 사례하며 말했다.

"대관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두 공인 또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세 사람은 길을 재촉하여 창주로 향했다. 정오를 알리는 패가 울릴 무렵 이미 창주 성안에 도착했는데, 비록 작은 고을이었으나 거리와 저자가 즐비할(육가삼시六街三市) 만큼 제법 규모가 있었다. 그들은 곧장 주아(州衙, 지방 관청)로 가서 공문을 접수했다. 관청 대청에서 임충을 이끌고 주관(州官)인 대윤(大尹, 부윤)에게 인사를 올리니, 대윤은 곧 임충을 인수하고 회문(回文, 관청의 답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한편으로는 영장(帖)을 내려 임충을 노성영으로 압송하도록 판결했다. 두 공인은 회문을 받아 들고 작별 인사를 나눈 뒤 동경(東京, 북송의 수도 변경)으로 돌아갔으니, 이 일은 여기서 더 말하지 않는다.

한편, 임충이 노성영에 도착하여 그곳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다.

문은 높고 담장은 웅장하며, 땅은 넓고 못은 깊구나.
천왕당(天王堂) 곁에는 가는 버들가지 두 줄기가 연기처럼 푸르게 늘어지고,
점시청(點視廳) 앞에는 우뚝한 소나무 한 무더기가 먹을 풀어놓은 듯 푸르네.

오가는 이들은 모두 못과 쇠라도 깨물어 씹어 삼킬 듯한 강건한 사내들이요,
드나드는 이들은 모두 피를 흘리고 간을 쪼개어 의기를 드러낼 사내들이로다.

창주 뇌성영(牢城營)에서는 임충을 받아들여 단신방(單身房, 혼자 쓰는 방)에 가둔 뒤, 점검을 기다리게 했다. 그곳에는 임충과 같은 처지의 죄인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임충을 보며 말했다.

"이곳의 관영(管營)과 차발(差撥)은 사람을 아주 괴롭히는 자들이라네. 오로지 남의 돈과 물건을 갈취할 생각뿐이지. 만약 뇌물로 줄 만한 돈이나 물건을 보내면 아주 잘 대해주지만, 만약 줄 것이 없으면 너를 토뢰(土牢, 흙으로 판 지하 감옥)에 처박아 두고는, 살려달라고 빌어도 살려주지 않고 죽여달라고 빌어도 죽여주지 않을 걸세. 만약 뇌물을 잘 쓰면, 들어오자마자 때리는 백 대의 살위봉(殺威棒, 기를 꺾기 위해 때리는 매)도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미뤄주지만, 뇌물을 쓰지 못하면 그 백 대를 맞아 죽다 살아나기를 반복하게 될 것이네."

임충이 물었다.

"형님들께서 이토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약 돈을 써야 한다면 얼마를 주어야 합니까?"

사람들이 대답했다.

"제대로 대접받고 싶다면 관영에게 은자 다섯 냥을 주고, 차발에게도 은자 다섯 냥을 보내게나. 그러면 아주 좋아질 걸세."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차발이 다가와 물었다.

"저놈이 새로 들어온 배군(配軍)이냐?"

임충이 그 물음을 듣고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다.

"소인이 맞습니다."

그러자 차발은 임충이 돈을 내놓지 않는 것을 보고 안색을 싹 바꾸더니, 임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천한 배군 놈아, 나를 보고 어찌 절도 올리지 않고 그저 '예' 한마디만 던지느냐(唱喏)! 네놈이 동경(東京)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기에 나를 보고도 이토록 거들먹거리느냐? 내가 보기에 이놈은 얼굴 가득 굶주린 상(餓文)이 박혀 있으니, 평생 출세는 못 할 상이로구나! 두들겨 패도 죽지 않고, 고문해도 죽지 않는 이 질긴 죄수 놈아! 이 도둑놈 같은 뼈다귀가 좋든 싫든 내 손에 떨어졌으니, 반드시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지도록 만들어 주마. 조금만 기다려라, 곧 본때를 보여줄 테니!"

차발이 임충에게 부처가 한번 세상에 다시 나올 만큼(一佛出世) 무지막지하게 욕을 퍼붓는 바람에, 임충은 감히 고개를 들어 대답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욕설이 쏟아지자 저마다 흩어졌다.

임충은 차발의 성질이 다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은자 다섯 냥을 챙겨 가서 웃는 얼굴로 다가가 말했다.

"차발 형님, 아주 적은 정성이오니 부디 가볍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차발이 그것을 보더니 물었다.

"이걸 관영과 나에게 다 주겠다는 말이냐?"

임충이 대답했다.

"이것은 차발 형님께 드리는 것이고, 따로 은자 열 냥이 더 있으니 번거로우시겠지만 그것은 관영에게 전해주십시오."

차발은 임충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임 교두, 나도 당신의 명성은 익히 들었소. 참으로 대단한 사내로구려! 분명 고구가 당신을 모함한 것이겠지. 지금은 비록 고생을 좀 하겠지만, 머지않아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오. 당신의 이름값과 이 풍채를 보니 결코 평범한 인물은 아닐 테니, 나중에는 반드시 높은 관직에 오를 것이오."

임충이 웃으며 말했다.

"모두 차발 형님께서 보살펴 주신 덕분입니다."

차발이 말했다.

"그저 마음 푹 놓으시오."

그러고는 시진의 서신을 꺼내며 덧붙였다.

"그리고 이 서신 두 통도 좀 잘 처리해 주시오."

차발이 말했다.

"시 대관인의 서신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걱정인가? 이 서신 한 통은 금 한 덩어리나 다름없소. 내가 서신을 잘 전달해 놓을 테니, 조금 뒤에 관영이 와서 당신을 점검하며 백 대의 살위봉을 때리려 들거든, 그저 '오는 길에 병이 나서 아직 다 낫지 않았다'라고만 하시오. 내가 알아서 적당히 둘러대며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여 주겠소."

임충이 말했다.

"가르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차발은 은자와 서신을 챙겨 단신방을 떠나 제 갈 길을 갔다. 임충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다.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더니, 틀린 말이 하나 없구나. 정말이지 이런 고생을 다 하는군."

차발은 은자 다섯 냥과 서신을 챙겨 관영을 찾아갔다. 그리고 임충이 참으로 대단한 사내이며, 시 대관인의 서신을 통해 추천받았다는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며 서신을 올렸다. 또한 고구가 모함하여 이곳으로 배군(配軍)을 보낸 것이지, 딱히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관영이 말했다.

"시 대관인의 서신까지 있다면 마땅히 그를 잘 보살펴 주어야지."

그러고는 곧장 임충을 불러오라고 시켰다.

한편, 임충이 단신방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패두(牌頭, 옥졸 우두머리)가 소리쳤다.

"관영께서 대청에서 새로 들어온 죄인 임충을 불러 점검하라 하신다!"

임충은 그 소리를 듣고 대청 앞으로 나갔다. 관영이 말했다.

"너는 새로 들어온 죄인이다. 태조 무덕 황제께서 남기신 옛 제도에 따르면, 새로 들어온 배군(配軍)은 반드시 백 대의 살위봉을 맞아야 한다. 좌우의 병졸들은 이놈을 엎어 메라!"

임충이 아뢰었다.

"소인이 오는 길에 감기 몸살이 나서 아직 다 낫지 않았으니, 매 치는 것을 잠시 미뤄 주십시오."

그러자 패두가 거들었다.

"이 사람이 지금 병이 있으니 부디 가련히 여겨 용서해 주십시오."

관영이 말했다.

"정말로 몸에 병증이 있는 모양이구나. 일단은 미뤄 두었다가 병이 다 나으면 그때 때려라."

차발이 이때 끼어들어 말했다.

"지금 천왕당(天王堂)을 지키는 자가 임기를 다 채웠으니, 임충을 보내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합시다."

관영은 대청에서 이첩 공문(帖文)에 서명을 했고, 차발은 임충을 데리고 단신방에서 짐을 챙겨 천왕당으로 가서 교대를 시켰다. 차발이 말했다.

"임 교두, 내가 당신을 아주 잘 보살펴 주겠소. 천왕당을 지키는 일은 진영에서 가장 힘이 덜 드는 일이라오. 아침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마당을 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요. 다른 죄수들을 보시오.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을 시켜도 봐주는 법이 없소. 더 심한 경우도 있는데, 인정(人情, 뇌물)이 없는 놈들은 토뢰(土牢)에 처넣어 살려달라고 해도 안 살려주고 죽여달라고 해도 안 죽여주오."

임충이 말했다.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은자 두세 냥을 꺼내 차발에게 건네며 말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형님께서 일을 마저 잘 처리해 주십시오. 목에 쓴 칼(枷)도 좀 풀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차발은 은자를 받으며 말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다 알아서 하리다."

차발은 곧장 관영에게 가서 보고를 올렸고, 임충의 칼도 풀어 주었다.

임충은 그 후로 천왕당 안에서 머물 곳을 정하고 지냈다. 매일 그저 향을 피우고 마당을 쓰는 일만 하며 지내다 보니, 어느덧 40~50일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뇌물을 받은 관영과 차발은 시간이 흐르며 정이 들자, 임충을 내버려 두었고 그를 간섭하려 들지도 않았다. 시 대관인 또한 사람을 보내 겨울옷과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왔다. 진영 안의 다른 죄수들도 임충의 도움을 받았다.

이야기는 길게 늘이지 않겠다. 어느덧 겨울이 깊어갈 무렵, 어느 날 사시(巳時, 오전 9시~11시)쯤 임충이 잠시 바람이나 쐬려고 영문 밖으로 나가 한가로이 걷고 있었다. 한창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임 교두, 어찌하여 이런 곳에 계십니까?"

임충이 고개를 돌려 살펴보니 한 사람이 보였다. 이 일로 인해 임충은 장차 화염과 연기 더미 속에서 하마터면 남은 목숨을 잃을 뻔하고, 눈보라 치는 길 위에서 하마터면 몸과 목숨이 상할 뻔하게 된다. 과연 임충이 마주친 이는 누구였을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0회 — 임 교두가 눈보라 치는 산신묘에서 풍파를 겪고, 육 우후가 초료장을 불태우다

林教頭風雪山神廟 陸虞候火燒草料場

이야기는 이러하다. 어느 날 임충이 한가로이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뜻밖에도 주점 점원이었던 이소이였다. 예전 도성(東京)에 있을 때 임충이 각별히 보살펴 주었던 이였다.

일찍이 이소이는 도성에 있을 때 주인집 재물을 훔치다 붙잡혀 관가에 넘겨질 처지였다. 그때 임충이 나서서 말을 잘 해준 덕분에 관가에 가지 않고 풀려날 수 있었다. 게다가 임충이 돈까지 좀 쥐여준 덕분에 겨우 화를 면할 수 있었다. 당시 도성에서 살 길이 막막했던 이소이는 임충이 준 여비를 가지고 타지로 떠나 떠돌다, 뜻밖에 이곳 창주에서 마주치게 된 것이다.

임충이 물었다. "이소이 형님, 어찌하여 이곳에 계십니까?"

이소이가 절을 하며 대답했다. "은인께서 구해 주시고 여비까지 챙겨 주신 뒤로, 여기저기 떠돌며 의지할 곳을 찾다가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창주의 왕 씨 성을 가진 주점에 몸을 의탁해 점원으로 일하게 되었지요. 제가 부지런히 움직이며 채소도 잘 준비하고 국물 맛도 잘 맞춰 내놓으니, 손님들이 다들 칭찬하며 먹어주어 장사가 잘되었습니다. 주인집 딸이 저를 사위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인과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저와 아내 둘만 남아서, 지금은 영문 근처에서 작은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으러 나왔다가 이렇게 은인님을 뵙게 되다니요. 그런데 은인께서는 어찌하여 이곳에 계신 것입니까?"

임충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고태위의 눈 밖에 나 모함을 받는 바람에 죄를 짓고 이곳으로 유배를 왔다네. 지금은 천왕당을 관리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 그런데 오늘 여기서 자네를 만날 줄이야."

이소이는 즉시 임충을 집으로 모셔 앉히고, 아내를 불러 은인에게 절을 올리게 했다. 부부는 기뻐하며 말했다. "저희 부부는 친척 하나 없이 외롭게 살고 있었는데, 오늘 은인께서 찾아오시니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복 같습니다."

임충이 말했다. "나는 죄수 신세라 자네들 부부에게 누를 끼칠까 걱정되네."

이소이가 말했다. "은인님의 명성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옷가지가 있다면 저희 집으로 가져오십시오. 깨끗이 빨고 꿰매어 드리겠습니다."

그날 이소이 부부는 임충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밤이 되어서야 천왕당으로 데려다주었다. 다음 날에도 이소이가 다시 찾아와 임충을 모셨고, 덕분에 임충은 이소이 부부와 자주 왕래하며 지내게 되었다. 이소이 부부는 수시로 영문으로 임충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주었다. 임충은 부부가 워낙 공경하고 효성이 지극함을 보고, 자주 은전(銀錢)을 주어 그들의 밑천으로 삼게 했다.

딴 이야기는 이쯤 해두고,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자. 세월은 화살처럼 흘러 어느덧 초겨울이 되었다. 임충이 입는 솜옷과 저고리는 모두 이소이 부부가 정성껏 빨고 꿰매어 마련해 준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소이가 문앞에서 식사에 쓸 채소를 손질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휙 하고 들어오더니 주점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뒤이어 또 다른 한 사람이 잽싸게 따라 들어왔다. 보니 앞서 들어온 사람은 군관 차림이었고, 뒤따라온 사람은 하급 졸개 모습으로 함께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이소이가 다가가 물었다. "술 한잔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은 한 냥을 꺼내 이소이에게 건네며 말했다. "우선 계산대에 넣어 두었다가 좋은 술로 서너 병 가져오너라. 손님이 오면 안주와 과일도 알아서 내오고, 일일이 묻지 마라."

이소이가 물었다. "나으리, 어떤 손님을 모시려 하십니까?"

그가 대답했다. "수고스럽겠지만 지금 영문(營門)으로 가서 관영과 차발 두 사람을 청해 오너라. 그쪽에서 묻거든 그저 어느 나으리가 만

나서 상의할 일이 있다고 청한다고만 전하고, 꼭 와 달라고, 여기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고 일러라."

이소이가 대답하고 곧장 옥성(牢城)으로 달려가 먼저 차발을 불렀다. 이어 관영의 집으로 가서 관영까지 데려오니, 세 사람이 모두 주점에 모였다. 그 군관은 관영과 차발에게 가볍게 예를 갖추어 인사를 나누었다.

관영이 말했다. "초면인데, 나으리의 존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여기 서신이 있으니 잠시 후면 알게 될 것이오. 우선 술부터 가져오시오."

이소이가 서둘러 술을 따르고 채소와 과일, 안주를 상 위에 차려냈다. 그러자 그 군관은 술을 돋우는 안주 한 접시를 더 달라고 하더니, 잔을 채워 놓고는 자리에 앉았다. 이소이는 마치 날랜 몸놀림으로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며 그들을 시중들었다. 뒤따라온 이는 국통을 가져와 직접 술을 데웠는데, 대략 열댓 잔을 마신 뒤에 다시 안주를 더 달라고 하여 상 위에 차려 놓았다.

그때 그 군관이 말했다. "우리가 직접 술을 데울 테니, 그만 오고 쉬어도 좋소. 우리끼리 나눌 이야기가 있소."

이소이가 대답하고는 문앞으로 가서 아내를 불렀다. "여보, 저 두 사람이 영 수상쩍구려."

아내가 물었다. "수상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이소이가 말했다. "저 두 사람 말투를 들어보니 분명 도성 사람이야. 처음엔 관영을 알아보지 못하더니, 조금 전 내가 안주를 들고 들어갈 때 차발이 입 밖으로 '고태위'라는 말을 내뱉는 걸 들었어. 저 사람들이 임 교두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문앞에서 상황을 살필 테니, 당신은 저 안쪽 방 뒤로 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들어봐요."

아내가 말했다. "그냥 영문으로 가서 임 교두를 모셔 와서 직접 확인해 봐요."

이소이가 말했다. "당신은 잘 몰라서 그래요. 임 교두는 성미가 급한 분이라, 상황이 조금만 이상해도 당장이라도 사람을 죽이거나 불을 지를 분이라고요. 만약 임 교두가 와서 저 사람이 엊그제 말했던 육우후라는 걸 알게 되면 가만히 있겠어요? 괜히 큰일이라도 나면 나와 당신까지 덩달아 연루될 거예요. 그러니 일단 가서 듣기만 하고 다시 얘기해요."

아내가 대답했다. "그 말이 맞네요."

아내는 방 안으로 들어가 한 시진 동안 엿듣더니, 밖으로 나와 말했다. "저들 서너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속닥거리는 소리가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 군관 차림을 한 사람이 동행자의 품속에서 보따리 하나를 꺼내더니 관영과 차발에게 건네는 걸 봤어요. 보따리 안에 든 게 분명 금은붙이일 거예요. 그러자 차발이 입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모두 제가 맡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놈의 목숨을 끝장내겠습니다.'"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방 안에서 뜨거운 물을 가져오라는 소리가 들렸다. 이소이가 급히 안으로 들어가 데우는 물을 갈아주러 갔다가, 관영의 손에 서신 한 통이 들려 있는 것을 보았다. 이소이가 물을 갈아주고 밥과 함께 먹을 안주를 좀 더 챙겨주니, 그들은 반 시진 동안 더 먹고는 술값을 계산했다. 관영과 차발이 먼저 자리를 떴고, 뒤이어 머리를 숙인 채 그 두 사람도 자리를 떠났다.

그들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충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이소이 형님, 요 며칠 장사가 잘되나 보군요."

이소이가 황급히 대답했다. "은인님, 어서 앉으십시오. 마침 제가 은인님을 찾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드릴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사람이 마음먹고 움직이니 천문이 흔들리고,
나직이 속삭이는 소리에 육군이 움직이네.
어찌 담장 너머에 귀가 있다고만 하겠는가,
눈앞의 신과 귀신이 모두 다 알고 듣고 있네.

임충이 즉시 물었다. "무슨 긴한 일입니까?"

이소이는 임충을 안쪽으로 안내해 앉히며 말했다. "방금 도성에서 온 아주 껄끄러운 사람들이 이곳에 들러 관영과 차발에게 반나절 동안 술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차발의 입에서 고태위라는 세 글자가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 제 마음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제 아내를 시켜 한

시진 동안 귀를 기울이게 했는데, 그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귓속말을 나누느라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끝날 무렵 차발이 '모두 저희 두 사람에게 달렸으니, 어떻게든 그를 끝장내겠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이 금은이든 꾸러미를 관영과 차발에게 건네주더군요. 그러고는 술을 한 차례 더 마신 뒤 각자 흩어졌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으나, 제 마음에는 의심이 가득하여 혹시 은인님께 해가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임충이 물었다. "그 사람들의 생김새가 어떠하던가요?"

이소이가 대답했다. "키는 작고 다부진 체격에 얼굴은 하얗고 수염도 별로 없었습니다. 나이는 서른 살쯤 되어 보였고요. 그를 따르던 사람도 키가 크지 않았는데, 얼굴빛이 자줏빛 도는 거뭇한 빛이었습니다."

임충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외쳤다. "그 서른 살쯤 된 자가 바로 육우후로구나! 그 천하의 못된 놈이 감히 여기까지 와서 나를 해치려 들다니! 나를 마주치기만 해 봐라, 반드시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 주리라!"

이소이가 말했다. "그저 조심하며 경계하기만 하면 됩니다. 옛말에 '밥 먹을 때는 목 메일까 조심하고, 길 걸을 때는 발 헛디딜까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임충은 크게 노하여 이소이의 집을 떠났다. 먼저 거리로 나가 손목을 벨 수 있을 만큼 날카로운 단도 한 자루를 사서 몸에 지녔다. 그러고

는 앞 거리와 뒷 골목을 샅샅이 뒤지며 찾아다녔다. 이소이 부부는 손에 땀을 쥐며 애를 태웠으나, 그날 밤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임충은 세수를 마치고 칼을 챙겨 들고는, 다시 창주 성 안팎의 좁은 길과 골목길을 하루 종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뇌성영(牢城營, 죄수를 수용하는 진영) 안에서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임충이 다시 이소이를 찾아와 말했다. "오늘은 또 별일이 없구려."

이소이가 대답했다. "은인님, 부디 계속 이러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다만 늘 조심하며 경계하십시오."

임충은 스스로 천왕당으로 돌아가 하룻밤을 보냈다. 그 후로도 사나흘 동안 거리를 계속 뒤졌으나 아무런 기척이 없자, 임충도 마음이 점차 풀어지기 시작했다.

여섯째 날이 되자, 관영이 임충을 불러 점시청(點視廳, 인원과 물자를 점검하는 곳)으로 오게 하더니 말했다. "자네가 여기 온 지도 꽤 되었는데, 시진(柴進) 대관인의 체면을 보아서라도 자네에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려 했으나 그동안 그러지 못했네. 마침 이곳 동문 밖 십오 리 지점에 대군 초료장(大軍草料場)이 있는데, 매달 풀과 사료를 납부받을 때마다 약간의 상례금(常例錢, 관례적으로 챙기는 돈)을 거둘 수 있네. 원래는 노군(老軍) 한 명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네를 높여 그 노군 대신 그곳으로 보내고, 그 노군은 이곳으로 와서 천왕당을 지키게 하려 하네. 자네는 그곳에서 여비로 쓸 돈 몇 관쯤은 벌 수 있을 걸세. 차발과 함께 그곳으로 가서 인수인계를 마치게."

임충이 대답했다. "소인이 바로 가겠습니다."

그 길로 영을 떠나 곧장 이소이의 집으로 간 임충이 부부에게 말했다. "오늘 관영이 나를 대군 초료장의 관리로 보낸다는데, 어찌 생각하오?"

이소이가 말했다. "그 자리는 천왕당을 지키는 것보다 한결 좋은 자리입니다. 그곳은 사료를 거두어들일 때 약간의 상례금이 생기거든요. 평소에 돈을 쓰지 않고는 그 자리를 맡을 수도 없을 정도지요."

임충이 말했다. "나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자리를 주는 것 같으니, 도무지 속셈을 모르겠구려."

이소이가 말했다. "은인님, 너무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저 별일 없이 지나가기만 하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다만 제가 사는 곳이 멀어서, 조만간 시간을 내어 은인님을 뵈러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집에서 술 몇 잔을 준비하여 임충에게 대접했다.

이야기는 이쯤에서 갈무리하고, 두 사람은 작별했다. 임충은 천왕당으로 가서 짐을 챙기고, 날카로운 단도를 지닌 채 화창(花鎗) 한 자루를 들고 차발과 함께 관영에게 작별을 고한 뒤 초료장(草料場)으로 향했다. 때는 엄동설한이라 먹구름이 빽빽하게 뒤덮였고, 북풍이 점차 일더니 이내 눈송이가 흩날리며 온 하늘을 뒤덮는 큰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눈발은 갈수록 굵어지니, 다음과 같았다.

차갑고 엄한 안개가 자욱하여 세상이 어둑하더니,
하늘에서는 상서로운 눈송이가 어지러이 내리네.
순식간에 들판은 길을 분간할 수 없게 되고,
눈 깜짝할 사이 온 산천은 자취를 감추었네.
은빛 세상, 옥 같은 우주,
멀리 바라보니 곤륜산이 희미하게 맞닿아 있구나.
만약 이 눈이 삼경을 지나 새벽까지 내린다면,
마치 옥황상제의 문 앞을 가득 채울 것만 같네.

임충과 차발 두 사람이 길을 가다 술을 사 마실 만한 곳도 없이 일찌감치 초료장(草料場) 밖에 도착했다. 살펴보니 주위가 황토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큰 문 두 짝이 달려 있었다.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일고여덟 칸의 초가집들이 창고로 쓰이고 있었고 사방에는 말 사료 더미가 쌓여 있었으며, 가운데에는 초가집 두 채가 있었다. 그곳 초가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노군이 안에서 불을 쬐고 있었다.

차발이 말했다. "관영께서 이 임충을 당신 대신 천왕당을 지키게 하라고 보내셨으니, 즉시 인수인계를 해주시오."

노군이 열쇠를 챙겨 임충을 안내하며 당부했다. "창고 안에는 관청에서 봉인해 둔 기록이 있을 것이오. 이 사료 더미들도 더미마다 수량이 정해져 있소."

노군은 더미의 수량을 모두 확인시켜 준 뒤, 임충을 다시 초가집으로 안내했다. 노군이 짐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화로와 솥, 그릇과 대접도 다 빌려주겠소."

임충이 말했다. "천왕당에도 제 물건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가져가십시오."

노군이 벽에 걸린 커다란 조롱박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혹시 술을 사서 마시고 싶거든 초료장에서 나가 동쪽 대로로 이삼 리만 가면 저잣거리가 나오오."

그러고는 노군이 차발과 함께 영(營)으로 돌아갔다.

임충은 침상 위에 짐을 내려놓고 이불을 펼친 뒤, 자리에 앉아 불을 지폈다. 집 옆에 땔나무와 숯더미가 있기에 몇 덩이를 가져다 화로에 넣었다. 고개를 들어 초가집을 살펴보니 사방이 허물어져 있었고, 북풍이 몰아칠 때마다 집 전체가 흔들거렸다. 임충이 혼잣말로 말했다. "이 집에서 어떻게 겨울을 난단 말인가? 눈이 그치면 성안에 가서 미장이를 불러 수리해야겠구나."

불을 한참 쬐고 있자니 몸이 으슬으슬 떨려왔다. 임충은 생각했다. '노군이 이삼 리 밖에 저잣거리가 있다고 했으니, 가서 술이라도 좀 사 올까?' 그는 짐 속에서 은 부스러기를 꺼내고, 화창에 술 조롱박을 매달았다. 화로의 숯불은 덮어두고, 펠트 모자(전립笠)를 쓰고 열쇠를 챙겨 나왔다. 초가집 문을 당겨 닫고 대문까지 나와 초료장의 큰 문 두 짝을 도로 당겨 잠갔다. 그러고는 열쇠를 챙겨 동쪽을 향해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갔다. 눈밭을 밟으니 부서진 옥 조각과 구슬 같은 눈이 흩어졌다. 그는 북풍을 등지고 천천히 걸어갔다. 눈발이 워낙 굵게 쏟아지는 탓에 반 리도 채 못 가서 낡은 사당 하나가 보였다. 임충은 사당을 향해 절을

올리며 말했다. "신령님, 저를 보살펴 주십시오. 훗날 다시 와서 지전(紙錢)을 사르겠습니다."

다시 한참을 가니 민가 몇 채가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임충이 걸음을 멈추고 살펴보니, 울타리 너머로 빗자루 하나(주막의 표지)가 한데에 걸려 있었다. 임충은 곧장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주인이 물었다. "손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임충이 물었다. "이 조롱박을 아시오?" 주인이 보더니 대답했다. "그건 초료장 노군의 것이오." 임충이 말했다. "아, 그렇구려." 주인이 말했다. "초료장을 지키는 형님이시라면 어서 들어와 앉으십시오. 날씨가 추우니 술 석 잔이라도 드시지요. 우선 환영주(接風)로 대접하겠습니다."

주인은 삶은 소고기 한 접시를 썰어 내오고 따뜻한 술 한 호리병을 데워 임충에게 권했다. 임충은 따로 소고기를 좀 더 사고 술도 몇 잔 마셨다. 그러고는 술 한 조롱박을 더 사고 소고기 두 덩이를 싸면서 은 부스러기를 남겨두었다. 화창에 술 조롱박을 매달고 품속에는 소고기를 넣은 채, "폐를 끼쳤소" 하고 인사를 건네고 울타리 문을 나서서 다시 북풍을 마주하며 돌아왔다. 눈은 저녁이 될수록 더욱 거세게 쏟아졌다. 옛날 어느 선비가 가난한 처지에서 눈을 원망하는 한을 담아 사(詞) 한 편을 지었으니, 다음과 같다.

「광막(廣莫)」

매서운 바람은 땅을 깎고, 내리는 눈은 참으로 거세구나. 솜뭉치를 비비고 명주 솜을 잡아 뜯어, 광주리만큼이나 큼직한 눈송이로 마름질하네. 숲속의 대나무 집과 초가지붕은, 그 무게에 거의 짓눌려 주저앉

을 지경이라. 부유한 호족들은 도리어, 이 눈으로 장기(瘴氣)를 누르기엔 오히려 모자라다 하는구나. 그들이 마주한 것은 짐승 모양 숯불이 타는 붉은 화로요, 걸친 것은 두툼한 솜옷이로다. 손에는 매화 한 가지를 매만지며, 나라의 상서로움이라 노래할 뿐, 가난한 백성의 작은 고단함은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않는구나. 고고히 누운 은자(幽人)가 있어, 시초(詩草)를 읊조리는 일이 많네.

한편, 임충은 쏟아지는 눈을 밟으며 북풍을 맞고 날쌔게 달려가 초료장의 대문 자물쇠를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서 살펴보니 그야말로 탄식이 절로 나왔다. 하늘의 도리가 분명하여 의로운 이를 보살피신 덕분인지, 이 큰 눈이 오히려 임충의 목숨을 구한 셈이었다. 초가집 두 칸이 이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임충은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하며 걱정했다. 그는 화창과 술 조롱박을 눈 속에 내려놓았다. 혹시 화로에 남은 숯불이 옮겨붙어 불이 번지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부서진 벽을 밀어내고 몸을 절반쯤 집 안으로 밀어 넣어 더듬어 보았다. 하지만 화로의 불씨는 이미 눈 녹은 물에 다 꺼져 있었다. 임충이 침상 쪽을 더듬어 보니 솜이불 한 채가 겨우 만져졌다.

임충이 밖으로 나오니 어느덧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불을 피울 방법도 없으니 이제 어찌해야 하나?' 그러다 문득 '이 길에서 반 리 정도 가면 낡은 사당이 하나 있으니, 거기서 하룻밤 묵으며 날이 밝기를 기다려 보는 게 좋겠다' 싶었다. 그는 이불을 돌돌 말아 챙기고, 화창에 술 조롱박을 매달았다. 그러고는 다시 문을 닫겨 잠그고 사당을 향해 걸어갔다.

사당 문을 열고 들어간 임충은 다시 문을 닫은 뒤, 곁에 있던 커다란 돌 하나를 끌어다 문 앞에 기대어 놓았다.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전각 위에는 금갑(金甲)을 입은 산신상이 모셔져 있었고, 양옆에는 판관과 소귀(小鬼) 상이 있었으며, 옆에는 종이 더미가 쌓여 있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이웃집도 없고 사당을 지키는 이도 없어 적막하기만 했다.

임충은 화창과 술 조롱박을 종이 더미 위에 내려놓고 솜이불을 펼쳤다. 먼저 펠트 모자를 벗어 몸에 묻은 눈을 털어냈고, 입고 있던 흰색 무명 저고리는 이미 반쯤 젖어 있어 모자와 함께 제단 위에 올려두었다. 그러고는 이불을 끌어당겨 하반신을 반쯤 덮었다. 그는 조롱박을 들어 차가운 술을 조금씩 마시며, 품속에 넣어온 소고기를 안주 삼아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한창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무언가 퍽퍽 터지는 듯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임충이 깜짝 놀라 일어나 벽 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초료장 안에 불이 일어 풀 더미가 와글와글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 광경은 이러하였다.

눈은 불길을 위협하고, 풀은 불의 기세를 도우니, 풀 위로 바람 부는 것도 서러운데, 눈 속에 숯불을 보태는(雪中送炭) 격이라 더욱 놀랍구나. 붉은 용이 다투어 솟구치니, 옥 비늘 같은 눈송이가 어찌 어지러이 흩날리지 않으리오; 흰 나비 같은 눈송이가 다투어 날아오르건만, 불꽃 연꽃은 아랑곳없이 활활 타오르는구나. 처음에는 염제(炎帝)가 신령한 망아지를 풀어놓아 이곳에서 풀을 뜯게 한 줄 알았더니, 다시 보니 남방의 주작(朱雀)을 좇아 곳곳에 둥지를 트는 듯하구나. 하얀 눈밭

에서 재앙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으랴, 어두운 방 안에서 번개 같은 안목이 열림도 새삼 믿게 되네. 이 불길을 보노라면 의로운 선비조차 무명(無明)의 분노가 치밀 것이요, 이 눈을 보노라면 간사한 무리들의 간담이 서늘해지리라.

그때 임충은 즉시 화창을 들고 문을 열어 불을 끄려 했으나, 갑자기 밖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임충이 문가에 엎드려 귀를 기울이니, 세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곧장 사당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들이 손으로 문을 밀어 보았으나, 문은 돌로 괴어 놓아 아무리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세 사람은 사당 처마 밑에 서서 불 나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중 한 사람이 말했다. "이 계책이 어떠하오?"

다른 한 사람이 응답했다. "정말이지 관영(管營)과 차발(差撥) 두 분이 큰 공을 들이셨소! 경사(京師)로 돌아가 태위(太尉)께 아뢰면, 두 분은 분명 큰 벼슬에 오르도록 보증해 드리겠소. 이번에야말로 장 교두(張教頭)도 더는 핑계를 댈 수가 없을 것이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다. "임충을 이번에 우리가 제대로 처리했으니, 고아내(高衙內) 도련님의 병환도 반드시 나을 것이오."

또 한 사람이 말했다. "장 교두 그놈은, 우리가 서너 번 다섯 번이고 사람을 보내 '자네 사위는 이제 없는 셈치게(죽은 셈치게)'라고 권해도 도무지 응하려 하지 않았소. 그 바람에 도련님의 병환이 갈수록 위중해진 것이지. 그래서 태위께서 특별히 우리 두 사람을 보내 두 분께 부탁해 이 일을 도모하라 하셨는데, 뜻밖에도 이렇게 마무리되었구려."

또 한 사람이 말했다. "내가 직접 담을 넘어 들어가 사방의 풀더미에 횃불 열 개쯤을 놓아두었으니, 그놈이 이제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소?"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이 정도면 이미 팔할(八分)은 다 탔을 것이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말했다. "설령 목숨을 건져 도망친다 해도, 대군(大軍)의 초료장에 불을 지른 죄는 죽어 마땅한 중죄요."

그러자 한 사람이 말했다. "이제 성안으로 돌아갑시다."

다른 사람이 말했다. "잠시 더 살펴보고, 그놈의 뼈 조각이라도 한두 점 주워 경사로 돌아갑시다. 부중(府中)에서 태위와 도련님을 뵐 때, 우리도 일을 야무지게 처리한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 게 아니오?"

임충은 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중 한 명은 차발이고, 한 명은 육우후(陸虞候), 나머지 한 명은 부안(富安)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임충은 속으로 생각했다. '하늘이 임충을 가엾게 여기시는구나! 만약 초가집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나는 분명 저놈들에게 불타 죽었을 것이다.'

임충은 가만히 돌을 치워 놓고는 화창을 비껴 잡고 왼손으로 사당 문을 확 열며 크게 호통쳤다. "이 도적놈들아, 어디로 가느냐!"

세 사람이 다급히 달아나려 했으나 놀라 얼이 빠져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임충이 손을 들어 휙 하고 창을 내지르니, 먼저 차발이 쓰러졌다. 육우후가 "목숨만 살려주시오!" 하고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손발이 굳어 움직이지 못했다. 부안은 열 걸음도 채 못 가서 임충에게 따라잡혔고, 임충이 등 뒤에 창을 한 번 찔러 넣자 그대로 고꾸라졌다.

임충이 몸을 돌려 다시 향하자, 육우후는 겨우 서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임충이 호통을 쳤다. "이 도적놈아, 어디로 도망가느냐!" 그러고는 가슴팍을 한 번 거머쥐고 끌어채 눈밭에 내팽개쳤다. 임충은 창을 땅에 박아 두고 발로 가슴을 짓누른 뒤, 허리춤에서 그 단도를 뽑아 육겸(陸謙)의 얼굴에 들이대며 꾸짖었다.

"이 도적놈아, 내 본래 너와 아무런 원한도 없거늘, 어찌 이토록 나를 해치려 하느냐? 사람을 죽인 죄야 용서할 수 있어도, 이 정황과 도리만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육우후가 빌며 말했다. "이는 소인의 일이 아닙니다. 태위께서 분부하신 일이라 감히 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충이 욕설을 퍼부었다. "간악한 놈! 너와는 어릴 때부터 사귄 사이인데, 오늘 도리어 나를 해치러 왔으니 어찌 네 짓이 아니라 하겠느냐? 내 칼이나 받아라!"

임충은 육겸의 윗옷을 찢어 헤치고는, 날카로운 단도를 명치께에 푹 박아 한 번 도려내자 칠규(七竅)에서 피가 솟구쳤다. 임충은 그 심간(心肝)을 손에 꺼내 들었다. 고개를 돌려 보니 차발이 막 기어 일어나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임충이 그를 짓누르며 꾸짖었다. "네놈도 알고 보니 이토록 악독했구나! 내 칼이나 받아라!" 그러고는 곧 머리를 베어 창끝에 꿰었다. 돌아와 부안과 육겸의 머리도 마저 베어냈다. 단도를

다시 꽂은 뒤,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한데 묶어 사당 안으로 들고 들어가 산신상 앞 제단 위에 가지런히 늘어놓았다.

그 후 임충은 다시 흰 무명 저고리를 걸치고 어깨띠(搭膊)를 두른 뒤 펠트 모자를 썼다. 그리고 호리병에 남은 찬 술을 모조리 마셔버렸다. 이불과 호리병도 다 버려두고는 창을 들고 사당 문을 나서 동쪽을 향해 갔다. 3~5리쯤 갔을까, 근처 마을 사람들이 물통과 갈고리를 들고 불을 끄러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임충이 말했다. "어서 가서 불을 끄시오. 나는 관가에 알리러 가오."

임충은 창을 든 채 길을 재촉했다. 이를 증명하는 시(詩)가 있으니,

하늘의 이치는 밝고 명확하여 속일 수 없으니, 간악한 마음으로 좋은 꾀를 내지 마라.
만약 눈보라가 마을 술을 사게 하지 않았다면, 분명 불에 타 재가 되어 사라졌으리라.
스스로는 어둠 속에서 독한 계책을 쓴다 믿었겠지만, 누가 알았으랴, 보이지 않는 신령이 돕고 있음을.
만 번 죽을 고비를 넘겨 살아남은 이가 가련하고도 귀하니, 진정 기개 높고 위대한 대장부로다.

눈은 갈수록 거세게 몰아쳤다. 임충이 동쪽으로 두 경(更) 동안 걸어갔으나, 몸이 너무 시려 몰아치는 추위를 견디기가 힘들었다. 눈밭을 보니 초료장(草料場)은 이미 멀리 떨어져 있었다. 저 멀리 숲이 우거진 깊은 곳을 보니, 나무들이 뒤섞인 사이로 눈을 잔뜩 머금은 초가집 몇

채가 보였는데, 그 깨진 벽 사이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임충은 곧장 그 초가집으로 향했다.

문을 밀고 들어가 보니, 가운데에 노장객(老莊客) 한 명이 앉아 있고 그 주위로 대여섯 명의 어린 장객(莊客)들이 불을 쬐며 둘러앉아 있었다. 화로 안에서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임충이 그들 앞으로 다가가 인사를 하며 말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뇌성영(牢城營)에서 차역(差役)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눈을 맞아 옷이 다 젖었습니다. 불가에 잠시 앉아 몸을 좀 녹여도 되겠습니까? 부디 편의를 봐주십시오."

그러자 노장객이 말했다. "그냥 몸을 녹이시오, 어때서!"

임충이 젖은 옷을 불에 말리며 몸을 좀 녹이고 있자니, 숯불 옆에 항아리 하나가 묻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술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 나왔다. 임충이 말했다.

"제게 부스러기 은자(銀子)가 조금 있으니, 술을 좀 팔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장객이 대답했다. "우리는 밤마다 교대로 미곡 창고를 지켜야 하오. 지금은 사경(四更)이라 날이 무척 추운데, 우리가 먹을 것도 모자라거늘 어찌 당신에게 술을 내어주겠소? 꿈도 꾸지 마시오!"

임충이 다시 말했다. "그저 두세 사발만 주셔도 추위를 쫓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노장객이 쏘아붙였다. "이 양반이 자꾸 끈덕지게 구는구려, 그만 좀 하시오."

임충은 술 향기를 맡으니 더욱 마시고 싶어져서 다시 말했다. "정 안 된다면 조금만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러자 장객들이 한마디씩 거들었다. "호의로 옷을 말리라고 불가에 앉혀 줬더니 이제는 술까지 달라 한단 말이오! 갈 거면 가시오, 안 가면 끌어다 여기에 매달아 놓겠소!"

임충이 분노하며 외쳤다. "이놈들이 참으로 몰상식하구나!"

임충은 손에 든 창으로 화로 속에서 활활 타고 있는 불붙은 장작 한 덩이를 겨누어, 노장객의 얼굴을 향해 휙 떠올려 던졌다. 그러고는 다시 창을 화로 속에 넣어 마구 휘저었다. 그러자 노장객의 수염에 불이 옮겨 붙어 활활 타올랐고, 장객들도 모두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다. 임충이 창대를 마구 휘둘러 때리자 노장객이 먼저 달아났고, 남은 장객들도 꼼짝달싹 못한 채 임충에게 한바탕 얻어맞고는 모두 흩어져 달아났다.

임충이 말했다. "다들 가버렸으니, 영감님 혼자 즐겁게 술이나 마셔야겠군."

그는 흙구덩이 위에 놓인 두 개의 바가지 중 하나를 집어 들고는 항아리에 담긴 술을 따라 마셨다. 한참을 마시다 보니 술은 절반 정도 남았다. 임충은 창을 들고 문을 나서 길을 떠났다. 한 걸음은 높게, 한 걸음은 낮게,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도저히 제 발을 가누지 못할 정도

였다. 채 일 리(약 400m)도 가지 못해 매서운 북풍이 몰아치자, 그는 산골짜기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그 상태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다. 대개 취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어려운 법이다. 그렇게 임충은 눈밭 위에 취해 쓰러졌다.

한편, 장객들이 스무 명 남짓한 사람을 데리고 창을 들고 몽둥이를 든 채 초가집으로 달려가 보니, 임충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들이 흔적을 찾아 뒤쫓아가 보니, 임충은 화창(花鎗)을 한쪽에 내팽개친 채 눈밭에 쓰러져 있었다. 장객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땅에서 임충을 일으켜 세운 뒤 밧줄로 꽁꽁 묶었다. 그리고 오경(五更, 새벽 3시~5시 사이) 무렵에 임충을 끌고 어느 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장차 요아와(蓼兒窪) 안에 앞뒤로 수천 척의 전함과 몽충(艨艟, 거대한 전선)이 늘어서고, 수호채(水滸寨) 안에 좌우로 백여 명의 영웅 호걸이 진을 치게 될 그곳이었다.

바로 이러하니, 말하는 곳마다 살기(殺氣)가 사람을 엄습하듯 차갑고, 이야기하는 곳마다 처량한 바람이 뼈를 깎듯 매섭구나.

결국 임충이 장객들에게 붙잡혀 끌려간 곳이 어디인지는, 다음 회를 들어 보면 알게 되리라.

제11회 — 주귀가 수정에서 화살을 쏘아 신호를 보내고, 임충이 눈 내리는 밤 양산보로 오르다

朱貴水亭施號箭 林沖雪夜上梁山

이야기는 이러하다. 표자두 임충은 그날 밤 눈 덮인 땅 위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었다. 장원의 하인들은 그를 앞뒤로 꽁꽁 묶어 어느 장원으로 끌고 갔다. 그때 장원 하인 하나가 마당으로 나오며 말했다. "나으리께서 아직 일어나지 않으셨으니, 우선 이놈을 문루 아래 매달아 놓아라."

날이 밝아올 무렵 임충은 술이 깨어 정신을 차렸다. 주위를 둘러보니 과연 꽤 큰 장원이었다. 임충이 크게 소리쳤다. "어떤 놈이 감히 나를 이런 곳에 매달아 놓느냐!" 그 소리를 들은 하인 하나가 흰 나무 막대기를 손에 쥐고 문에서 걸어 나오며 호통을 쳤다.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때 수염이 타버린 한 노인 하인이 말했다. "그놈에게 따지지 말고 일단 때리기나 하게! 나으리께서 일어나시면 그때 사정을 물어 관가에 넘기면 될 일 아니겠나." 하인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임충을 때리기 시작했다. 임충은 몸부림을 쳐보았으나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때리지 마시오!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소!"라고 외칠 뿐이었다.

그때 또 다른 하인이 달려와 외쳤다. "나으리께서 오십니다!" 임충이 고개를 들어 보니, 한 관리가 뒷짐을 진 채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 관리가 회랑 아래에 이르러 물었다. "너희들이 여기서 누구를 때리고 있는 것이냐?" 하인들이 대답했다. "어젯밤에 쌀을 훔치려던 도둑놈을 잡았습니다." 그 관리가 임충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그가 임충임을 알아보고는 황급히 하인들을 물러가게 했다. 그리고 직접 임충의 결박을 풀어주며 물었다. "교두, 어찌하여 이런 곳에 매달려 있는 것이오?" 하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는 일제히 자리를 피했다.

임충이 살펴보니 그는 다름 아닌 '소선풍' 시진이었다. 임충은 급히 소리쳤다. "나으리,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시진이 말했다. "교두께서 어찌 여기까지 오셔서 이런 시골뜨기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임충이 답했다. "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은 뒤, 건초 더미에 불이 났던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히 털어놓았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시진이 말했다. "형님, 처지가 참으로 기구하십니다! 오늘은 하늘이 도운 것이니 우선 안심하십시오. 이곳은 제 개인 소유의 동장(東莊, 개인 농장)이니, 얼마 동안 머무실지는 나중에 다시 의논하도록 합시다." 시진은 하인을 시켜 옷 한 바구니를 가져오게 하

여 임충에게 안팎의 옷을 모두 갈아입게 했다. 그리고 그를 따뜻한 방으로 안내하여 술과 음식을 차려 정성껏 대접했다. 이로써 임충은 시진의 동장에서 닷새나 이레 동안 머물게 되었다.

한편, 창주 뇌성영(牢城營, 군영)의 관영(管營, 영의 책임자)이 가장 먼저 고발하기를, '임충이 차발, 육우후, 부안 등 세 사람을 죽이고 대군(大軍)의 초료장(草料場, 건초 저장소)에 불을 질러 태웠습니다'라고 하였다. 주윤(州尹, 지방관)은 크게 놀라 즉시 공문첩을 내려보내, 포졸들로 하여금 공인(公人)들을 데리고 인근 향읍(鄕邑)과 길목의 주막·촌락 곳곳에 방을 두루 붙이고, 정범인 임충을 잡아오는 자에게는 신상전(信賞錢) 3천 관(貫)을 내걸도록 하였다. 수색이 매우 삼엄해지자 곳곳의 마을마다 이 일이 자자하게 떠들썩해졌다.

한편, 임충은 시진의 동장에서 머물던 중 수배가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시진이 장원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임충이 말했다. '나으리께서 저를 붙잡아 두지 않으시려는 것이 아니오라, 다만 관가에서 집집마다 샅샅이 뒤지며 추격하고 있어, 혹여나 나으리의 장원까지 찾아 들어오면 도리어 나으리께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이미 나으리께서 의(義)를 좇아 재물을 아낌없이 베푸시니, 임충에게 약간의 노자를 빌려주시기를 청하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몸을 의탁하고자 합니다. 훗날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면 반드시 견마지로(犬馬之勞)로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시진이 말했다. '형님께서 떠나시려 한다면 소제가 한 군데 갈 만한 곳을 알고 있으니, 서신을 한 통 써 드릴 테니 그곳으로 가십시오.' 바로 이러하니,

호걸은 세월만 보내며 운이 트이지 않으니,
나아가고 물러남이 곳곳에서 갇힌 신세로구나.
시진이 서신을 써 추천해 주지 않았더라면,
어찌 수호(水滸) 가운데 이름을 떨칠 수 있었겠는가.

임충이 말했다. "나으리께서 이토록 도와주신다면 제가 몸을 의탁하고 살아갈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진이 말했다. "산동 제주에 수향(水鄕, 물이 많은 마을)이 하나 있는데, 지명은 양산박이라 합니다. 사방이 팔백여 리에 달하며, 그 가운데에는 완자성과 요아포가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세 명의 호걸이 진을 치고 살고 있지요. 우두머리는 '백의수사' 왕륜이라 부르고, 두 번째는 '모착천' 두천, 세 번째는 '운리금강' 송만이라 합니다. 그 세 호걸이 칠팔백 명의 졸개들을 거느리고 약탈을 일삼고 있는데, 천인공노할 큰 죄를 지은 사람들도 그곳으로 가서 재난을 피하며 몸을 숨기니 그들이 모두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세 호걸은 저와도 사이가 두터워 예전에 서신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형님께 서신을 한 통 써 드릴 테니, 그곳에 가서 일원이 되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임충이 말했다. "그렇게 배려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시진이 말을 이었다. "다만 창주 길목에 관가에서 붙인 수배령이 걸려 있고, 군관 두 명을 더 보내 길목을 지키며 수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형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을 지나가셔야 할 텐데 걱정이군요."

시진은 고개를 숙여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형님을 무사히 보내드릴 계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임충이 말했다. "만약 무사히 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죽어서도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시진은 당일 먼저 장원 일꾼을 시켜 짐을 짊어지고 나가서 기다리게 했다. 그러고는 말 서른 마리 정도를 준비하고 활과 화살, 깃발과 창을 갖추었으며, 매와 독수리를 길들이고 사냥개까지 끌고 나왔다. 일행이 모두 사냥꾼 차림으로 꾸민 뒤, 임충을 그들 사이에 슬쩍 끼워 넣어 함께 말을 타고 관문 밖으로 향했다.

한편, 관문 위에서 자리를 지키던 군관들은 시진이 오는 것을 보고 모두 알아차렸다. 알고 보니 이 군관들은 직책을 맡기 전 시진의 장원에 들른 적이 있어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군관이 일어나며 말했다. "나으리께서 또 즐기러 나가시는군요!"

시진이 말에서 내려 물었다. "두 관원께서는 어찌하여 이곳에 계시오?"

군관이 대답했다. "창주 태윤(太尹, 지방관)께서 수배령을 내려 범인 임충의 얼굴과 형상을 그려 붙였기에, 저희를 특별히 이곳에 보내 지키게 했습니다. 지나가는 상인들을 하나하나 심문한 뒤에야 관문을 통과시켜 주고 있습니다."

시진이 웃으며 말했다. "내 일행 중에 임충이 숨어 있는데, 어찌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오?"

군관도 웃으며 맞받아쳤다. "나으리께서는 법도를 잘 아시는 분인데, 설마 대놓고 사람을 빼돌리시겠습니까? 어서 편히 말을 타고 가십시오."

시진이 다시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믿어주니 고맙구려. 나중에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 대접하겠소."

그렇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는 일행은 모두 말을 타고 관문을 빠져나갔다.

십여 리쯤 더 가니, 먼저 가 있던 장원 일꾼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시진은 임충에게 말에서 내리라고 일렀다. 임충은 사냥꾼 옷을 벗어 던지고 일꾼이 가져온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은 뒤, 허리칼을 매고 붉은 술이 달린 모자를 썼다. 그리고 짐 보따리를 등에 메고 곤도(衮刀, 무거운 칼)를 손에 든 채 시진에게 작별 인사를 올리고는 곧장 길을 떠났다.

한편, 시진의 일행은 말을 타고 사냥을 나갔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그들은 여느 때처럼 관문으로 가서 군관들에게 사냥한 고기를 좀 건네주고는 다시 장원으로 돌아갔으니, 별다른 일은 없었다.

한편, 임충은 시진과 작별한 뒤 길을 떠나 십여 일을 더 나아갔다. 마침 한겨울이라 붉은 구름이 빽빽하게 드리워지고 북풍이 매섭게 몰아치더니, 이내 하늘 가득 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십여 리를 더 가니 온 세상이 은빛으로 뒤덮여 있었다. 옛날 금나라의 완안량이 '백자령'이라는 곡조에 '대설(大雪)'이라는 제목을 붙여 쓴 시가 있는데, 가슴 속의 살기를 장엄하게 표현한 바가 이러하다.

하늘이 크게 진노하여 은빛 바다를 뒤엎고 진주 같은 물방울을 흩뿌리네.
여섯 꽃잎 같은 눈송이 휘몰아치며 산속의 골짜기를 평평히 메우네.
하얀 호랑이 날뛰고 흰 기린 미쳐 날뛰며 진주로 엮은 밧줄을 끊어놓네.
옥룡은 격렬히 싸우니 비늘 갑옷이 하늘 가득 흩날리네.
누가 알랴, 만리 먼 길 떠난 병사들 굳어버린 채 흰 띠로 깃발 밑을 적심을.
창과 칼에 색이 서리고 검과 창에 빛이 흔들리니 살기가 진영에 가득하네.
용맹한 장수들은 영웅의 힘을 보태며 함께 병법을 논하네.
부디 한바탕 취해보고 넓고 푸른 하늘의 아득함을 보리라.

이야기는 이러하다. 임충은 눈을 밟으며 오로지 앞만 보고 걸어갔는데, 하늘빛이 점점 차갑게 변하더니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갔다. 멀리 바라보니 시냇가와 호수 사이에 주막 하나가 보이는데, 쌓인 눈이 그 지붕을 가득 덮고 있었다. 그 모습은 이러했다.

은빛은 초가집을 뒤덮고, 옥빛은 초가 처마에 비치네.
수십 그루 늙은 나무는 가지를 뻗고, 서너 곳의 작은 창문은 닫혀 있네.
성긴 가시울타리는 마치 고운 분가루를 얇게 깔아 놓은 듯하고,
담장을 휘감은 황토는 마치 연지를 펴 바른 듯하구나.
천 뭉치 버들솜 같은 눈발은 주렴 휘장 위로 흩날리고, 만 조각 거위털 같은 눈송이는 술 깃발 옆에서 춤추네.

임충은 주막을 발견하자마자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갈대 발을 걷어 올리고 몸을 밀어 넣어 들어간 뒤, 옆으로 몸을 틀어 살펴보니 곳곳에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임충은 한 자리를 골라 앉으며 곤도(袞刀)를 기대어 놓고, 봇짐을 풀고 털모자를 벗었으며 허리에 찬 칼도 걸어 두었다. 그때 주막지기가 다가와 물었다. "손님, 술은 얼마나 드릴까요?" 임충이 말했다. "먼저 술 두 각(角)만 가져오게." 주막지기가 술통에서 두 각의 술을 따라와 탁자 위에 놓았다. 임충이 다시 물었다. "안주할 만한 것은 무엇이 있나?" 주막지기가 대답했다. "날 소고기와 익힌 소고기, 기름진 거위, 연한 닭고기가 있습니다." 임충이 말했다. "먼저 익힌 소고기 두 근(斤)을 썰어 오게." 주막지기가 잠시 자리를 비우더니, 이내 커다란 소고기 한 접시와 채소 몇 접시를 차려 내고 큰 사발을 놓은 뒤 술을 따르기 시작했다. 임충이 술을 서너 사발쯤 마시고 있을 때, 가게 안에 있던 한 사람이 뒷짐을 진 채 문밖으로 걸어 나가 눈을 구경하는 것이 보였다. 그 사람이 주막지기에게 물었다. "누가 술을 마시고 있느냐?" 임충이 그 사람을 살펴보니, 깊은 챙이 달린 방한모를 쓰고 담비 가죽 옷을 입었으며, 노루 가죽으로 만든 좁은 장화를 신고 있었다. 체격은 건장하고 풍채가 당당했으며, 광대뼈가 도드라진 주먹형 얼굴에 누런 수염이 세 갈래로 나 있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들어 눈을 구경하고 있을 뿐이었다. 임충은 주막지기에게 계속 술만 따르라고 일렀다. 그러고는 임충이 말했다. "주막지기, 자네도 와서 술 한 사발 들게나." 주막지기가 한 사발을 마시자 임충이 물었다. "여기서 양산박까지는 길이 얼마나 남았는가?" 주막지기가 대답했다. "여기서 양산박까지는 비록 몇 리 되지 않지만, 전부 물길이라 육로는 전혀 없습니다. 가시려면 반드시 배를 타고 가야만 그곳에 닿을 수 있습니다." 임충이 말했다. "나를 위해 배 한 척만 구해줄 수 있겠나?" 주막지기가 말했다.

"이렇게 눈이 펑펑 쏟아지고 날도 저물었는데, 배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임충이 말했다. "돈을 더 넉넉히 줄 테니, 부디 배를 구해 나를 건너다주게." 주막지기가 말했다. "그건 좀 곤란합니다." 임충은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다시 술을 몇 사발 더 마시니 마음이 답답해졌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내 본래 도성에서 교두(敎頭)로 지내며 매일 거리와 저잣거리를 누비며 술과 음식을 즐겼거늘, 고구라는 도적놈이 나를 이토록 함정에 빠뜨릴 줄이야. 얼굴에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이곳까지 떠밀려 오니, 집이 있어도 돌아갈 수 없고 나라가 있어도 의지할 수 없어 이토록 쓸쓸하구나!' 슬픈 감정이 북받친 임충은 주막지기에게 붓과 먹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술기운을 빌려 하얀 벽 위에 여덟 구절의 시를 써 내려갔다.

"의를 지키는 이는 임충이라, 사람됨은 가장 소박하고 충직하도다. 강호에 명성을 떨치고, 도성에서는 영웅으로 이름을 드러냈네. 이 한 몸은 떠도는 부평초처럼 슬프고, 공명은 굴러다니는 쑥대처럼 덧없구나. 훗날 뜻을 펼치게 된다면, 태산 동쪽을 위엄으로 호령하리라."

임충은 붓을 내려놓고 다시 술을 가져오게 했다.

한창 술을 마시고 있는데, 아까 그 가죽 옷을 입은 사내가 다가오더니 임충의 허리를 움켜쥐고 말했다. "이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창주에서 그 큰 죄를 저질러놓고 감히 여기서 이러고 있어? 지금 관가에서 너를 잡으면 포상금으로 삼천 관을 주겠다고 수배령까지 내렸는데, 대체 어쩌려고 이러느냐?" 임충이 말했다. "그대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사내가 대답했다. "그대가 '표자두' 임충이 아니란 말이냐?" 임충이 말했다. "내 성은 장(張)씨라네." 사내가 웃으며 말했다.

"허튼소리 마시오. 벽에는 이름이 적혀 있고 얼굴에는 죄인이라는 낙인까지 찍혀 있는데, 어떻게 발뺌을 하겠다는 거요?" 임충이 물었다. "정말로 나를 잡으려는 것인가?" 사내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당신을 잡아서 무엇 하겠소? 일단 안으로 들어갑시다.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지요." 사내가 손을 놓자 임충은 그를 따라갔다. 뒤편에 있는 수정(水亭)에 이르자, 사내는 주막지기에게 등불을 켜게 하고는 임충에게 예를 갖춘 뒤 맞은편에 앉았다. 사내가 물었다. "아까 형님께서는 양산박 가는 길을 물으며 배를 구하려 하시던데, 그곳은 강도들의 산채입니다. 거기에는 무엇 하러 가시려는 겁니까?" 임충이 대답했다. "사실을 숨기지 않겠소. 지금 관가에서 나를 추격하는 상황이 워낙 긴박하여 몸을 의탁할 곳이 없소. 그래서 그 산채의 호걸들에게 입단하여 일원이 되고자 가는 것이오." 사내가 말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 형님을 추천해 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충이 말했다. "창주 횡해군의 옛 친구가 추천해 주었소." 사내가 물었다. "혹시 '소선풍' 시진 대인이십니까?" 임충이 놀라 물었다. "그대가 어찌 그것을 아는가?" 사내가 대답했다. "시 대인께서는 산채의 두령님과 친분이 두터워 자주 서신을 주고받으십니다." 알고 보니, 왕륜이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을 때 두천과 함께 시진에게 의탁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시진이 그들을 자기 장원에 머물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떠날 때 여비까지 챙겨주어 큰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다. 임충은 이 말을 듣고 정중히 절하며 말했다. "내가 눈이 있어도 태산을 알아보지 못했구려. 그대의 성함이라도 알려주시오." 사내는 황급히 답례하며 말했다. "소인은 왕 두령님의 수하이자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자로, 성은 주(朱), 이름은 귀(貴)라 합니다. 본래 기주(沂州) 기수현(沂水縣) 사람인데, 강호에서는 저를 '한지홀률(旱地忽律)'이라 부릅니다. 산채의 명을 받아 이곳에서 주막을

운영하며 오가는 상인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자가 나타나면 즉시 산채에 보고하곤 하지요. 다만 혼자 온 손님 중 재물이 없는 자는 그냥 보내주지만, 재물이 있는 자가 오면 가볍게는 몽한약(蒙汗藥)을 먹여 혼절시키고, 심하면 그 자리에서 죽인 다음 살코기는 잘라 육포(羓子)를 만들고 비계는 기름을 짜서 등불을 밝히는 데 씁니다. 아까 형님께서 양산박 길을 물으실 때는 감히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벽에 성함이 적힌 것을 보았습니다. 전에 도성에서 온 사람이 형님의 호걸다운 면모를 전해준 적이 있는데, 뜻밖에 오늘 이렇게 뵙게 되었군요. 게다가 시 대인께서 서신으로 추천까지 하셨으니, 형님의 명성이 천하에 자자한 만큼 왕 두령님께서도 분명 형님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말을 마친 주귀는 즉시 생선과 고기, 여러 가지 안주와 술을 차려 대접했다. 두 사람은 수정(水亭) 위에서 밤늦도록 술을 마셨다. 임충이 물었다. "어떻게 해야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겠는가?" 주귀가 말했다. "이곳에는 배가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우선 오늘 밤은 여기서 묵으시고, 오경(五更)에 일어나시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각자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다.

새벽 다섯 시쯤 되자 주귀가 임충을 깨웠다. 임충이 세수를 마치고 나오자, 주귀는 다시 술 몇 잔을 내오고 고기 안주 같은 것을 차려 대접했다. 아직 날이 밝기 전이라 주귀는 정자의 창문을 열더니, 까치 그림이 그려진 활을 꺼내 들고 향전(響箭, 소리가 나는 화살) 하나를 메워 맞은편 항구의 갈대밭을 겨냥해 쏘았다. 임충이 물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주귀가 대답했다.

"이것은 산채에 보내는 신호 화살입니다. 곧 배가 올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맞은편 갈대밭에서 졸개 서너 명이 빠른 배 한 척을 저어 오더니 곧장 정자 아래로 다가왔다. 주귀는 임충을 안내하여 칼과 짐을 챙겨 배에 실었다. 졸개들은 배를 저어 항구를 떠나 금사탄으로 향했다. 임충은 그 광경을 보며, 팔백 리에 달하는 양산박의 물길이 과연 사람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곳임을 실감했다. 그 모습은 이러했다.

산은 큰 파도처럼 솟구치고, 물은 아득한 하늘과 맞닿아 있네. 어지러운 갈대밭에는 만 부대의 칼과 창이 모인 듯하고, 기괴한 나무들은 천 겹의 검과 극처럼 늘어서 있구나. 해자 가의 거마목(鹿角)은 모두 해골을 모아 만들었고, 산채 안의 사발과 바가지는 모두 해골로 만들어 썼도다. 사람 가죽을 벗겨 군고(軍鼓)를 씌우고, 머리카락을 잘라 고삐로 삼았으니, 관군을 막아서는 곳마다 끝없이 막다른 물길과 길목이 펼쳐져 있고, 도적을 막아서는 곳마다 수많은 끊어진 길과 우거진 숲이 가로막고 있네. 조약돌은 산처럼 겹겹이 쌓여 있고, 고죽(苦竹)으로 만든 창은 빗줄기처럼 빽빽하구나. 단금정 위에는 근심 어린 구름이 피어오르고, 취의청 앞에는 살기가 감도도다.

그때 졸개들이 배를 저어 금사탄 기슭에 닿자, 주귀와 임충이 함께 땅으로 올라왔다. 졸개들이 짐 꾸러미와 칼, 지팡이를 챙겨 들자 두 호걸은 산채로 향했다. 졸개들은 배를 저어 작은 항구로 돌아갔다. 임충이 기슭을 살펴보니, 양옆으로 사람의 품에 다 안기지 않을 만큼 거대한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고, 산 중턱에는 단금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시 길을 따라 꺾어 들어가니 커다란 관문이 나타났는데, 관문 앞에는

창, 칼, 검, 극, 활, 노, 과, 모 같은 무기들이 늘어서 있었고 사방에는 돌을 쏘아 올리는 대포와 투석기가 배치되어 있었다. 졸개가 먼저 가서 보고를 올렸다. 두 사람이 관문 안으로 들어서자, 길 양옆으로 군대의 깃발들이 빼곡히 세워져 있었다. 또 다른 관문 두 곳을 지나서야 비로소 산채 정문에 다다랐다. 임충이 보니 사방은 높은 산이 삼중의 관문과 함께 웅장하게 둘러싸고 있었고, 그 가운데는 거울처럼 평평한 벌판이 삼오백 장(丈)가량 펼쳐져 있었다. 산 입구 쪽으로 가니 그곳이 바로 정문이었으며, 양옆에는 행랑채가 늘어서 있었다.

주귀는 임충을 데리고 취의청으로 향했다. 그곳 중앙 교의에는 한 호걸이 앉아 있었으니, 바로 '백의수사' 왕륜이었다. 왼쪽 교의에는 '모착천' 두천이, 오른쪽 교의에는 '운리금강' 송만이 앉아 있었다. 주귀와 임충이 앞으로 나아가 예를 갖추어 인사했다. 임충이 주귀의 곁에 서자 주귀가 말했다.

"이분은 동경(東京)의 80만 금군 교두였던 임충이라는 분입니다. 별호는 '표자두'라고 합니다. 고 태위의 모함으로 창주로 유배되었는데, 그곳에서 또 대군의 초료장(草料場)이 불에 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세 사람을 죽이게 되어 시 대관인의 장원으로 피신하셨고, 그곳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시 대관인께서 특별히 서신을 써서 이분을 산채의 일원으로 추천하신 것입니다."

임충이 품속에서 서신을 꺼내 건네자, 왕륜은 그것을 받아 펼쳐 보았다. 그러고는 임충에게 네 번째 교의에 앉으라고 청했고, 주귀는 다섯 번째 자리에 앉았다. 왕륜은 졸개를 불러 술을 가져오게 한 뒤 세 차

례나 술을 돌리며, 시 대관인이 요즈음 별일 없이 잘 지내는지 물었다. 임충이 대답했다.

"매일 그저 교외에서 사냥을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왕륜이 한참 동안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던 중, 문득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과거에 낙방한 일개 수재(秀才)일 뿐인데, 분한 마음을 품고 두천과 함께 이곳에 와 도적이 되었다. 그 뒤로 송만이 뒤따라오면서 이토록 많은 인원과 병력을 모으게 된 것이다. 그런데 나는 별다른 재주가 없고, 두천과 송만도 무예가 그저 평범한 수준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인물까지 더해졌으니, 그는 도성의 금군 교두였으니 필시 무예가 뛰어날 것이다. 만약 그가 우리의 수법을 알아차리기라도 한다면, 그가 기세를 잡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맞서 싸운단 말인가? 차라리 트집을 잡고 핑계를 대어 산 아래로 돌려보내는 편이 후환을 없애는 길이다. 다만 시진의 체면이 깎이고, 지난날의 은혜를 저버리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지금은 그것까지 돌볼 처지가 아니로다.'

시로 이르되,

호기로운 기운이 같지 않으니 어찌 서로를 찾겠는가,
설령 영웅을 만난다 해도 붙잡아 두지 않으리라.
선비들은 본래 질투가 많으니,
임충은 헛되이 공을 세우길 탄식할 뿐이네.

왕륜은 즉시 졸들을 시켜 술과 음식을 준비하고 연회를 정돈하게 한 뒤, 임충을 자리에 앉혔다. 호걸들은 다 함께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무르익어 갈 때쯤, 왕륜은 졸을 불러 쟁반 하나를 내오게 했는데, 그 위에는 은 50냥과 저사(紵絲, 명주와 비슷한 비단) 두 필이 놓여 있었다. 왕륜이 일어나 말했다.

"시진 대관인이 교두님을 추천하여 우리 산채에 입산하게 하려 하나, 안타깝게도 우리 산채는 식량이 부족하고 가옥도 정돈되지 않았으며 일손도 적습니다. 혹여 나중에 귀하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면 체면이 서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약소한 선물이니 부디 너그럽게 받아 주십시오. 다른 큰 산채를 찾아 몸을 의탁하고 말을 쉴 곳을 찾으시되, 부디 언짢게 여기지는 마십시오."

임충이 대답했다.

"세 분 두령님께 답하겠습니다. 소인은 '천 리를 달려 이름을 알리고, 만 리를 달려 주인을 모신다'는 마음으로, 시진 대관인의 면목을 믿고 곧장 이 산채에 들어오려 한 것입니다. 임충이 비록 재주는 부족하나 부디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죽음으로써 보답할 뿐 아첨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 이것은 제 평생의 행운입니다. 결코 은자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니 두령님들께서는 부디 살펴 주십시오."

왕륜이 말했다.

"여기는 작은 곳이라 어찌 귀하를 모실 수 있겠습니까? 부디 허물치 마십시오, 허물치 마십시오."

이를 지켜보던 주귀가 나서서 간언했다.

"형님, 아우가 말이 많다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산채에 식량이 적다 해도 인근 마을과 고을에서 빌려올 수 있습니다. 산과 물가에는 재목이 널려 있으니, 방 천 칸을 짓는다 해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이분은 시진 대관인이 힘써 추천한 분인데 어찌 다른 곳으로 가라 하십니까? 게다가 시진 대관인은 예부터 우리 산채에 은혜를 베풀어 왔으니, 나중에 우리가 이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분명 좋지 않게 보실 것입니다. 또한 이분은 재주가 있는 분이니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보태줄 것입니다."

두천도 거들었다.

"산채에서 그 한 사람 받아들이는 것이 무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형님께서 거두어 주지 않으시면 시진 대관인이 알게 되었을 때 분명 노하실 것이고, 우리를 배은망덕한 자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는데, 오늘 사람을 추천해 왔다고 하여 이렇게 거절하며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송만 역시 권했다.

"시진 대관인의 면목을 생각해서라도, 이곳에서 두령 중 한 명으로 지내게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의리가 없다는 소문이 나 강호의 호걸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왕륜이 말했다.

"형제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저 사람이 창주에서 하늘에 닿는 큰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오늘 산에 올라왔으나 그 속내가 어떠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실정을 살피러 온 것이라면 어찌하겠습니까?"

임충이 말했다.

"소인은 이 한 몸으로 죽을 죄를 지었기에 이곳에 들어오려는 것인데, 어찌 의심을 하십니까?"

왕륜이 말했다.

"정 그렇다면, 진심으로 입산하고 싶다면 '투명장(投名狀)'을 가져오시오."

임충이 말했다.

"소인이 글자 몇 자는 쓸 줄 아니, 종이와 붓을 가져다주시면 바로 쓰겠습니다."

주귀가 웃으며 말했다.

"교두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호걸들이 입산할 때 내는 투명장이란, 산 아래로 내려가 사람 하나를 죽여 그 머리를 바침으로써 의심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바로 투명장이라 합니다."

임충이 말했다.

"그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임충이 즉시 산 아래로 내려가 기다리겠습니다만, 다만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까 걱정입니다."

왕륜이 말했다.

"사흘의 기한을 주겠소. 만약 사흘 안에 투명장을 가져오면 입산을 허락하겠으나, 만약 사흘 안에 가져오지 못한다면 부디 허물치 마시오."

임충은 응낙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으나, 마음이 답답하여 가라앉지 않았다. 실로 이러하니,

답답한 시름은 가슴에 맺혀 좀처럼 풀기 어려운데,
왕륜이 너무 약삭빠르게 잔꾀를 부린 것이 한스럽구나.
내일 아침 일찍 산길로 떠나려 하나,
누가 제 목을 바치러 와줄지 알 수 없도다.

그날 밤 연회가 끝나자, 주귀는 작별 인사를 나누고 산을 내려가 다시 주막을 지키러 갔다.

임충은 저녁이 되자 칼과 짐을 챙겼고, 졸이 그를 객실로 안내하여 하룻밤을 묵게 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히 차와 밥을 먹은 뒤, 허리춤에는 요도를 차고 손에는 박도를 들었다. 그리고 졸 한 명에게 길을 안내하게 하여 산을 내려간 뒤, 배를 타고 강을 건너 한적한 길목에서 손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기다렸으나, 홀로 지나가는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임충은 마음이 답답

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결국 졸과 함께 다시 배를 타고 돌아와 산채로 들어갔다.

왕륜이 물었다.

"투명장은 가져왔는가?"

임충이 대답했다.

"오늘은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왕륜이 말했다.

"내일도 투명장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더는 이곳에 머물기 어려울 것이오."

임충은 더는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이 괴로워 방으로 돌아와 밥을 좀 먹고 다시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임충은 졸과 함께 아침을 먹고 박도를 챙겨 다시 산을 내려왔다. 졸이 말했다.

"오늘은 남산 길로 가서 기다려 봅시다."

두 사람이 숲속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으나, 지나가는 손님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매복해 기다리니 오시(午時, 낮 11시~오후 1시)쯤 되어 손님 무리가 약 삼백 명쯤 되어 떼를 지어 지나갔다. 임충은 차마 손을 쓸 엄두를 내지 못한 채 그들이 지나가기만을 지켜보았

다. 다시 한참을 기다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가는데, 역시나 홀로 지나가는 손님은 없었다. 임충이 졸에게 말했다.

"내가 어찌 이리 운이 없는지 모르겠구나. 이틀이나 기다렸는데 홀로 지나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졸이 말했다.

"형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내일이라는 하루가 더 남지 않았습니까. 내일은 저와 함께 동산 길로 가서 기다려 보시지요."

그날 밤 임충은 여느 때처럼 산으로 올라갔다. 왕륜이 물었다.

"오늘 투명장은 어떻게 되었는가?"

임충은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한숨만 내쉬었다. 왕륜이 웃으며 말했다.

"보아하니 오늘도 못 가져온 모양이군. 내가 삼일의 기한을 주었다고 했는데 벌써 이틀이 지났네. 만약 내일도 가져오지 못한다면 더는 얼굴을 볼 필요도 없으니, 그만 산을 내려가 다른 곳을 찾아보게나."

임충은 방으로 돌아왔으나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마침 《임강선》이라는 사(詞)에 이르기를,

답답함은 바다를 떠난 교룡 같고, 근심은 거친 들판에 갇힌 호랑이와 같으니, 가을을 슬퍼하는 송옥의 눈물은 끊임없이 흐르네.

강엄은 (꿈에) 처음 붓을 잃었고, 항우는 (오강에서) 배가 없음을 한탄하네. 한 고조는 형양에서 곤경에 처했으며, 소관에서는 오자서(伍相)가 근심에 속을 태웠네. 조공(조조)은 적벽에서 하늘에 닿는 불길을 만났고, 이릉은 누대 위에서 (고향을) 바라보며, 소무는 거연(居延)에 갇혀 고초를 겪었네.

그날 밤 임충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길게 탄식했다. "고구 그 도적놈에게 모함을 받아 여기까지 떠돌게 되다니, 천지도 나를 용납하지 않는구나. 어찌 이리도 운수가 사납단 말인가!"

밤을 지새우고 다음 날 날이 밝자, 임충은 끼니를 챙겨 먹은 뒤 보따리를 묶어 방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허리에는 도를 차고 손에는 박도를 든 채, 하인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와 나룻터를 건너 동산 길로 향했다. 임충이 말했다. "오늘까지도 투명장을 얻지 못한다면, 다른 곳을 찾아 떠돌며 살 수밖에 없겠구나."

두 사람은 산 아래 동쪽 길목 숲속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으나,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도 지나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때마침 잔설이 막 개고 햇살이 밝고 맑았다. 임충은 박도를 든 채 졸에게 말했다. "보아하니 오늘도 허탕이구나. 해가 저물기 전에 서둘러 짐을 챙겨서 다른 곳으로 떠나 거처를 찾아봐야겠다."

졸이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잘됐습니다! 저기 사람이 한 명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임충이 살펴보고는 외쳤다. "참 다행이로다!"

멀리 산비탈 아래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임충은 박도를 한 번 휘둘러 위협하더니, 냅다 뛰쳐나갔다. 그 사내는 임충을 보고는 "아이쿠!" 하고 비명을 지르더니, 짐을 내팽개치고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임충이 뒤쫓았으나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고, 그 사내는 산비탈 너머로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임충이 말했다. "보아라, 내 팔자가 어찌 이리도 기구하단 말이냐! 사흘을 기다린 끝에 겨우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또 놓쳐버렸으니 말이다."

졸이 말했다. "사람은 못 죽였어도 저 짐 속의 재물은 그 값을 대신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임충이 말했다. "너는 먼저 저 짐을 메고 산으로 올라가 있거라. 나는 조금 더 기다려 보마."

졸은 우선 짐을 짊어지고 숲을 빠져나갔다.

산비탈 아래에서 웬 거구의 사내가 나타났다. 임충은 그를 보자마자 말했다. "하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 사내는 박도를 곧게 세워 들고는 천둥 같은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 고약한 도적놈들아! 죽여도 죽지 않는 강도 놈들이 내 짐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내가 바로 너희 같은 놈들을 잡으러 가는 길인데, 도리어 호랑이 수염을 뽑으려 드는구나!"

그러고는 마치 날아갈 듯이 기세 좋게 달려들었다. 임충은 상대의 기세가 워낙 맹렬한 것을 보고, 자신 또한 발을 놀려 맞서 나갔다.

이 사내가 임충과 맞붙게 됨으로써, 양산박에는 바람을 휘젓는 흰 이마의 큰 벌레 같은 용맹한 장수들이 몇 명 더 늘어나게 되고, 수호채에는 계곡을 뛰어넘는 금빛 눈부신 맹수들이 몇 마리 더 모여들게 될 터였다. 결국 임충과 싸우게 된 자가 과연 누구인지, 그 이야기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2회 — 양산박 임충이 초야로 숨어들고, 변경성 양지가 칼을 팔다

梁山泊林沖落草 汴京城楊志賣刀

이야기는 이러하다. 임충이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니, 그 사내의 차림새가 이러했다. 머리에는 한 줌의 붉은 술이 달린 범양 전립(范陽氈笠)을 쓰고, 흰 비단으로 만든 정삼(征衫, 군복)을 입고 세로줄 무늬의 띠를 맸으며, 아래에는 청백색 줄무늬가 섞인 행전(行纏, 다리에 감는 천)을 두르고 바지 끝을 움켜쥔 채 노루 가죽 양말과 털 달린 소가죽 장화를 신고 있었다. 허리에는 요도를 차고 손에는 박도를 들었는데, 키는 칠 척 오~육 촌(약 230cm 남짓)에 이르는 거구였고, 얼굴에는 커다란 푸른 반점이 하나 박혀 있었으며 뺨 가에는 붉은 수염이 살짝 드러나 있었다. 사내는 전립을 등 뒤로 젖혀 쓰고 가슴을 쫙 편 채, 양 끝을 뿔처럼 묶어 올린 부드러운 두건(抓角兒軟頭巾)을 두르고 박도를 치켜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 고약한 도둑놈아! 내 짐과 재물을 어디로 빼돌렸느냐!"

임충은 기분이 몹시 상한 상태라 대답할 겨를도 없이, 눈을 부릅뜨고 호랑이 수염을 바짝 세우며 박도를 휘두르고 달려들어 그 사내와 맞붙었다. 이때 마침 잔설이 막 그치고 옅은 구름이 막 흩어진 참이라, 시냇가에는 차가운 얼음이 한 조각 깔려 있었고 강둑에는 두 줄기 살기가 솟구쳐 오갔다. 두 사람은 서른 합 남짓을 싸웠으나 좀처럼 승부가 가려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다시 십여 합을 더 싸웠다. 한창 승부를 겨루고 있을 때, 산 높은 곳에서 누군가 외쳤다.

"두 호걸께서는 그만 싸움을 멈추시오!"

임충은 그 소리를 듣고 번쩍 몸을 날려 싸움터 밖으로 물러났다. 두 사람 모두 손에 든 박도를 거두고 산꼭대기를 올려다보니, '백의수사' 왕륜과 두천, 송만, 그리고 여러 졸개들이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배를 가져와 강을 건너온 뒤 말했다.

"두 호걸의 박도 솜씨가 정말 대단하구려! 귀신이 곡할 노릇처럼 움직이니 말이오. 이쪽은 내 형제인 '표자두' 임충이라오. 푸른 얼굴을 한 사내여, 그대는 누구시오? 부디 성명을 밝혀주시오."

그러자 사내가 대답했다.

"나는 대대로 장수 집안의 후손이자 오후 양령공의 손자인 양지라고 하오. 성은 양이고 이름은 지요. 지금은 이곳 관서 땅을 떠돌고 있소. 어릴 때 무과에 급제하여 전사제사(殿司制使)라는 관직까지 지냈었지. 도군(道君)께서 만세산을 장식하기 위해 열 명의 제사를 태호 근처로

보내 화석강을 운반하게 하여 도성으로 가져오게 했소. 그런데 운이 나쁘게도 내가 화석강을 압송하다 황하에서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화석강을 모두 잃고 말았소. 도성으로 돌아가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이곳으로 도망쳐 몸을 피하던 중이었지. 이제 죄를 사면받았으니, 나는 지금 챙겨둔 돈과 물건들을 가지고 동경으로 돌아가 추밀원에서 일을 처리한 뒤 내 앞가림을 하려 하오. 이곳을 지나가다 일꾼에게 짐을 메게 하려 했는데, 뜻밖에도 당신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으니, 내 물건을 어떻게 돌려줄 생각이오?"

왕륜이 물었다.

"혹시 별호가 '청면수'인 그 사람이오?"

양지가 말했다.

"그렇소."

왕륜이 말했다.

"양 제사님이라니, 그렇다면 우리 산채로 가서 술이라도 세 잔 나누며 짐을 돌려받는 게 어떻겠소?"

양지가 말했다.

"호걸께서 나를 알아봐 주시니, 내 짐을 돌려주신다면 술을 대접받는 것이 더욱 좋겠소."

왕륜이 말했다.

"제사님, 실은 제가 몇 년 전 도성에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제사님의 명성을 익히 들었었소. 오늘 이렇게 뵙게 되었는데 어찌 그냥 보내드린단 말이오! 다른 뜻은 없으니, 일단 우리 산채로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십시다."

양지는 그 말을 듣고 왕륜 일행을 따라 강을 건너 산채로 올라갔다. 그는 주귀에게도 산채로 올라와 함께 만나자고 일렀고, 모두 산채 안의 취의청(聚義廳, 의리를 모으는 대청)으로 모였다. 왼쪽에는 왕륜, 두천, 송만, 주귀가 교차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오른쪽에는 위쪽에 양지, 아래쪽에 임충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왕륜은 양을 잡아 술을 준비하게 하고 연회를 베풀어 양지를 정성껏 대접하였으니, 그 대접이 말할 수 없이 극진하였다.

이야기는 이와 같다. 술이 몇 잔 오가자 왕륜은 속으로 생각했다.

'임충을 붙잡아 두려 한다가는 우리 형편이 형편없다는 것만 드러낼 뿐이니, 차라리 내가 인심을 써서 양지를 붙잡아 임충의 적수로 삼는 편이 낫겠다.'

그러고는 임충을 가리키며 양지에게 말했다.

"이 형제는 동경 80만 금군(禁軍, 황실 호위군)의 교두 출신으로, '표자두' 임충이라 부른다오. 저 고구 태위라는 자가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 임충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창주로 유배를 보냈는데 거기서 또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이제 막 이곳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라오. 제사님께서 이제 막 동경으로 돌아가 일을 처리하려 하시니, 왕륜인 내가 제사님을 붙잡아 두려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문관의 길을 버리고 무인이 되어

이곳에 산적질을 하러 온 것이오. 제사님 또한 죄를 지었던 몸이라 비록 사면을 받았다 하나 예전 직무로 복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오. 게다가 지금 고구가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가 어찌 당신을 용납하겠소? 차라리 우리 작은 산채에서 말도 쉬고, 금은보화도 넉넉히 나누며, 큰 사발에 술과 고기를 먹으며 함께 호걸로 지내는 게 어떻겠소? 제사님의 생각은 어떠시오?"

양지가 대답했다.

"여러 두령께서 이토록 잘 대접해 주시니 정말 고맙소. 다만 내게는 동경에 살고 있는 가족이 하나 있소. 지난번 관직 문제로 그들에게 큰 폐를 끼치고도 아직 보답을 하지 못했기에, 오늘 그곳으로 한번 가보려 하오. 그러니 부디 여러 두령께서는 내 짐을 돌려주기를 바라오. 만약 돌려줄 수 없다면 양지 또한 빈손으로 떠나겠소."

왕륜이 웃으며 말했다.

"제사님께서 이곳에 머물기 싫으시다면 어찌 감히 억지로 입단시키겠소? 그러니 우선 마음 편히 하룻밤 묵어가시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시오."

양지는 크게 기뻐했다. 그날은 밤이 깊어 일경(一更, 초저녁 7시~9시 사이)이 되어서야 술자리가 끝나고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다시 술을 차려 양지의 배웅을 하였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여러 두령이 졸개 하나를 불러 어젯밤의 짐을 짊어지게 하고는 다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 길목에서 양지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이어 졸개를 시켜 강을 건너게 하여 양지를 큰길까지 배웅하게 하였다. 사람들이 작별한 뒤 각자 산채로 돌아갔다. 왕륜은 이때부터야 비로소 임충을 네 번째 자리에 앉히고, 주귀를 다섯 번째 자리에 앉혔다. 이후 다섯 호걸이 양산박에서 도적질을 하며 활약한 이야기는 이러하다.

한편 양지는 큰길로 나와 시골 일꾼(莊家) 하나를 찾아 짐을 메게 한 뒤, 졸개를 산채로 돌려보냈다. 양지가 길을 떠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동경에 도착했다. 성 안으로 들어온 양지는 객주를 찾아 하룻밤 묵기로 했다. 짐을 메 주었던 시골 일꾼(莊客)은 짐을 돌려주었고, 양지는 은자 몇 푼을 쥐여준 뒤 돌려보냈다. 양지는 객주에 짐을 내려놓고 허리춤의 요도와 박도를 풀어 놓은 뒤, 점소이에게 은자 몇 푼을 주어 술과 고기를 좀 사 오라고 시켰다.

며칠이 지나, 심부름꾼들이 추밀원(樞密院)에 가서 뒷돈을 써가며 일을 처리했다. 그들은 짐 속에 들어있던 금은보화를 꺼내 윗사람들에게 뇌물로 바치며, 양지를 다시 전사제사(殿司府制使) 직역으로 복직시켜 달라고 청탁했다. 온갖 물건을 쏟아부어 써버린 뒤에야 겨우 상소문을 받아낼 수 있었고, 그 문서를 들고 전수(殿帥) 고구를 찾아갔다. 대청 앞에 이르자 고구는 양지의 과거 경력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크게 노하며 말했다. "너희 제사(制使) 열 명 중 아홉 명은 화석강 운송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경사로 돌아와 보고를 마쳤는데, 어찌하여 너만 화석강을 잃어버리고 도망쳤단 말이냐! 그동안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더니, 이제 와서 다시 뇌물을 써서 자리를 구걸하다니. 비록 사면을 받아

죄명은 면했다 하나, 너 같은 자를 다시 써줄 수는 없다!" 고구는 서류를 모조리 반려해 버리고는 양지를 전수부 밖으로 쫓아버렸다.

양지는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가눌 길 없이 객주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다. '왕륜이 권유했을 때 따랐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내 이름석 자가 깨끗한데,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이 몸(父母遺體)을 더럽힐 수는 없었다. 그동안 익힌 무예를 바탕으로 변방에서 창과 칼을 휘두르며 공을 세워, 처자식에게 봉작과 음서(封妻蔭子)를 안기고 조상님들께도 면목을 세워보려 했는데, 결국 또 이렇게 한바탕 뒤통수를 맞고 말았구나. 고구 태위, 당신은 어찌 이리도 독하고 각박하단 말이오!' 양지는 마음속으로 한참을 괴로워했다. 객주에서 며칠을 더 머물렀으나, 어느덧 여비마저 바닥나고 말았다.

시로 이르되,

화석강에는 본래 기강(법도)이 없었으니, 간사한 무리가 끝내 충직한 이들을 괴롭혔네.
조정의 권세가 이토록 무거울 줄 일찍 알았더라면, 차라리 산림에 모여 의(義)를 맺는 편이 오래도록 나았으리.

양지는 생각했다. '상황이 이토록 막막하니 어쩌겠는가? 조상님이 남겨주신 이 보도(寶刀) 하나가 줄곧 나를 따라다녔는데, 지금은 일이 급해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이것이라도 저잣거리에 내다 팔아 천백 관(千百貫)의 돈을 마련해야겠다. 그래야 여비를 챙겨 다른 곳으로 떠나 몸을 의탁할 수 있을 테니.'

그날 양지는 보도에 매매를 알리는 풀 표식(草標)을 꽂아 시장으로 향했다. 마행가(馬行街) 안에서 두 시진(약 4시간) 동안 서성였으나, 물건을 묻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정오 무렵이 되어서야 그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천한주교(天漢州橋) 쪽으로 자리를 옮겨 물건을 팔기 시작했다. 양지가 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길 양옆의 사람들이 모두 강가 골목 안으로 급히 몸을 숨기는 것이 아닌가. 양지가 살펴보니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외치고 있었다.

"어서 피하시오! 호랑이(大蟲)가 나타났소!"

양지가 말했다. "괴이한 일이로다! 이렇게 비단처럼 번화한 성안에 어찌 호랑이가 나타난단 말인가!"

그가 제자리에 서서 살펴보니, 멀리서 검고 험상궂게 생긴 거구의 사내 하나가 술에 반쯤 취해 비틀거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양지가 그를 보니 생김새가 매우 거칠고 투박했다.

그 모습이 이러하였다. 얼굴은 어렴풋이 귀신을 닮은 듯하고, 몸집은 어찌 보면 사람 같았다. 가지가 어긋난 괴이한 나무가 옹이진 형해(形骸)로 변한 듯하고, 썩어 문드러진 나무 기둥이 더러운 망량(魍魎, 도깨비)으로 화한 듯했다. 온몸에는 거칠고 우둘투둘한 상어 가죽(沙魚皮) 같은 살결이 돋아 있었고, 머리부터 정수리까지는 빼곡하게 말려 올라간 소라 모양의 곱슬머리(捲螺髮)가 가득했다. 가슴 앞에는 단단하고 질긴 가죽 한 장이 붙은 듯했고, 이마에는 세 줄기 억센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다.

알고 보니 이 자는 동경에서 악명 높은 건달이자 난봉꾼으로, 이름은 몰모대충(沒毛大蟲) 우이(牛二)라 했다. 그는 주로 저잣거리에서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휘두르며 난동을 피우는 자였다. 그가 일으킨 소송이 워낙 많아 개봉부에서도 그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정도였으니, 성안 사람들은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모두 피해 다니곤 했다.

한편, 우이가 양지의 앞까지 달려오더니 손을 뻗어 그 보도를 낚아채듯 움켜쥐고는 물었다.

"이보게, 이 칼은 얼마에 팔 건가?"

양지가 대답했다.

"조상님께 물려받은 보도라, 삼천 관은 받아야겠소."

그러자 우이가 호통을 쳤다.

"무슨 얼토당토않은 칼이라고 이리 비싸게 부른단 말이냐! 내가 서른 푼이면 한 자루를 사서 고기도 썰고 두부도 썰 텐데, 네놈의 그따위 칼이 대체 뭐가 좋길래 보도라고 떠드는 게냐!"

양지가 말했다.

"내 물건은 시장에서 파는 흔한 무쇠 칼 따위와는 다르오. 이건 진짜 보도란 말이오."

우이가 비아냥거렸다.

"그게 어째서 보도라는 거냐?"

양지가 대답했다.

"첫째는 구리나 철을 내리쳐도 칼날이 휘지 않고, 둘째는 털을 스치듯 날카로우며, 셋째는 사람을 베어도 칼날에 피가 묻지 않기 때문이오."

우이가 되물었다.

"그럼 네놈, 이 칼로 엽전이라도 내리쳐 볼 수 있겠느냐?"

양지가 말했다.

"당장 네놈 눈앞에서 내리쳐 보리라."

우이는 즉시 주교(州橋) 아래에 있는 향초 가게로 달려가 당삼전(當三錢: 한 닢이 3문에 해당하는 동전) 스무 닢을 얻어 와, 그것을 한 무더기로 쌓아 주교 난간 위에 올려두며 양지에게 말했다.

"이보게, 만약 네놈이 정말로 저걸 쪼갤 수 있다면 내가 삼천 관을 주마."

그때 구경하던 사람들은 감히 가까이 다가오지는 못하고 멀찍이 둘러서서 지켜보았다. 양지가 말했다.

"이게 무엇이 어렵다고 그러시오?"

양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칼을 손에 쥔 채 자세를 잡더니, 단칼에 동전을 쪼개 두 쪽으로 만들어 버렸다. 구경꾼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우이가 말했다.

"환호하긴 뭐가 환호해!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지나 말해 보라고!"

양지가 대답했다.

"두 번째는 '취모득과(吹毛得過)'요. 머리카락 몇 가닥을 칼날에 대고 입으로 불기만 해도 모두 깨끗하게 잘려 나갈 것이오."

우이가 말했다.

"못 믿겠구나."

그러더니 제 머리에서 머리카락 한 움큼을 뽑아 양지에게 건네며 말했다.

"자, 불어서 보여 보라고!"

양지는 왼손으로 머리카락을 받아 칼날에 대고 온 힘을 다해 입바람을 불었다. 그러자 머리카락이 두 토막으로 나뉘며 힘없이 땅으로 흩날렸다. 구경꾼들이 다시 환호성을 터뜨렸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더욱 늘어났다. 우이가 또 물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양지가 말했다.

"사람을 베어도 칼날에 피가 묻지 않는 것이오."

우이가 되물었다.

"사람을 베는데 어째서 피가 묻지 않는단 말이냐?"

양지가 대답했다.

"사람을 단칼에 베어도 피 한 점 묻지 않으니, 그저 빠르고 예리할 뿐이오."

우이가 말했다.

"믿을 수 없다. 네놈이 직접 사람을 한 명 베어 보여라!"

양지가 말했다.

"황성(禁城) 안에서 어찌 감히 사람을 죽인단 말이오? 정 못 믿겠다면 개 한 마리를 끌고 오시오, 베어 보여 드리리다."

우이가 대꾸했다.

"사람을 죽인다고 했지, 개를 죽인다고는 안 하지 않았느냐!"

양지가 말했다.

"살 마음이 없으면 관두면 그만이지, 왜 자꾸 사람을 괴롭히는 게냐?"

우이가 말했다.

"어디 한번 그 칼을 이리 내놔 봐라."

양지가 쏘아붙였다.

"너 자꾸 당치 않은 짓만 하는구나. 나는 네놈이 함부로 건드릴 사람이 아니다!"

우이가 말했다.

"네놈, 감히 나를 죽이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양지가 말했다.

"나는 네놈과 예전에 원한을 맺은 적도 없고, 원수진 일도 없다. 거래 하나가 성사되지 않은들 그뿐이지, 까닭 없이 너를 죽일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우이가 양지를 꽉 붙들고 말했다.

"나는 기어코 네놈의 이 칼을 사야겠다!"

양지가 말했다.

"살 마음이 있으면 돈을 내놓으시오."

우이가 대꾸했다.

"돈은 없다!"

양지가 말했다.

"돈도 없으면서 왜 자꾸 나를 붙들고 난리냐?"

우이가 말했다.

"그래도 네놈의 이 칼을 가져가야겠다!"

양지가 말했다.

"절대 못 주오."

우이가 말했다.

"사내놈이라더니, 겁이 나서 그러느냐? 차라리 나를 단칼에 베어 보아라!"

양지는 크게 노하여 우이를 세게 밀쳐버렸다. 우이는 바닥을 뒹굴며 일어나더니, 다시 양지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양지가 소리쳤다.

"이웃 여러분, 다들 똑똑히 보시오! 양지는 여비 한 푼 없어서 이 칼을 팔려는데, 저 건달놈이 내 칼을 강제로 빼앗으려 들고는 나를 때리기까지 하지 않소!"

이웃 사람들은 모두 우이를 무서워했기에, 감히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다. 우이가 호통을 쳤다.

"내가 너를 때렸다고 말하면, 어쩔 셈이냐? 죽이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말을 마친 우이가 오른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양지는 잽싸게 몸을 피하더니, 칼을 쥐고 달려들었다. 순간 울컥 치밀어 오른 분노를 참지 못한 양지가 우이의 이마를 칼로 찔러버렸고, 우이는 바닥에 고꾸

라졌다. 양지는 달려들어 우이의 가슴팍을 두 번 더 찔렀다. 피가 땅바닥에 흥건하게 흘러, 우이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양지가 소리쳤다.

"내가 이 건달놈을 죽였다고 해서 어찌 여러분에게까지 해를 끼치겠소! 건달놈은 이미 죽었으니, 여러분은 모두 나와 함께 관아로 가서 자수합시다!"

이웃 사람들은 허둥지둥 모여들어 양지를 따라 곧장 개봉부로 가서 자수했다. 마침 부윤(府尹)이 대청에 앉아 집무를 보고 있을 때였다. 양지는 칼을 들고 그 동네 이웃 사람들과 함께 대청에 올라 모두 함께 무릎을 꿇고는, 칼을 제 앞에 내려놓았다.

양지가 고했다.

"소인은 본래 전사제사(殿司制使)였으나, 화석강(花石綱)을 잃은 일로 직위를 박탈당하고 여비 한 푼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을 길거리에서 팔려 했는데, 뜻밖에 저 건달 우이라는 놈이 제 칼을 강제로 빼앗고 주먹으로 저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순간 분노가 치밀어 그놈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모두 증인입니다."

이웃 사람들도 양지를 대신하여 이 일을 차례로 고하며 한바탕 변호해 주었다. 부윤이 말했다.

"스스로 찾아와 자수했으니, 이놈에게 가할 입문 매질(入門款打: 옥에 들어갈 때 가하는 殺威棒)은 면해주겠다."

그러고는 긴 칼(長枷, 죄인의 목에 씌우는 형구) 하나를 가져와 채우게 했다. 이어 두 명의 검상관(相官)을 차출해 검시관(仵作)과 그 조수(行人)를 데리고 가게 하여, 양지와 이웃 일행을 압송한 뒤 천한주교(天漢州橋) 근처의 현장으로 가서 시신을 검시하게 하고 조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진술서를 제출한 뒤, 보증을 세우고 풀려나 관아의 처분을 기다리며 대청의 판결을 듣게 되었다. 양지는 사형수 감옥(死囚牢)에 갇히게 되었다. 그 정경은 이러했다.

옥 안으로 끌어 들이고, 옥문 안으로 우르르 몰아넣는다.
황수염 절급(節級, 옥리)은 삼줄을 갖춰 매달고 동여매어 끌어올릴 채비를 하고,
검은 얼굴 압뢰(押牢, 옥지기)는 나무 상자에 옥쇄와 족쇄를 챙겨 둔다.
살위봉(殺威棒)은 옥졸이 휘두르다 끊을 때면 허리가 다 아파오고,
살자각(撒子角, 죄수에게 채우는 형구)은 죄수가 보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죽어 염라대왕을 만난다고 말하지 마라, 이곳이 바로 살아 있는 진짜 지옥이니.

한편, 양지는 사형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옥을 지키는 여러 옥졸(押牢禁子)과 절급(節級, 옥리)들은 양지가 악명 높은 몰모대충 우이를 죽였다는 말을 듣고는, 그가 사내다운 호걸이라 여겨 돈을 뜯어내려 하지 않고 도리어 잘 돌보아 주었다. 천한주교 일대의 사람들도 양지가 거리의 해악을 없애 주었다 여겨 조금씩 노자를 모으고 은전을 보태 그

에게 밥을 가져다주고, 위아래로 손을 써 줄 비용까지 대신 치러 주었다. 추사(推司, 심리 담당관) 또한 양지가 스스로 자수해 온(首身) 호걸이며, 동경 거리의 골칫덩이를 없앤 데다 우이 쪽에는 호소할 유족(苦主)도 없었으므로 공소장을 가볍게 고쳐 써 주었다. 여러 차례 문초한 끝에, 결국 양지는 순간적인 싸움 끝에 살상하여 사람의 목숨을 잘못 다친 '오상인명(誤傷人命)'으로 결론이 났다.

그렇게 예비 구금 기한인 60일이 지나자, 추사가 부윤에게 보고하여 양지를 대청 앞으로 끌어내게 했다. 목에 씌웠던 긴 칼(長枷)을 벗기고, 등에 척장(脊杖) 스무 대를 친 뒤, 글솜씨 있는 장인을 불러 얼굴에 두 줄로 금인(金印, 자자刺字)을 새기게 하고는, 양지를 북경 대명부 유수사(留守司)로 압송하여 충군(充軍)에 처하게 했다. 양지가 지녔던 그 보도는 관에서 몰수하여 창고에 넣었다.

관아에서는 곧 대청에서 공문(文牒)을 발부하고, 압송을 맡을 공인(防送公人) 두 명을 차출했는데 다름 아닌 장룡(張龍)과 조호(趙虎)였다. 양지의 목에는 일곱 근 반이나 나가는, 머리를 두르고 몸을 죄는 철엽 호신가(鐵葉子盤頭護身枷, 형구)를 못 박아 채웠다. 그러고는 두 공인에게 양지를 압송하여 길을 떠나라 일렀다.

천한주교 다리 아래의 부유한 집안사람들이 은과 물건을 조금씩 모아 양지가 오기를 기다렸다. 양지가 도착하자 그들은 두 관리와 함께 주막으로 가서 술과 음식을 대접한 뒤, 모은 은을 꺼내 두 관리에게 건네며 말했다. "양지는 백성의 해악을 없앤 참된 호걸입니다. 이제 북경으로 가는 길에 두 분께서 부디 잘 살펴서 그를 잘 보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장룡과 조호가 대답했다. "우리도 그가 호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양지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남은 은은 모두 양지의 여비로 건네주었다. 그 후 사람들은 각자 흩어졌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양지는 두 관리와 함께 원래 묵던 객점으로 가서 숙박비를 정산하고, 미리 맡겨두었던 옷가지와 짐을 챙겼다. 그러고는 술과 음식을 좀 준비하여 두 관리에게 대접한 뒤, 의원을 찾아가 매 맞은 상처에 바를 고약을 몇 개 사서 상처에 붙이고는 두 관리와 함께 길을 떠났다. 세 사람은 북경을 향해 나아갔는데, 5리마다 있는 단패(單牌)와 10리마다 있는 쌍패(雙牌)를 이정표 삼아 주와 현을 지날 때마다 술과 고기를 사서 장룡과 조호에게 대접하며 먹었다. 그렇게 길을 가며 밤에는 여관에서 묵고 새벽이면 다시 길을 나선 지 며칠 만에 북경에 도착했다. 성 안으로 들어간 그들은 적당한 객점을 찾아 자리를 잡았다.

본래 북경 대명부 유수사(留守司)는 말에 오르면 군사를 다스리고 말에서 내리면 백성을 다스리는 곳으로 그 권세가 매우 막강했다. 유수는 양중서라 불리는데, 휘(諱)는 세걸이며 동경 조정의 태사 채경의 사위였다. 때는 마침 2월 9일이었다. 유수가 집무실로 출근하자 두 관리가 양지를 데리고 유수사 청사 앞으로 가서 개봉부에서 발행한 공문을 올렸다. 양중서가 공문을 살펴보았다. 그는 원래 동경에 있을 때 양지를 알고 지낸 적이 있었기에, 양지를 보자마자 곧바로 그간의 사정을 자세히 물었다. 양지는 고태위가 복직을 허락하지 않아 재산을 다 쓰고 보도까지 팔아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우이를 죽게 된 실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고했다. 양중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바로 칼(枷)을 풀어주고는 양지를 청사 앞에 머물게 하며 부릴 일을 찾았다. 양중서는 처리 결과가 담긴 회답 문서에 결재하여 두 관리에게 건네주어 동경으로 돌아가게 했으니, 그 뒷이야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양지는 양중서의 저택에 머물며 아침저녁으로 지극정성으로 그의 수발을 들었다. 양중서는 양지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보고 그를 끌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매달 한 몫의 봉급(一分請受)을 받는 군중 부패(副牌) 자리에 앉히고자 했다. 다만 다른 장수들이 승복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군정사(軍政司)를 통해 모든 장수와 병사들에게 명을 내려 다음 날 동곽문의 교장에서 무예를 시험하는 연무를 열겠다고 공고하였다.

그날 밤, 양중서가 양지를 청사 앞으로 불러 말했다. "내가 자네를 군중 부패로 끌어주고 싶네. 매달 한 몫의 봉급을 받게 될 텐데, 자네의 무예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군."

그러자 양지가 대답했다. "소인은 무과에 급제하여 나온 몸으로, 예전에 전사부(殿司府) 제사(制使) 직역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열여덟 가지 무예를 어릴 때부터 익혀 왔습니다. 오늘 은혜를 입어 저를 끌어주신다니, 마치 구름을 헤치고 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양지가 만약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면, 반드시 함환배안(銜環背鞍)의 보은을 다하겠습니다."

양중서는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갑옷 한 벌을 하사하였다. 그날 밤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다.

다음 날 새벽, 때는 2월 중순이라 바람도 온화하고 햇살도 따스했다. 양중서는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양지를 데리고 말을 타고 앞뒤로 호위하는 무리를 거느린 채 동곽문으로 향했다. 교장에 이르자 크고 작은 군졸들과 수많은 관원이 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연무청 앞에 말에서 내려 청사로 들어갔는데, 정면에는 번쩍이는 은으로 만든 교의(交椅)가 놓여 있어 양중서가 그곳에 앉았다. 좌우 양옆으로는 지휘사, 단련사, 정제사, 통령사, 아장, 교위, 정패군, 부패군 등 관원들이 두 줄로 정연하게 늘어섰다. 앞뒤 주변에는 험상궂은 기세의 장교 백여 명이 위엄 있게 늘어섰다.

장대 위에는 두 명의 도감(都監)이 서 있었는데, 한 명은 이천왕이라 불리는 이성이고 다른 한 명은 문대도라 불리는 문달이었다. 두 사람 모두 만 명의 적도 당해내지 못할 용맹을 갖추고 수많은 군마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모두 한꺼번에 양중서를 향해 세 번 크게 "예!" 하고 대답했다. 이어 장대 위에 황색 깃발이 세워지자, 장대 좌우에는 서른에서 쉰 쌍의 금고수(金鼓手)들이 늘어서서 일제히 북을 울려댔다. 웅장한 뿔나팔 소리가 세 차례 울리고 북소리가 세 차례 이어지니, 교장 안의 그 누구도 감히 큰 소리를 내지 못할 만큼 엄숙했다.

이어 장대 위에 정평기(淨平旗)가 세워지자 앞뒤 다섯 군이 일제히 군기를 정돈했다. 장대 위에서 인군홍기(引軍紅旗)를 휘두르자,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오백 명의 군사가 두 진영으로 나뉘어 대열을 갖추었고, 군사들은 저마다 무기를 손에 쥐었다. 다시 장대 위에서 백

기를 흔들자, 두 진영의 마군이 일제히 눈앞에 도열하여 말의 고삐를 단단히 쥐었다.

양중서가 명령을 내려 부패군 주근을 불러 앞으로 나와 명을 듣게 했다. 우진에 있던 주근은 호출을 듣자마자 말을 타고 청사 앞으로 달려와 말에서 뛰어내리더니, 창을 꽂아 세우고는 마치 천둥이 치듯 크게 "예!" 하고 외쳤다.

양중서가 말했다. "부패군 주근은 본인의 무예를 마음껏 뽐내 보아라."

명령을 받은 주근은 창을 쥐고 말에 올라타 연무청 앞에서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며, 다시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도는 등 손에 든 창으로 몇 가지 초식을 선보였는데, 구경하던 이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양중서가 다시 말했다. "동경에서 보내온 군건(軍健) 양지를 불러라."

양지가 청사 앞으로 돌아서 나오며 크게 "예!" 하고 외쳤다.

양중서가 말했다. "양지, 네가 원래 동경 전사부 제사 직역의 군관이었으나 죄를 지어 이곳으로 유배 온 것을 내가 안다. 지금 도적들이 날뛰고 있어 나라에 인재가 절실한 때이니, 네가 주근과 무예의 높고 낮음을 겨루어 보겠느냐? 만약 이긴다면 곧바로 그 직책에 임명해 주겠다."

양지가 대답했다. "은상(恩相)께서 부리시는 명을 받들게 된다면, 어찌 감히 상공의 분부(鈞旨)를 거역하겠습니까."

양중서는 전마 한 필을 가져오게 하고, 갑장고(甲仗庫, 무기 창고)의 관리들에게 군기를 준비하게 한 뒤, 양지에게 갑옷을 입히고 말에 올라타 주근과 겨루게 했다. 양지는 청사 뒤로 가서 가져온 갑옷을 입고 단단히 조여 매었으며, 투구와 활, 화살, 허리칼을 차고 손에는 긴 창을 든 채 청사 뒤편에서 달려 나왔다.

양중서가 이를 보고 말했다. "양지는 주근과 먼저 창술을 겨루어라."

주근이 화를 내며 외쳤다. "이 죄를 지어 유배 온 놈이 감히 나에게 창술을 겨루려 하다니!"

그러나 주근의 이 한마디가 도리어 이 호걸(양지)의 비위를 건드려 주근과 무예를 겨루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번 비무를 계기로 양지는 만 마리 말이 들끓는 군세 속에서도 이름을 떨치고, 천 명의 군사 사이에서 으뜸가는 공(頭功)을 세우게 된다.

결국 양지와 주근의 비무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또 어떤 인물이 등장하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